

鄉脈 第17輯

楊平人物誌

(上)

張三鉉 · 文福姬 엮음



楊平文化院

鄉脈 第17輯

楊平人物誌

(上)

張三鉉·文福姬 著

題字：藥山 張 錫 鉉



楊平文化院

발 간 사

양평문화원장 김 유 택

21세기는 문화가 꽃피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지방자치체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문화원의 발전도 함께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는 세기가 되어 가고 있으며, 각 지방마다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 보존 하며 함께 나누며 가꾸는 문화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문화원에서는 향매 제17호로 楊平人物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록 대상 인물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조, 광복 전후로 양평에서 출생 및 우거 했거나 묘가 있는 역사적 인물. 각 성씨 일향조, 현감, 군수이상 경력자, 효자, 열녀, 충신, 애국지사, 항일독립운동가 등 각종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각 문중 총친회의 협조를 받아 인물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본지에 수록되지 못한 인물에 대해서는 차후 2편을 간행할 때에 수록될 예정이오니 양지 하여 주시고 유익한 사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짧은 기간 동안 각종 문헌자료와 각 문중을 방문하여 자료를 찾아 인물지를 편찬하신 잠삼현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향택지가 나오기까지 지원해주신 양평군수 권한대행 표영범부군수님과 군의회 이인영의장님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자료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양평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발간사에 가름합니다. ☆☆☆

향택지 인사말

양평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표 영 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우리 선조가 남긴 뚜렷한 발자취가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에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후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아득한 세월을 뛰어넘는 찬란한 빛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두터운 역사의 그늘 속에 무심히 안혀 있기도 합니다.

역사적 인물의 복원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책무이며 동시에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대상인물뿐 아니라 그 시대의 시대상, 선죽봉, 생활양식 등 다양한 부분도 복원될 수 있고, 더불어 지역민 특히 청소년에게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애향심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조선말기 대표적 심리학자 화서 이항로(華西 李) (호)선생(先生)을 필두로, 대한민국 역사에 뚜렷이 각인된 숭한 인물을 배출한 고창이며, 구한말 일제의 침략에 온몸을 던져 항거한 의병의 첫 출병지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의 역사적 인물 특히 근세 인물에 대한 조명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향택' 17호는 이러한 아쉬움을 크게 털어주는 무척 귀한 자료입니다. 삼국시대로부터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양평은 물론 우리 민족사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인물들의 발자취를 낱뉘이 발굴하여 한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이렇듯, 양평군민이라면 누구라도 꼭 읽어야 할 권독서! '향택-양

평인물지'를 발간하시라 무진 노력을 기울여 오신 김유택 원장님과 양평군문화원 관계자 모든 분께 8만 6천 양평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에 대한 판단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시대에 따라 역사적 의의와 평가가 사뭇 달라질 뿐더러,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역사적 평가 작업을 완수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그에 관련된 문헌과 사료의 양이 엄청나며 그 의의에 대한 평가 또한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문헌 및 사료를 파악하고 각기 다른 평가를 취합하여 역사의 한 부분을 정립함은 무척 지남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서, 집필자 장삼현 교수님께도 8만 6천 양평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 양평군의 향토사 발굴과 역사적 의의를 정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해 오신 노력과 방대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 이렇듯 훌륭한 책자를 집필한 바탕은 곧 양평에 대한 애정과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매우 투철한 까닭이라 여겨져, 더욱 그간의 노고와 공로를 깨닫게 됩니다.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건 발전의 원동력은 인간의 지혜와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과거 결산서인 동시에 미래의 지침서(指針書)입니다. 우리 선조의 삶을 되짚어보는 일은 곧 우리 양평 미래를 올바르게 개척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빌며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

머 리 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한다. 이 말은 인생은 영원할 수 없지만 인간의 민위적인 것(문화)은 영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 왔다 사라져간 億兆蒼生은 그동안 어떻게 살고 무엇을 남기고 어디로 갔을까?

한국사만 두고 보더라도 선사시대부터 근세조전에 이르기까지 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왔다가 간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우리 양평에도 수억년 전부터 수많은 인간이 와서 머무르다 갔다. 우리는 그 후예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사 이래 양평에 자리잡고 世居하여온 선조들, 또는 얼마간 寓居했던 인물이나 관련된 인물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다 갔는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조의 지혜는 후세가 본받고 교훈으로 삼아야 문명의 진보와 문화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조상이 이룩한 문화의 계승이 없다면 인류문명은 고통스런 삶 그 자체에 변주어머리고 만다. 그러므로 양평지역의 옛 인물을 발굴하여 그들의 삶이나 다양하게 남긴 자취를 추적하여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오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 ‘楊平人物誌’ 1, 2권을 편찬하는 이유가 있다. 필자가 1년간 조사발굴한 결과로 委氏에서 仁仁에 이르는 40여 한민 100여 명의 행적을 발굴 수록하여, 460여 페이지에 달하는 ‘楊平人物誌’ 1, 2권을 선보이게 되었다. 인물은 40여 십씨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였고, 부록에는 행적을 중심으로 효사 효부 일녀와 종신, 책

답유공자, 諡號를 받은 인물, 청백리, 문집을 남긴 인물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필자로선 조사발굴에 한계가 있고 淺見薄識하여 제공해주신 자료에 제대로 충실하지 못했고, 부족한 점과 보충해야할 점이 많다는 사실에 협조해주신 여러분과 독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爲先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남원양씨 梁惠錫 원장님, 연안이씨 李哲和 회장님, 덕수이씨 李光 회장님에게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미비한 기록에 미안함을 금할 수가 없다.

그래도 처음으로 양평군 권재의 인물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위로를 얻고자 한다. 누락된 인물과 기록이 너무 미비한 인물에 대하여는 새로이 발굴되는 인물의 기록과 합하여 '楊平人物誌 (下)卷'에 수록하여 완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80고령에도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野隱 洪正杓 선생과 전 문화원 사무국장 卞敦重氏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그동안 집필 자료제공 등 여러 가지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각 문중의 여러분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8만6천 양평군민의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2006년 12월 15일

집필자 識

*** 目 次 ***

발간사	1
인사말	2
머리말	4
제1편 姓氏別 人物	29
㉠ 관련 성씨	29
강씨	29
고씨	31
곽씨	31
구씨	33
권씨	36
김씨	46
㉡ 관련 성씨	88
나씨	88
남씨	89
노씨	90
㉢ 관련 성씨	91
맹씨	92
문씨	95
민씨	98
㉣ 관련 성씨	103
박씨	103

방씨	122
백씨	123
변씨	123
㉔ 관련 성씨	129
서씨	129
성씨	131
손씨	133
송씨	134
신씨	137
심씨	157
㉕ 관련 성씨	164
안씨	164
양씨	177
며씨	205
오씨	214
유씨	214
윤씨	231
이씨	245
임씨	354
㉖ 관련 성씨	358
장씨	358
전씨	372
정씨	373

목 차

조씨	384
지씨	393
진씨	394
☉ 관련 성씨	395
전씨	395
최씨	396
☉ 관련 성씨	413
안씨	413
암씨	416
어씨	419
홍씨	424
부록[附錄]	447
1. 양평의 孝子 · 孝節婦 · 烈女 · 忠臣	448
2. 양평의 獨立有功者	451
3. 양평의 清白吏	453
4. 양평의 諡號를 받은 人物	454
5. 양평의 文集을 남긴 人物	457
6. 양평의 文化遺蹟 指定人物	460
성명찾아보기	463



▲ 양근함씨 함왕 영정 (사나사 내)



▲ 홍보우 (1301~1382)



▲ 청백리 청강 이제신 (1536~1583)



▲ 화서 이항로 (1792~1868)



▲ 초당 강경서 (1443~1510)



▲ 오봉 이호민 (1553~1634)



▲ 소암 김이원 (1553~1614)



▲ 한음 이덕형 (1563~1613)



▲ 수곡 이여 (1645~1718)



▲ 백연 신무일 (1676~1736)



▲ 중암 김평묵 (1819~1888)



▲ 하거 양헌수 (1816~1885)



▲ 성재 유중교 (1832~1893)



▲ 면암 최익현 (1833~1906)



▲ 금계 이근원(1840~1918)



▲ 규당 이중하 (1846~1917)



▲ 의병장 이승룡 (1853~1896)



▲ 의병장 이만응(1857~1938)



▲ 백당 양규열 (1877~1945)



▲ 애국지사 여광현 (1885~1962)



▲ 제헌국회의원 유래원 (1888~1956)



▲ 양서 박준빈 (1892~1969)



▲ 애국지사 김영조(1896~1978)



▲ 애국지사 남상철 (1924~)



▲ 효자 이덕수 묘, 단월면 덕수리



▲ 이춘명 효자각·묘, 청운면 갈운리



▲ 효자 장회진, 효절부 벽진이씨 기행비, 서종면 노문리



▲ 유희진 충신, 유성중부인 선산김씨 정문, 양평읍 회현리



▲ 최광악·최병배 효자정문, 지평면 송현리



▲ 효열각: 방영환, 이정자, 전이란, 양동면 체육공원



▲ 청백리 유관(1346~1433) 묘, 감하면 왕창리



▲ 청백리 이승원(1428~1491) 묘, 옥천면 용천리



▲ 청백리 이명준(1572~1630) 신도비,
서종면 수입리



▲ 청백리 유상운(1636~1707) 묘, 옥천면 용천리



▲ 청백리 정창손(1402~1487) 묘, 서종면 수입리



▲ 청백리 이준경(1499~1572) 묘, 양서면 목왕리



▲ 남악 윤승길 (1540~1616)



▲ 순정효 황후 (1894~1966)



▲ 청백리 성영 (1547~1623) 신도비,
용문면 삼성리



▲ 용문 조옥(1498~1557) 묘, 용문면 덕촌리



▲ 한음 이덕형(1561~1613) 묘, 양서면 목왕리



▲ 칙명. 안정욱(1846~1891) 시호, 양동면 삼산리



▲ 장취오(1684~1770)가 받은 영조대왕 하사책, 서종면 노문리



▲ 입향조 송지 조승달(1345~1404) 묘, 용운면 조현리



▲ 입향조 병조참판 신신(1418~1496) 묘, 감성면 송학리



▲ 입향조 반남인 박태한(1649~1699) 묘, 용문면 연수리



▲ 입향조 고령인 박재정 묘, 서종면 정배리



▲ 입향조 홍률 묘, 양동면 계정리



▲ 박원겸(1479~ ?) 신도비, 단월면 보룡리



▲ 김유근(1785~1840) 간찰, 개군면 향리



▲ 김병주(1824~1888) 교지, 개군면 향리

ㄱ

강경서 / 김하

강경서(姜景紱, 1443-1510)

조선의 文臣. 자는 子文, 호는 敬堂. 본관은 晉州이며, 姜壽民의 아들이며 김종식의 문인이다. 1477년(성종 8)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정자가 되었으며, 1489년 교리로 진라도 암행어사가 되었다. 장령으로 1497년 문과증시에 병과로 급제하고 김의가 되었다.

이듬해 무오사화 때 김종식의 문하생이라는 이유로 회령에 장류되었다가 1501년(연산 7)에 풀려났다. 1507년(중종 2) 문신정시에 급제하여 승자대사간을 지냈다. 문집에 『草堂集』이 있다. 양서면 창계리 진주강씨 사당 敬慕齋에 봉안하고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草堂集, 韓國人名大事典, 成宗實錄, 中宗實錄, 燕山君日記, 晉州姜氏草堂公派世譜, 姜鎬範氏 제공》

강맹경(姜孟卿, 1416-1461)

조선조 문신. 자는 子章, 시호는 文景. 본관은 진주, 창녕현감 姜有德의 아들이다. 1426(세종 8년)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429(세종 11년) 증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인, 지승문원사, 사헌부집의 등을 지냈다. 1451(문종 1)년 충청원 우부승지에 임명되고, 이듬해 도승지가 되었다. 1453(단종 1) 이조참판으로서 계유정난에 추양대군

를 도왔다.

뒤이어 예문관세학, 의정부우참찬을 역임하였다. 1455년 수양대군이 난중의 왕위를 수선하는 일에 협력한 공으로 좌익공신 등에 책봉되고 진산부원군에 봉해졌다. 1456년(세조 2) 좌찬성을 거쳐 이듬해 우의정에 오르고, 하늘극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58년 좌의정을 거쳐 이듬해 영의정에 승진되었다.

묘소는 옥천면 신북1리 속칭 서촌마을 서편에 있다. 묘 앞에는 묘비, 상석, 장명등이 있고, 묘 좌우에는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신도비는 묘의 우측에 위치하는데, 현재 정면 1칸 측면 1칸의 보호각이 마련되어 있다.

비문은 신숙주가 짓고, 강희안이 글씨와 편자를 썼다. 신도비는 이수와 태좌를 갖추고 있으며 비신은 테리석재이다. 비의 규모는 높이 274cm, 폭 85.5cm, 두께 25.5cm이다. 묘는 경기도지방문화재 제154호로 지정되어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韓國文化遺蹟總覽, 양명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韓國人名大辭典,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 祥明大學校博物館》

강명덕(姜命德)

전주강씨 입향조. 자는 時晚, 본관은 晉州, 관직은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 姜聖謨의 첫째 아들이다. 본래 태종동년 대 서동에서 서종면 수입리 눈골로 이주했다. 무언이 원일정씨일 때 도문리 여양진씨 입향조 陳松과는 동서지간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는 것이다. 묘소는 서종면 수입3리 능골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晉州姜氏參判公派世譜, 姜東錫氏 재공》



강희립
(姜喜立, 1595-1666)

진주강씨 입향조. 자는 立中, 본관은 진주. 선공감역 姜典의 아들이다. 관직은 가선대부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 행 영릉감

봉을 역임했다. 과주군 교하면 다율리 남북촌에서 양서면 청계리 대아동에 복거함으로써 자손이 세기하게 되었다. 묘는 양서면 청계리 평촌 유좌에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晉州姜氏草堂公派世譜, 姜鎬範氏 제공》

고 아장(高 牙將)

한말 의병장. 지평 출신 포군이다. 지평의병진의 선봉장 김백선과의 형제관계였다. 그러나 의리가 있어서 김백선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대장 유인석에게 보고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1), 楊平義兵運動史, 韓末의 堤川義兵》

곽영준(郭英俊, 1899- ?)

독립유공자. 3.1운동. 곽영준은 단월면 부안리 271번지 출신이다. 21세로 농업에 종사하는 천도교도다. 3.1운동에 적극 참여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같은 고향출신 이신규(기독교인)와 8명이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1919년 8월 3일 이후 양평군민은 평온하여 시위운동을 하지 않은

을 유감으로 여겨서 동지들을 규합하고 독립선언서인 “우리 조선민족은 일본의 굴레를 벗어나서 분기하여 군중과 함께 독립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 수십 개를 뿌렸다. 대한독립회 명의로 된 “지금 각 경찰서에 형벌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미련한 무리처럼 보고 또 고종황제 배하를 암살하였다. 2천만 동포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된 지 10년을 능욕 당하였다. 나라 없는 노예가 되어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총칼 밑에서 죽는 것이 낫다. 독립의 시기는 왔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만나기 어렵다. 맹렬히 분기하여 민족을 단결하고 독립기를 높이 세양하여 형벌 속에 있는 형제 자매를 구하고 억압의 무리를 할 게 도박처럼 우리의 마음속을 살갓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동포여! 이 시기를 잃지 말고 독립기를 번득이고 맹렬히 분기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격문 수십 개를 뿌렸다.

지사는 양평군민들을 선동하여 많은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한 것이다. 8월 24일 갈산면 양근리 등 잡밭을 이용하여 군민 1천여 명의 군중에게 ‘조선민족은 이 기회에 독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정치연설을 강행하였다.

이렇게 하자 일본 헌병대는 지사를 질서안정을 방해한다 해서 보안법 위반이란 죄를 씌웠다. 그는 양평 헌병분전소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았다. 지사는 2차 선고형에 불복하고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우편초상 짐과 면장을 끌어내었다는 것으로 광성지방법원 경시부의 정역 8월 선고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2006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단월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구사심(具思謙, 1532- ?)

문신. 본관은 능성, 綾平君 具準의 첫째 아들이다. 통훈대부요 포천현감을 역임하였다. 묘는 서종면 문호리 소갈마동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綾城具氏世譜, 具滋龍氏 世譜】

구수영(具壽永, 1456- 1523)

조선조 문신. 자는 眉叔, 호는 一鰲, 본관은 능성, 중추부지사 具襄 具致洪의 둘째 아들이다. 12세 때 세조의 아우 영종대군의 사위가 되어 선략장군이 되고 오위의 부호군이 되었다. 이어 예종이 즉위한 뒤에는 은총을 입어 권총장군에 오르고, 1460년 성종이 즉위하자 원종공신에 책록되어 중추부동지사에 올라, 곧 중추부지사가 되었다.

1493년(성종 24) 오위도총부 도총관이 되어 중앙군을 통솔하였고, 상의원제조를 겸하였다. 1495년 사문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501년(연산군 7) 돈녕부지사가 되고 이어 종 1 종에 올라 논평부 판사가 되었으며, 1502년 의금부의 최고관직인 판사가 되었다. 1505년 장악원제조가 되어 2000명이 넘는 興濟·漣平, 光熙를 양성하여 연산군을 도와 한성부 관윤이 되었다.

1506년(중종 1) 출종반정의 거사가 계획되자 이에 가담하고, 중종 즉위 후 정국공신 2등에 책록되고 능천부원군에 봉해졌다. 그러나 연산군의 출복이었다는 탄핵을 받아 1509년(중종 4) 피직되었다. 중좌관성이다. 묘지명은 진주군 감혼이 지었다. 묘는 서종면 문호리 갈마곡에서 남양주시 금곡으로 천묘하였다. (서종면)

【參考資料: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國朝人物考, 綾城具氏世譜, 네이버 백과사전, 具滋龍氏 世譜】

구승경(具崇璟, 1486- ?)

경상구씨 입향조. 본관은 綾城, 봉황부원군 具滋永의 첫째 아들이다. 생원이 되고 봉준대부 양위현감을 지냈다. 묘는 서종면 문호리 갈마봉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綾城具氏世譜, 具滋龍氏 제공》

구연태(具然泰)

모범인. 본관은 능성, 함흥으로 서종면 가문호리에 거주하였는데, 자신의 집에 불러받은 남녀노부를 소집하여 놓고, 노비문서를 소각한 후에 일제히 해산하여 자유로운 신분이 되게 하여 주었다. 노비문서까지 소각하였으니 그 은혜가 참으로 아름답고 지극하다. (서종면)

《參考資料: 大韓每日申報(1909.4.13),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구원형(具元亨, 1601-?)

문신. 자는 通甫. 본관은 능성, 門庵處士 具思諱의 첫째 아들이다. 관직은 봉준대부 양주목사에 이르렀다. 병자호란 때에 오랑캐에 의해 피해를 당하였다. 묘는 서종면 문호리 소갈마봉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綾城具氏世譜, 具滋龍氏 제공》

구 인(具寅)

유학자. 호는 門庵. 본관은 능성. 오원현감 具思諱(1532-?)의 손자이다. 생부는 具思諱이다. 인조 때에 현몽감어, 희유부도사를

계수하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서종면 문호리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門龍處士라 하였다. 문엄치사는 원 중하고 앞 강변 쪽으로 활터를 만들어 활쏘기를 하는 등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다. 행장은 동향위 신익성(1588-1644)이 짓고, 묘갈은 연암 최익현이 지었다. 묘는 서종면 문호리 대갈마곡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綾城具氏世譜, 네이버 백과사전, 具滋龍氏 제공

구치홍(具致洪, 1421-1507)

조선조 부산. 시호 湖巖. 본관은 능성, 공주목사 具揚의 아들이요, 영의정 具汝龍의 동생이며, 능성부원군 具忠永의 아버지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고, 문무를 겸비하여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1467년(세조 13) 이시애의 난 때 사도도총사 구상군의 종사관으로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우고, 이시애·이시합 형제의 목을 가지고 와 서울에서 효시하였다.

1472년(성종 3) 해주목사로 나가고, 1475년 돈녕부동지사가 되었으며, 1482년 강릉대도호부사, 1488년 증추부동지사를 역임하였다. 1492년 그의 아들 수영이 돈령부판사에 오르자 그도 자헌대부에 올랐다. 묘는 서종면 문호리 갈마동에 있다. 묘지명은 함주김 姜渾이 썼다. (서종면)

【參考資料】 綾城具氏世譜, 네이버 백과사전, 具滋龍氏 제공

구 호(具鎬, 1622-1687)

유학자. 자는 汝用, 호는 下圃, 본관은 능성, 양주목사 具元亨의

〔楊平人物誌〕

둘째 아들이요, 백당 이작의 문인이다. 관직은 익위사사이다. 묘지명은 추관 이면하가 찬하고, 묘는 서종면 분호리 싯대울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綾城具氏世譜, 具滋龍氏 제공

권경기(權徹己, 1584-1661)

문신, 자는 子顯, 호는 川雨. 본관은 안동. 묘사 權克甲의 넷째 아들이다. 진사로 미승에 나가 참봉, 홍조과랑, 영조과랑, 도사. 참정 등을 역임하였다. 외적으로는 보은·평창·정풍·풍덕·안성군수를 역임했다. 호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원안시 원서면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安東權氏福密公派大譜



권경우(權景祐)

조선초기 문신. 본관은 안동, 자는 子縉이다. 判官 權贊의 아들이며, 대사헌 權景禧와 이조정랑 權景祐의 형이다. 1470(성종 1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

이 되었으며 뒤에 예문관 불교에 증진하여 사관 선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듬해에는 현주사의 감찰관으로 중국에 다니오면서 동사 조종은 등의 말무역을 겸할한 공로로 4계급 승진하여 사간원정인이 되었다.

이어서 통문관 추관으로 옮겨 제주정사관으로서 제주도민의 궁핍 현상을 지적하고 그 대책의 강구를 요청하였다. 이듬해 다시 사간원

정언이 되어 뒤사홍(1445-1506)이 국정을 농락함과 간사하기 이를 데 없음을 규탄하였다. 한편 국왕의 수렴환동에 있어 승지와 사관의 대동을 금하자 그 불가함을 주장하고 국왕의 거동에 대하여는 사소한 것이라도 기술힌하게 하였다.

1482년 홍문관 부교리로 있을 때 당시의 왕비 윤씨를 폐비시킨 처사의 잘못을 간언하다가 파직되었다. 1486년 직첩이 환급되어 예관으로 복직되고 이어서 사간으로서 평안도병마절도사 이조항의 군비 소홀과 군공사창을 탄핵, 면직시켰다. 그 뒤 형조참의, 동부승지, 우승지, 도승지를 역임하고 1488(연산군 4)년 사헌부대사헌에 올라 사할 건립의 불가함을 논하고 정승조이창신 등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그 해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동생이 주모자로 처형되었고 그도 연루되어 강릉부 관노로 배속되었다. 성품이 강직하여 권신에게 구차하게 아부하지 않았으며 직무를 품정히 다스려 많은 사람들이 감복하였다. 중종반정으로 적물 가산이 환급되고 죄명도 신원되었다.

묘는 지평면 수곡2리 동로마을 수곡서원 서편에 위치한다. 신도비는 묘소 입구에 위치하며 묘소는 능선을 따라 약 50m오른 곳에 남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신도비는 이수와 장방형 대좌를 갖추고 있으며, 동-서 함으로 서 있다. 이수와 비신은 일대적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월두형인 이수부에는 2마리의 용문과 괴운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비문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장방형대좌의 상부는 불당으로 처리되어 있다. 권경우를 배향하는 수곡서원은 양평군 향토유적 제20호로 지정되었다. (지평면)

【參考資料: 水谷書院誌, 楊平郡誌,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권경유(權景裕, ? -1498)

조선의 문신. 자는 경순(景順), 호는 楓軒. 본관은 安東, 관관 權景의 아들, 景宗의 문인이다. 진사로 1485년(성종 16) 별시문과에 별사로 급제, 1490년 사가독서를 하였다. 연산군 때에 교리·제천원감 등을 지냈고, 김일손과 함께 사관으로 있을 때 스승 景宗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은 사실을 그 후 1498년(연산군 4) 간신 때 유자광이극돈이 연산군에게 말함으로써 부오사화가 일어나 국문을 당한 끝에 아들과 김일손 등과 함께 사형되었다. 1506년 중종만정 후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권경유를 제향하는 수각서원은 양평군 향토유치 제30호로 지정되었다. (서평면)

【參考資料】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韓國人名大事典, 文化遺蹟分佈地圖(權平郡 詳明大學校博物館), 權平權校誌

권극중(權克中, 1560-1614)

조선의 유학자. 자는 擇甫, 호는 楓潭, 花山. 본관은 안동, 관할사 權德輿의 둘째 아들이다. 19세에 부계 절충 문하에 들어갔으며, 1588년(선조 21) 사마시에 합격했으나 대과를 단념하고 학문에만 힘썼다. 여러번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다가 내시교원이 되었으나 스승 성혼이 대간에 의해 탄핵을 받아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광해군 초에 세자익위사 세여가 되었다가 사퇴했다. 효행으로 나라에서 칭려하였다. 저서에 『楓潭集』이 있다. 묘는 서종면 수대울에 있다. 비문은 포서 조익이 짓고 특곡 서원원이 쓰고 아들 경기가 권하였다. (서종면)

【參考資料】 宣祖實錄, 國朝人物志, 朝鮮圖書解題, 安東權氏權密公派大譜, 韓國人名大事典

권기동(權箕東, 1458- ?)

효자. 자는 惟毅, 본관은 안동이다. 아들 權日華와 함께 두 부자가 효행이 지극하여 동몽교관이 증직되고 갑오년에 정려하였다. (용문연)

【參考資料: 砥平郡校誌】

권덕여(權德輿, 1518-1591)

안동권씨 입향조. 자는 致遠, 호는 川源, 鶴峰, 본관은 안동. 상주목사 權溥의 아들이며 송규암 문인이다. 1537년(중종 32) 진사가 되고, 1562년(명종 1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학사·간원·징언을 거쳐 헌납에 이르렀다. 1570년(선조 3) 동부승지로 특진되고 이어 좌부승지, 호조참의, 병조참의, 대사간·대사성이 되었다.

1573년(선조 6)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75년 황해도관찰사로 나갔다가 호조·병조·이조의 참의와 도승자부제학 등을 역임하고, 성주·광주·춘천목사, 황해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1579년(선조 12) 동서분당의 폐단을 지적한 백인걸의 상소문을 이이가 지은 것이 분제되자 이를 옹호하다가 대사간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제학으로 있던 1583년에는 박근원 등과 함께 이이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성주목사로 좌천되었다. 묘는 서종면 문호리 수대곡에 있는데 신도비문은 윗사 이정기가 찬하고, 동지돈녕 이현성이 서하고 선원 김상용이 전하였다. (서종면)

【參考資料: 安東權氏權密公派大譜, 韓國人名大事典】

권상전(權相鎔, 1678-1703)

문신, 자는 衡伯, 호는 龍巖. 본관은 안동. 판돈녕부사 權是紳의 셋째 아들이다. 국내 형사, 주부, 통정대부 원종장군 행 홍양위부호군 칭지 공주부사에 이르렀다. (서종면)

《參考資料: 安東權氏權密公派大譜》

권선경(權善卿)

한말의 지평의병. 지평 출신 모군으로 지평의병에 참여하였다. 선창자들과 동행이라고 거만하게 굴다가 지형당할 뻔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1), 權平義兵運動史, 韓末의 堤川義兵》

권성중(權聖中, 1682-1747)

문신, 자는 允伯, 호는 晚悟. 본관은 안동. 權相準의 아들인데 생부는 權相萬이다. 1717년(숙종 43) 현충참봉이 재수되고 그 후에 풍차, 지평, 양천현감, 의산현감, 예령군수, 진산군수, 고성군수를 역임하였다. 묘는 지평면 수대곡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安東權氏權密公派大譜》

권순열(權順悅)

출신, 본관은 安東. 절기감사 權諡의 둘째 아들이다. 별자호관시역의 순찰과 더불어 강화도에서 순찰했다. 사헌부 지평에 추증되고

정려하였다. (서종면)

《參考資料》 安東權氏權密公派大譜》

권순장(權順長, 1607-1637)

조선조 충신, 자는 孝元, 호는 睡窩, 시호는 忠烈, 본관은 安東이다. 서종면 임향조 도승지 권덕여의 증손이며, 형조참판 權盡己의 첫째 아들로 서종면 문호리 수대물에서 태어났다. 1624년 진사가 되고, 건원능참봉, 병고별제가 되고 음보로 의금부 도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1636년(인조14) 병자호란 때에 어머니를 모시고 종묘 세자를 따라 강화로 피란갔다. 거기에서 아우 순열, 순후와 동지를 규합하여 의병을 일으켜 갑진성 사수를 결의하고 결사적으로 항전하였으나 이듬해 정월 성이 함락되었다. 이에 좌의정 김상헌 등과 함께 스스로 분사했다. 아우 순열, 순경은 전사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인 권주이씨(1607-1637)와 13세 되는 여동생이 함께 종순하고, 종수인 이씨(?), 소씨(顯久 부인), 장씨(顯厚 부인)도 순절하였다. 충노 충비 남녀도 시체를 수습한 뒤에 자결하였다. 인조 때에 지평에 추증하고 자손은 녹용케 되었다. 숙종 때에 다시 증 이조판서와 증 좌원성을 추증하고 시호를 충렬이라 하였으며, 영조 때에 홍문을 하사하였다. 강화도의 충렬사에 제향하고 있다. 묘는 양서면 용담리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仁祖, 孝宗, 顯宗實錄, 國朝人物考, 安東權氏權密公派大譜, 韓國人名大事典》

권시경(權是經, 1625- ?)

조선조 문신. 자는 季常, 호는 仁休, 본관은 安東, 시호는 誥簡, 權應(攄)의 아들이다. 음보로 함흥 관관이 되고 1675년 (숙종 1)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장랑집의를 거쳐 1682년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1689년 승지로서 기사한국에 학직되었다가 1694년 갑술옥사로 함경도 관관사가 되었다. 뒤에 예조형조의 판서를 거쳐 관동영무사에 이르렀으며, 기묘소에 들어갔다. (서종면)

《參考資料: 肅宗實錄, 國朝榜目, 韓國人名大辭典》

권오돈(權五敦, 1913- ?)

독립유공자, 본관은 안동, 다른 이름으로 權九相이라고도 한다. 양평군 지체면 수곡리 633번지에서 1913년 출생하였는데, 서울 가회동 31번지에 거주하였다. 1929년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이듬해에 중퇴하였다. 1931년 둔경으로 건너가 함경도동자로 임하면서 연수학관에 다녔으며, 1932년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일반노동 조 성서지구 재정부 책임자가 되었다.

1933년 귀국하여 이재유의 조선공산당 새건 정당준비그룹에 가담하여 함경도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였으며, 9월에 경성 이리 공장에서 일어난 파업에 관여하였다. 조선공산당 새건 결성그룹 갑기사건으로 체포되어 1936년 7월 30일 결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위반죄'로 1년 6개월 징역 인도를 받고 그 날로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되어 옥살이를 마치고 1937년 12년 5월 24일 출소하였다. 정부에서는 2006년 3월 1일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서평면)

《參考資料: 西大門刑務所受刑者名單,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方弘奎 제공》

권위기(權爲己, 1586- ?)

유학자. 자는 學古, 호는 白渚. 본관은 안동. 극중의 다섯째 아들이다. 사계 김장생의 문인으로 1624년(인조 1) 진사가 되고 음보로 포천현감을 역임했다. (서종면)

《參考資料: 安東權氏樞密公派大譜》

권 유(權瑜, 1701-1766)

문신. 자는 子五, 호는 明南. 본관은 안동. 고성군수 權聖重의 첫째 아들이다. 참봉을 시력으로 봉사, 직장. 과천 현감, 암행어사 등을 지냈다. (서종면)

《參考資料: 安東權氏樞密公派大譜》

권일신(權日身, 1742-1791)

학자, 천주교인. 자는 省吾, 호는 稷庵. 본관은 안동. 관찰사 權巖의 아들이며 안정복의 사위이다. 양평을 양근리 갈산의 남인가문에서 출생하였다. 남인으로 양명학을 공부하다가 1782년 이벽의 권유로 천주교에 입교하여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았다. 포교에 전력하다 1785년 서울에 역관 김범우 집에서 교회집회를 열어 격발되었으나 양반실세여서 무사하였다.

1787년 이벽이 죽자 용문사에 들어가 신앙을 더욱 다지고 이승훈, 정약용 등과 더욱 건고한 교회의 건설을 위해 가성직제도를 세워 자신이 주교가 되고 이승훈·정약용·최창현·이단원·유항검 등은 각기 신부로 지명되어 본격적인 천주교활동을 하였다. 1789년에 가성직제

(楊平人物誌)

도가 부당한 것임을 알고 1780년 평산도로 돌아가서 포교에 전력하였다. 1791년 권한사건이 일어나자 흥남인·곡만중 등의 고발로 체포되어 유배가던 중 사망했다. 묘는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천전암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正祖實錄, 朝鮮基督教外交史, 내고성 경기도의 인물》

권일화(權日華)

효자. 본관은 안동이다. 아버지 權宜車와 함께 두 부자가 효행이 지극하여 동몽교관이 증직되고 甲子科에 전려하였다. (용문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권업(權燦, 1487-1538)

효자. 자는 惟忠. 본관은 안동, 權宜車의 아들이다. 용문면 삼철리에 묘가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권중훈(權重勳)

형일부사. 본관은 안동, 함평출신으로 1938년 양주군 봉안촌에서 갑룡기·여운형과 함께 새농민 이념관을 건설하자는 농민동맹운동을 전개하면서 독립운동을 암합리에 전개하였다.

1944년 10월 28일 용문산에서 각 군 농민대표 이장호·최용근·신재익·최용순·문용·신중진(여주)·박성부(고양)·주한집(용천) 등과 농민동맹운동의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일제의 정용 및 정병에 결

런 사람들을 도피시키는 운동과 궤적의 불자수송 때 수송로를 파괴하는 등 일제의 행정관서의 파괴 및 방화로 적극 대항한 활약상을 나타내고 있다. (양명읍)

《參考資料: 獨立運動史(10),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권진기(權盡己, 1577-1629)

문신, 자는 而恕, 호는 草廬, 본관은 안동, 효사 權克己의 첫째 아들이요 동감 남언경의 사위이다. 1606년(선조 30) 참봉으로 석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남상헌림 수찬, 응교, 동부승지, 도승지, 형조참관을 역임하였다. 외적으로 영변·춘천부사, 황해감사, 정기감사, 개성유수,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묘는 서종면 수대곡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安東權氏福密公派大譜》

권질(權盡)

안동권씨 입향조. 본관은 안동, 황주진병마첨절제사, 호조참판, 오위도총부부총관, 광주관관을 역임했다. 권질은 벼슬을 버리고 지평 칠읍산하에 낙향하여 세거하였다. 묘소는 지평면 월산리에 소재해 있다. (지평읍)

《參考資料: 砥平郡校誌》

권철신(權哲身, 1736-1801)

학자. 자는 旣明, 호는 鹿鹿, 본관은 안동. 관찰사 權巖의 아들로

본인의 형으로 양근리 갈산에서 출생하였다. 이익·이명휴의 세자로 성호좌파를 대표한다. 1777년(정조 1) 경기도 양주에서 장약헌·절약용·이벽 등의 南人 실학자들과 함께 서학교리연구회를 열면서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1801년(순조 1) 신유박해 때 정약중·이가원·이승훈 및 중국인 신부 주분모 등과 함께 체포되어 사형되었다. (양명읍)

《參考資料》 純組實錄, 朝鮮基督教外交史, 내고창 경기도의 인물》

권청기(權靑己, 1579-1630)

본신. 자는 脩升, 호는 松帶, 본관은 안동, 호자 權忠의 둘째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충청원 좌승지 군수를 역임하고,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임하고 학문에 힘썼다. 중의 가선대부 이조참판이다. 묘는 충남 부여군 석성면 천내리 봉황산에 있다. (석충면)

《參考資料》 安東權氏樞密公派大譜》

기 매(其每)

열녀. 귀화한 高麗인의 부인인데, 남편이 과음으로 鍾馗에게 복수하다가 죽자 같이 따라 죽을 것을 맹세하고 복매어 자결했다. 중종 15(1471년(중종 12)에 성리하였다. (양명읍)

《參考資料》 楊平郡誌, 中宗實錄》

김검용(金儉龍, 1356- ?)

학자. 본관은 양근, 입행조 승(仁隆)의 셋째 아들이다. 1396년(禔

12) 수의부위, 호익순위사, 우령산원을 역임하고, 조선초에 제주에 들어가 정의오조리에 살면서 서재를 세워 인재양성에 힘쓰고, 1402(태종 2)에 좌도지관 고봉례·문세충 등과 협조하여 진상마를 헌납하고 경기도 양평군 마유봉에서 양육하였다. 제자 김충광이 스승 검용의 보은으로 치삼례 하였다. 묘소는 북제주군 과읍 종달리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楊根金氏大同譜(2)》

김경성(金慶星, 1896- ?)

항일투사. 김경성은 갈산면 양근리 333의 출신이다. 투사는 1919년 32세에 조선독립운동의 주동이 되어 지역 양근리에서 군중 수백 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 활동을 하였다. 당시 이진규, 광영준이 일경에 체포되어 양평 헌병분견소에 잡혀가자, 두 분을 석방하라고 외치며 따라서 군중 수백 명과 같이 갈산면사무소, 군청 우편소의 문서를 찢어버리고 관청관료들을 구타하면서 창살문을 부서 버리는 등 격렬한 시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 체포되어 정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양평읍)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 獨立運動史,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判決文》

김경한(金景漢, 1907- ?)

경기도 초대 도의원. 양평군 청운면 출신으로 자유당 소속 양평 제 2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여주군 산림보호조합, 경기도 과주군 산림주사, 용두금융조합장 등을 지내고, 남

조선위법위원 양평군 대표, 경기도 양잠위원회 위원장, 청운중학교 설립 기성회장, 청운중학교 사인회장, 중앙양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도의회에서는 산업위원장을 지냈다. (청운면)

《參考資料: 전국지방의원업적전집,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김군석(金君錫, 1610- ?)

무신. 자는 承休, 본관은 연안, 연흥부원군 김제남의 손자이고 영주목사 金珣의 둘째 아들이다. 1613년(광해 5) 계축옥사 때에 71歲 次嗣 형제가 숙부인 초계정씨의 애지로써 놀라서 죽었다고 허위 상사치내고 야밤에 두 형제를 원주 외가댁으로 피신케 하였으나 외가에서도 위협하여 두 형제가 심야에 거리를 헤매다가 치악산 영원사의 승려를 만나 영원사에서 삭발위승하고 10년 동안을 피신하였다.

인조만장으로 신원되어 금부도사로 출사하였으며, 1647년(인조 25) 사헌부감찰, 1650년(효종 1) 형성원감, 1662년(현종 3) 순창군수를 거쳐서 1674년(현종 15) 군기시 첨정, 1681년(숙종 7) 군자감관관, 학지중추부사로 재직중에 1681년(숙종 12)에 별세하였다. 후에 봉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증직되었다. 묘는 강하면 왕상리에 있다. (강하면)

《參考資料: 韓國文化遺蹟總覽》

김귀용(金貴龍, 1352- ?)

무신. 자는 雲興, 본관은 양근, 김인찬의 첫째 아들이다. 1371년 경의금부사, 청난공신이 되고, 1383년 일화군에 봉해졌다. 묘는 광주

마근동에 있다. (양평면)

《參考資料: 楊根金氏大同譜(2)》

김극개(金克愷, 1474-1499)

조선조 문신. 자는 茂和, 본관은 광산, 공안공 판서 金謙光의 아들이다. 음보로 사직서령을 지내고 1519년(중종 1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병조정랑이 되었다. 훈련원 칙정, 사헌부 지평 등을 거쳐 1521년 사간, 사도사 부정, 이듬해 승정원 우부승지, 1526년(중종 21) 개성부 유수를 거쳐 1528년 예조참판, 경기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이어 형조참판을 지냈다. (옥천면)

《參考資料: 中宗實錄, 楊平文化遺蹟總覽, 京畿金石大觀, 韓國人名大事典》

김극빈(金克鎰, 1600-1628)

부마. 본관은 선산. 병조판서 金履元의 아들로 1600(선조 33)에 병산리에서 출생하여 1611년(광해 3) 선조대왕의 9녀인 정근옹주와 혼인하여 일선위에 봉해졌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등에 연루 곤욕을 치렀다. 1628년(인조 6) 허유와 유효립의 옥사 사건에 다시 연루되어 체포되었으나 역모 사실을 자백하지 않자 국문을 가하여 결국 1628년 29세에 사망하였다. 묘소는 강상면 병산리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善山金氏和義君派世譜, 全東星氏 제공》

김극선(金極善, 1878-1945)

독립유공자. 일명 金鎭德이라고도 하는데, 지평면 지평리 506번지 출신이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1919년 3월 1일 손병희 등 32명이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체포되자, 가업을 접고 동지들의 뜻을 계승하여 조선독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모임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체포된 33인의 뜻을 따라 3월 12일 시린성 영흥관에서 만나 독립운동계획에 대하여 상의하였다.

이들은 조선 13도의 대표자 명의로 일명 조선총독에게 대하여 “조선독립은 동포 2천만의 요구다. 우리들은 손병희 등의 후계자로서 조선독립을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독립선언문을 총로 보신각 앞에서 낭독하고 시위하면서 한편 좌상진·문성호가 1봉을 총독부에 제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 체포되어 1920년 2월 경성복심법원에서 모인 범 위반 혐의로 김극선은 문성호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88년, 1990년에 걸쳐 대통령표창, 건국훈장 애국상을 추서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 韓國獨立運動史, 경기인물지, 楊平義兵運動史,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判決文,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김기주(金箕周, 1760-1832)

량산김씨 일향조. 자는 金鼎, 본관은 광산. 金相宗의 첫째 아들로 순천에서 양수리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아들을 둘 두었는데, 첫째 아들 金在冕은 옥천면 신북리로 이주하고, 둘째 아들 金在衡은 양평

읍 공흥리로 이주하였다. (양명면)

《參考資料: 光山金氏襄簡公派譜, 김호흥씨 증언》

김기희(金基喜)

김주김씨 입향조. 자는 建松, 본관은 慶州, 金誠謙의 아들이다. 이주하게 된 연유는 부친 성진이 본디 원주에서 살았는데, 성진이 소시 적에 선대가 있는 양주로 가다가 옥천에서 머물러 용씨네 집에서 살다 신에2리 461번지로 이주 정착하였다. 기희의 아들 商洵商夏·商殷 3형제의 후손이 양평군 내외에 산거하고 있다. 묘는 신에1리가장곡에 있다. (양명면)

《參考資料: 慶州金氏世譜, 全周興氏 證言》

김노수(金魯洙, 1874-1952)

의병장. 자는 魯洙, 일명 魯丙洙, 호는 白常, 본관은 光山, 옥천면 신북리에서 金永錫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이어지는 일제의 만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1907년 의병장 이인영이 서울 공략을 위한 13도창의대진을 결성할 직에 안무장에 임명되었다. 7월 고종의 강제퇴위 사건과 청미칠조약, 군대해산 등에 의분을 참지 못하고 34세의 나이로 의병을 일으켰다.

김노수는 의병 800여명을 모집하고 중군장에 한창이(性文), 광모에 맹일호(김준수의 대고모부인 맹영재의 아들)를 임명하고 홍천·여주·가평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당시 군량미는 원터리에 사는 이실연이 조달하였다. 7월에는 진병산에서 패한 춘천의병장 유홍석의

전여 백력을 인수받아 항전하였고, 동년 8월에는 의병 100여명을 이끌고 양주군 광릉천에서 전을 치고 있었다. 이 때에 서울에서 귀환하는 민응서를 포섭하여 양평 포천 가평 지평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10월 초에는 여주에서 일본군 30여명을 죽이고 그 후에 홍천 지역과 양평 지역에서 항전하였다. 가평 남이섬에서 부상을 당해 체포되어 준천 감옥에 구금되었다. 구사일생으로 감옥을 탈출하여 반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강원도 회양에 은거하며 후학을 양성해냈다. 그 향으로 돌아온 김노수는 그동안 가족이 일제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였기에 개군면 공세리로 이주했다가 다시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로 은둔하였다.

이기서 이병노·이승노·손천복·김순봉·삼분찬 등 후학을 배출하였다. 그 후 개군면 내리로 이주하여 이성연의 집에서 다년간 글을 가르쳤다. 여기서 광부한 김노수의 제자들은 박관화·박철수·송규형·송방현·이남규·이덕훈·이명효·이분재·이용운·이종권·이혁훈·최진영·황만석·황순돈·황한석 등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가족과 자산을 돌보지 않으며 왜적과 싸웠고, 창씨개명도 하지 않았다. 산발도 변복도 하지 않은 채 기계와 지로가 있는 선비로 여생을 보내다 6.25동란 중 1952년 3월 23일 79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옥현면)

《參考資料: 楊平義兵運動史, 畏堂先生三世錄, 獨立運動史資料集(2), 判決文, 金鶴保 의병장의 三女 金容千氏 請書》

김당연(金鎭衍)

경주김씨 임향조, 본관은 성주. 義州의 횡해 이들로 통명 金鎭衍과

같이 흥천군 동면에서 양서면 신원리 천곡으로 이주하였다. (양서면)

《參考資料: 慶州金氏鶴林君派世譜, 後孫 金龍吉氏 증언》



김 도(金濤)

고려 문신. 자는 長源. 본관은 연안이다. 공민왕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전주사목, 정언을 맡았다가 파직되었다. 1370년(공민왕 19) 정조사 권균을 따라 명나라에 들어

가 이듬해 중국의 제과에 급제, 동창부 丘縣의 丞에 임명되었으나 중국어에 서투르고 고향에 노친이 있음을 이유로 사퇴하고 귀국했다.

우사간 예문관 응교에 발탁되고 성균사에 올랐다. 우왕 때에 밀직제학으로서 찬성사 홍종선에게 아부하여 권신 이인임(? ~1388)의 미움을 받았다. 노비가 연경궁 옛터의 돌을 훔쳤다 발각되어 탄핵을 받았으나 환관 이득분의 도움으로 화를 면했다. 뒤에 찬성사 양백언(? ~1379)의 옥사 때에 무고로 인하여 梟首되었다. 강하면 왕창리에 부인 죽성부인과 함께 봉살하였다. (강하면)

《參考資料: 高麗史, 高麗史節要, 韓國文化遺蹟總覽, 延安全氏族譜, 韓國人名大事典》

김돌이(金堉伊, 1881-1908)

김돌이는 김해김씨다. 옥천면 옥천리 사람으로 대릴 내의 임금을 호위하는 시위대였다. 1907년은 일제의 치밀한 계획 하에 군대가 해

산되었다. 일본 통감부와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케 하였다.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통감부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요 무기와 탄약은 일본군 관할하에 두어 한국군의 화력을 약화시키고, 군대해산 때 생긴 한국군의 무리항쟁을 예상하여 한국군에게 불응을 내린 후 화약과 탄약으로부터 갈수하였으며, 주한 일본군의 승과 및 총기 6만 정까지 보급을 받아, 1907년 7월 31일 순종으로 하여금 군대해산조치를 내리게 하여 8월 1일 서울에서부터 집행하였다.

부대의 각 대대장은 해산 내용을 중대장들에게만 알리고 사병에게는 일체 비밀에 붙인 채 훈련원에서 도수연습이 있으니 전 사병은 무장해제를 하고 10시까지 집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제1연대 제1대대와 제2연대 제1대대의 장병들은 군대해산을 미리 알아차리고 이를 반대하여 항쟁을 일으켰는데,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병영 사수를 외친 서울 시위연대 제1대대의 항거는 대대장 박승환의 차질을 계기로 제2연대에까지 과급되어 서울 시가전으로 번졌다.

무장 해제된 군인들은 집단으로 항거하거나 의병전에 합세하였다. 1907년 군대해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투쟁이 소위 임의 의병이다. 1907년 옥천면 신복리 출신 김준수(=金準洙)는 의병 800명을 모집하여 홍천 어주 가평 양평 등지에서 항전하였다.

시위대소속으로 무장이 해제된 김동이는 분개하여 1908년 9월 3일 서울 종로 3가 단정사 앞 노상에서 시위를 벌이던 일본측 총탄에 의해 아할 순국하였다. 이때 김동이는 1907년 늦가을에 강주이씨와 결혼하여 이씨가 임신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부인 강주이씨는 1908년 12월에 유복자 김득동을 낳았다. <옥천면>

【參考資料】 楊平義兵運動史, 楊平郡誌, 全順敦氏 재공)

김만식(金晩植, 1834-1900)

조선의 문신. 자는 器離, 호 淸堂, 본관은 淸風이다. 1861년(철종 12) 진사시에 합격하고, 1869년(고종 6)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동부승지공조참의 등을 지냈다. 1882년 수신사 박영효를 따라 수신 부사 겸 전권부관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1883년(고종 20) 신문을 출판하는 박문국을 신설하고, 한성순보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1894년(고종 31) 평안도관찰사로 임명되었으나, 청일전쟁으로 병부를 잃어버려 원주에 정매되었다. (양근)

【參考資料: 韓國史 속의 楊平史, 네이버지식인】

김매순(金邁淳, 1776-1840)

조선의 성리학자. 자는 禮叟, 호는 龜川, 시호는 文南, 본관은 안동, 삼남 김창흡의 4대손, 증 이조참판 金履謙의 셋째 아들이다. 1795년(정조 19)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김일사인을 거쳐 초계문신이 되었고 예조참판·강화부 유수 등을 역임했다.

문장은 홍석주와 함께 당시 으뜸으로, 고려 조선의 십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혔다. 학문은 한원진의 학설을 지지하는 호론에 속하였으며, 덕행으로 저명했다. 고종 때에 관서에 추증되었다. 저서에 『龜川集』, 『纂餘日錄』, 『朱子大全別問標補』, 『淵陽識時記』 등이 있다.

대산은 서종변 노문리 벽계에서 살았을 때, 다산 정약용(1762-1836)이 차주 왕래하였다. 매순이 가난에 허덕이던 다산에게 농사지을 논을 줄 것이니 들어와 농사를 지으라고 하여 아들 셋을 데리고 3년간 농사를 지으며 살았었다. 그러나 실패함으로 다시 와부면 농네리 마

현으로 돌아왔다. 묘소는 양평 목민 현현리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韓國人名大辭典, 蘆山集, 남양주형토사료관 임병규 관장 증언

김민현(金敏鉉, 1878-1952)

3.1운동, 본관은 광산이다. 김민현은 양평군 사종면 상매리 출신이다. 1919년 3월 전국적으로 반제운동이 전개될 때에 박중빈, 조카 김영일 등의 함께 바일리에 태극기를 제작하고 거사에 참여할 준비를 하였다. 이들은 시흥의 밀우회와 연락을 취하면서 양평읍에서 반제운동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일경의 부차비한 탄압으로 군중은 해산하고 박중빈·김민현 등은 마을로 돌아왔다. 그러나 한 주연의 밀고로 김영일, 박중빈, 김민현 세 의사는 밀경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양평경찰서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 양주 현병분견대로 이송되어 보안법위반 죄로 3개월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하였다.

이들은 4개월만에 귀가하였는데, 요시찰 인물로 분류되어 일제의 감시를 받았다. 현재 발견된 지분장에 김영일(영조)은 기록되어 있어 독립유공자로 표창을 받았으나, 박중빈과 김민현은 기록이 없어 포상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獨立有功者功勳錄(14), 白雲文化(제13호), 蘆山鄉誌, 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光山金氏族譜

김백선(金伯善, ? -1896)

독립유공자. 한말 의병장. 본관은 경주나. 김백선은 정종면 출신

으로, 양동면 금왕리에 살았다고 하며 百先이라고도 한다. 1894년 동학운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토벌하기 위하여 지평 감역 맹영재와 같이 포수를 모아 훈련을 시키고 홍천·양평·여주 등지의 동학군을 토벌하고 인근 일대의 평안을 되찾게 하였다. 이 공로로 칠총장군의 교지를 받았다.

그는 국모가 시해를 당하고 또 임금의 강제로 머리를 깎는 변고가 있자, 비분강개하여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동학군을 함께 토벌하고 지평현감이 된 맹영재를 찾아가서 군사를 일으킬 것을 권고하였다. 관원으로서 입장이 난처한 맹영재가 이해관계를 말하며 응하지 않자 크게 노하여 총을 트락에 던지고 집으로 돌아와 자결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때에 괴은 이춘영이 찾아와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유하였다. 괴은 이춘영은 이미 지평고을에 잘 아는 포군들에게 시국의 위급함과 인수의 화급함을 들어 설득하여 호응이 좋았다. 이에 포수령 김백선을 찾아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지평고을 맹영재 휘하에는 1년전 동학도를 토벌하던 포군 400여 명이 있었다. 김백선이 포군들에게 “적을 토벌하여 임금의 은혜를 갚자” 하고 설득하니 모두 감복하여 의병대열에 서게된 것이다.

김백선과 이춘영은 군사를 모집하여 원주 안창역에 집결시켰다. 그리하여 김백선·이춘영·안승우는 지평의병의 주역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1,000여 명을 이끌고 원주읍을 침령하고 채원으로 진군하였다. 김백선은 지평의진이 채원에서 이필회를 대장으로 하여 재편될 때 선봉에 오르고 영월에서 유인석을 대장으로 확대 개편될 때 선봉장 임무를 부여받았다.

새로 개편된 지평(호좌)의진은 증주로 공격하기로 계획하고 선봉

할 김백선에게 군사 300명을 주어 12월 30일 진군하였다. 대군이 성 아래 나앉았으나 성문이 굳게 닫혀 들어갈 수 없었다. 김백선은 밤을 틈타 동문을 넘어 들어가 문지기를 죽이고 성문을 열어 충주성을 점령하였다. 이 때 김규식이 도망가서 민가에 숨어 있는 것을 오병준이 체포하여 처단하였다.

적군은 모두 북문으로 달아났다. 성을 점령한 선봉장 의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려는 적들을 무찌르고 십백 가까이 있는 적들을 끌어다 놓고 돌벼락을 안겨 처단하였으며 밤이면 성 밖으로 나가 적들을 저습하여 부절렀다. 그러나 적군이 다시 쳐들어올 기미가 있어 김백선은 적을 추격하여 멀리 쫓아냈다. 그러나 충주성의 함락은 선봉장 김백선의 공이 컸다.

선봉장 김백선은 가흥 방면으로 진격하여 2월 3일부터 충공세를 가하였다. 그런데 가흥 방면의 적에 대하여는 선봉장 김백선을 중심으로 후군 및 좌우군이 협세하여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다. 때문에 이르러 군사의 수가 적음을 깨달은 선봉장 김백선은 군사를 머물게 하고 본진에 직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중군장 안승우는 병력을 보낼 형편이 못되었다. 그리고 어주외명장 심상희가 원주에서 청풍 쪽으로 왔다가 구원해주겠다고 말했으나 전투에는 참가하지 아니했고, 참장 한동직은 원주에서 군사를 모집하여 세천으로 나오다가 원서에서 가흥으로 진군하는 지령의 병을 만나 박음터로 나갔으나 바라던 만담의 병력이 못되었다. 더구나 전투에 임해서는 한동직의 군사는 싸우기를 주저하며 멀리 퇴각하였다.

김백선은 원병이 오기를 기다리며 용전 분투를 하였으나 중과부적이라 수많은 원사실자만 내고 후퇴하여 알을 수 없었다. 이에 김백

선은 제천 문진으로 돌아와 지원병을 보내지 않은데 대하여 중군장 안승우에게로 달려갔다.

김백선은 가흥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안승우가 지원병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안승우를 처치해버리겠다며 반란을 일으켰다. 조반식사를 마치고 남산에서 진법을 연습하는데, 김백선은 부장한 군사 30명을 이끌고 칼을 휘두르며 진중을 헤치고 들어와서 긴 길을 높이 들고 곧장 대장(의암) 앞으로 달려들어 몇 발자국 안에 변이 날 것만 같았다. 온 진중 상하가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유인석 대장은 김백선의 태도에 대하여 안색도 변하지 않고 화평한 말소리로 이르기를 “선봉이 취하였는가, 왜 또 망령이고, 내가 늘 술에 너무 빠지지 말라 하였는데, 왜 듣지 아니하는고” 하였다. 이에 김백선이 칼을 던지고 땅에 엎드렸다. 명령하여 묶고 군율로 다스리라 하자, 옆에 있던 어강년 장군이 간섭히 말렸다. 안승우도 차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용서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유인석 대장은 실수가 한 두 번이 아니었던 김백선을 군사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참수하고 말았다.

1991년 3월 정부에서는 전국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청윤면)

【參考資料】 報載業, 獨立運動史資料集(1), 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II), 下沙安公倡義事實, 楊平義兵運動史,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의병대장 李康季

김병주(金炳柱, 1824-1888)

조선후기 문신. 자는 輪初, 호는 小山, 시호는 孝文, 본관은 安東, 좌의정 金弘植의 아들로 이조판서 金道根에게 입후되었다. 1848

년 증광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1849년 예문관 검열, 1851년에 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1852년 홍문관 수찬, 1853년 규장각 직각,
1856년 성균관 대사성, 1857년에 홍문관 부제학, 1858년 규장각 직
제학, 1859년부터 1863년까지 한성부 관유, 대사헌, 이조참판, 형조
판서, 예조판서, 경상도 관찰사, 좌참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1863년 통선대원군 집정 이후 병조판서, 이조판서, 의정부 좌참판
등을 역임하고 1875년 한성부 제1을 지냈다. 개군면 향리 근처 양
탁리에는 김소산의 별장이 있었다. 소산은 1892년 임오군란 때에 낙
향하기도 하고, 다시 상경하여 관직에 있다가 물러난 이후 가솔들과
함께 낙향하였다. 묘는 개군면 향리 산11-5번지에 있다. (개군면)

《參考資料: 高宗實錄, 顯朝榜目,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驪州郡史, 서울
六百年史,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김철동씨 재공》



김사형 (金士衡, 1333-1407)

초전각기의 문신. 자는 平甫, 호
는 翁樞. 시호는 韓元. 본관은 女
史. 무지밀직사사 龜藏의 아들이
다. 음보로 영계관학이 된 뒤 검찰

규정을 지내다가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1377(우왕 3)년에 사헌부
집의에서 조준 등과 함께 대간직에 이르러 당시 명권의 칭송을 받았다.

그 후 개성윤에서 보리공신에 책록되고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단
행한 뒤 교주장흥도도관 도출직사로 나갔고, 1380(공양왕 2)년에 지
밀직사사 겸 대사헌이 되고 이어 직문하부사로 승진되었다. 1382년
이성계를 추대한 끝으로 불하시랑평장사에 배수되고 관직사사사와

병조전서를 겸입하였다.

조천개국의 논공에서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되고 문하시중에 제수되었으며, 상락(안동)백의 작위와 식읍 1천호 및 식실봉 300호를 받았다. 1396(태조 5)년에는 좌정승으로서 오도병마도통치사가되어 대마도를 토벌하러 갔다가 다음에 창월에 환도하였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는 백관을 거느리고 태궐에 나아가 장자에게 선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성종 즉위를 도운 공으로 정사공신 일등에 책봉되었다. 1399(정종 1)년 등극사로 백에 다녀와서 판문하부사가 되고, 1401년 다시 좌정승이 되었다가 이듬해 임시 평부사를 지낸 다음, 상락부원군에 봉해진 뒤 관직에서 물러났다.

신도비는 양서면 목왕리 그의 묘소 입구 도로변에 홍살을 두른 사모지붕 비라 내에 서향하여 있다. 비문은 자연대부 이우면이 찬하고, 18세손 김성목이 전을, 20세손 김리희가 글씨를 썼다. 묘는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07호로 지정되어 있다. (양서면)

【參考文獻：楊平文化遺蹟總覽，京畿金石大觀，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 鮮明大學校博物館)，韓國人名大辭典】

김상규(金相奎, 1699- 1783)

광산김씨 입향조. 본관은 광산, 金萬謙의 아들이다. 상규는 양수리를 왕래하였는데, 춘천에서 작고하여 춘천 선오지 행촌에 장사지내고, 부인(천주이씨천령女)은 양수리에서 별세하여 양수리 권현미에 장사지냈다. 아들이 箕周인데 묘가 용진 묘사동에 있다. 기주가 金在榮 金在衡 두 형제를 두었는데, 그 후손이 임평에 산거하였다. (양서면)

【參考資料：光山金氏襄簡公派譜，김호중씨 증언】

김상기(金商基, ? - 1924)

한말의 의병. 자는 德俊, 본관은 慶州, 용문면 출신이다. 단양군 적십면 상원리에서 이주하여 살았다. 1907년 이강년 등과 함께 거의 하여 충청북도 일대와 강원도, 경상북도 등 삼도에 걸쳐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11년 양평에서 의진이 해산 할 때까지 계속 항일의병활동을 계속하였다. 그 후에는 매포면 삼곡면에서 은거하다 1924년 타계하였다. (용문면)

【參考資料】楊平義兵運動史, 江原道抗日運動史(II), 韓宋의 堤川義兵, 丹陽郡誌,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김상원 (金相元, 1665- ?)

조선 후기 문신. 자는 謙福, 본관은 延安. 김홍의 아들로 金謙에게 입양되었다. 1687년(숙종 23) 청시문과에 명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집일이 되고, 시강원설서를 거쳐 1707년 관설서가 되었으며, 3년 후 장언이 되고, 문하를 지냈다.

1713년 홍문관에 들어가 수환·교리 등을 지냈으며, 1715년 補德·응교 등에 임명되었고, 1718년(숙종 44) 승지를 거쳐 대사간, 1720년 강원도관찰사로 나갔다. 1725년(영조 1) 개성우유수를 지내고 1727년 다시 대사간이 되었다. 한편 서해에 뛰어났는데, 특히 송선재를 잘 썼다. (강아면)

【參考資料】肅宗實錄, 聖宗實錄, 英祖實錄, 韓國人名大辭典】

김 선(金銑, 1750- ?)

조선의 문신. 자는 擇之, 시호 孝憲, 본관 延安, 현감 金翼均의 아들이다. 1792년(정조 16)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禮曹佐郎 등을 거쳐 1806년(순조 6) 大司諫이 되고, 이어 강화부 유수·개성부 유수 등을 역임하고, 형조판서·한성부판윤에 이르렀다. 묘는 강하면 왕창리에 있다. (강하면)

《參考資料 正祖實錄, 延安金氏世譜, 韓國人名大事典》

김석규(金錫圭, 1864-1905)

문신. 본관은 안동, 이조참판 元根의 손자, 金炳池의 아들인데 생부는 金炳洙이다. 영안부원군 김조순의 사손으로 고종의 명에 의하여 1886년 교관이 되고 그해 증광별시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1889년 규장각대교에 임용되었다. 그 후 시장원 겸문학,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1893년 이조참의가 되었다. 봉상시 제조, 궁내부특진관 등에 증용되었다.

1899년 일본주재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 법무국장, 협판, 법률기초위원회 위원장, 평리원 판사, 한성제판소 수반판사, 형법교정관을 지냈다. 1904년 법무협관으로서 장효익 등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자들이 천일파를 내세워 역모한 사건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1903년 동국문헌비고의 증보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묘소는 개군면 계전리에 있다. (개군면)

《參考資料 安東金氏世譜, 羅州郡史》

김석봉(金石鳳, 1899- ?)

3.1운동자. 김석봉은 갈산면 양근리 154번지 출신이다. 김석봉은 직업이 요리집 고용인이었다. 20세의 청년인 그는 서상석과 이웃 동향인인 한창호, 김정성, 한봉철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하다가 일본 헌병분견소로 끌려가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에 처하여 옥고를 치렀다. (양평읍)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叢刊(5), 楊平義兵(運動史, 判決文,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김선동(金先同, 1896- ?)

독립투사. 김선동은 양서면 선원리 191번지 출신이다. 그는 농사에 종사하면서 1919년 3.1독립운동이 발발하자 평성시, 한봉철, 김홍훈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서면에 거주하는 이용준, 신유관 등 선도들과 함께 항일문서를 발송하게 하였다. 그는 양평군청, 경찰서에 「사형집행선고문」을 우송하고 독립신문을 뿌리며 적극적으로 조선독립운동을 맹렬히 전개하면서 독립단위의 업적을 남겼던 것이다. (양서면)

《參考資料》 明治百年史叢書,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김섭한(金漣漢)

안안김씨 시조. 김섭한은 선라 김안시의 후손으로 안안김씨 선사에 왕손으로서 두 형제 왕자가 왕에게 직간하다가 왕이 노여움을 사서, 형은 北濱君 지금의 강릉으로, 아우는 岐陽公 지금의 연안으로

유배되었다. 이 아우 김섬한을 식조로하는 후손들이 연안김씨라고 한다. 그는 고려 명종 때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다음해에 문과에 급제하여 국자감 사문박사를 지내고 학문에 뛰어났다. 강하면 왕창리에는 연안김씨 시조 김섬한의 묘와 그 이하 선조의 묘역이 있고 절원재가 있다. (강하면)

《參考資料: 韓國文化通蹟總覽》

김성화(金聖化, ? -1896)

지평의병. 지평 출신으로 1895년 을미의병 때에 참전하여 1896년 유인석 대장 휘하에서 중주 가흥 전투에서 김정순·손덕화 등과 함께 전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200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從義錄, 湖西義兵事蹟, 楊平義兵運動史, 驪州郡史, 獨立運動史資料集(1)》



김여지 (金汝知, 1370-1425)

고려 및 조선의 문신. 자는 子行, 시호는 文翼, 金湫 아들이다. 1389년(창왕 1) 문과에 장원. 정언, 사헌규정 등을 역임했다. 조선 태종 때 장령, 예문관 직제학, 집의를 거쳐 1413년(태종 13) 지신사로 고려 충실의 후손 別所末의 동정을 알고 보고하지 않은 죄로 파면되었다. 이듬해 다시 직제학으로 기용된 뒤 충청도관찰사와 대

지현을 거쳐 1417년(태종 17) 공조 판서에 오르고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었다.

이 해 태종이 즉위하자 관한성부사로 정초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서 이듬해 병으로 사되었다. 그 후 1425년(세종 7) 예조판서와 참찬을 역임했다. 묘는 양평군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되어있다. (강하연)

《參考資料》 高麗史, 世宗實錄, 韓國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 鮮明大學校博物館)

김영규(金英圭, 1888-1919)

독립운동가. 김영규는 지체만 곡수의 출신이다. 지사는 1919년 4월 11일 양평 지체만 곡수 장터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이상민 등과 전투 대열에 나서 시위군중을 주도 지휘하며 조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때에 급거 출동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32세의 나이에 시위군중이 지키보는 헌정에서 총살당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인의 공훈을 기리고자 1977년 대통령 표창, 1997년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2),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獨立運動史資料集(5), 獨立有功者功勳錄, 白雲文化(5)

김영수(金永壽)

문신, 자는 爾端, 본관은 楊根, 좌명완종공신을 차념으며 증의 가 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이다. 묘는 양주에 있다. (양평면)

《參考資料》 楊根金氏大同譜(2)

김영조(金永祚, 1896-1979)

독립유공자. 자는 永一, 호는 川山, 본관은 평산인데, 1896년 11월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51번지에서 俞承鉉의 독자로 태어났다. 김지사는 어리서 실용이 강직하고 호걸의 기상으로 의기가 있어서 매사에 속임이 없고 결단성이 있으며 불의에 대하여는 좌시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다. 일찍이 화서선생의 문인이요 외조부인 박영복에게서 수학하였다. 그러므로 위정척사사상의 영향을 받아 애국애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사는 자손들에게 엄한 가정으로서 항상 부모에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라고 가르쳤고, 옛 성현의 도를 배우고 조상을 받들어 사람의 근본됨을 잊지 말라고 하였다. 지사는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일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할 것인가를 걱정하였고 일제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랐다.

마침내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당시 수릉리 이정봉은 서울 종로 3가에 소재한 독립운동 단체인 연우회(가칭 사냥꾼모임)에 청년 42명중 한 사람으로 양평 만세운동 주동자인 여운형에게 밀지를 전하고 전달받은 하였다. 3월 1일 여운형 주도 하에 망평읍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기로 되어 있었다.

이때 지사는 정배리 대표자로 이정봉과 연락을 취하고 은밀히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동네 사람들과 태극기를 준비하는데 원이 잘 안되어서 대집을 열어놓고 원을 그려서 태극기 100여 개를 만들었다. 지사는 3월 1일 새벽 숙부 김민현(1878-1952)과 외숙 박중빈(1881-1961)과 함께 양근 읍대로 발길을 계속하였다. 이날 이상기·유근학(절배)·이우삼(매곡)·조성열(갈실)·여인형(문호리)·문호리 바깥밭의 이순창, 서후리 이정봉(1901년생) 등도 양근읍대로

출발하였다.

지사는 정배리 책임자로서 동네 사람들과 비밀리에 만들어 둔 태극기용 치통(싸리가지로 만든 독같은 것)에다 100이 자루를 넣고 불땀이 몇 개로 찢어놓고 등에 지고 밭고개를 넘어가 보거리에서 모두 만나서 비를었다. 그리고 일부는 읍내로 들어가고 일부는 출입자를 통제하였다.

당시 양평지방의 반세운동은 강상·강하·양서·서종면은 읍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난을 기하여 일으키기로 되어있었고, 양평의 동부지방인 용문·양동·개군·단월은 지세면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다. 당시의 본부는 함산에 두고 서로 연락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떠드령산과 역전뒷산, 군성뒷산 등 대 군에서 잠복하여 읍내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겐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반세운동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는 쌍을 틀러 압호하고 대기조가 들을 번져서 못 가게 응징하였다.

이때 권일 앞잡이 원수연의 총탄에 향시면 청모씨 등 두사람이 피살되었다. 그 후 원수연은 친일 공로로 광주(廣州) 경찰서장을 역임하고 그 동생은 양평 우체국장을 지내는 등 적극적인 친일분자가 되었다.

읍내는 장남이다 남녀노소의 군중들로 시내를 메웠는데, 이 시위 사실은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각 지역의 책임자가 태극기를 수백 개씩 만들어 가지고 와서 당일 일시에 나누어주고 시위를 벌인 것이다. 군중은 자의든 타의든 태극기를 받지 않을 수도 없었다. 시내는 일시에 반세소리와 함께 일청과 마칼이 일어났다. 시장바닥은 야수라장이 되었다.

시위가 끝나자 지사는 서종면 사람들과 읍내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

아왔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나서 함께 31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잡혀갔다. 누가 밀고한 것이다. 일본 헌병대는 정매리로 들어와 김민현·박중빈·이정봉 등을 차례차례 체포하여 양평경찰서에 구금시켰다. 시위의 총수인 봉양 여운형(1885-1947)은 일경에 체포되어 구금된 지사 등을 보고 일본경찰에 모든 죄는 내가 진다. 모두 내가 시켰으니 풀어주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만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여운형은 일본으로 압송되고 이정봉은 풀려났으나, 지사와 김민현·박중빈은 3월 말경 양평에서 다시 양주헌병분견대로 압송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하여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어 3개월간 옥고를 치르다가 여운형의 노력으로 그해 7월중에 출옥하였다.

지사가 1919년 음력 3월 잡혀간 지 4개월만에 서대문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옥살이를 하느라 고통이 심하여 몸이 파리하여지고 숨(가려움병)이 올라서 온 몸에는 종기가 심하였다. 이로 인하여 온 집안 식구가 가려움 병에 전염되고 가족들도 고생을 하였는데, 그 때 2살 된 장남 인수는 병에 전염되어 종기가 심하여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러 몸을 사람이 되는 줄로 알고 가족들은 낙심하였다.

지사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하였으나 지사는 물론 숙부 김민현과 외숙 박중빈도 요시찰인물로 일경의 감시의 대상이 되고 외유 등에 감시를 받는 등 행동의 자유가 지장을 받았다. 그 후 지사는 화서선생을 존모하고 후학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냈다.

묘비문은 장삼현이 짓고 전은 장석현이 썼다. 정부에서는 그 공훈을 기리어 199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서종면)

【參考資料】獨立有功者功勳錄(14), 華西集, 白雲文化(제13호), 蘆山綱誌, 蘇溪淵源錄, 光山金氏族譜, 愛國志士珂山全永祚墓碣銘

김용순(金龍淳, 1754-1823)

문신. 자는 龍伯, 본관은 安東. 光州목사 金觀基의 첫째 아들이며, 1777년(정조 1) 현사시에 합격하고 벼슬이 풍호참판을 역임하였다. (개군면)

《參考資料: 安東金氏世譜(5), 金龍淳씨 傳》

김용준(金龍俊)

한말 의병장. 1863년 4월 13일 의병진의 재천싸움에서 안승우의 총사 동사구가 순절하자 백암 유인석 의병대장은 4월 14일 김용준을 임명하여 최선봉을 삼았다. 김용준은 의군 중에서도 수고가 많았고 애적과 싸움터에 항상 앞장서서 적과 대치하고 끝까지 항거하였다.

의암은 그 용맹과 의리가 출만하다고 생각하여 의병진의 어른에 따라 인사를 올리게 하고 최선봉을 맡히어 군사훈련에 톡톡히 노력했다. 의암이 의병진은 소백산맥을 건너서 단양, 영춘, 풍기 등지에서 패경비하여 충주로 진군하였다. 음성, 괴산, 청주, 공주방면으로부터 진군, 애군을 수 차례 격파하였다. 이렇게 기세를 올리면서 다시 원주, 강천에 진을 치고 충주와 해원을 왕래하면서 군사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여주 의병장 칠살희가 선유함에 따라 군사를 해산하였다. 여주의진 중군장 원용기와 진군장 김규석 및 춘천 의병장 이경룡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합세하였다. 중군장 이완하의 사면대신 여주 진영의 중군 원용사를 중군장에 임명하였으며 그동안 의진 중에서 노비으로 적과의 향전에 앞장서 온 김용준을 최선봉에 임명하였다.

김용준은 1865년 의병대장 이준영과 함께 지령에 기거하였다. 선

봉장 김백선이 처형된 후에 이준영이 선봉장이 되고 나서 군율이 회복되니, 예하 의병들도 질서가 지켜졌다. 김용준은 유인석을 따라 함께 군진에 이르니 충도에 위난을 당하였으나 역전하여 구출한 성과도 있다. (지평면)

【參考資料: 鏡溪集, 獨立運動史資料集(1), 獨立運動史(1), 從義錄,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韓國獨立運動史, 楊平義兵運動史】

김원근(金元根, 1786-1832)

字호. 자는 漢溪, 호는 翠庭. 본관은 안동. 金連行의 증손. 영안 부원군 金祖淳의 아들이다. 1809년(순조 9) 진사시에 합격하고 1827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개군면)

【參考資料: 國史大事典, 驪州郡史, 경기인물지, 김철등씨 제공】

김유근(金迪根, 1785-1840)

조선 후기 문신. 자는 景先, 호는 黃山. 시호는 文貞. 본관은 안동. 영안부원군 金祖淳의 장자이나 종백부 金龍淳에게 入後하였다. 1810년(순조 10)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출사하여 1817년 이조참의, 다음해에 대사성, 홍문관 부제학이 되었으며, 이후에 이조참판, 대사헌을 역임하고 1826년에 한성부관운이 되었다.

1827년에 평안도관찰사로 부임하려 가는 도중 가족들이 큰 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부임하지 못하고 돌아왔으나 병조판서가 되었다. 1830년 다시 한성관운이 되고 판돈녕부사를 역임하였다.

시와 서화에 능하였는데 五株枯木圖·怪石圖·疎松如雪圖가 있으며, 중앙박물관에 黃山圖가 소장되어있다. 저서로 『黃山集』이 있다. 묘

는 개군면 향리에 있다. (개군면)

《參考資料: 서울六百年史, 韓國人名大事典, 國史大事典, 朝鮮金石總監, 驪州郡史, 김철동씨 채공》

김윤구(金崙求, 1893- ?)

항일운동자. 용문면 오촌리 출신으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양평지역에도 독립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다. 김윤구는 3월 30일 조영호와 신순근과 용문면 광탄리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독립 깃발을 받들고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독립은 천운이니 사람의 힘이 미칠 바가 아니다. 일본인은 쫓아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성에 체포되어 징역 6월에 처하였다. (용문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判決文》

김이갱(金以鏗)

문신. 자는 道間, 본관은 양근. 중 호조참판 金堧의 아들이요 金仁贊의 현손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직리공신 의성군에 가신태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를 역임하였다. 경상도 헌동 임직면 조남리 원운사에 봉안하고 있으며, 묘는 강심면 백서동에 있다. (강심면)

《參考資料: 楊根金氏大同譜(2)》

김이기(金履基, 1724-1790)

문신. 자는 謙汝, 본관은 안동. 중 의정부 좌간성 金履亨의 셋째

아들이다. 음보로 광주목사를 지냈다. 묘는 개군면 향리에 있다.
(개군면)

《參考資料》 安東金氏世譜(5), 김철동씨 제공

김이원(金履元, 1553-1614)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守伯, 호는 素菴, 초명은 金信元, 본관은 선산, 현령 金弘遇의 아들이다. 1576년(선조 9)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1583년의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호조좌랑·수찬·경언 등을 역임하였다. 1593년 의주목사로 부임하였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흉년이 심하게 들어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았는데, 의주를 만은 명나라로부터 곡식을 들여왔기 때문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었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경기수관총사로 부임하여서는 명나라 군사들을 잘 다루어 명의 오랜 주둔으로 시달림을 받아온 도내 행정을 바로 잡았다. 당쟁이 한창 치열하던 때에는 대북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1609년 같은 대북파였던 이이첨·정인홍 등과 모해하여 임해군 진(1574-1609)을 역모죄로 몰아 사사케 하였다.

1612년(광해 4)에는 대북일파가 소북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 일으킨 김식재의 옥사사건이 일어나자 옥사를 주관하면서 많은 소북파를 죽게 하였는데, 이 두 번의 사건으로 훈봉을 받게되어 고양부원군에 봉해졌으며 병조판서·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시 훈작이 추탈되었다.

신도비는 감하면 천수리에 있다, 비좌는 전좌면에 두 개씩의 안상문이 있고, 우·후면은 마보되어서인지 마부런 무늬가 없다. 상부는 일부 표면이 박리되었지만 복련문을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楊平人物誌)

비현과 이수능은 한 사람이며, 황제 산화원 미션의 전면에 비문이 남아 있다. 전·좌·우면은 바로되어 일부만 알아 볼 수 있는 반면, 후면은 비교적 뚜렷하다. 전면 상단에 황으로 '朝鮮國贈議政行狀', 후면 상단에 '禮曹判書金公神道碑名'이라 전역했다. 관원사기는 1752년(영조 28)이며 이현석이 찬하고, 이광사가 썼다. (상하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文化遺蹟分佈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김이익(金履翼, 1743-1830)

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輔叔, 호는 龍溪, 시호는 翁淵. 본관은 안동, 金山의 아들이다. 1785년(정조 9) 안성문과 갑과에 급제하여 정안부교리를 지냈다. 1788년 교리가 되어 영의정 김치인(1716-1790)을 탄핵하다가 이삼애 유배되었다. 곧 유배에서 풀려나 1790년 정령·동부승지를 지내고, 이어 대사성·대사간 등의 요직을 역임했다.

1793년 안동부사로 재직시 형벌이 과다하다는 안동사람들의 소청에 따라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 이조참의·대사간을 지냈다. 1796년 강화유수, 1797년 상원도관찰사를 지낸 뒤, 1799년 전위겸전 함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1800년 순조의 즉위와 함께 벽파의 양권상항으로 권도에 유배되었다. 1807년(순조 7) 안동김씨가 갑관하면서 재기용되어 공조·별조판서와 수위부 유수·대사간·형조판서,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내호군으로 치자하고, 봉조하를 받았다. 시시로는 『龍溪集』이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正祖實錄, 高宗實錄, 關州郡史, 韓國人名大事典, 安東金氏世譜, naver 백과사전, 김철동씨 재민》

김이중(金履中, 1736-1793)

문신. 자는 時可, 본관은 안동, 金連行의 아들이다. 진사에 합격하고 출사하여 서흥부사를 역임하였다. 규장각에 4권의 간찰이 소장되어 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묘는 개군면 계전리에 있다. (개군면)

《參考資料: 正祖實錄, 驪州郡史, 安東金氏世譜, 김철동씨 제공》

김인경(金仁慶, 1514-1583)

조선조 中宗의 사위. 자는 景裕, 본관은 光山. 참찬 金謙光의 증손이며 중종의 딸 혜순옹주와 결혼하여 1522년(중종 17) 왕친위에 봉해졌다. 1527년 장모 경빈박씨가 작서의 변으로 화를 입자 이에 연좌되어 상주에 유배되고, 1533년(중종 28) 김안로 등의 음모로 경빈박씨가 사사된 후 서천에 이배되고, 이듬해 공주에 압이되었다. 1537년 김안로가 주살되자 방환, 관직이 복구되었다. 부인 혜순옹주와 합창하였고 묘는 옥천면 신복리에 있으며, 양평군 향토유적 제38호로 지정되어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中宗實錄,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韓國人名大辭典》

김인성(金仁成)

강릉김씨 임향조. 초명은 泰賢, 자는 大燾, 호는 東隱, 본관은 강릉, 金澤의 아들이다. 양동에 임향하게 된 것은 강릉에서 형운의 꿈을 안고 서울에 상경하여 명신 김상경 덕에 들렸으나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고 과당으로 나라가 혼란함을 보고 관직에 나아갈 생각을 접고 낙향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양주 선영에

흥심하고 강릉으로 귀향하던 중 지령에 복거하기로 하여 사손이 세
거하였다. (양동면)

《參考資料 砥平郡校誌》

김인찬(金仁贊, 1336- 1392)

고려조선의 대신. 자는 義之, 호는 毅庵, 시호는 忠愍, 樹根 金氏
의 시조이다. 공민왕 때에 전사. 1376년(우왕 2) 北南千다가 되었
다. 이 때에 흉년이 들자 기민을 구제하고 보은으로 받은 보라매(해
동침차)를 부평에게 바치고, 왕이 허사한 백금 5천냥도 빈민에게 나
누어주었다. 그리하여 선덕을 베푸는 옥민관이라고 권과 민이 모두
칭찬이 자자하였다. 태조 이성계도 의인이라고 하였다.

이지란과 결의 형제하고 1390년(공양왕 2) 밀직 부사로 이성계
를 따라 위화도에서 회군, 1392년(공양왕 4) 농지밀직사사에 올랐
다. 이 해 조선 개국의 공으로 보조공신, 중추원사 의흥전군위동척
결제사, 예문관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사후에 개국일등공신, 태정
보국숭록대부 분하시령 간성사, 익화군 양근백, 권 150첩, 노비 15
口, 불선복을 하사하였다. 죽은 뒤 개국공신 1등으로 익화군에 추봉
되었다. 묘는 강상면 백서동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高麗史, 太祖實錄,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韓國人名大辭典》

김자지(金自知, 1367-1435)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자는 元明, 호는 槐溪, 본관은 海安, 시호
는 文節. 밀직재위 金壽의 장자로 金汝知의 형이다. 1385년(우왕



11) 문과에 급제한 뒤 1408(태종 8) 형조참의, 1417년(태종 17) 경기도관찰사를 거쳐 1420(세종 2)년 대사헌에 올랐다.

그 뒤 원주목사, 평안도 도관찰사에 이어 1428년(세종 10) 형조판서가 되었다. 만년에는 개성부 유수를 역임한 후 1434년 68세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특히 대사헌 재직 시에는 당대의 방자한 세도공신을 탄핵하기 위해서 상소를 다섯 차례나 올려서 세인을 놀라게 한 일은 유명하다.

일개는 학문에 뛰어나 음양, 복서, 원문, 지리, 의학, 음악 등에 이르기까지 통달한 준재이고 박학한 학자였으며, 배불론자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뜻을 '주자가례'에 따르도록 유언할 정도로 철저한 유학자였다고 한다.

묘는 현재 김여지 묘의 좌측에 위치한다. 정부인 평양조씨와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묘 앞에는 묘비를 비롯하여 상석, 향로석, 망주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묘는 양명군 향토유적 제30호로 지정되었다. (강하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韓國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 祥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김재관(金在觀)

독립유공자. 한말의 의병. 김재관은 지평출신으로 1895년 지평의 병(을비의병)이 충주에서 항전할 때에 전군장 홍대석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홍대석은 1896년 4월 수안보 창고개에서 추성손·김용주·

수재상·박원용·오문용·우규하 등과 함께 전사하였다. 이들 7의사는 시인이 훼손되어 7의사부덤에 같이 묻었다.

1906년 청부에서는 건국공로로 거리기 위하여 권국훈장 애국장을 신청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從義錄, 韓末의 靈川義兵, 楊平義兵運動史

김재귀 부인 벽진이씨(1820-1881)

어류문인. 본관은 벽진. 1820년 서흥면 노분리 벽계에서 화서 이항로의 둘째 딸로 출생하였다. 1835년 16세에 강원도 홍천군 홍천면 회방리 광산위 김기도의 3남 金在憲에게 출가하였다. 친정어머니인 크럼마씨가 셋째 딸(張會蘭 부인) 태몽은 단(干)을 보았고, 둘째 딸 태몽은 해(海)를 보았다고 한다.

벽진이씨는 어려서부터 재덕이 겸비하였다. 화서가 시범삼이 「소학」 가운데 부더자가 알아야 할 몇 부분을 가르쳐 주었는데, 며칠 안되어 모두 외워버렸다. 뒤이어 「중용」과 「대학」을 가르쳤는데 또 마찬가지였다. 화서가 매우 기특하게 여기고, 「주역」을 가르쳤는데 그 이치와 뜻을 관통하였다. 이에 화서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네가 비록 큰 재주가 있으니, 만드시 남편을 기억하지 말고 시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는 말을 알아야 하며, 만드시 음식과 衣服하는 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씨가 어렸을 때에 지었던 『從義易說問答』 두 권은 화제에 소설되어 버렸고, 『論語川文』도 유실되고 말았다. 다만 남은 것은 『李氏槐湖公文』이 있다. 이씨는 봄에 바깥을 한 번 걸으면 네댓 줄씩 내리웠고, 내외가 가질 운자를 지어 한시를 지었다고 한다. 주역 책을 치고 감통을 예견하기도 하였다. 이씨는 바둑 노령에 이르러서

도 『소학』, 『충용』, 『근어』, 『주역』 등 사경을 한 곳도 의심과 틀린 점이 없이 외웠다고 하니 재덕을 짐작할 만하다.

이씨는 친절에서 교육을 받고, 시집가서 매우 가난함을 극복하며 시부모 봉양에 정성을 기울였다. 가정을 다스림에 엄하였고 내외 간에 화합하였다. 이상으로 보면 이씨는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할 일을 모두 해낸 것으로 보인다. 지서로는 전하는 것이 없더라도 여류문인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서종면)

《參考資料: 華西先生文集, 寒松齋遺稿, 碧珍李氏族譜, 韓國學研究(9), 蔡白氏槐園公文, 伐力文化(5), 金敏洙교수 제공》

김재영(金在榮, 1784-1854)

광산김씨 입향조. 자는 致誠, 본관은 광산, 金箕周의 셋째 아들이다. 양서면 양수리에서 옥천면 신북리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는데, 군 내에는 후손이 약 20여 호가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光山金氏襄簡公派譜, 김호중씨 증언》

김재형(金在衡, 1797-1845)

광산김씨 입향조. 자는 致會, 본관은 光山, 金箕周의 둘째 아들이다. 양서면 양수리에서 형제가 출생하여 형 在榮은 옥천면 신북리로 가서 목기하고, 자신은 양평읍 공흥리로 이주하여 사손이 세거하고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光山金氏襄簡公派譜, 김호중씨 증언》

김정규(金定圭, 1862- 1903)

조선 후기 문신, 초명은 定均, 자는 戒而, 호는 兼山, 본관은 안
동, 관사 金炳淵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가선대부, 돈령부주
령에 이르렀다. 묘는 개군면 지인리에 있다. (개군면)

《參考資料: 安東金氏大同譜, 驪州郡誌》

김정순(金正淳, ? - 1896)

지평지방, 지평출신 포군으로 을미의병시 지평지방 선창자 김백선
과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중추 가흥 전투에서 김성화·손덕화
·손용을 등과 함께 관사 순국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從義錄, 湖西義兵事蹟, 獨立運動史資料集(1)》

김정흥(金鼎興, 1570- ?)

경주김씨 임향조, 자는 汝友, 본관은 경주, 內密侍사 주부 金鼎의
아들 4형제 중에 넷째 아들이다. 1570년(선조 3)에 양주군(현 동두천)
이계면 창리에서 증생하여 과외교위를 역임했는데, 임진왜란(?) 때 난
을 피하여 석종면 명달리로 이주했다고 한다. 명달리에는 후손이 10여
가구 살고 있다. 묘는 명달리 120면지 西坐에 있다. (석종면)

《參考資料: 慶州金氏世譜, 후손 김주범씨 증언》

김종숙(金鍾淑)

효원부, 1930년 李植의 1녀는 李麗淑과 결혼하여 1937년에 서명하

고 경신이상의 시조부와 시부모를 극전히 모셔 양평군수, 경기도지사, 내무부장관, 유도회에서 표창하였다. (양동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德水李氏族譜》

김종학(金鍾學)

독립유공자. 김종학은 단월면 비수리 407번지 출신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천도교인이다. 1919년 3월 23일 44세로 신재원·정경시·민주혁 등과 함께 용두리 장날에 모여든 군중을 이용하여 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청운면 여물리 다리 밑에서 김종학의 글씨로 ‘朝鮮獨立旗’라고 쓴 세 종류의 기를 제작하여 깃발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군중 150여명을 선동하여 시위를 전개하였다. 지사는 시위를 전개하던 중 일본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1년 6월 징역형에 처하여 투옥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건국공로를 기려 1990년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단월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別冊, 獨立運動史,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判決文》

김종후(金鍾厚, 1871- ?)

항일투사. 김종후는 갈산면 오빈리 88의 출신이다. 의일투생사에 활동기록이 나타난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발발하자 교회 교도들과 양평읍 내서 독립만세운동과 시위를 하였다. 그는 신도들에게 독립사상을 교취하고 대한독립단 일원으로 항일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양평면)

《參考資料: 明治百年史叢書,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김창흡(金昌翕, 1653-1722)

조선조 학자. 자는 正監, 호는 惺齋. 시호는 文康. 본관은 安東. 파의형 金尚憲의 증손. 영의정 金壽恒의 아들이며, 金昌集·金昌禧의 아우이다. 15세 때 이단상에게서 수학하고, 1673년(현종 14) 진사가 되었다. 1684년 장악원 주부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때 아버지가 사사되자 영평에 은거했다.

1721년(경종 1) 갑의, 어등해 세자시강원 진선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했다. 성리학에 밝아 형 창협과 더불어 이름이 있었으며 형제가 모두 이이 이후의 대학자로서 명성을 떨쳤다. 신위사화(신숙위인)에 유배된 형 창협이 1722년 사사당하자 지병이 악화되어 이해에 죽었다. 1709년(숙종 35)부터 5,6년 간에 걸쳐 가장 치열했던 실성론을 둘러싼 호론과 낙론의 시비에서 형 창협이 호론인 데 반해 낙론에 속했다.

삼언은 호타는쟁이 일어나자 영인 창협과는 달리 낙론을 지지하였고 이기론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항과 이이의 학설을 절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인물성동이론에 있어서는 어유봉과 함께 '幽隱五常說'과 심체미말의 俱說論을 지지함으로써 이현익의 相說論에 반대하였다.

이초 편서에 추증되고, 숙종의 묘정에 배향. 강릉의 효해정명당에 세향하고 있다. 『惺齋集』, 『瀟陽日記』, 『文康』 등이 있고 관서에 『安東金氏世譜』가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三原集 肅宗實錄 景宗實錄 儒教大事典 韓國人名大事典

김치삼(金致三)

이평포군, 1895년 을미의병서 김백선과 함께 지평의병전에서 활동

하였다. 충청북도 단양의 잠희업 전투에 참여하고, 의병전이 영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병으로 인하여 나오되었다. (지평면)

【參考資料】 韓末의 堤川義兵, 端陽獨立運動史資料集

김평묵(金平默, 1819-1888)

유학자. 자는 稚章, 호는 重庵, 시호는 文懿, 본관은 淸風이다. 증암은 서종면 노문리 벽계 화서 이항로의 수재자로 성리학자이며 교육자다. 1818년 9월 6일 경기도 포천군 시우촌에서 金聖義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황씨가 회임했을 적에 용과 뱀을 꿈꾸는 기이한 일이 있었다 한다. 증암은 5세에 천자문을 10일 만에 배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으며, 13세에 소학과 사서 및 경서를 이미 통하였다.

1836년 18세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부친이 여질에 걸려 하세 한 터여서 이웃에서 도와주는 이도 없었고 끈궁하여 장례를 모실 수도 없는 처지였다. 이 때 식년시가 거행되고 있었는데, 어떤 이가 글을 팔아 장례모실 것을 권하자, “법을 범하는 것이 첫째요,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 둘째요, 상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셋째이다” 하고 끝내 듣지 않았다. 장례를 마친 후 워낙 집이 가난하여 흙소 농사를 지으려 하였으나, 어머니 황씨가 엄히 금지시키고 때문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1842년 24세에 화서를 잘아읽고 제자가 되고, 그 다음 매산 홍익필의 제자가 되었다. 이로부터 두 문하에 출입하면서 모두 스승으로 높이 받들었는데, 특히 화서를 진심으로 복종하여 섬겼다. 매우 가난했던 증암은 벽계에 머무는 동안 조식을 거를 때에는 노문리 벽계 오동단 느티나무 밑 바위에 앉아 하루종일 글만 읽었을 정도로 가난과 글로 일생을 마쳤다.

1864년 46세에 화서가 심재 유중교에게 명하여 『송원하동사합편감축』을 편수하게 하고 중암에게도 함께 같이 하게 하였는데, 마지막 편을 마무리하고 만휘 3권을 지어 부록으로 실었다. 이 책은 큰 화양이에 입각한 역사서로서 화서학과 의리사상이 담겨져 있다. 화서가 노환이 심해서 장식에 임하지 못하자, 수고 중에서 大體에 관계되고 일용에 전실한 것들을 뽑아 86편을 만들어서 갈습자료로 삼게 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화서선생아언』이다.

1868년 50세에 스승 화서의 상을 당하여는 삼살 3년의 복을 입었는데, 사립장으로 모시면서 집사를 분정하여 행하였으며, 우제, 불곡, 소상, 대상 배에도 그와 같이 하였다.

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리자, 선현을 제창하는 곳에 한 차례 인사가 있어야 한다하여 경기도 각 서원을 두루 찾아다니며 진하였다.

1873년 55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였는데, 슬피함이 예를 지나쳐 주위 사람들이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어머니의 일이 언급되면 모두 오밀하여 말을 하지 못하였는데 3년 동안 한길달았다.

1876년에 58세에 임분이 서양의 앞잡이가 되어 군대 4000명을 이끌고 강화도로 침입하여 조정에서 화전하려 하였는데, 이때 임헌회는 떠술에 나아가지 않았으면 간섭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였다. 이때 문인 윤정구·유중악 등이 북합상소의 의론을 꺼내어 중암에게 질문하자, 중암은 “큰 관계가 있는 일에는 주자·퇴계·우암의 여러 선생들도 유생들의 의론을 허락하였으며 ‘用位盡分’이라고 막지 않았다” 하고, 재생들의 요청으로 살소문을 지었다.

1879년에 61세에 선공감역에 임명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였다. 1881년 63세에 영남 유생 이만는 등 1만 3000여 명이 대권에 이르러 조정의 개혁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때, 심재 유중교와 같이

일명으로 소침에 글을 보내 격려하였다. 같은 해 3월 문인 이행구·신협 등이 기내에서 일어나고 문인 홍재학 등이 관동에서 일어나 각기 소침을 선치하고 진간하였는데, 그 내용은 중암이 평소에 주장하여 말하던 것이었다.

홍재학은 삼도 유생들과 대권 앞에서 부르짖으며 60일 동안 있으면서 민태호에게 글을 보내 국가에 화를 끼친 죄를 심히 책망하였다. 이에 노한 민태호가 임금의 노여움을 격발시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중암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痛哭하였다. 곧 이어 나명(拿命)을 받아 외금부에 구금되었다가 8월 곤장형을 받고 다시 구금되었다가 나주의 지도로 안치되었다. 64세 되던 임오년 7월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왔다. 그러나 '군란 때 사면된 모든 사람은 다시 먼저 유배지로 유배시키라'는 명이 있어 다시 지도로 유배되었다. 1884년 66세 되던 11월에 사면되어 돌아왔다.

이 해 7월 변복령이 내렸는데, "이는 여러 신하들의 잘못으로 군주의 결단이 아니니 군왕이 고쳐가야 바리야 한다" 하고 또 "웃음을 머금고 죽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중암은 화서의 수세자로 화서의 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춘추대의를 정신적 지주로 하고 있다. 화서가 서양을 양적, 금수로 규정하여 적극 반대하는 것과는 일치하고 있다. 중암은 濔濔論에서 우리는 사람인데, 서양은 금수로 전혀 화합할 수 없는 이단으로 배척하고 있다. 어양론은 위정척사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거기에 나타난 중암의 위기의식은 스승인 화서와 다를 바 없었다.

중암은 어양론에서 만약 양적의 요구대로 우리가 굴복하여 화교한다면 첫째는 천주교회당을 세워 그들의 사교를 진과할 것이며, 둘째는 물건의 교역을 허락하게 되고, 셋째는 부녀와 재물을 약탈하도록 버려 둔다면 유혈이 천리나 흐르고 시체가 백만이나 될 것이며, 장

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강력히 반대하였다.

1886년 68세에는 경기도 영평(포천군 이송)에 운남정사를 열고 갈락에 전념하였다. 중앙은 거지라는 땅에 주자우암화서의 목화상을 모시고 초하루 보름에는 벽에 걸고 문향하고 절하였다. 그리고 갈락할 때에는 제자들과 더불어 헌배하였다. 이러한 예는 성재금계의암동 화서학과의 공통된 점이다.

정리학에 있어서, 중앙은 이항로의 입장을 개성, 지지하였으며 유종교와 함께 『東亞華東史合編綱目』과 『華西雜言』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중앙은 인심·도심상에 의하여 사물·공상을 구별하여, 기가 담은 바를 도심상의 일로, 능·공·상이 담은 바를 인심상의 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현자와 우차가 나뉘어지고 군자와 소인이 구별된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군자와 소인을 나누는 기준이 도심·인심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또 도심을 보존하는 방법은 '精·執中'에 있다고 하여 誠을 근본으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정일집중'은 곧 誠이라 하여 순수한 도심을 회복한다면 성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해학에 추증 되었다.

중앙은 1891년 12월 20일 운남정사에서 하세하니, 사립학으로 영평 이사동 간곡에 장사되었다. 묘표는 최익현이 짓고, 행장은 홍재기가 지었고, 제문으로는 유종교·최익현·유기일·홍재기·정의립 등이 지었다.

중앙은 유림들이 포천의 문음사와 운남절당, 각령의 조종암과 경원단, 진남의 두류단과 화선단, 운현의 용담사 등에 배향하여 제향하고 있다.

저서에 『東坡集』과 기타 『程明善類集說』, 『近思錄附註』, 『陽明錄』, 『朱子事實記』, 『雷道私議』, 『學統考』, 『治仁軍談』, 『史張問答』, 『鄒魯雜

錄, 『斥洋大義』, 『海上錄』, 『大谷問答』, 『三江問答』, 『龜谷問答』, 『藥山心說淵源』, 『雨村午談』, 『鶯江瑣錄』, 『江上散錄』, 『詩說』, 『北山問答』 등이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華西先生文集, 重菴集, 儒教大事典, 龜溪淵源錄, 韓國人名大事典, 國史大事典, 加平郡誌, 抱川郡誌, 경기인물지, 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 華西學派의 斥邪思想 研究, 張基德翁 증언》

김 하(金何, ? - 1462)

조선전기 문신. 시호는 靖宣. 본관은 연안. 개성유후 金自知의 아들이다. 1423년(세종 5)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해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1432년(세종 14) 이조정랑을 시하므로 여러 관직을 거쳐 1448년 한성부윤, 1455년(단종 3) 예조판서를 지냈고, 1458년(세조 3) 관중추원사가 되었다. 중국어에 능하여 대중국 외교관계에서 실무로 돋보이는 책임과 활동을 하였다. 묘는 강하면 왕창리에 있다. (강하연)

《參考資料: 世宗實錄, 世祖實錄, 延安金氏大同譜,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나상필 / 노직

나상필(羅相必, 1884-1940)

독립유공자, 자는 노직, 본관은 安定, 羅聖후의 둘째 아들이다. 1884년 2월 9일 양동면 매월리 75번지에서 태어났다. 羅相必이라고도 하며 성재 유증교 문인인 안종응에게 수학하여 화서학과에 속한다. 지사는 1919년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자 상해임시정부의 군자금 모금책의 일원이었다.

충남 논산면 윤교명과 함께 군자금모금 활동을 하였고, 또 경북 봉화군 법천면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7월에는 충남 보령군 미산면 지역의 모금책으로 활약하다가 일정에 체포되어 징역 4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묘소는 논산군 가야곡면 석촌리에 있다.

정부에서는 2004년 고인의 공훈을 기리고자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다. (양동면)

《參考資料: 安定羅氏族譜,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나상헌(羅相軒, 1873-1932)

지평의명, 자는 노환, 본관은 安定, 羅聖후의 아들이요 퇴암 안鍾憲의 세자이며 시위이다. 1895년 을미의병 당시 지평의진에서 활동했는데, 지평고을의 군량을 거두어 의진에 대는 소임을 맡았다. 그

후에도 의암 유인석의 활동을 도왔다. 분행이 있어 초대 양동면장을 지냈다. (양동면)

【參考資料】安定羅氏族譜, 獨立運動史資料集(1), 韓末의 堤川義兵, 楊平義兵運動史

남상철(南相喆, 1924-)

독립유공자. 본관은 10寧이다.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출신으로 독립유공자로는 유일한 生存者다. 1943년 10월에 일제에 강제로 징집되어 중국 山西省 安邑地區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3541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지사는 중국 重慶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이 있다는 정보를 전해듣고 항일투쟁을 위해 광복군에 입대할 것을 결심하고 1944년 11월 일본군을 탈출하였다.

1945년(乙酉) 중국 중경에 도착하여 土橋隊에 입대하고 光復軍總司令部警衛隊에 배속되어 특수임무를 맡아 수행하던 중 1945년 8월 15일 조국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건국공로를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서종면)

【參考資料】獨立運動史, 獨立有功者功勳錄(9),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남적희(南績熙, 1895-1967)

항일독립투사. 자는 泰熙, 호는 稼塘, 본관은 의령, 대사헌공과 南廷烈의 장남이다. 지평면 노일리(현 일신리)에서 출생하였다. 남적희는 임시정부 국내 자금조달요원이다. 총참모 담당자로 활약하다 체포되어 천안읍 대련형무소에서 종신형을 언도 받고 복역 중에 방북으로 출옥하였다. 그 후 충주시 노은면 초대 민선면장을 역임하였

다. 묘소는 지체면 매봉산에 있다. (지평면)

《參考資料》 宜寧南氏大司憲公派族譜, 方弘華氏 제공

노 직(盧植, 1536-1587) ①

조선조 문신, 자는 1植, 호는 別存(別存), 시호는 憲驗, 본관은 兪河, 현감 盧弘赫의 아들이다. 1569년(선조 2) 함경문과에 장원급제하고 형조좌랑이 되어 형목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선조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부터 請官職을 받았다. 1573년 정언을 거쳐 이듬해 예문관 제학이 되고, 홍문관 수찬, 사헌부 지평, 승정원 동부승지, 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1585년 부제학을 지냈다. (개군면)

《參考資料》 宣祖實錄, 歸德集,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노 직(盧稷, 1545-1618) ②

조선조의 문신, 자는 1稷, 본관은 兪河, 현감 盧弘赫의 아들, 1570년(선조 3) 생원이 되고, 1584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을 지냈으며, 급시에 뛰어나 선조의 발탁으로 승정원 주서로 천직했다. 이어서 여러 請官職을 역임하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에는 별조참판이 되어 왕을 호종하였다. 1597년(선조 30) 해인이 겸학 겸임한 경유제란 때에는 겸반부사로 병나라 군사를 맞아 병사들을 의했다. 그 후 부제학을 잇내고 병조판서를 거쳐 관중주부사가 되었다. 예서와 전서에 뛰어났다. (개군면)

《參考資料》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韓國人名大事典,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驪州郡史

□ ~ □

단의왕후 / 민희

단의왕후(端懿王后, 1686-1718)

景宗의 元妃. 성은 沈氏, 본관은 南松, 형은부원군 沈浩의 딸이다. 증조부 沈樞이 그의 부친 중정공 沈悅의 묘소가 있는 옥천면 근처로 이주했다가 왕후를 잉태하였고, 1686년 5월 21일 서울 회현동 寓舍에서 출생하였다.

1696년(숙종 22)에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경종이 즉위하기 전에 밀적 죽었다. 같은 해 5월 19일 가례를 행하니 별궁에 거처하면서는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 「서경」 등을 읽었다. 시녀가 흑시 반으로 나아가 바람을 쏘이자고 하면 응하지 않았다. 대궐 안으로 들어와서는 兩趾(숙종 내외)을 받들고 세자 섬기기에 분유하고 공경하여 삼가서 하니 모든 것이 예와 법도를 따라서 하는지라 숙종 내외가 깊이 사랑하였다.

인현왕후의 상을 당해서는 병환이 있어 낫지 않았는데도 종신토록 예제를 다하였으며 예봉을 머금고 사모함을 그치지 아니했다. 숙종의 환후가 오래도록 배유되지 않자 빗날으로 예태위 조심하며 혹은 울다가 음식을 제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으로 대신하기를 기원하니 중궁이 그 효성을 칭찬하지 않음이 없었다. 경종이 즉위하기 전인 33세를 일기로 타계하니 후사는 없다. 1720년 정종(재 20대)이 즉

〔楊平人物誌〕

위하사 왕후에 추봉하고 1726년(영조 2) 恭靖定穆의 휘호가 추상되었다. 묘소는 양주 현제 구리사 현창동 혜능(사적 제103호)에 안장되어 있다. (목천면)

〔參考資料: 惠陵誌, 禮源系譜, 國史大事典, 韓國人名大事典, 韓國史 속의 楊平史〕

덕 금(德今)

효녀. 덕금은 1561년(明宗 16) 5월 21일 의정부에서 권척의 효성스러운 사람을 표창하는 행사에 효녀로 상선된 노비였다. 양근에서는 대수사의 노비인 덕금의 행실은 다음과 같다.

덕금의 어머니가 사나운 호랑이에게 깔려 잡혀먹게 되자 그 어머니와 함께 뛰어가 살므로 호랑이의 오른쪽 갈비를 찔렀다. 그래서 호랑이는 아버지를 버리고 이번에는 어머니를 텨냈다. 덕금은 살므로 피르고 두려지고 하여 호랑이의 코가 괴멸되고 결국은 호랑이는 중상을 입고 기진맥진하여 산으로 달아나 버렸다. 이리하여 부모를 호환에서 구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덕금은 심을 받고 復戶의 특권을 받았다. 그러므로 국가로부터 선의 또는 호의를 면제받는 특전을 받은 것이다. (양명읍)

〔參考資料: 明宗實錄(16년), 韓論史 속의 楊平史〕

맹군집(孟君集)

한말의 의병. 맹군집은 지령출신으로 1907년 8월 군대해산 후 1908년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맹군집은 이은찬

위하에서 의병활동을 하면서 원수부 선봉명의로 양주군 외부면장에
계 군자금 조달을 명령하는 격문까지 발송한 적이 있다. (지평면)

【參考資料: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獨立運動史】

맹면원(孟勉遠)

신창맹씨 입함조. 자는 道純, 호는 濶平이다. 본래 충청도 온양에
世居하였는데, 용문면 마룡리 瓢谷으로 卜居하게 되었다. 그 사연은
濶平의 처가가 용문면 덕촌리 평양조씨라 처가 근처로 이주하였다.
한편 당길 孟鎭心은 양동면 고송리에 복거하였다. 또 한파는 용문면
마룡리에 자리잡았다. 양평지역의 맹씨들은 이들 세 파의 후손들이
다. (용문면)

【參考資料: 砥平鄉校誌, 맹주남씨 제공】

맹영재(孟英在, 1844-1895)

지평현감. 양동 출신. 자는 元實, 호는 九松. 본관은 新昌이다.
지평현감, 여주진관병마도위로 통훈대부이다. 1894년 동학난이 일어
나자 소모관이 되어 강원·충청·경기 지역의 질서회복에 기여했고,
포군 김백선 등으로 하여금 동학도를 진압하여 공로를 세웠다. 이
공로로 1894년 9월 20일 지평현감에 올랐다.

1895년 을미사변 후 의병이 봉기하여 전국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6월에는 간성, 지평, 양양 등에서 격전을 치렀다. 이 시기에 홍천에
서 의병장 최삼여(태헌)는 군사를 거느리고 지평으로 가서 군수 맹
영재를 위협하고 설득하여 함께 의병에 가담시켰다. 행군하여 양근

(楊平人物誌)

평 미련까지 진술했다가 여기서 맹영재가 죽었는데, 죽음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적군인지, 우리측 의병인지, 군중인지는 명확한 기록이 없고 구설만이 부성하다.

그러나 사하계의 평가는 황헌의 배신야욕에 맹영재는 의병의 살생 부명단에 들어있다는 사실과, 지원병을 요청하러온 사논인 준천의별장 이소음(맹달재의 살인)을 구금한 사건과, 김백선과 함께 다수의 농하도를 토벌하여 군수가 되었으나 피살자의 수많은 유가족으로부터 원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과 일제침략기의 고을의 수령이란 점에서 타산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맹영재가 의병장으로 참여하였다는 데에는 대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양동면 방하리 도로변에는 1895년 을미의병 항거 6개월 전 5월에 주민들이 맹영재의 공적을 기리는 '扶正斥邪碑'가 서있다. 저서로 『九松集』이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昭義新編, 乙未義兵史蹟, 獨立運動史資料集(1), 延平郡校, 楊平義兵運動史, 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II),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맹일호(孟日浩, 1865-1920)

의병, 그는 지평출신이다. 지평현감 孟英在의 아들이어서 홍원의병 항 최심여가 그의 아버지를 의병에 참여시켜 죽게 하였다하여 의병 활동을 지해한 기록이다. 그러나 김준수 의병진의 집모로 항전하였고, 서포대를 조직하여 지평·홍천·어주 등지에서 전투를 벌였다. 그 후 상경하여 배산학원(대동상고 전신)을 설립하여 교장으로 신교육에 힘썼다. (양동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1),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孟柱南氏 제공》

맹주천(孟柱天, 1898-1973)

대종교 지도자, 교육자. 호는水草, 본관은 신창, 지평현감 孟英在의 증손, 孟道永의 아들이다. 양동면 고송리에서 출생하여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하고, 중등교육계에 투신하였다.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 제정위원이 되어 최종 확정지었다.

1945년 광복 뒤에는 경기고, 경북고, 용산고, 서울사대부고, 보성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대종교에 입교하여 1946년 지교, 경의원참의, 총본사 總師, 찬강을 지냈다. 1960년 助教, 원로위 부위원장, 대일각전교, 삼일원원주 등 중책을 맡아 활동하였다.

1962년 대종교진흥추진회를 조직하여 부이사장 겸 상무이사에 임명되고, 단군숭모회 부이사장 등의 교세확장에 힘썼다. 1971년 4월 교회 공선에 따라 교주인 총천교로 추대되었고, 이어 사교에 오르면서 道兄號를 받았다. 그 후 교단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한편으로는 한자쓰기를 반대하고 한글전용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양동면)

《參考資料》 新昌孟氏族譜, 大德敎重光六十年史, 대종교요감, 내고정 경기도의 인물, 孟柱南氏 제공

맹철호(孟哲浩)

한말의 의병, 지평사람으로 운강 이강년 의병전의 종사부에서 좌종사로 활동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雲岡先生遺義日錄,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문성호(文成鎬, 1872-1949)

독립유공자. 본관은 남평이다. 용문면 중원리 410번지에서 출생하

었다. 1919년 3월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김백환문일병 등과 함께 조선 13도 대표자 명의로 '독립요구서를 낭독하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3월 1일 만세운동이 시작된 이래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 천풍으로 인하여 서울에서는 며칠간 조용한 양상이 지속되던 중 일제는 일본군으로 하여금 시가 행진을 하면서 만중을 위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성호 등은 3·1운동 후 처린동 영흥관에 모여 3·1 독립운동의 선언식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 만세운동 열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애원서"라는 제목하의 "조선독립은 2천만 동포의 요구다. 우리들은 존병희 등의 후계자로서 조선 독립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사의 선언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여러장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그리고 3월 12일 보신각 앞에서 수백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애원서를 낭독하고, 문성호가 선두에서 앞장서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지사는 이연로 인해 1919년 11월 6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옥고를 치렀다. 참수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용문면)

【參考資料】韓國獨立史, 韓國獨立運動史, 獨立運動史資料集, 楊平義兵運動史,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判決文, 每日新報(1919.11.9)

문 용(文龍)

독립운동자. 함평 출신으로 1936년 산을 개간하여 마을을 이루고 새농민들을 모아理想村을 건설한다. 개간한 땅에서 소곡을 돌리고, 그래서 개간 농업이 성공하면서 공동생활의 이상촌으로 성공하게 되

고, 日帝하의 민족운동으로 성공한 농민동맹운동의 하나인 '봉안이상촌'을 건설했다.

이렇게 자리잡기까지 김용기와 여운형의 개척자적 공로가 컸다. 당시 일제하의 농민들은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수탈을 심하게 당하였다. 그래도 등불의 희망으로 살았던 것이다. 이곳 김용기를 중심으로 일제식민지 통치에 반항하고 비밀조직을 결성하여 전개한 농민 공동생활이란 주체적운동의 농민동맹운동이었다.

이 이상촌을 농민동맹운동 근거지로 하고 독립운동의 기지로 육성하였다. 문용은 농민동맹운동 대표의 한사람으로 경성지역의 농지들을 모으고 일제의 비상전시체제 하에서도 독립운동의 기지로 육성했다. 그는 일제의 신사참배, 창씨 개명에 항거하며 징병, 징용을 도피하여 온 사람들을 보살피고 숨겨주기도 했다. 1944년 10월에 용문산 인근에 있는 농민대표를 소집하고 농민동맹 조직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징용과 징병실시 방해, 민심을 선동해서 교란 등 각종 문서와 호적부가 배치된 재판소와 관공서를 방화하고 둘째, 전쟁수송물자를 방해하고 철도를 파괴하며 셋째, 징병·징용에 걸린자와 애국지사를 도피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항일투쟁에 가담하게 하였다. 이렇게 對日抗戰을 전개한 업적을 남겼다. (양명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10),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문창문(文昌門)

효자. 守藏官으로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시어 공양하지 못하였음을 한으로 이겨 생전에 모습을 상으로 새겨 3년상을 치르고 부모의 묘

에 하루 세 번을 찾아가 성묘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비바람과 눈비에 구애됨이 없이 한결같이 하였는데, 마침내 날이 순조가 승화하는 날과 같아서 소식을 3년 하였다. 사람이 추천하여 1911년(경무 5) 예조에서 기행비를 세웠다. (양근)

《參考資料: 楊平郡誌》

민병승(閔丙承, 1865-1896)

조선말기 문신, 자는 公祐, 號는 西齋 柳川雲, 본관은 驩興, 閔應植의 아들이고 급제 이근원 문인이다. 민병승은 조선말기 문신으로 1885년 문과에 급제하여 가의대부 행 도승지,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의금부사 춘추관 성균관사 예문관 규장각 직제학 시감원 검교 보덕감오경장 敎仕 후 1897년과 1898년에 누차 특진관을 세수 받았으나 모두 사양하고 양평군 양서면에 우거했다. 저서로 『月窟集』이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藏溪齋新錄, 華西學派의 斥邪思想 研究, 結城張氏塋碑記, 驩興閔氏族譜》



민삼노(閔三老)

이훈민씨 임향조, 자는 三老, 본관은 驩興, 閔應의 아들이다. 관직은 수직으로 함지중추부사이다. 청운면 신촌리에卜居하였다. 그 언유는 형제간에 불화로 가족을 데리고 인척이 사는 청산유곡을 찾아 흥천 냇변에서 양평 신촌

리로 오는 고개를 넘는데, 산마루에서 스님을 만나. 담담한 심정으로 본인의 처지를 말하였더니, 스님이 민씨가 복거할 곳은 적 큰 바위 아래가 좋다. 그곳에 정착해 살면 자손이 번창하고 대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청운면)

〔參考資料: 砥平鄕校誌〕

민 암(閔黯, 1636-1649)

조선후기의 문신. 자는 長騰, 호는 又湖, 본관은 驪興, 참판 閔應協의 아들이다. 1638(현종 6)년에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지평승자함경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679(숙종 5)년에 고산찰방 조지겸이 당시 함경도 관찰사인 이원복이 참람하게 역마를 탄다고 탄핵하였다. 함경도 관찰사 재임시 그곳 실정과 결핍을 자세히 들어서 이원복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극구 변명하다 도리어 탄핵한 조지겸을 문초받게 한 사실은 유명하다.

1678년에 당시 明에서 인조반정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동지사 겸 변부부사로 인평대군의 셋째 아들 북평군 연과 함께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에 귀국하였다. 그 뒤 이조참판을 거쳐 1680년(숙종 6) 대사헌으로 있다가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파직되었다. 파주군 교하면 금산리에 살면서 회초 강가에 정자를 짓고 소일하기도 하였다.

1680년의 기사환국으로 다시 대사헌에 기용되어서는 이조판서인 삼재와 함께 서민인 김수항·송시열을 탄핵하여 그들의 처형에 대한 강경론을 주장하였다. 이어 대제학·병조판서를 역임하였고, 1691년에는 우의정에 승진하였으며 사은사로 淸에 다녀왔다.

1634년에 김준배 등이 숙종의 폐비 민씨를 복위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고변이 있자 남인의 영수이던 그는 훈원대장인 이의정과 함께 일대 옥사를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숙종이 갑자기 남인을 쫓아내고 서인을 등용하는 갑술옥사 때에 인헌왕후 출궁의 교본을 지었다는 죄명으로 대정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영의정 남구만의 탄핵으로 이의정과 더불어 사사되었다. 묘는 청정부인 경주김씨와 해주정씨의 합장묘로서 양서면 부용리의 나지막한 구릉에 北向하여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楸平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楸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辭典》

민 점(閔點, 1614-1680)

조선의 문신. 자는 聖休 호 雙梧. 본관은 여흥. 閔應秋의 아들이다. 4父는 이조참판 閔應協, 母의성 閔熙의 둘째아들이다. 1651년(효종 2) 별시문과 병과로, 1656년 문과중시에 급제한 뒤 세자시강원 실사사간원 정언·홍문관 수찬 등을 역임하였고, 1666년(현종 7) 경상도관찰사로서 동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와서 전라도관찰사를 지냈다.

1670년 安胎使가 되어 태봉에 편입된 민진을 관동선으로 보상하게 하였다. 1671년 평안도관찰사를 거쳐 1674년 陳慰 겸 進善使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왔다. 숙종 때에 형조·이조판서 등을 지내고, 1677년(숙종 3) 아들 閔周造의 과거부절로 사직하였다. 그 뒤 복직하여 공조·판서를 거쳐 좌참성에 올랐다. 묘는 양서면 부용리에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顯宗實錄, 肅宗實錄, 國朝榜目, 羅淵閔氏世譜,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민주혁(閔周燦, 1919- ?)

3.1운동자. 본관은 여흥, 청운면 갈무리 출신. 50세의 나이에 김 종학·신재원·정경시 등과 함께 1919년 3월 23일 용두리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청운면 여물리에서 독립깃발을 만들어 군중 150여명을 선동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던 중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김종학과 같이 1년 6월 형에 처하여 옥고를 치렀다. (청운면)

《參考資料》 明治百年史,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 獨立運動史,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判決文》

민태호(閔台鎬, 1834- 1884)

조선말기 처신. 자는 景平, 호는 杓庭, 시호는 忠文. 본관은 여흥, 閔致三의 맏아들이며 유신환의 문인이다. 1870년(고종 7) 청서문과에 丙科로 급제하여, 총융사 이영태창 무위도통사 대제학 등을 역임했다. 순종의 장인(驪恩府院君)으로 보수세력의 대표적 인물로 활약하다가 1884년 갑신정변 때 민형목·조영하 등과 함께 살해되었다. 글씨에 능하여 전서·예서·행서·초서를 모두 잘 썼다.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지평면)

《參考資料》 高宗記事, 日省錄, 韓國人名大事典》

민 희(閔熙, 1614-1687)

조선조의 문신. 자는 伯如, 호는 雪樓·石湖, 시호는 文忠, 참판 閔應協의 아들이다. 1650(효종 1)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

며 1661(현종 21년) 경상도관찰사·승지를 지냈다. 1663년 양주목사를 거친 후 조일에 들어가 좌부승지·형조참관을 역임하였고 1667(현종 7년) 다시 평해도관찰사로 나갔다. 1668년 호조참판으로 진하 겸 서은사 서장관으로 황해 다니은 후, 한성부 관훈·관상감 제주·공조판서·이조판서·형조판서를 지냈다.

1671년 장화부 유수, 1675(숙종 1)년 국상도감 당상을 세수받았고 우참찬·대사헌·관의금부사·예조판서·우관감을 거쳐 우의정·좌의정에 올랐다. 1680(숙종 6)년 강신대졸치으로 관직이 삭탈되고 위리안치되었다. 1683(숙종 12)년 향리로 귀향되었다가 사망하였다. 1680(숙종 15)년 기사판국에 선원되었다. 묘는 양서면 부용리에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楊平文化遺蹟總覽，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 註明大學校博物館，韓國人名大事典》

卍

박경수 / 보우

박경수(朴慶壽, 1824-1897)

성리학자. 자는 美卿, 호는 弘菴. 본관은 潘南, 朴宗學의 아들로 화서 이항로, 중앙 김평묵, 성재 유종교를 사사한 한말의 유학자다. 가평군 설악면 잠강에도 거주했었다. 관직이 군수였는데 나라의 변괴가 계속되자 자정을 결심하고 일체 식음을 전폐하였다. 실신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이르자 자제가 미음을 넣어 정신이 들면 또 거절하였다.

이렇게 13일을 버티었는데, 이 때에 의병이 봉기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음식을 들어 소생하였다. 저서에 『弘菴集』이 있고 유묵 수십여 점이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묘는 청운면 신촌곡에 있다. (청운면)

【參考資料】潘南朴氏世譜, 蕙溪淵源錄, 華西學派의 斥邪思想 研究, 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 박찬교씨 제공

박경인(朴景禪, 1661- ?)

밀성박씨 입향조. 본관은 밀성. 군의의 아들로 춘천시 남면 박암리에서 양서면 신원리 풀무골로 이주 정착하여 자손이 새거하고 있

(楊平人物誌)

다. 고는 신위리 촌부골에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密城朴氏判書公派譜, 9대손 朴壽男氏 증언》

박공현(朴公鉉, 1848-1900)

현말의 유학자. 자는 國瑞, 호는 龍石, 본관은 고령, 박시순의 아들이다. 묘소는 서종면 장배리에 있고 행장은 감계 이근원이 지었다. (서종면)

《參考資料》 高靈朴氏大同譜, 朴完培氏 提供》

박광천(朴光天, 1860-1910)

독립운동가. 자칭 상동면 죽장리 출신이다. 1907년 8월경 의병원동 중 의병장 금상진의 부하로 활약하였다. 강원도 홍천군 동선대의 동원교동에서 활동하던 중에 친위 밀고단을 차단한 후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1909년 11월 26일 경성지방 재판소에서 소위 강도 및 살인죄로 교수형을 언도 받아 항고하였다. 동년 12월 23일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10년 1월 2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교수형에 처하여 56세의 일기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양동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別編(1), 楊平義兵運動史,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박규장(朴奎章, 1674- ?)

조선의 문신. 자는 汝亨, 본관은 고령, 박시순의 아들이요 현배리

입향조 재정의 손자가 된다. 관직은 가의대부 행동지중추부사로 묘소는 서종면 정배리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高靈朴氏大同譜, 朴完培氏 提供》

박동완(朴東完, 1883-1941)

독립유공자. 호는 權谷, 朴鬱淳의 아들로 양평(?)에서 출생하였다. 한성외국어학교·배재학당에서 공부하고, 감리교 제인교회 전도사로 근무하는 한편 기독교신보사 서기로 전도와 독립사상 고취에 진력하였다.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옥 후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소년부 위원장·신간회 상임간사 등을 지내며 사회운동에 종사하였다.

1931년 만보산사건이 일어나자 제만동포옹호연맹 재무부장이 되어 현지 상황을 시찰하고 한중 양 국민의 융화에 힘썼다. 그 후 하와이로 망명, 한인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국내의 총업구락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타계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양근)

《參考資料: 무장독립운동사비서, 독립운동사자료집,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박만빈(朴萬彬, 1868-1907)

향의의사. 자는 圃和, 본관은 고령, 朴永元의 아들이다. 의사는 1868년 9월 8일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7번지에서 부친 朴永元과 모친 파평윤씨 사이에서 長男으로 출생하였다. 의사는 전하는 말에 의하면 보수했다고 한다. 1895년 병성황후가 諡號되고 또 단발령이 실

신되어 장재로 백성들의 머리를 자르는 등 일본의 만행과 전일 주구
님의 배신행위가 노골화되자 나라를 걱정하며 노심우사하고 있었다.

후기 의병 때인 1907년 어느날 말을 타고 온 10여명의 의병과 함
께 사람방에 들어가 상의하더니, 그들과 함께 집을 나갈 후에 소식
을 알 수가 없었다. 의사는 지평에서 일본군사의 향전하다가 흉탄을
맞고 쓰러졌으니, 향년 40세이다 (1907. 9. 30) 의병은 흩어지고 의
사의 시신은 거두지 못하여 방치되었다.

의사의 부인 강주씨는 2년 뒤에 남편이 지평에서 전사했다는 소
식을 듣고 직접 시신을 찾아 나섰다. 길에는 칠순의 시어머니와 3살
된 아들 朴敬熙를 남겨두고, 남편이 전사했다는 곳을 사방에 물어
찾아 나선 것이다. 때는 엄동설한이라 손발이 얼고 굶주림에 지치면
서도 고생 끝에 죽은 남편을 찾아 정배리 선영에 장사지냈다.

혼자된 30대의 최씨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밭밭으로 일하면서
노모를 봉양하고 어린 자식을 길러서 쓰러져 가는 박씨가문을 다시
세웠다. 최씨는 누가 혼자 고생하지 말고 세혼할 것을 권하면 정색
을 하며 “내가 현명생 남편을 잃기면서 할기를 기약했는데, 이제 남
편이 죽고 의지할 곳이 없는 시어머니와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
게 개가하는 것은 안을을 세머리는 것이다” 하고 기절하여 정원을
지켰다.

최씨는 남편의 송아를 낳는 탄대가 벌어지면 꿰매주기도 하였다.
남편이 죽은 지 오래되어 얼굴의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최씨는
여러 시신 중에서 탄대를 보고 자기가 세운 것임을 알고 남편의 시
신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서종면)

【參考資料：大韓每日新報(1910. 7. 13), 白雲文化(제13호), 楊平義兵運動史,
奉豐朴氏監事公誼譜, 故 金麟洙翁 諱昌】

박사희(朴姒熙, 1918-1951)

효부, 현모양처, 본관은 고령, 유학자 楊西 林峻彬의 장녀로 서종면 정배리에서 출생하였다. 모친 전주이씨는 교관 이승우의 딸이다. 1931년에 서종면 노문리 결성장씨인 張基德과 결혼하였다. 여사는 양서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여 심품이 온유하고 곧으며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농담이나 웃는 일이 없었으며 말이 적고 조용하며 정신이 맑고 총명하여 선조의 이름이나 기일 등 지나간 일들을 모두 기억하였다. 시부모 생전 시에는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침소를 보살피고 문안드리는 일을 빼놓지 않았으니, 『小學』에 '사람의 자식된 예절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며 밤이면 잠자리를 청해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를 묻는 것이다'고 가르친 바를 그대로 실행하였다.

시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배우 매봉해 하였고, 아침저녁으로 삼식을 올려 그 정성과 예절을 극진히 하였다. 그리고 시부모의 제사로부터 조상의 제사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하여 명절 때의 절사와 기일에는 정성껏 재수를 준비하고 齋戒하여 어두워지면서부터 다음 날 밝을 때까지 촛불을 밝히고 밤새 잠을 자지 않으면서 신중히 일을 주선하여 제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였다.

남편에 대하여는 순종하고 스스로 검약하였으며 자식에게는 정칙과 의리를 밝혀주고 가정 살림은 절제하고 부지런하였으며 가족에겐 돈독하면서 부덕을 닦아서 일동일정에 모두 충실하여 사사로움과 거짓됨이 없이 행하였다. 집을 다스림에 있어선 화서 이항로의 家法인 근면·검소·예비의 교훈을 따랐고 이단과 사설에 현혹됨이 없는 여사였다.

안민너도는 선현들의 생활신조였던 바 이사는 이자이긴 하지만 안민너도의 길을 따랐다. 남편이 1949(기축)년 조상의 묘비를 수립하고 노산영당(蘆山廟; 경기도지방문화재 제43호)을 창건할 때에 연약한 몸으로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물길고 밥 짓고 빨래하고 손님과 일꾼을 접대하는 일을 홀로 감당하면서도 수고로움을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기뻐하여 말하기를“ 조상을 위하여 일은 후손 된 자의 당연한 도리이고 선현을 존모하는 일은 후학의 당연한 도리이니, 바라건대 군자(군자=남편)께서는 物力이 부족함을 주저하지 마시고 계획한 일을 성사시키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생각하여 보면 돌을 쪼아 다듬고 갈아 갈자를 세우는 일이나 나무를 베어다 다듬고 톱질하고 대패질하여 기둥을 세우는 일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동안 찾아 온 손님과 일꾼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었는데 부인은 조금도 귀찮아하거나 짜증내는 일 없이 남편을 적극 도와서 內助의 공을 쌓았으니, 한 가정의 현모양처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조상과 선현을 존모하는 마음이 일관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1950년 6월 25일 동란이 일어나자 남편은 피의군을 피하여 가마봉 조상의 묘역 아래 양지쪽에 움집을 짓고 피신하였다. 이사는 세 아들을 데리고 집을 지키고 있었다. 중공군이 마을로 들어 와서 집집마다 다니며 양곡과 기물을 노략질하였다. 그때 집에는 중공군 의무대가 들어와 부상병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부상병의 찬상으로 이용하고자 제사상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이에, 이사는 제사상을 펼치고 말하기를“ 이것은 조상에게 제사치내는 데 쓰는 제사상이라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또 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줄 수 없다”고 하고 아들과 함께 석 불은 채 놓지

않으니, 중공군도 감동하여 더 이상 빼앗으려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사상이 정하게 보존되어 오늘날까지 전하여져서 선조의 제사를 올리고 있다. 부인의 이러한 일은 보통 여인네로선 행하기 어려운 용기와 의지로서 난세에선 보기 드문 일이니, 오로지 조상을 받드는 지극한 정성의 발로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해 봄에 국군이 다시 후퇴함에 동란 중 산후에 몸조리와 요양이 불가능하여 원기를 잃고 몸이 점점 쇠약하여졌다. 합병증세를 일으켜 회복되지 못하고 동란 중 마침내 1951년(신묘) 34세로 별세하였다. 장례일에 마을의 남여노유가 떠나는 상여를 바라보며 ‘착한 사람이 죽었다’ 하면서 슬피하였다. 묘는 서종면 노문리에 있으며 묘비문은 중와 김용숙이 지었고 글씨는 석현이 썼다. (서종면)

【參考資料: 高靈朴氏大同譜, 全容齋 撰 儒人高靈朴氏墓誌銘, 高靈朴氏家狀, 白雲文化(4)호】

박선흥(朴先興, 1902-1977)

3.1만세운동. 본관은 밀양인데, 1902년 10월 2일 지체면 송천리 243번지에서 출생하였다. 1919년 17세로 3·1운동에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헌병대에 붙잡혀가 1개월 간 구류를 살며 가혹한 고문을 당하여 실신하기를 여러번 하였다. 출옥 후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가끔 고통을 느끼기도 하였다. 박선흥은 ‘배워야 국민을 제도할 수 있고, 그래야 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다’고 했다.

1922년 경성사립 중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2월 23일에 보통학교 교원양성소를 수료하였다. 그 해 3월 31일에 경기도 보통학교 교원 제3종 시험에 합격했다. 그리하여 임소선공립보통학교 교사가 되었다. 여기서 왜인 불래 국어를 가르쳤다. 1933년 4월 6일 장현공립보

통학교에 근무하면서 한글을 가르치다가 일인교장에게 승커 교장실에 불려가 혼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마침내 권고사직을 당하고 1945년 8월 광복 후에는 고송분교장, 양동초등학교장, 지세초등학교 교감, 일선초등학교장, 정배초등학교 장을 역임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나라사랑, 국민사랑, 국어사랑 3가지를 늘 항상 외설하다가 1977년 12월 14일 타계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朴載周, 孫富德, 朴在夏, 李順仁 鄭址希 8인》

박세호(朴世豪)

조선초 문신, 諱名賢, 자는 望正, 호는 龍潭, 관향은 고령인대 청백리 朴處輪(1445-1502)의 아들이다.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 때에 조광조 등이 투옥되었다. 이 때에 박세호는 성균관유생으로 이약수·윤연직·김수성 등과 더불어 유생 1천여명을 주도해 인솔하여 광화문 밖에 모여 상소장을 올려 조광조 등의 억울함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권분을 지키고 있는 자에 의하여 통제되었다.

그러자 농담은 문지기를 밟치고 곧장 들어가 대궐 뜰에서 울부짖으며 풍곡소리가 임금 기척하는 곳에 들려졌다. 임금이 상소 주동자 5,6명을 卜獄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므로 농담 들은 하옥되었다. 그 후 1528년(중종 23) 문과에 급제하고 예조전랑을 거쳐 1540년 1월 27일 영월군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 때에 노산군(단종)이라고 칭찬한 위호를 회복시키지 않아서 신과 사람이 분개하고 위봉히 여겼다. 당시 영월군수가 부임하여 언이 어 속으매 사람들이 영월군수 부임을 회피하였다. 그러므로 농담의 영월군수 부임은 농담을 시기하고 해치려는 자들이 속출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 그래서 농담이 부임하려 할 때에 모두 위문하였다. 그렇지만 농담은 아무런 기색 없었다. 모재 김안주(1478-1543)이 전송하며 슬퍼하였다.

농담은 영월군수로 새로 부임하여 갔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꿈에 단종을 만나 단종의 시신을 찾아 안장하였다고 전한다. 농담은 1년 만에 관직을 사양하고 물러나 1541년(중종 31) 1월 22일 서종면 정배리에서 유거하여 여러해 살았다. 당시 영월군수는 단종의 원혼이 나타나 새로 부임하는 군수 7인이 놀래서 죽었다고 한다. 이에 박세호가 군수로 부임해서 단종의 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월 장릉 정내에 있는 洛村碑閣 비문에는 밀양인 낙촌 박충원(1507-1560)이 1541년(중종 31)에 영월 신임군수로 부임해서 꿈에 단종을 만나보고 단종의 한을 풀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농담이 1541년 영월군수에서 물러난 다음의 부사가 박충원이다.

즉 농담 박세호는 박충원 바로 앞의 전임 부사다. 단종의 원혼을 보고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인명대사건에는 박충원의 영월부임이 1545년(명종 1)이다. 그러므로 기록에는 의문점이 있다. 똑 같은 박씨인데 누가 단종과 영월부사에 얽힌 전설의 주인공인지 가려져야 할 것 같다.

아무튼 영월부사에서 물러난 박세호가 정배리에 유거함으로써 평택에 주거하던 그 5대손 朴厚淵이 정배리로의 입향을 가능케 하였다. 농담은 정배리에서 기묘유현들과 교유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그러므로 정배리의 지명 龍潭瀑·龍潭·龍潭峴(龍潭峙, 농다치고개)·龍寶山 등은 龍潭과 관련된 이름이라고 전한다. 농담 박세호는 정암 조광조 등 11유현과 함께 설악면 경현단에 배향되었다. (서종면)

【參考資料】靈越邑誌, 龍潭公行狀, 高靈朴氏大同譜, 韓國人名大事典, 加平郡誌, 龍潭記(朴致彬), 洛村閣碑文, 朴完培氏 提供

박수현(朴受鉉, 1828-1890)

유학자. 자는 大茂, 호는 一移. 본관은 高靈. 朴時敏의 아들이요 화서문인이다. 삼이는 화서에게 수학하여 문리가 성숙되고 제덕이 겸비하여 친구와 교유가 이루어졌는데, 화서가 철화정사, 고달산방, 정배리 이택재 등에서 강회할 때에 참여하였다. 3류는 정배리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타계하였다. 묘소는 보현 장기역이 있고, 묘갈명은 이조참판 단운 민병승이 지었다. (서종면)

《參考資料: 聞勉講錄, 楊西集, 斐溪齋源錄, 華西學派의 斥邪思想研究, 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 高靈朴氏大同譜, 朴完培氏 提供》

박시인(朴時仁, 1818-1879)

밀성박씨 임향조. 본관은 밀성, 진사 朴世讓의 셋째 아들이다. 한 때 옥천면 아산3리에 살고있는 朴和雄(完允)의 고조부가 여주군 동서면에서 강하면 동오리로 이주하여 그대를 살다가 부인 진주강씨(1819-1880)가 민곡으로 이주함으로 박씨가 이주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옥천면)

《參考資料: 密城朴氏族譜, 朴和雄氏 증언》

박시채(朴時采, 1789-1875)

조선말기 문신. 자는 聖若, 호는 月湖. 본관은 高靈. 朴鼎煥의 장자로 태어나서 백부인 嚴機(華西丈人)에게 입후하였다. 관직은 첨총장군 행용양위부호군이다. 여계리 화서 이항로 보다 3년 후 1으로 화서가 철화정사, 고달산방, 정배리 이택재 등에서 강회할 때에 일

심히 창강하였다. (서종면)

《參考資料: 關塾講錄, 楊西集, 華西學派의 斥邪思想 研究, 高靈朴氏大同譜, 朴完培氏 家譜》

박연섭(朴連燮)

밀성박씨 입향조. 본관은 밀양인데, 朴景洛(1720-1802)의 손자요 朴休貞의 셋째 아들이다. 休貞의 아들 進燮 迎燮 連燮 3형제가 강원도 인제군 내면에 살았는데, 連燮은 양평을 백안리로 이주하여 정착함으로써 대흥리 입향조가 되고 그 자손이 양평에 세거하고 있다. 양평군 내에는 연섭의 후손 약 40세대가 살고 있다. (양평면)

《參考資料: 密城朴氏族譜, 박의선씨 증언》

박영소(朴永韶, 1869-1938)

유학자. 자는 祥九, 호는 耕隱·一松, 초명은 朴永學, 본관은 고령, 황계 이복 문인이다. 1869년 서종면 정배리에서 受鉉의 아들로 출생하여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정배리의 우뚝한 학자가 되었다. 1893년 2월에 동궁 19세 생신에 실시한 과거장과 서울을 관광하고 돌아와 반곡에 사는 마남 선태형과 시를 지었다. 1894년 소송 양두환과 더불어 서종면 명달리에 도착하여 글을 지었다.

1895년 정월 13일에 지평현감 맹영재宅에서 시를 지었다. 1897년 벽계의 김한림(炳玉)택에서 오위장 具氏를 만나고 친림하고 재월대를 유람하고 벽산의 경관 7적을 읊었다. 경은이 읊은 시에 보면 벽산 7적은 재월대, 명옥정, 낙지암, 분설담, 왜취암, 석문, 일주암 등이다. 1903년에 벽계 김병옥 승지택에 머물러 시를 짓고 그 다음

남에 명단서숙을 방문하고 4월에 소유서당을 방문하여 이운초와 지를 지었다. 그 후로 이곳 저곳으로 방문은 이어졌다.

경은의 묘갈명까 행장은 이조참판 겸 부제학 단문 민병승이 지었고, 묘지명은 장기덕이 지었다. 서시에 『耕隱集』이 2권이 있는데, 서문은 신안 이승덕이 짓고 발문은 보현 장기덕이 지었다. (서종면)

《參考資料: 蘆山祠誌, 耕隱集, 楊西集, 蘇溪淵源錄, 華西學派의 斥邪思想研究, 高靈朴氏大同譜, 朴完瑛氏 提供》

박우빈(朴禹彬, 1870-1954)

유학자. 자는 嗣執, 호는 槲樵, 본관은 高靈, 朴永和의 아들로 1870년 8월 27일 서종면 정배리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가질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어느날 소낙비가 쏟아져 초를 끌어다 뺏더니 부친으로부터 ‘공부나 할 것이지 너보고 초 끌어다 빼라고 했느냐’ 하며 격질을 들었다. 갈망에서 종아리를 빗고 호변 부친은 회초리를 한 짚을 해다 선생에게 바칠다고 한다.

한말의 유림중사 화서 이항로가 1868년 불하여 정배리에 암시로 안장한 지 70년이래 정배리에 임시 안장한 묘소에는 상석과 묘비를 갖추지 못했다. 그리하여 평안도 선비 양맹규(유인석 문인)가 1869년 살경하여 이조참판 민병승과 상의하고 돌아가 김정업 김두운 등 평안도 선비들이 표석과 상석 등을 설치하고, 팔리비린 화서 이항로의 위도와 화서의 부원 무득원 이회장의 묘지를 되돌릴 할 적에 장거덕과 함께 실력을 다하였고 실패한 걸비도 부당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49년 장기덕이 노산영명(노산사) 창건을 시도할 때에는 안재승·박용하·이우정·초용구 등 5인과 맞키인으로 참여하였다. 1954년 노

선사 준공 후 첫 세향 시에 처음으로 초헌관을 하였으며 一命 40환을 출연했다. 또한 분묘의 직원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新明義塾(현 정배초등학교 전신)을 창립하는데도 출선수범 하였다.

자녀들 교육에도 힘써서 교육자의 가문을 이루게 하였으니, 증손 淵暉는 초등학교장, 현손 龍九는 의학박사이다. 蟬樞는 정배리에서 후학을 양성하였고 또 양치면 창계리에서 숙사로 초빙되어 후학을 양성하였다. (서종면)

《參考資料: 高靈朴氏大同譜, 藥門三事齋誠錄, 蘆山阿訖, 朴完培氏 제공》

박원겸(朴元謙, 1479- ?)

고려말 문신. 자는希益, 호는 恒陽, 본관은 榜友인데, 단월면 보룡리에서 朴孝順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일찍이 이 고장 보산정에서 수학하였다. 1504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514(중종 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양근군수, 풍천부사, 해민서교수, 광주목사, 충청도안찰사, 승정원 승지, 가선대부 예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관직에서 물러나서는 모재 金安國, 회재 이언적 등과 교유하며 서사왕래와 지사를 논하였다. 묘와 신도비는 단월면 보룡리에 있다. 비문은 개산 홍지필이 짓고, 심의면이 글을 썼으며 서승보가 찬하였다. 신도비는 향토유적 제12호이다. 적서에 『恒陽集』이 있다. (단월면)

《參考資料: 燕山君日記, 國朝榜目, 中宗實錄, 경기금석대관, 楊平文化遺跡總覽, 恒陽集,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박용규씨 제공》

박윤필(朴允弼)

형일의병. 원종 박윤필은 지평사람으로 안승우 의병장 휘하의 의

명건에서 맹렬히하였다, 원주시 서면에서 철과 싸운 칼에 의진이 흩어진 포수들을 수합하여 재반성하였다, 안승우는 박윤립을 보내어 김백선의 여러 아들을 잡고자 민의식을 뒤늦게 하였는데, 이때에 박윤필이 처평에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다. (지평면)

《參考資料: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박인수(朴寅壽, 1840-1906)

조선말기 문신, 학재명 曲川 석담. 자는 春卿, 호는 圭堂, 본관은 眞寶, 朴宗休의 아들, 화서 이항로의 문인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교리, 통정대부 비서원 비서승에 이르렀다. 지평면 옥소리에서 거주했다. 1903년 최익현·이근원 등과 스승 화서의 후사를 위한 강수계를 조직하고 100냥 출연하였다. 그리고 1905년에는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講修齋(蓬山講齋) 창건에 참여하여 1905년 3월 서재를 건립하고 을곡선생과 화서선생을 봉안하는데 기여했다. 묘는 지평면 삼상동에 있다. (지평면)

《參考資料: 講修契修成錄, 蓬溪齋堂錄, 蓬山書齋研究, 潘南朴氏世譜, 박찬교씨 제공》

박재정(朴再鼎)

고령박씨 임항조, 고양대군 박연실을 시관조로 하는 후손으로 원래 선대는 경기도 평택시 정북면 옥길리에 세거하였다. 그 중에 고양대군의 19대는 尙文이 경기도 동두천으로 이주하여 살면서 5형제라 두었는데, 차남인 재강이 서종면 평매리로 이주했다. 평매리는 재철의 5대조 농달 박재호가 1519년 기묘사화 때에 유거하던 곳이었

1541년 영월군수에서 물러나 은거하던 곳으로 再冊의 입향과 관계가 있는 곳이다. 정배리 세거리에 농담이 노닐던 농소·농담폭이 있다. 지금은 주변에 기도원이 들어서고 농소 주변 자연경관도 빼히되었다. (서종면)

〔參考資料〕 高靈朴氏大同譜, 楊西集, 朴完培氏 諱言

박 정(朴 績, 1335- ?)

무안박씨 입향조. 고려의 문신. 호는 松林, 본관은 務安. 고려 우왕 때에 개성에서 낙향하여 단월면 보룡리에 복거하였다. 충림은 고려말 공민왕 때에 간의대부에 있을 적에 왕에 직언으로 간하다가 미움을 사서 비인감무로 좌천되었다. 신돈이 나라의 권권을 쥐고 농락하여 나라가 혼란하여지자 감무를 버리고 1375년(우왕 1) 장처없이 말이 가는 대로 가다가 도착한 곳이 단월면 개일산하 보룡(한티)리였다.

충림은 여기서 은둔하여 살면서 불사이군의 절개를 지켜 조선조에서 비슬하지 않았다. 충림이 충경시절을 그리워하며 읊은 시가 전한다. 조카 박의룡이 개국공신으로 병조판서가 되자 왕래를 끊기도 했다. 묘는 단월면 보룡리에 있다. (단월면)

〔參考資料〕 延平郡校誌, 務安朴氏族譜, 朴용규씨 제공

박정화(朴廷和, 1877- ?)

유학자. 자는 景朝, 호는 菴菴, 본관은 밀양이다. 이근완·유인석·유중악에게서 수학하였다. 경기도 양평군 지재면 도곡리에 살았는데.

『砥邑山記』 『羅江錄』 등 써서 스승 이근원이 왜노에게 끌려가 당한 봉변과 그 유혹을 뿌리친 함일의 선조를 후세에 남겼다. (지평면)

《參考資料: 統志集, 砥邑日記, 毅衛門下同門錄, 羅漢源錄》

박준빈(朴峻彬, 1892-1969)

유학자. 자는 季彬, 호는 楊西. 본관은 고령. 朴永富의 아들이며 급제 이근원의 문인이다. 양서는 지재면에 가서 이근원에게 수업을 하고, 서종면 정배리에서 서당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였다. 또 강상면 송하리 龍潭洞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과묵하고 굳직한 자세로 저조를 지키고 학문과 사상은 공맹의 도학의 의리를 본받고, 우암과 화서를 숭상하였다.

존조존현하는 마음은 한결같이서 정배리 박씨 종산에 고양단을 설치하여 고양대군 등 선조 3위를 모셨고, 실악면 경현산에 선조된 기묘유현 농담 박재호를 추배하는데 별성을 다하여 배향케 하였다. 안사위요 재자인 장기덕(1920-2006)이 1949년 비계에 회서 이항로의 사당인 노천영당(노산사: 경기도지방문화재 제43호)을 창건할 때에도 적극 협력하여 도왔다.

마을의 관혼상제 등 대소사나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었고 이웃에게 덕을 베풀고, 재자를 양성하는 등 한말의 고명한 학자로 재상에 병성이 높았다. 또한 정배리는 고령박씨 존약의 중심이었기에 양서가 재상을 떠나자 문중에서는 뜻을 모아 묘표준 세웠다. 묘소는 정배리에 있고 비문은 장기덕이 지었다. 회서로『楊西集』 9책이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蘆山綱誌, 楊西集, 羅漢源錄, 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 高靈朴氏大同譜》

박준원(朴浚遠, ? - 1657)

음성박씨 입향조. 자는 士源, 본관은 음성. 朴宗誠의 첫째 아들로 통덕랑이다. 박준원 내외가 포천군 이동면 사격리에서 서종면 서후리 동넙골로 이주하여 살았는데, 준원이 별세하자 포천 이장산 선영에 장사지냈다.

재취부인 공주이씨(1631-1703)는 서후리에서 그 아들과 손자와 살았다. 그러므로 공주이씨 이하의 묘는 서종면 서후리에 있다. 부인의 둘째 아들 朴命龜(1656-1686)와 장손자 박정관(1669-1735)과 명귀의 아들 정순(1674-1738)은 서종면 서후리에 살면서 집성촌을 이루고, 둘째 정연(1685-1742)은 서종면 노문리 상벽 명천으로 이주하여 후손이 세거하였다.

한편 지평면 노곡에는 입향한 박지함의 셋째아들인 尾溪 朴世龜의 셋째 아들 통덕랑 廷禧의 아들 朴取欽(1714-1767)이 입향하여 세거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陰城朴氏世譜, 朴容瑞氏 世譜》

박중빈(朴重彬, 1862-1906)①

儒學者. 자는 用九, 본관은 高靈. 朴永龍의 아들로 서종면 경배리에서 출생하여 숙부 朴永龍에게 입후하였다. 1903년 최익현 이근원 등이 화서 이항로의 추모사업을 위하여 강수제를 조직할 때 참여하여 일금 25냥을 출연하였다. 또 1905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강수제(蓬山講席)왕건 당시에, 최익현·이우면·이근원·박인수 등 50명과 함께 봉문에 참여하고 1906년 3월 강수제를 건립하는

대에 기여했다. 여기에는 유과 리이와 화서 이항로의 영정을 봉안하고 매년 음력 9월 보름날에 제향하고 있다, 그러나 1월 24일 타계하여 강수재 준공은 보지를 못하였다. (서종면)

【參考資料】講修契修成錄, 蓬山書齋研究, 高麗朴氏大同講, 朴完培氏 提供】

박중빈(朴中彬, 1881-1961)②

3.1운동자. 자는 伯充, 본관은 高靈이다. 1881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상배리에서 朴永祿의 아들로 태어났다. 1919년 삼일운동시에 같은 마을의 金永祿·金永祿과 함께 군중에게 나누어준 태극기를 은밀히 제작하는 등 서울의 독립운동 단체인 強友會와 연계를 취하면서 기사 준비하여 양평을 만세운동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부지미한 시위진압으로 해산되고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흩어지고 말았다. 며칠 후에 일경에 의해 김영일·김승헌 등 3인은 체포되어 양주헌병대 분견소에서 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개월을 언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 후 일경의 요시한 인물로 지목되어 감시를 받으며 살았다. (서종면)

【參考資料】白雲文化, 愛國亂聲錄, 高靈朴氏大同講, 愛國志士光山金公墓碣銘, 獨立有功者功勳錄(14)】

박태한(朴泰韓, 1649- 1699)

안남박씨 함양조. 자는 叔, 봉준대부 상박원 권정 朴世稔의 3남이다. 어릴 때부터 효우가 권정에 뿌리해서 형제장제와 우애가 돈독하며 효로써 어미가 성기는데 저녁에는 환식을 경배드리고 새벽에는

살피서 문안드리는 절차와 語氣하는 태도가 어른과 같이하였다. 15세 때에 外觀을 당해서는 땅을 치고 하늘을 부르며 상복을 밋지 않고 슬퍼함이 禮制를 넘었다. 장례후 廬祀에서 대소상 담채까지 초상 때와 같이하여 스스로 절도가 있었는데, 매년 제삿날을 당하면 호곡으로 애봉하여 추효하는 성심을 다하니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다.

장성하여서는 학문이 경박하고 문장이 정초하며 경사에 능통하니 당시의 시류가 모두 의망하였다. 성도가 강직하고 용모가 웅위하며 기상이 초개하고 언어가 간중하여 회로를 얼굴에 나타내지 않으니 바라만 봐도 다 태인임을 알았다.

1681년 33세에 생위시와 진사시에 입격해서 영회전 참봉으로 임명되었으나 수월반에 관직을 버리고 비치산에 머물다가 다시 익위사 세마가 되어 위술을 거쳐 종묘직장, 공조좌랑을 역임하고, 남부령으로 이임하였다가 1684년에는 직부를 버리고 계룡산에 들어갔다가 우복포로 들어갔다. 다음해에 사복시 첨절사로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체임하고 1688년에는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가 1689년에는 다시 호조좌랑, 다시 형조좌랑으로 전임되었는데 혐의를 피해서 갔었다.

1691년에는 다시 돈녕부 관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직을 버리고 강화도 마니산으로 들어갔다. 1698년에 예조좌랑, 공조좌랑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 당쟁이 불식해서 기묘사화가 또 일어나니 조영이 혼탁하였다. 태한은 공명 정직한 자대로써 세상이 무도함을 개탄하여 다시는 관계에 나갈 뜻을 버리고 명승지를 돌아다니다가 4의 여러 번 소명으로 성은에 감복해서 부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699년 5월 10일 51세로 별세하니, 용문면 연수리 연화막 담전에 장사지냈다.

(용문면)

《參考資料》 潘南朴氏世譜, 砥平樵校誌, 박친교서 재공)



박필석(朴弼奭)

만남씨 입향조. 관동녕부사 박추韓의 아들이다. 사화와 당쟁으로 부친의 삶을 본 필석은 연수리 부친의 묘소 아래 집을 짓고 살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나무

를 심고 화단을 가꾸고 개울에서 낚시를 하며 세상과 담을 쌓고 이생을 보냈다. 그렇듯 자손에게는 관직에 나아가지 말며 釋族과 혼인하고 서울의 화려한 사대부와 혼인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기었다.

(용문면)

《參考資料 播平郡誌, 박찬교씨 제공》

방무신(方武信, 1642-1681)

은양방씨 입향조. 본관은 溫陽, 方詩孫의 아들로 정기도 포천에 살았는데, 方武信이 지세면 지평리로 이주하였다. 묘는 흥천군 남면 도연동에 있는데, 그 지가택이 흥천에서 잘살아서 지평에서 흥천으로 장사지냈다는 것이다. (지계면)

《參考資料 溫陽方氏大同譜, 方弘奎氏 제공》

방영환(方榮煥)

효자. 방영환은 은양인으로서, 모친이 80세에 우연히 눈이 멀게 되자 울인 장독대에 날마다 정안수를 떠놓고 비가오나 눈이 오나 읊거나 닦거나 10년간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대로, 어머니는 90세에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다. 양동면 쌍학리 효열각은 방영환과 이정자 권이란의 효열은 기리기 위하여 양동 유림이 건립하였다.

양동 유림을 중심으로 한 유도회에서 자체로 기금을 조성한 후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73년 10월에 준공하였다. 이 효열각은 양평군 향토유적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양동면)

《參考資料: 양평문화유적쌍학리 효열각, 楊平郡誌, 楊平義塚誌에 關한 批判的 考察, 孝行記文》

방종경(方從卿)

온양방씨 입향조. 방종경이 원주에서 지평으로 이주한 연유는 알 수 없다. 단월면 행소리에는 가파마을이라는 김성촌이 형성되어있다. (단월면)

《參考資料: 磁平郡誌》

백지인(白志仁, 1673-1694)

수원백씨 입향조. 자는 知淵, 본관은 수원, 증 형조참의 山天素의 아들로 숙부 白理素에게 입양되었다. 壽職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포천군 楊巨里에서 서종면 문호리로 이주하여 자손이 世居하고 있다. 아들이 師恭 師儉 師民 師根 4형제를 두었다. 종손으로 문호리 609번지 백승후씨가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水原白氏大同譜(8)》

변사륜(邊士倫, 1504- ?)

조선의 문신. 자는 明甫, 본관은 원주, 원천군 邊俗의 둘째 아들

이다. 1504년 출생하여 부과에 급제하고 총성관관·덕원군수를 역임하고 훈원원 장에 이르렀다. 사후에 자헌대부 형조판서에 증직되었다. 묘는 양평읍 창대리 갈산에서 풍천으로 이장했다. (양평읍)

《參考資料: 原州邊氏參判公派譜(上, 下)》

변 수(邊愔, 1447-1524)

조선조 무신. 자는 永叔, 본관은 원주. 예조참판 邊尙畇의 아들이다. 1469년 武科에 급제하여 1476년 重試에 급제하여 훈원원장에 제수되었고, 1478년 공조판서에 승진하고 이듬해에 병조참지를 거쳐 술감원 동부승지에 탁배되었다. 이어 좌승지를 거쳐 호조·병조·형조·공조의 참의를 역임했다. 외직으로 나아가 충청도·경상도·함경도·삼도의 관찰사를 지냈다. 1506년 대의를 세우는데 참여하여 정국공신에 오르고 원원군에 봉해졌다. 묘소는 양평읍 창대리에서 풍천으로 이장했는데, 이장 때에 나우 관은 남양주시 향토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原州邊氏參判公派譜(上, 下)》

변언수(邊彦秀, 1544-1593)

조선조 무신. 자는 仁顯, 본관은 원주, 중좌위부호군 邊暉의 첫째 아들이다. 1567년(병종 22)에 부과에 급제하여 외령부사, 병사, 기의대부 한실좌윤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 능지총추부사를 역임했다. 1592년 4월 수성대장 및 유도대장 평원군에 책봉되었다. (양평읍)

《參考資料: 原州邊氏參判公派譜(上, 下)》

변종식(邊鍾植, 1906-1951)

반공애국지사. 지사는 1906년 음 4월 12일 이곳 양평에서 출생하였다. 원래 성적이 감격하고 저유 수호의 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국민회의 양평지부장, 양평대한 청년단장 등을 역임하여 조국재건을 위하여 반공정신의 양양과 청년지도에 투신하였다.

그러나 6·25전쟁 당시 남침한 북한공산군에게 붙잡혀 금오의 몸이 되자, 그들이 투여하는 음식을 배격하며 불굴의 항거를 계속하다 잔인한 고문으로 인하여 마침내 1951년 5월 26일(음) 옥사하였다. 변종식 지사 숭혼비는 1960년 5월 양평읍 양근리 갈산 공원내의 서편에 세웠다. 돌에는 백세에 귀감이 될 우리들 동지는 이 작은 돌 위에 그의 행적을 세겨 길이 남기려 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양평읍)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韓國戰爭楊平戰亂史略

변준호(卞俊鎬, 1895-1966)

독립유공자. 변준호는 양평읍 양근리(303) 269-16의 출신이다. 일명 卞準鎬, 卞壽元이라고도 한다. 지사는 부친 1世承의 차남으로 태어나 서울 경신학교를 다녔다. 지사가 활동한 항일운동 지역은 주로 국외였다. 지사는 미주지역에서 조선의용대 후원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워싱턴외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지사는 1917년 23세의 나이에 중국으로 건너가 남경을 거쳐 미국 캘리포니아로 건너간 후, 1930년 사회과학연구회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사회과학연구회는 급진적인 한인 유학생과 청년들이 규합하는 데 많이 참가하였으나 미국정부 당국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인들의 대일항전이 일어난 때 조국독립운동의 기회로 인식하고 중국후원회를 조직하는데 앞장섰다. 따라서 직사는 뉴욕에서, 강영승은 시카고에서, 김강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각각 중국후원회를 조직하여 미주 중국인의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1938년 중국에서 조선의용대가 결성되자 미주지역에서도 후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 1939년 4월 의용대 후원회가 뉴욕에서 결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삼아 시카고 및 로스앤젤레스 등 미주본토와 하와이, 쿠바, 멕시코 등에 지부가 설치되었다. 이때 직사는 뉴욕 한인들을 중심으로 조선의용대 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매일선선과 군사후원금 모금을 위한 각종 대중집회와 기념대회를 개최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40년 5월에는 대내외 공작의 통일을 위해 조선의용대인 연합회를 발족시키기에 이르렀다.

직사는 1941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해외한족대회에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 연합회의 대표로 참가하여 미주지역 독립운동단체의 연합에 힘을 쏟으며 헌신적으로 독립운동에 노력하였다. 1942년에는 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로 개편하여 미주 총지부 위원장직을 맡아 운영하였다. 다음 1942년에는 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로 개편하여 미주 총지부 위원장직을 맡아 운영하였다.

1943년 9월에 민족혁명당 기관지인 '독립'을 간행하기 위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독립지'(Korean Independence)에 '조선민족혁명당과 우리의 해방운동'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4년 임시정부의 위실분 외부위원회의원 겸 상해 대표단 단원으로 활약하며, 1945년 초 분격화된 OSS의 한반도 침투작전, 즉 남코

작전(Napko Project)에도 참가하였다. 그는 미주에서 광복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1965년 4월에 로스앤젤레스 에서 71세로 한 생애를 마쳤다.

정부에서는 196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追授하였다. (양평읍)

【參考資料: 日帝治下韓國36年史, 在美50年史, 獨立有功者功勳錄(5),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京鄉新聞(1995.2.2)】

변홍구(卞洪九, 1862-1949)

효자. 본관은 밀양인데, 주민의 추천으로 군수가 풍신하여 고종 때에 효자로 표창되었다. 銀杯 한 쌍과 호피를 상으로 받았는데 은배는 현존한다. (양근)

【參考資料: 楊平郡誌】

보 우(普愚, 1301-1382)

승려. 일명 普虛, 성은 洪氏, 본관은 洪州, 호는 太古, 시호는 圓證, 탑호는 寶月外空이다. 옥천면 대원리에서 문하시중 판이부상서 洪憲의 아들로 출생하여 1313년 13세에 출가하여 양주군 회암사 廣賢에게서 불경을 배우고 가지산 하층림에서 도를 닦았다.

1325년(충숙왕 12) 승려에 급제했으나 출사하지 않고 1333년 용문산 상원암과 성서의 감로사에서 고행하였다. 1337년(충숙왕 6) 겨울 송도 전단원에 머무르면서 '無'자를 탐구하여 깨달은 바가 있다. 1341년(충혜왕 2) 삼각산 중흥사 동쪽에 절을 짓고 태고사라고 하였다. 1346년(충복왕 2) 중국에 가서 涪州 靑巖山 清珙의 법을 계승하여, 臨濟宗의 시조가 되었다. 1348년에 귀국, 가평군 설악면 설

표리 소설사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불도를 닦았다. 1362년(공민왕 1) 공민왕이 광명사에 원융부를 짓자 왕사가 되어 원융부에 머물다가 신돈의 횡포가 심해지자 소설사로 돌아갔다.

신돈이 죽은 뒤 국사가 되고, 우왕이 즉위하자 명원사에 있다가 1382년(우왕 8) 소설사로 돌아가 82세로 입적하였다. 화상 후에 승려 100명을 얻어 양산사와 사나사의 정충사, 소설암 등에 나누어 봉안하였다. 북한산에 ‘賣기화산’의 탑비가 있다. 선교일체론을 주장, 선과 교를 다른 것으로 보던 당시의 불교관을 바로잡고, 일심설을 정리하여 불교와 유교의 융합을 강조하였다.

또 왕도의 누척된 계단과 정치부패, 불교계의 타락 등에 대하여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저서로는 『太古和高語錄』 3권과 『太古遺音』 6책이 있다. 3001년 설악면 소설암에서 양촌 권근이 지은 「기원현 소설산암 원종국사사리탑비명」 비문이 발견되었다. (옥천면)

【參考資料：海東金石苑，楊平郡誌，加平郡誌①，朝鮮佛教通史，太古 普愚研究，韓國민족대백과사전，새고찰 경기도의 민들】



서상석 / 심흔

서상석(徐象錫, 1900- ?)

항일독립투사. 서상석은 갈산면 양근리 303의 출신이다. 그는 19세의 나이로 당시 우편국의 직원이었다. 1919년 3월 24일에 양평지역에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을 적에 만세시위에 가담하여 군중들과 함께 진행하다가 김경성·김석봉과 함께 일경에 붙잡혀 경성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징역 6월형에 처해졌다. (양평읍)

【參考資料】獨立運動史資料集, 判決文,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서석화(徐石華)

지평의병. 일명 石化, 지평출신 포군으로 김백선 등과 함께 병영재 휘하에서 동학농민군을 토벌한 공으로 철종장군의 칙지를 받았으며, 지평의전에서 김백선이 처형된 후에 김백선의 시신을 호송하여 귀향한 후에 의진을 이탈하였다. (지평읍)

【參考資料】獨立運動史資料集(1), 韓末의 堤川義兵

서 성(徐潑, 1558-1631)

문신, 자는 玄紀, 호는 藥峯, 시호는 忠肅, 본관은 달성, 徐燾의

아들, 李珥(李爾)의 문인이다. 1588년(선조 19) 별시문과에 급제, 1592년(선조 25) 병조좌랑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 호소사 黃廷歲의 종사관으로 형석에 이르러 두 왕자와 황정욱 등이 포로가 되지 혼자 탈출했다.

왕명에 따라 행재소에 이르러 병조정랑, 직장이 되고 병나라 장수 유정을 접대했다. 그 후 일행어사에 이어 채용감정에 특진, 이어서 5개 곳의 관찰사와 3조의 관사를 거쳐 관중추부사를 지냈다. 1613년(광해군 5) 재축화옥에 연루되어 11년간 유배되었다가 1623년 인조 반정으로 풀려나 형조판서에 복직되고, 다음해에 대사헌에 재수되고 경연과 실관관사를 겸하였다. 한효순의 간담이 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대비를 배한 죄를 논박할 때에 그 제자와 아들 근척을 귀양보내니 백성들이 통쾌하게 여겼다.

1624년 아갈의 난과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각각 왕을 호종했다. 이반기 등과 남지(기묘회)를 조직, 역학을 토론했고 서화에도 뛰어났다. 1628년(인조 6)에 반역옥사를 다스리어서 승복대부를 더 맡고 다시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악몽은 암서면 대신리 승거암에 삼십정을 짓고 시인들과 세월을 보내면서 칠산을 수련하여 양평군과 인연을 가지게 되었다. 사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대구 귀암서원에 제향되었다. 저서에 『樂家集』이 있다. 묘는 포천군 포천읍 철운리에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抱川郡誌, 白雲文化(5)】

서진이(徐晉履, 1622- 1661)

조선의 문신. 자는 주임, 본관은 달성, 官階부터 進級된 서경주

(1579-1643)의 아들 3형제 중 3째이다. 1653년 모친상을 당하여는 지나칠 정도로 상례를 지켰다. 상기를 마치고 명고별검·금부도사가 되었다가 상의원 직장으로 옮겼다. 1661년 가을에 추수감독관으로 농장에 나갔다가 병이 들어 돌아와서는 임종했다. 자헌대부·이조판서·김 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이 추증되었다. 묘는 양평읍 대흥리에 있다. 묘갈명은 최의정 권상하가 짓고, 전은 유척기가 썼다. (양평읍)

《參考資料: 大邱徐氏世譜, 京畿金石大觀,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삼명대학교 박물관), 서은석·서경원씨 제공》

성기열(成耆說, 1929-1991)

국문학자. 호는 水余, 본관은 昌寧인데, 서종면 문호리에서 成必慶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휘문중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 1968년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1979년 단국대학교에서 문학박사를 받았다.

1956년 『국어대사전』(민중서관) 출판기획을 담당하였고, 이듬해 규명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1958년 휘문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1968년 光州의 대건신학교 교수를 거쳐 1969년 인하대학교 교수로 제직하였다. 제직하는 동안 대학신문 주간, 출판부장,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한국구비전승의 연구』, 『한일민담의 비교연구』, 『한국민담의 세계』, 『한국설화의 연구』, 『유연(有緣)』 등이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水余成耆說博士還甲紀念論叢,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성세평(成世平, 1516-1590)

조선의 문신, 자는 世平, 본관은 황령, 종부시경 成希尉의 자이다. 1546(명종 11)년 사마시를 거쳐 1561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50여세에 비로소 승문원에 등용됨으로써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전직·찰방을 지냈으나 병으로 돌아왔다. 그 뒤 다시 횡성환감·급안군수·성주목사 등을 거쳐 군기시경·사재감정·장악원경·통례원 좌통례를 역임하였다. 다시 원주목사로 나갔다가 함서중추부사를 거쳐 1590(선조 23)년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병사하였다. 사후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신도비는 용문면 삼성리 추습산(일명 칠읍산)계곡 옆에 북서향하여 있다. 삼성리 들길 마을내의 양어장과 들길남시터의 부축으로 난 큰길을 따라 산으로 약 20~30분 걸어가면 계곡의 개울변 옆으로 있는 그의 신도비가 서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韓國文化遺蹟總覽, 韓國人名大事典

성 영(成泳, 1547-1623)

조선의 문신, 자는 士詠, 호는 鼎川·善庵, 시호는 義忠, 본관은 삼남, 강원도관찰사 成世平의 아들로서, 여주군 흥천면 북내리에서 성장하였다.

1568년(선조 1)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73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576년 사헌부 감찰을 거쳐 의정부사인에 임명되었는데, 이때 모친상을 당하자 지평현(양평군 용문면 삼성리)에 안장하고 3년간 시묘를 하였다. 1592년 여주목사가 되었다가 임진왜란시 경기도 순찰사로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였고 이듬해 경

기과도관찰사 겸 개성 유수로 임명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남정량함사로서 군량비의 조달을 담당하였다.

1599년 공조참판·한성부 좌유을 거쳐 대사헌·예조참판·대사간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듬해에 청백리에 뽑혔다. 1601년 한성부 관윤이 되고 1602년 지중추부사로서 전하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대사헌·충청도관찰사·호조판서·병조판서 등을 거쳐 1605년 좌·우참찬, 1607년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정인홍 등에 의해 윤희경의 당인이라는 이유로 파직되었고, 1616년(광해군 8) 연일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별세했다. 인조반정 후 복관되었고 선조 때에 청백리에 복선되었다. 신도비문은 남태지가 찬하고, 임희우가 썼다. (용문면)

【參考資料】楊平文化遺蹟總覽, 韓國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 鮮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손덕화(孫德化, ? -1896)

독립유공자. 지평출신 포군으로 을미의병시 지평의병 선창자 김백신과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충주 가흥 전투에서 김성화·김정순 등과 함께 전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從義錄, 湖西義兵事蹟, 獨立運動史資料集(11)】

손용문(孫龍文, ? -1896)

지평의병, 지평출신 포군으로 1895년 을미의병 당시 지평의진에서 활동하였다. 1896년 충주 가흥 전투에서 김성화·김정순 등과 함께

권사 순국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楊西義兵事蹟, 韓末의 堤川義兵, 獨立運動史資料集(1)》

송상인(宋象仁, 1569-1631)

조선의 문신, 자는 鼎求, 호는 西郭, 본관은 礪山, 현감 宋(宋)의 아들이요 임진왜란 때에 순절한 동래부사 宋(宋)의 아우다. 1569년 교부에서 출생하였다. 1605년(선조 38) 형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집현, 형조좌랑을 역임하고, 1612년(광해군 4) 갑적재의 특사에 임명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1621년 인조반정으로 직장, 4평을 역임하고,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이후 어사로 부임되고 이어 함경 평안도 지역 선유, 사예, 사성, 장령, 집의, 사복시 등을 거쳐 안동부사가 되었다. 1627년(인조 5) 경묘호란 당시 충청도에서 조운을 감독하고, 이어 집의 중부시 등을 역임하고, 남원부사가 되어서는 각지의 난동자를 소탕하여 평정하였다. 1629년 전라도 관찰사에 등용되었으나 모함을 받아 사직했다.

형의같이 두터하고 충효를 겸비하였다. 유교에는 '西郭遺記'가 있다. 조정호가 행장을, 장현광이 묘갈을, 박준빈이 묘지명을 지었다. 묘소는 서종면 정매리 후산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旅軒集, 韓國人名大辭典, 楊西集》

송인(宋寅, 1516-1584)

조선조의 학자·실학자, 자는 明仲, 호는 彌庵·龍溪翁, 시호는 文端, 본관은 여산, 영의정 宋(宋)의 손자, 宋(宋)의 아들이다. 1526년

(중종 21) 중종의 셋째 딸 정순옹주와 결혼하여 여성위가 되고, 명종 때 여성군에 봉해졌다. 의빈부·중훈부·상의원 등에서 요직을 역임하고 도총관에 이르렀다. 시문에 능했으며 이황·조식·이민구·정림·이이·성혼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류했으며, 만년에는 선조의 자문역할을 했다.

글씨에도 능하여 吳興의 필법을 받아 해서를 잘 썼으며, 산황의 畵와 궁전의 韻으로부터 사대부의 비갈에 이르기까지 많은 글을 짓고 썼다. 필적으로는 擴刊한 것이 전해진다. 작품으로는 글씨에 德興大院君神道碑(楊州) 등 다수가 있고, 지서로는 『淵庵集』이 있다. (지평면)

《參考資料: 中宗·宣祖實錄, 國朝人物考, 澤堂集, 德川師友錄, 朝鮮金石總覽, 大東書法, 韓國人名大事典》

숙안공주(淑安公主, 1635- 1696)

공주. 숙안공주는 조선 17대 효종의 장녀이다. 공주는 어릴 적부터 지혜가 총명하여 『요경』, 『내훈』, 『소학』에 능통했고, 인자하고 효성스러워 부왕의 사랑을 받았다. 1649(인조 27)년 익평군 홍득기와 결혼하고 예의범절을 잘 지키고 시가와 부군을 받들었다. (용문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 鮮明大學校博物館)》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1894-1966)

순종의 황후. 본관은 해평, 영돈녕부사 尹澈求의 孫女, 해평부원군 卍澤榮의 딸이며 정배리에 묘소가 있는 관서 유지선의 외증손녀이기도하다. 1894년(고종 13) 8월 20일 서종면 문호2리 대문호리

404번지에서 태어났다. 7세가 되도록 서종면 분호리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주했다.

1906년(광무 10) 10월 8일 13세에 동궁 계미로 책봉되어 이듬해 순종이 즉위하자 황후가 되었다. 윤후는 왕비가 된 후에 부친에게서 시서삼경과 효경을 배웠으며 일본인에게서는 일어를, 서양 이성에게서는 영어를 습득하여 지식을 쌓았다.

1910년 경술국치 때에 병풍 뒤에서 어전회의의 진행을 엿듣고 있다가 친일파들이 순종에게 한일합방을 남인할 것을 강요하자 독새를 치자 측에 감추고 내뿜지 않았으나, 백부인 윤덕영에게 강제로 빼앗겼다.

한일합방 후 일제에 의해 이왕비전하로 감칭되고 1926년 순종이 후사가 없이 승하하자 왕세 영친왕(李垕)을 왕태자로 책봉했다. 1930년 6월 28일 6.25동란 때에는 “오랫동안 호강하고 살았으니 이제 나이기라”고 하여 낙선재에서 꽃거나 운현궁까지 걸어갔다.

1.4후퇴 때에는 부산의 구포로 피난을 갔는데, 피난시절 윤비에게 간장·된장 등 장거리를 빌어다가 대준 정경 양자의 한 90대 비구니는 그 가난과 괴로움에도 얼얼한 번 별그리지 않던 윤비의 도량을 말하기도 했다. 수복 후에 인수재에서 군색하게 살다가 민주당 집권 때에 낙선재로 환궁했다.

말년에 고독과 비문을 탄래기 위해 불교에 귀의하여 대지월이란 법명을 받았다. 1966년 3월 3일 창덕궁 낙선재에서 별세하였다. 1966년 2월 7일 장의위원회에서 ‘純貞후궁’으로 칭해지고 11일장으로 상례를 치렀다. 양주 유공에 순종과 합장하였다. (서종면)

【參考資料】韓國人名大事典, 國史大事典, 韓國史 속의 樞平史, 郷土의 빛자취, 朝鮮日報(1966.2.6)】

신경운(愼景尹, 1624-1704)

지창신씨 입향조. 문신 자는 仲任, 호는 明谷, 본관은 기창, 전설사 별제 愼英健의 아들인데, 생부는 愼英振이다. 부인은 북한강 건너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白月의 함평이씨 구원 이춘원(1571-1634)의 손녀요 관관 愼錫의 딸이다. 愼錫은 서종면 도장리 國老所의 함평이씨 입향조 李之芻의 아버지 남계 愼壽와는 형제지간이다.

1624년(인조 2) 태어나서 1657년(효종 8)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660년(현종 1) 추천으로 고령현감을 지냈다. 1666년(현종 7)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1667년 사헌부 지평, 1669년 후에 동지사로 燕京에 세 번이나 다녀왔다. 동지사 서장관으로 연행시에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설욕할 뜻을 품고 산천의 험준, 지형 지물, 군비상태, 요새 등을 은밀히 기록하여 두고 북벌 계획을 준비하였다. 후에 북벌을 추진했던 李滉이 명곡의 지모참략에 탄복하여 칭찬하였다.

명곡이 먼길에 다녀온 후 통정대부로 승계하고 숙천·남양·영해·경원·해 府使와 제주·안동 목사를 역임하였다. 제주목사로 재임기간에는 문명한 백성을 위하여 학교를 세워 하문과 예법을 가르치고 한편 進善堂을 건립하여 무예와 병법을 가르쳤다.

또 안동부사로 재임시에는 흉년으로 군민이 굶어죽고 기아에서 허덕이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흉년에 대비하여 평시에 양곡을 수만 석 저축하여 두었다가 흉년이 들면 병든 자나 가난한 자에게 풀어서 재앙을 면하게 하였다. 이에 군민들이 뉘음이 자자하였다. 경주부윤 재임시에도 많은 치적을 남겼다.

1694년(숙종 20) 공조참의를 제수받았으나 취임하지 않고 퇴임하여 황해도 금천군 서북면 백서리 내명동에 거주하였다. 1703년(숙종

29) 가신대부에 오르고, 1701년 호조참판 겸 오위도총부 부총판, 중추부사 겸 의금부사를 겸임받았다. 그에 4월 13일에 종서하였다. 숙종이 슬피하여 예편을 보내 치제하고 사제문을 내렸다. 죄익한 능유림이 추모하여 금원사를 지어 봉안하고 후세의 모범을 삼으려 하였으나 시원결폐령으로 무산되었다.

봉수에 석견이 있는 명곡은 부친(英健)의 묘를 쓸만한 명당자리를 찾아 방방곡곡을 찾아다녔다. 시종전 서후리 섬곡(두꺼비굴)에 이르러 산을 둘러보다 지형이 절묘함에 감탄하고 '可話爲碑之地'라 하는 자리를 청하였다. 부친이 별세하자 그 자리에 부친을 장사지내고 묘사로 이주하였다.

남천에서 서후리로 이주한 때는 부인 한평이씨의 봉제사와 지혜가 작용하였음을 간파할 수 없다. 1704년(숙종 13)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전 1世하니 두터골(厚骨) 앞산에 장사지내고 후손이 世居하였다. 저서로 『매곡集』 전한다. 묘는 시종전 서후리에 있다. 전도미문은 변암 최익현이 지었다. (석종면)

〔參考資料〕 肅宗實錄, 居昌慎氏世譜(2), 遺墟厚骨慎史, 慎斗範氏 제공

신광흡(愼光欽, 1768-1833)

호자. 자는 人頤. 본관은 기창. 愼謙瑞의 셋째 아들인데, 당숙인 國瑞에게 입양하였다. 입양 가담에서 수업하나 광성하여서는 스승을 모시어 수학하여 널리 배우고 심오한 연구로 정사에 밝았다.

부모를 효도로써 섬기되 「기루」의 가르침대로, 그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기에 힘쓰고 음식과 의복을 알제하였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주었다. 새벽이면 일어나서 많이 작자우

면 볼을 때서 따뜻하게 해드렸다. 李友敦은 일생을 두고 일관되게 하였으니, 부모에 효도함이 하루도 현시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1812년 3월 어머니가 81세로 하세 하자 서종면 서후리 선영에 장사지냈다. 묘소가 집에서 1백리가 남기에 조식으로 모실 수 없어 삭망이편 반드시 서울에서 서후리 묘소까지 도보로 와서 성묘하고 며칠을 묘하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살림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서후리 묘소 아래로 이주하게 되었다.

묘하로 이주해서는 매일 조식으로 눈이오나 비가 오나 비람이 부나 묘에 올라가 슬픔을 다하였다. 마침내 서후리 은행나무 아래 집터를 마련하여 가옥을 신축하니 때는 1813년이였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온 가족이 이주하게 되었다. 돌아가신 아버이를 만들기 위함이였다.

학문 연구에 정진하고 효우돈목에 노력하기를 평생토록 한결같이 하였으니, 일동일정에 엄정하고 주자의 예법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여 모범이 되었다. 그래서 향리 사람들이 학행이 군자라고 칭찬하였다. 또한 항상 손에는 성현의 책이 떠나지 않았고 세도 있는 집에 드나들지 않아서 清修高節하고 博學多識하여 신비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서종면)

《參考資料：居昌慎氏世譜(2), 遺墟厚谷懷史, 國史大事典, 慎斗範氏 제공》

신덕영(申德泳, 1918- ?)

독립유공자. 신덕영은 양평출신이다. 그는 광복군 제2지대 제3전구에 입대하였다. 광복군 후기의 활동으로 임시정부의 광복군 훈련반을 설치함과 동시에 제2지대에서는 조국광복 전선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그는 독립군의 독립정신과 항일 운동의 사기를 보다 더 높기 위하여 철일군가를 지어 이를 전군에 보급하였으며, 장병들은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은 개인이나 단체생활에 구국정신이 담긴 군가를 부르며 독립 쟁취를 맹세하였다.

이러한 군가들은 대개 이법석 지대장을 위시하여 신단열, 이재현 등에 의하여 작사되고 1943년 10월에 광복군 제2지대 군가집이 인쇄 배포되었다. 이때 제2지대에서 장병들 간에 불리어진 군가가 있다. 매일아침 지대 광장에 모여 태극기를 올리면서 조국을 향하여 우뚝 차게 부르던 군가는 조국행진곡, 아리랑 행진곡 등과 조국의 어머니, 흥리가는 저 구름, 어명의 노래, 고향의 단팥, 새 대한 등이었다.

1945년 지사는 한미합작훈련인 OSS훈련 정보과기반에서 훈련교육을 받고 국내 정전군 제1지구 황해도반에 편성되어 대기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은 1963년, 1977년, 1990년에 대통령표창, 건국포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양평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신 만(辛晩, 1570-1614)

부신, 자는 子熙, 본관은 영산, 풍덕명 辛威諱의 아들이다. 1591년(선조 24) 부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선조를 표종한 공으로 삼등에 녹훈되고, 승좌위 부사의 어모장군으로 봉정대부에 올랐다. 1614년(광해 6) 출서하니 있는 남중면 문포리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靈山辛氏世譜, 辛牧重氏 世譜》

신무일(愼無逸, 1676-1736)

문신. 자는 敬所, 호는 白淵. 본관은 거창. 소위장군 愼爾惠의 둘째 아들. 농암 김창협 문인이다. 1702년(숙종 28) 성균진사로 벼슬길에 올라 참봉, 봉사리장, 서흥현감, 곡산현령 병마도위로 재임중 1721년(경종 1) 정시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과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그 해 12월에 종묘사직이 위기에 처하여 사화가 태동하더니 신임 사화가 일어났다. 정언으로 임무를 다하였으나 정세에 밀려 마침내 파직을 당하고 유배되었다. 1725년 경종이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하자 유배에서 풀려나 복직되어 사간원 헌납으로 승임되고 이어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로 영전하였다. 이어 홍문관 응교, 부제학, 이조참의, 대사첨 사간원 홍문관 지제교 등을 역임하였다.

1730년(영조 6) 가선대부 예조참판에 올랐다. 저서로 『白淵集』이 있다. 묘는 서종면 서후리 망월봉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孝宗實錄, 居昌愼氏世譜(2), 遠城厚谷愼史, 愼斗範氏 제공》



신 변(申抃, 1470-1521)

조선조 문신. 자는 樂天, 호는 橋宇. 본관은 평산, 시호는 眞信. 감찰 申永和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 7) 진사가 되고, 1515년(중종 10)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학유를 거쳐 1519년 사헌부 지평 집의에 이어 황해도 도사가 되

있다. 이 해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비습을 버리고 지평에 은거하였다.

1521년(중종 16) 신사부옥에 산당들이 조관조를 참형하고 안당·김안국·김형국·유운 등과 함께 과직당하고 국문을 받다가 화를 당하였다. 1545년(인종 1) 신받되고, 1746년(영조 22)에 이조판서 김홍문관 대제학을 추증하고 시호를 貞信이라 내렸다. 경기문화재자료 제 18호인 용문면 비촌리 운계서원에 제향하고 있다. (단월면)

【參考資料】 中宗實錄, 大東龍府群王, 奎溪書院誌, 磁平郡校誌, 韓國人名大事典

신사국(申思國, 1745-1797)

평산신씨 입향조. 초명은 思勉, 본관은 평산, 申錫의 첫째 아들이다. 1745년(영조 21) 강원도 동관군 서면 모곡리에서 무인 양근함씨가 아들 6을 데리고 옥천면 용천3리 신촌말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양근함씨인 것으로 보면 申氏의 옥천면 입향은 양근함씨 친정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후는 용천리에는 사는 김수의 8대조가 된다. (옥천면)

【參考資料】 平山申氏思簡公派譜, 申甲錫氏 증언

신석기(辛錫祺, 1657-1722)

문산. 자는 伯瞻, 본관은 영산, 1657년(효종 8) 사복시정 辛義存의 아들이다. 비습을 승정원 좌승지 겸 경변첨안관, 통정대부에 올랐다. 묘는 강상면 송하리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靈山辛氏世譜, 辛敦重氏 재공

신석영(辛錫永, 1881-1960)

독립유공자. 신석영은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883의 출신이다. 그는 1919년 송학리에 거주하면서 3월 29일 양근을 장보러 가기 위해 강상면 교평리 渡船場에 나와 있었다. 이 천날 3월 24일 양근읍의 만세시위로 이날은 강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때 그는 나무터에 모인 군중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조국이 이미 독립되었다는 말도 들었다. 이에 나무터에 세워놓은 태극기를 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으니 기쁘지 않소?" 하며 독립만세를 부르자, 100여명의 군중도 여기에 호응하여 만세를 불렀고 나무터는 이내 만세 시위장으로 바뀌어 버렸다.

신석영은 이날의 시위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그 해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즉시 항고하였으나 6월 13일 경성복식법원과 7월 26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던 것이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을 기리어 196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追授하였다. (강상면)

【參考資料】獨立有功者功勳錄, 獨立運動史資料集, 楊平義兵運動史,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辛敎重氏 제공】

신석오(辛錫五, 1647-1708)

무신. 자는 龜我, 본관은 명산. 중 불침대부 辛表師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672년(현종 13)에 부거에 급제하여 북청진관병마절제 도위를 거쳐 보사공신 흥원현감을 역임하고 통훈대부에 올랐다. 묘는 강상면 신화리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靈山辛氏世譜, 辛敎重氏 제공】

신석일(辛錫一, 1634-1689)

문신, 자는 壽我, 본관은 영산, 중 가신대부 辛瑞의 손자이며 중 함정대부 辛義順의 장남이다. 1665년(현종 6)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산관, 도총부 도사를 거쳐 훈련부정, 교원군수 부형권산부사, 옥원영장, 경흥부사를 역임하였다. 1680년 출하니 묘는 갈산면 신화리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豐山辛氏世譜, 辛敎重氏 제공

신성기(辛成己, 1558-1621)

문신, 자는 仁暉, 본관은 영산, 1558년(경종 13)에 중 호조참의 辛瑞의 아들로 태어났다. 1588년(선조 21)에 성균관원시에 합격하고, 1600년(선조 23)에 문과에 급제하여 선천군수, 좌동래를 거쳐서 춘추관 편수관, 상서원 정, 예문관 직제학, 승정원 도승지 겸 첨연참찬관을 역임하고 봉정대부에 올랐다. 묘는 갈산면 신화리에 부인 권주이씨와 합장되어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豐山辛氏世譜, 辛敎重氏 제공

신성립(辛成立, 1602-1647)

문신, 자는 武哉, 본관은 영산, 함지랑 辛瑞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고 1630년 병자호란 때에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호종한 공으로 總督을 받았다. 함지중추부사로 봉정대부에 올랐다. 묘는 강상면 신화리 분토굴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豐山辛氏世譜, 辛敎重氏 제공

신성미(申誠美)

평산신씨 입향조. 자는 순중, 본관은 평산이다. 최초로 낙향한 곳은 개군면 추읍산 아래에 복거하다가 3대 후에 지평 양동면 고송리 장만대라는 곳으로 移居하였다. 장만대에는 그 후손 5·6세대가 살고 있다. (개군면)

《參考資料: 砥平鄉校誌》

신세윤(辛世胤, 1484-1546)

문신. 본관은 靈山, 중 병조참판 수信的 증손이며 중 통래원 최봉래 衡의 둘째 아들이다. 벼슬이 경산현감을 지냈으며 중 호조참의이다. 묘는 강상면 신화리 문토공에 부인 풍양조씨와 쌍분으로 되어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靈山辛氏世譜, 辛敏重氏 제공》

신순근(辛淳根, 1896- ?)

3.1운동. 신순근은 양평 용문면 출신이다. 그는 27세의 나이로 1919년 3월 30일 같은 변단위 출신으로 조영호, 김윤구와 함께 용문면 광단리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독립가를 만들고 군중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일본인은 물러가라 "독립은 천운이니 사람의 힘이 미칠 바가 아니다"하면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신순근은 일본경찰에 붙잡혀 김윤구와 같이 징역 6월에 처하여 투옥되었다.

(용문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5),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判決文》

신 신(辛信, 1418-1496)

영산신씨 입향조. 조선의 무신. 시호는 直節. 본관은 龜山. 고려 금사광록대부 문하시랑 평장사 辛毅의 14세손이요 예문관 직제학 辛 黼의 다섯째 아들이다. 1434년(세종 16)에 부과에 급제하여 장계전 관방마질제도위사를 지냈으며 1437년(세종 19)에 대호군이 되어 김 종서와 더불어 북경 복진을 개척하였으며 병조참의에 올랐다. 세조 가 즉위하자 1456년에 양근으로 낙향하였다.

1470년(성종 1)에 벽동군수를 지냈으며 인산형난에 양근으로 다시 돌아왔다. 1486년(인산 2)에 종서하니 1587년(중종 2)에 장헌대부겸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이로써 그 후손이 양평군 강감면에 세거하여 영산신씨 덕재공파 입향조가 되었다. 후손이 20여대에 세거하고 있으며 묘는 강상면 전회리 분토골에 무인 연안어씨의 나란히 쌍분으로 되어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龜山辛氏世譜, 辛敦重氏 家譜



신영건(愼英健)

효자. 자는 子顯. 본관은 眉川. 영해의 아들이다. 전설사벌새를 사 약으로 비슬길에 올랐으나 광해군 때에 민목대마 매모론에 관여했다고 김성징(1589-1637)이 포함되어

유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절정의 부친 김류가 愼모를 허위로 피에 얹어 넣은 사실이 폭로될 것이고, 부끄러운 관편을 유배시킨 조절에서 불의가 발생하면 도

리어 자기에게 불리할 것을 예측하여, 김정정을 문초질책하고 속히 귀양을 식방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불과 2년에 사면되어 귀가하였다.

그 후 복직하라고 천지들이 권고하였으나 일체 벼슬을 사양하고 몸을 지키며 거문고로 세월을 보냈다. 본래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하여 권문에 출입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었다. 과당의 폐해와 반정공신의 논공행상 등 혼란한 정국에 더 이상 휩싸이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전하는 기록에 보면, 아버이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였다. 병든 아버이를 모심에 지성으로 간병하였고 병환이 위중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입에 피를 흘리드렸다. 돌아가신 후에는 상례에 있어서 일호라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였으며 인거일동이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그러므로 향리 사람들이 추종하였다.

묘는 아들 명곡이 이비 자리를 잡아 놓은 서종면 서후리 중봉에 장사지냈다. 후에 호조참판 오위도총부 부총판 동지중추부사가 추증되었다. 묘 자리에 대하여 求山으로 방방곡곡을 헤매던 명곡이 말하기를 “百代千孫之地, 可活吾孫之地”라 하였다고 전한다. (서종면)

《參考資料 光海君日記, 居昌慎氏世譜(2), 遺墟厚谷慎史, 國史大事典, 慎斗範氏 재공》

신영상(愼永祥, 1808-1890)

유학자. 자는 聯直, 본관은 거창이다. 관직은 선공감역을 시작으로 하여 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으로 수직 봉정대부 돈녕부 도정에 이르렀다. 매사에 사리가 명확하고 힘이 장사이며, 빈백을 접함에 소홀히 함이 없었다.

특히 효성이 극진한 효자였다. 노모가 밤참을 매일 손수 지어 드리고, 병이 차고 더운 것을 살펴서 밤바닥이 차면 새벽에 불을 때서

따듯하게 해드리는데 ‘冬溫而夏凊 存心而履信’을 하부도 한다는 일이 없었다. 그는 부모 봉양하는 일을 하나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하여 세상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는 마을 사람 중 빈곤하여 조식을 배우지 못할 때에는 식량을 나누어주어서 구제하곤 하였다. 세도가의 추대를 가질하였으나 박재 화서 이항로에 종유하면서 의리를 추구하며 살았다. 친한 권대가 아들 익현과 함께 서후리에 살았는데 막역한 사이였는데, 명암과 신씨 외는 사돈지간이 되었다. 묘는 서종면 서후리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勉菴集, 居昌慎氏世譜, 續墟塚各續史, 樞平鄭氏 家譜》

신영세(辛榮世, 1845-1905)

부신. 자는 聖信, 본관은 양산으로 1845년(헌종 11)에 辛敬根의 아들로 태어났다. 무과에 급제하여 풍양위 겸 오위경 전총장군을 역임하였다. 묘는 강하면 동오2리에 있다. (강하면)

《參考資料: 豐山辛氏世譜, 辛敬重氏 家譜》

신영춘(辛榮春, 1919-1991)

군수. 호는 香谷, 본관은 영산, 1919년 강상면 신화리에서 辛載求의 아들로 태어났다. 1940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경기도 평주군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양평군청 산업과장, 내부과장을 지냈다. 경기도청 산업과장을 거쳐 1964년 용진군수, 인천군수, 김포군수를 역임하고 양평군수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였다. 정부로부터 농조근검훈장을 받았다. 영산·영원신씨대종회 부회장으로 귀천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묘는 강상면 신화리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靈山辛氏世譜, 辛敎重氏 世宗

신우균(申祐均)

독립운동자. 신우균은 양서면 대심리 57의 출신이다. 그는 일요학교 교사로서 1919년 2월 13일 조선독립운동 발기취지문을 작성하고 자 최대현의 양자 최광석을 시켜 면사무소의 동사기를 빌려 인쇄한 후 2월 하순에 양평군내 11개 면장에게 발송하였다. 그후 최대현, 윤기영, 이보원 등과 동군 강하면 면사무소 앞에서 3월 31일 오후 11시경에 군중 30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하였다. 4월 1일에는 양서면사무소 앞에서도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가 일경에 붙잡혀서 90태형(笞刑)을 받고 옥살이를 하였다. (양서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신원영(辛元英)

항일운동자. 양평출신으로 양평군 용암리에 거주하는 양구출신 미순명과 제야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양평읍)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1),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신원화(辛元和, 1708-1799)

학자. 자는 善長, 본관은 영산, 중 호조참판 79의 장남이다. 벼

(楊平人物誌)

습이 동지중추부사이며 가신태부에 올랐다. 묘는 강상면 신화리 분토골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豐山辛氏世譜, 辛敦重氏 제공》

신 유(辛晙, 1583-1650)

문신. 자는 申踰, 본관은 영산. 도승지 申咸仁의 아들이다. 1616년(광해 7)에 부리에 급제하여 전라좌수사, 경상좌수사, 용강현령을 지냈고 첨중랑군을 지냈으며, 훈련부정, 상천 칠산부사를 거쳐 양주목사를 역임하였다. 가신태부 형조참판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추증되었다. 묘는 강상면 신화리 분토골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豐山辛氏世譜, 辛敦重氏 제공》

신윤종(申允宗, 1438-1502)

문신. 자는 允之, 본관은 평산. 증좌의정 申仁彦의 아들이다. 16세에 음사로 충청부독사의 보좌을 맡아 지감을 역임하였다. 음죽명천강화양양종주 등 각군의 군수를 역임하였는데 치적이 있었고, 은녕부 예빈시사에 올라서는 모든 일을 잘 처리하였다. 1501년 상주목사로 부임하고 다음해에 출세하였다. 묘는 양서면 북왕리에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平山申氏貴議公派譜, 신재응씨 제공》

신자근(申自謹, ?-1453)

문신. 본관은 평산. 좌군도총제 효장의 첫째 아들이다. 미혼. 평면

을 보면 1418년(태종 8) 사헌부지평, 1430년 형조좌랑, 1439년(세종 21) 선략장군, 1440년 지사간, 1446년 판애민시사, 직병조사, 첨지중추원사를 거쳐 1447년 이조참의, 황해도 관찰사, 1451년(문종 1) 중추원부사, 1451년 첨지중추원사, 동궁의 사무를 맡은 인순부윤을 역임하였다. 묘는 양서면 복왕리에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平山申氏齊靖公派譜, 신재운씨 제공

신자수(申自守, 1930-1961)

문신. 본관은 평산, 좌군도총제 신희창의 아들이다. 태종 때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벼슬길에 나아가 1430년(세종 21) 호조좌랑, 1443년 사헌부 지평, 1446년 중군호군, 다음해에 사재감정, 1449년 무안대군의 부인 왕씨의 호상을 맡았고, 1450년 사간원 지사간원사, 1451년(문종 1) 첨지중추원사, 1454년(단종2) 정조사로 중국에 갔다 다음해에 귀국한 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455년 상호군, 1458년(세조 3) 동지중추원사를 역임하였다. (양서면)

【參考資料】 平山申氏齊靖公派譜, 신재운씨 제공

신재원(申在元, 1860-1930)

독립유공자. 신재원은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336번지 출신으로 천도교인이다. 1919년 3월 1일 천주교주 손병희등 항일운동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자 3월 23일 청운면 용두리 장날을 이용하여 정경사·김종학·민주혁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주동하였다. 지사는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정경사와 함께 용두리 장날을 이용하여 활동

게시로 정하였다.

3월 23일 직사는 삼각시와 용두리 시장으로 가던중 김중학과 민주회를 만나 그들의 기사 계획을 알려 동참할 뜻을 얻고 아물리 다리 밑에서 자신이 구입해온 흰 천에 김중학으로 하여금 ‘朝鮮獨立旗’라고 쓴 깃발 3개를 만들었다. 그들은 장터에 이르러 150여명의 군중을 동원하여 그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듬해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77년에 대통령 표창, 1990년 애족장을 追授했다. (단월면)

《參考資料：獨立運動史(3), 獨立運動史資料集(5), 獨立有功者功勳錄(2), 判決文,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白雲文化(5)》

신재익(申在翼)

창인부사, 양평출신으로 1906년 농민동맹운동 대표의 한사람이다. 서울 인근 양주, 양평, 여주, 용인 등의 항일항쟁부사, 김용기, 이영호, 최용근, 권중훈, 최용순, 문용, 신홍현, 박성익, 주한철 등과 함께 양주군 봉안촌에 이성동촌을 건설하고 이들로 하여금 농민동맹조직을 하였다.

대일항전에 참여하면서 조선독립을 위하여 애정의 장악에 의한 징용, 징병에 결연자와 애국투사들을 보호하고, 전쟁물품수송을 저지하며 철도를 파괴하고 각 관공서의 문서를 파괴하고 법원서류를 방화하는 등 항일운동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중지들과 용문산을 거점으로 항일농민동맹 조직이 일제하의 험난한 속에서도 농민동맹조직이 존재하였다.

이렇게 활약상은 한민족의 끈기 있는 항쟁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이 농민동맹을 결성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 항쟁이었다. (양평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10),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신정일(辛貞一, 1786-1842)

효자. 자는 士固, 본관은 영산. 시조 辛鏡의 24세손이요, 승정원 좌승지경 경연참찬관 辛大猷의 셋째 아들이다. 7세에 효경을 배워 효가 백행의 근본임을 알고 어릴 때부터 父祖에게 효성이 저극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였다. 부모를 섬기되 昏定晨省과 寒溫供旨를 하루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으며 부모의 뜻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추호도 어기는 일이 없었다.

장성하여서도 더욱 부모에게 효도를 정성스럽게 하여 잠시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부친이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되자 천천 궁궁 여쭈할 바를 물라하며 백방으로 약을 구해 병간호를 했다. 그러나 효험이 없이 병이 위독해지자 태변을 맛보며 병세를 해아려 약을 쓰는 등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부친이 세상을 뜨자 망극한 슬픔 속에 상례를 다하고 3년 동안 상식과 성묘하기를 거르는 날이 없었다. 이리하여 향리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임금에 上啓하여 효자정려하고 동몽교관 조봉대부를 내렸다. 사후에 동지의금부사에 추증되었다. 묘는 강상면 신화리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靈山辛氏世譜, 辛敬重氏 家譜

신창현(申昌鉉)

한말의 의병, 신창현은 임평출신이다. 그는 정부군으로 재입종 군대 해산시에 퇴역한 후 1907년 8월경 의병이 어천군에 깃음을 받고 김봉기의 부하에 투입되어 2개월 간 의병 1백 70여명과 함께 병기를 휴대하고 미천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다. 다시 양근군에 진입하여 조인환과 합세하고 8월중 부하 170여명을 이끌고 광주군 분원에 처 2차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조인환이 피신한 후 의병들의 추대로 대장이 되어 300여명을 이끌고 양근광주지방을 무대로 활동한 후 9월 중순에 강원도 인제로 이동하여, 인제에서 마장 민공회를 만나 6명의 대장들과 의선에 합세하여 군병 1만여 명 가량 각기 병기를 휴대하고 신창현 등에 전을 치던 중 여러 차례 접전을 벌였다. 그는 교전중 상경하여 마침내 1908년 5월 20일 재포되어 29세 나이에 경성공소원 형사부서에 9월 15일 종신형에 처하여 생애를 옥고에서 보냈다는 것이다. (양평면)

《參考資料: 독립운동사(1),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1), 明治百年史叢書, 橋平獨立運動史資料集, 韓國獨立運動史》

신철구(辛哲求, 1832-1902)

조선의 문신, 자는 良弼, 본관은 영산으로 1832년(순조 32)에 중흥정대부 수유(誥)의 아들로 태어났다. 1870년(고종 7)에 형시문과 병과로 급제하고, 1871년 교서관 정주, 풍서랑 교서관 박사를 거쳐서 상군관 전직, 봉훈대부 사헌부 장령, 예조성랑을 역임하였다. 1883년(고종 20)에 사간원 정언, 통정대부에 올랐다. 그는 감성면 신화리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靈山辛氏世譜, 辛敬重氏 제공》

신필후(辛弼后, 1686-1746)

문신. 자는 士良, 본관은 영산, 辛宜章의 아들이다. 1707년(숙종 33)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홍덕현감 병마절제도위를 역임했고 통훈대부에 올랐다. 묘는 강상면 신화리 화전현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靈山辛氏世譜, 辛敎重氏 제공》

신필응(辛必膺, 1697-1756)

무관. 자는 漢卿, 본관은 영산, 통덕랑 辛錫千의 아들이다. 벼슬은 절충장군 용양위부사과를 역임했다. 묘는 강상면 신화리 당골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靈山辛氏世譜, 辛敎重氏 제공》

신학인(愼鶴仁, 1831- ?)

학자. 자는 天雨, 호는 晦隱, 본관은 거창, 愼永萬의 아들인데, 생부는 愼永詳이며 화서 이항로의 문인이다. 희은은 문한가의 가문에서 공부하며 자라고, 기골이 장대하고 풍모가 준수하며 기상이 높고 화려하여 身言書判을 갖추고 있었다. 일찍이 유림종사 화서 이항로 문하에서 수업하여 그 동문 김평묵, 최익현, 유중교, 박수현 등과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고 도학과 의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변암 최익현(1833-1906)은 서후리에서 살았는데 1843년 11세부터 22살까지 10여 해를 같은 마을에서 살면서 노문리 화서 문하에 출입하여 희은과는 가까운 사이였다. 최면암이 명곡 희은의 7대조 신경윤(1624-1704)의 신도비문을 지은 것이나 신씨네와 사돈지간이 되는

사실로 어타를 짐작할 수 있다.

희은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학문적인 것만이 아니라 가까이 앉고 두루 교류하여 권문세족과도 두터웠으나 사사로운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며, 즉 정리에 얽매어 무엇을 배려한다 해도 속하게 여기지 않고 차라리 백두로 살기를 속하게 여기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海軍改革의 마음으로 가문의 족보를 출판하려다 거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도중에 실패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603년(계묘) 면암 최익현 급계 의암 유인석 등이 그의 스승 화서 이항로 추모사업을 위해 전국유림 600여 명과 더불어 ‘講修契’를 조직할 때에 50양을 출연하기도 하였다. (서종면)

《參考資料》 居昌慎氏世譜(2), 遷墟厚谷慎史, 國史大事典, 講修契修成錄, 遷斗範氏 家譜》

신 황(辛沆, 1683-1739)

효자. 자는 泰初, 문관은 영산. 1683년 통정대부 후繼의 아들로 태어났다. 벼슬이 사헌부 지평, 효행으로 조봉대부 통지의규부사 후 위도총부 부총관이니. 효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강살면 송학리 오추헌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靈山辛氏世譜, 辛敬重氏 家譜》

신효창(申孝昌, 1364-1440)

조선의 문신. 자는 성내, 문관은 평산. 호는 圃軒, 이조참의 申福의 아들이며 증 영의정 김사형의 사위이다. 시호는 齊簡이다. 1383(우왕 9)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389년 사헌부 지평에 오르면서



관직에 들어섰다. 1390년 형조좌랑을 거쳐 1393년 조선조 개국시 음관으로 사헌시사에 임명되었고 삼장군을 거쳐 태조 3년(1394) 호조전서를 역임하였다. 1396년 대사헌이 되고 태조가 북행할 때에 동행하였다.

태종 3년 동지중추원사, 1404년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관찰사로 재직시에는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1405년 외직에서 돌아와 동지총제에 제수되었고 1418년 좌군도총제에 이르렀다. 같은 해 겨울 탄핵을 받아 삭적됨에 따라 동시에 전라도 무주로 유배되어 7년간 귀양생활을 하였다. 1425년(세종 7) 유배에서 풀려났으며 손녀가 광평군과 혼인하고 외손녀가 임영대군과 혼인하게 되자 고신을 환수받았다.

신도비는 양서면 목왕리의 김사형 신도비와 인접하여 서향하고 있다. 1936년에 세웠는데 비문은 변암 崔益諤이 짓고 신현국이 썼다.

(양서면)

《參考資料：楊平文化遺蹟總覽，韓國文化遺蹟總覽，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 祥明大學校博物館)》

심 권(沈權, 1643-1697)

조선후기 문신. 자는 聖可, 본관은 청송. 흥문판교리 沈熙世의 아들이다. 1675(숙종1)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682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발탁되었다가 예문관으로 옮겼고 이어 사간원 정원과 사헌부지평을 역임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 때 남인이 집권하게 되자 시인인 조태구이징명·

(楊平人物誌)

조형기 등과 함께 남해에 유배되었다. 1698년에는 습격·병조참지·예조참지 등을 역임하였다. 1697년(숙종23)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어 재직하던 중 돌아갔다.

문장과 필법이 뛰어났고 글씨에도 밝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후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전도비는 강상면 새원리의 소오변에 동남향하여 있다. 비문은 최석필이 짓고, 조삼우가 썼다. (강상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韓國人名大事典,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심녕(沈寧, 1733-1815)

무신. 자는 봉우. 본관은 청송. 천천관 沈命庵의 형남이다. 1793년 부위에 급제하여 삼군을 역임하고, 함경남도 병마절도사에 이르렀다. 묘는 달곡에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青松沈氏忠翼公派世譜, 沈良燮氏 제공》

심대(沈岱, 1546-1592)

조선조 문신. 자는 소위. 호는 西城. 시호는 忠壯. 본관은 청송. 沈義倫의 아들이다. 1572년(선조 5) 성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사인, 보덕을 역임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왕을 호종하여 의주에서 부승지휘 기척 경기도 관찰사가 되어 서울 탈환작전에 실승의 백성들을 내중케 하려는 등 대단한 계획을 짜고 남하하다가 삭녕에서 왜군의 기습을 받아 전사했다. 1604년 호성공신 2등으로 청원군에 추봉되었다.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지평면)

《參考資料: 宣祖實錄, 韓國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심 렬(沈謙, 1753-1812)

무신. 자는 和叟, 본관은 청송, 선전관 沈命爽의 둘째 아들이다. 1782년 무과에 급제하여 부령도호부사를 역임하고,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가 추증되었다. (옥천면)

《參考資料》 靑松沈氏忠翼公派世譜, 沈明燮氏 제공

심명덕(沈命德, 1724-1789)

문신. 자는 聖孫, 본관은 청송, 부총관 沈璫의 아들이다. 1766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고 양사 역임 후 좌부승지에 올랐다. 1789년 안주 위소에서 별세하였다. 묘는 아신리 아오곡에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靑松沈氏忠翼公派世譜, 沈良燮氏 제공

심명석(沈命奭, 1723-1753)

무신. 자는 公孫, 본관은 청송, 생부는 군, 양부는 沈璫이다. 1751년 무과에 급제하여 동경대부 선전관을 역임했다.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추증되었다. (옥천면)

《參考資料》 靑松沈氏忠翼公派世譜, 沈明燮氏 제공

심명협(沈命協, 1720-1773)

청송심씨 입향조. 자는 致和, 본관은 청송, 생부는 沈璫, 璫의 養子다. 아들 鏞 觀 謙 翰 4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양수리 용진 종도동에 묘가 있고 그 아들들의 묘도 용진 근처와 노적봉 아래 있는 것

으로 보아 명함마 옥천면 아신리에서 양수리로 이기하여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양서면)

《參考資料：青松沈氏忠翼公派世譜，沈良燮氏 제공》

심 열(沈悅, 1569-1646)

문신. 자는 學而, 호는 南坡. 본관은 청송. 시호는 忠靖. 명조판서 沈忠謙의 아들이다. 청원부사 禮謙에게 입양. 중종의 아들인 봉상군의 외손이다.

1589년(선조 22)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593년에는 별시문과에 명사로 급제된 후, 여러 요직을 역임하고, 경기도·황해도·경상도·함경도의 관찰사를 지냈다. 1623년 호조판서로 승진하였고 1638년(인조 16)년에 영철사로서 중국의 심양에 가서 물물교환을 하였다.

그 뒤 상화부유수를 거쳐, 1643년 영의정에 이르렀고 이듬해에는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관직에 있는 동안 특히 탁지에 대한 뛰어난 경륜으로 왕의 용애를 받았다. 또한 글과 글씨에 능하였는데 젊은 심오전아하면서 호상환달하였다고 평가 되고 있다. 저서로 『放逸舍議』, 『南坡相國集』 6권이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楊平文化遺蹟總覽，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韓國人名大事典，青松沈氏忠翼公派世譜，沈明燮氏 제공》

심 열태(沈說泰, 1779-1858)

문신. 자는 龜鼎, 본관은 청송, 부령부사 沈謙의 둘째 아들이다. 1805년 무과에 급제하고 선한권을 거쳐 보성군수를 지냈고, 가신대부 별조참관에 추증되었다. 묘는 당곡에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青松沈氏忠翼公派世譜，沈明燮氏 제공》

심정화(沈廷和, 1581-1636)

조선의 文臣. 자는 翼甫, 군호는 靑城君, 본관은 청송, 증 이조판서 沈沂의 첫째 아들이다. 1581년(선조 14) 한산·동천·양근군수 등 여덟 군데 지방수령을 역임하고, 1625년 회맹 참어로 가선대부 청성군에 책봉되었다. 1630년(인조 14)에 56세로 졸서하니 묘표는 아들 청평군 楙이, 옮기는 세마 申昇이 썼다. 묘는 아오곡에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靑松沈氏忠翼公派世譜, 沈良燮氏 제공〕

심 주(沈鑄, 1758-1833)

조선의 문신. 자는 德三, 본관은 청송, 沈命協의 넷째 아들이다. 화순현감을 역임하고, 가선대부 동지돈녕부사에 이르렀다. 묘는 양서면 용진에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靑松沈氏忠翼公派世譜, 沈明燮氏 제공〕



심충겸 (沈忠謙, 1545-1574)

조선의 문신. 자는 公直, 호는 四禮堂, 시호는 忠翼, 본관은 청송이다. 청풍부원군 沈綱의 아들이며, 西人의 영수 義謙의 아우이자 명종비 인순왕후의 동생이다. 명종 19년 사마시, 1572(선조 5)년 친성 문과에 장원한 후 正言에 발탁되었고 지평, 헌납, 부제학을 거쳤다.

임진왜란 때에는 병조참관으로 비변사제조가 되어 왕을 호종하여

의주에 피란할 것을 역설했고 세사 광해군을 위하여 왜군 명위에 취임했다. 1593(선조 26)년 호조와 병조의 참관으로 주빈객을 겸직, 군량미 조달에 크게 활약한 뒤 병조판서에 특전되었다. 침략군에 추방되었고, 특히 글씨를 잘 썼으며 저서에 『四隆堂集』이 있다.

묘는 옥천면 아산 3리 속칭 아오곡 야산자락에 위치한다. 비문은 선릉이 있고 글씨는 실일이 없다. 묘와 신도비는 양평군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韓國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註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辭典, 青松沈氏忠翼公派世譜, 沈明燮氏 家譜》

심 해(沈瑑, 1677-1752)

부친: 자는 潤甫, 본관은 청송, 沈謙의 셋째 아들이다. 1721년 부과에 급제하고 세 차례나 병마절도사 또는 수사를 역임하고,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이르렀다. 묘는 옥천면 아산리 아오곡에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青松沈氏忠翼公派世譜, 沈良燮氏 家譜》

심 황(沈煌, 1606-1666)

조선의 문신. 자는 文伯, 諱는 青平君, 본관은 靑松으로 靑城君 沈延和의 둘째 아들이다. 1606년 태어나서 1630년(인조 8) 진사시행에 급제하고 1630년(효종 1) 선감 세임 중에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이리 판학을 거쳐 전주부관을 역임하고 1636년에 출사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아들의 침략군 공소의 피명공훈으로 침략군에 봉군되었다. 묘는 옥천면 阿倉谷에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青松沈氏忠翼公派世譜, 沈明燮氏 家譜》

심휘태(沈徽泰, 1783-1859)

무신. 자는 襄老. 본관은 청송. 부령부사 沈謙의 셋째 아들이다. 1854년(철종 5) 耆老무과에 장원급제하고,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겸 오위장, 경상감영 중군이다. 1859년(철종 10) 졸서하니, 묘는 덕촌리에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靑松沈氏忠翼公派世譜, 沈良變氏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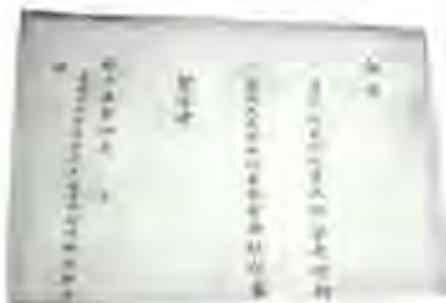
심흔(沈忻, 1561-1590)

조선의 문신. 자는 懼而. 군호는 靑松君. 본관은 靑松, 四養堂 沈忠謙의 장남이다. 1561년(명종 11)에 태어나 1588년(선조 21)에 생원시에 급제하고 1590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 대교 역임하고, 1595년(선조 28)에 졸서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청송군에 봉해졌다. 묘갈은 손자 청평군 權이, 음기는 세마 申昇이 썼다. 묘는 옥천면 아오곡 심충겸 묘하에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靑松沈氏忠翼公派世譜, 沈明變氏 제공》



안광욱 / 임호연



안광욱

(安光郁, 1610-1663)

순흥안씨 임향조. 자는 希文. 호는 東槎, 본관은 순흥. 安千健의 아들이요 백담 이식의 사위다. 진사시에 합격하고 상시원직장,

의금부도사, 공조좌랑, 횡양현감, 새자익위사, 익찬을 역임하였다. 병자호란 시에 호병에 포위된 남한산 성중에서 통곡하고 밖으로 뛰어나갔으니 절의가 대단하다.

아들이 넷인데, 장남 倣은 의금부도사, 삼남 攄는 승정원 좌승지, 사남 攄는 사헌부대사헌 재학을 역임하였다. 사후에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경연참찬관이 증직되었다. 묘소는 양동면 석곡리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楊平郡校誌, 六義士列傳, 楊平義兵運動史, 順興安氏派譜, 安在德安相福氏 제공》

안 규(安圭, 1634-1698)

조선조 문신. 자는 君寶, 호는 南溪, 본관은 순흥, 安光郁의 셋째 아

들이다. 진사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박사, 성균관 전학, 병조좌랑, 병조참랑, 순창군수, 사헌부지평, 세자시강원필선, 동부승지, 풍천부사를 역임하였다. 이조판서, 동지감연관,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세자좌부빈객, 오위도총부 부총관이 추증되었다. (양동면)

《參考資料》 砥平鄉校誌, 順興安氏源譜, 安相福安在德氏 제공》

안기영(安基榮, 1884-1920)

독립유공자. 자는 處仁, 호는 又夏, 본관은 순흥이다. 1884년 9월 1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지평 上東)에서 을미의병을 선창한 夏史 安庚禹의 아들로 태어났다.

우하는 1907년 3월에 의병봉기를 결심한 이강년이 지평으로 왔을 때에, 합류하여 이강년 의진의 종사가 되고, 포군과 병기를 모으는 데 진력하였다. 우하는 이강년이 1907년 재거할 당시 자신의 집을 군사 소모의 거점으로 제공하는 등 처음부터 의진을 지원하였다.

우하는 을미의병당시 유인석의진의 활동상을 기록한 창의록인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을 보존하여 후세에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데 공헌했다. 1999년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양동면)

《參考資料》 獨立有功者功勳錄(14), 楊平義兵運動史, 獨立運動史資料集(1), 韓末의 堤川義兵,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雲尚李滄幸全集》

안덕경(安德敬)

한말 의병. 안덕경은 양평출신이다. 안덕경은 경기지역 양지·안성

(楊平人物誌)

들리에서 박준배, 정주영, 이관배 등과 같이 의병활동을 했다. (양명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1),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안 돈(安墩, 1627-1686)

조선의 문신, 자는 載伯, 호는 樂志堂. 본관은 순흥. 입향조 光備의 첫째 아들이다. 진사시에 합격하고 군자적랑, 의금부도사, 참방을 역임하였고, 연신원답을 지냈으며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양동면)

《參考資料》 砥平鄕校誌, 續興安氏系譜, 安相福安在德氏 제공》

안상묵(安相默, 1773-1813)

조선조 문신, 자는 德茂, 호는 楓蕭. 본관은 순흥, 오위장 安龜의 아들이다. 진사시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급제하여 매슬이 사간원 편언을 역임했다. (양동면)

《參考資料》 砥平鄕校誌, 續興安氏系譜, 安相福氏 제공》

안승우(安承禹, 1865-1896)

독립유공자, 의병장, 자는 承賢이며, 호는 夏史 또는 卜沙. 본관은 순흥인데, 1865년 9월 9일 양동면 서곡리에서 전씨 安鍾應의 아들로 태어났다.

1885년 관명으로 가정리에 가서 실재 유증교를 檢證하고 사사하였다. 1894년 백련암에서 독서하다가 왜병이 경상도 감영에 들어 서울

로 향한다는 말을 듣고 몇몇 동지와 함께 의병 700여명을 규합하였다가 마침 동학이 일어나 동족끼리 살상할 염려가 있어 그만두었다.

1895년 선사의 유고는 사도를 천명하고 경전을 발취한 대문장이니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하여 주용규·서상렬과 함께 주관하여 정담에서 간행하였다. 8월에 적신들이 왜병을 끌어들이 변란을 일으켜 국모를 시해하고 11월에 또 주상을 협박하여 삭발하고 적신들의 도당으로 지방관이 된 자들이 능숙하니 민심이 흉흉하여 분방할 기세가 있었다.

이 때에 괴은 이춘영이 간역소에 있는 안승우를 급히 불러 거의하기를 믿모하고 8도에 격고하고 지방병 400명으로 원주로 들어가니 군수 이병화가 도망하고, 제천으로 들어가니 군수 김익진이 도망하였다.

서상렬·이필희·이춘영은 함께 단양으로 들어가 장희협 전투에서 승전하였다. 안승우는 제천에 머물러 군무를 총괄하는 데, 여주의 민용호가 수명의 초병을 유인해갔으므로 안승우가 그 뒤를 따라 평창으로 들어갔다.

이 때에 유인석은 거국의 길을 떠나 원주에 이르렀다가 하사가 군사들을 이끌고 험지로 깊이 들어감을 염려하여 평창 방법으로 들어가 하사를 만나 발락을 지시하였다. 즉시 회군해서 영월에 당도하니, 서상렬·이필희·이춘영 등이 모두 모였다.

이 때 안승우는 여러 장수들과 함께 유인석에게 군무를 총괄해줄기를 청하였다. 유의암이 이 때에 모친상 중에 있었으나 의리의 경중을 헤아려 부득이 응하였다.

이에 안승우로 전군을 삼고 이춘영으로 중군을 삼고 신지수로 후군을 삼고 원규상으로 좌군을 삼고 안성해로 우군을 삼아 제장의 군례를 받고 바로 제천으로 나오니 곧 1896년 정월 3일이다. 단양군수

권축, 평풍군수 서상기를 諫劄하고 수일 후에 충주에 들어가 관철사 김규식을 주살하였다.

이 때에 이병건·이윤용·이환용 등이 주상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고 김통집 등 수척을 죽이고 의병에게 忠字기號를 주고 학살을 금지하니 민심이 조금 안정되었다. 얼마 안 있어 왜군이 주야로 공격하니 의병이 대적하지 못하여 재천으로 퇴군하였다.

활영 장기림이 서울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글을 보내 효유하기를 “지금 나라의 형세는 만에 하나도 복구할 수 없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일은 한가지를 거행하면 백가지 폐단이 뒤따라 생기니 의병들은 해산하여 각자 집에 돌아가 산업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안승우가 “우리들은 복수실욕하려고 일어난 것인데 복수실욕하지 않고 해산한다면 무슨 의병이라 하겠는가? 또 장수가 외방에 있어서 는 군함에 명령도 듣지 않기를 더구나 주상의 마음에 나온 명령이 아니고 활박에서 나온 거짓 명령에서라” 하고 서로 대치, 한 달을 지나 적명이 갑자기 밀려왔다.

안승우가 남산에서 권히 독전하면서 포군에게 탄약을 공급하더니,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폭풍이 일어나며 폭우가 쏟아져 병졸들이 모두 흠어지었다. 홍사군 한 사람만이 곁에 있거늘 안승우가 “너희 날도 조선사람이다. 개화한 지 수십 년에 성취된 것은 국모를 시해하고 군부를 억압하여 5백년 풍사가 망하고 4천년 聖脈이 끊어졌으니, 이 무슨 대변인가 그래도 도리어 도적의 수족이 되어 충의의 선미를 屠戮하는가? 내가 오늘날 죽을 곳을 얻었으니, 창칙 장기림은 빨리 나를 죽이라. 하늘이 밝게 비추고 신명이 감시한다” 하였다.

도적이 도적의 亂杖에 순절하니 향년 32세다. 홍사군은 안승우가 탄환에 맞아 팔려감을 보고 길을 빼어 척을 베러다가 다른 봉에 맞아 동시에 순절하니, 1893년 4월 13일이다. 봉분 박정수·이청규가

서신을 전지에서 찾아 7월 23일에 해천 화산면에 안장하였다. (이상촌 송와 배진환이 찬한 안하사행장에서 발췌한 것이다)

첫째, 하사는 천성과 기풍이 산악의 기상으로 의리가 분명하고 그 실천에 있어서는 생사를 초월하였다고 하겠다. 둘째, 선비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살신성인하는 선비정신이 절저하다고 하겠다. 셋째, 유종교·이근원·유인석이 모두 화서의 제자인데, 이 세 선생에게서 받은 것은 학문적인 것보다는 ‘칙사대의’와 ‘死’에 대한 철학적 사고였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사는 그 일생이 ‘의리’로 일관된 기질의 인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암 이규현이 『六義士傳』에서 “굳센 자질과 열렬한 그 기운은 대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실 수 없었다. 도석의 괴수를 개 꾸짖듯하며 강개하게 자기 몸을 희생하여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였으니 스스로 인을 이루었도다”라고 찬양하였다.

하사의 묘소는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에 있다. 행장은 송와 배진환이 짓고, 유사는 황재 이정규가 찬하였다. 박정수가 기록한 『安公下沙實記人略』,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下沙集』이 있다. 정부에서는 하사의 건국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1962년 대한민국건국공로훈장 단장을 수여하였다. 묘는 양평군 향토유적 제19호로 지정되었다. (지명연)

【參考資料】獨立有功者功勳錄(1), 毅菴集, 松窩集, 下沙集, 六義士列傳,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韓末의 堤川義兵,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詳明大學校博物館), 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 安相福씨 제공

안 업(安業, 1743-1814)

유학자, 자는 汝修, 호는 樹窩, 본관은 순흥, 安宗演의 아들이다. 증추부지사 오위장을 역임하고 저서에 『五禮考論』 20여권을 편찬하

였고 『高麗童話輯要錄』을 남겼다. (양동면)

《參考資料: 砥平郷校誌, 順興安氏家譜, 安相福氏 제공》

안재묵(安在默)

유하자. 자는 元直, 호는 夫溪, 본관은 순흥, 오위장 安敬의 아들이다. 진사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정랑을 역임하였다. 부계는 급제 미근원의 사위인 안승실의 조부가 된다. 의병장 안중선은 부계의 문인이다. 저서에 『서충集』 8권이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砥平郷校誌, 順興安氏家譜, 安相福氏 제공》

안정옥(安鼎玉, 1846-1891)

조선조 무신, 자는 鼎楨, 호는 竹下, 본관은 순흥. 시호는 精微, 安翰默의 아들이다. 부과에 급제하여 평성현감, 양근군수, 풍신군수, 남양부사, 전라우수사, 경상좌병사, 황해도병마절도사, 금군별감, 충추부사 등을 거쳐서 한실과을 역임하였다. 임오군란시에는 명성황후를 양육까지 호종하였다. 증직 지헌대부 규장각 제학이다. (양동면)

《參考資料: 砥平郷校誌, 順興安氏家譜, 安相福氏 제공》

안종선(安鍾璿, 1854- ?)

한말 의병장, 자는 興嚴, 본관은 순흥, 安在默의 아들이다. 1854년(철종 5)에 출생하여 1856에 부친이 별세하여 빈모살하에서 자란

다. 형조정랑 부계 安在默 문하에서 학문에 정진하고 성재 유증교를 사사하였다.

1894년 친일파의 변괴와 1895년 왜적이 국모를 시해하고 적당이 국왕의 머리를 녹삭하여 단발령을 내리는 등 국정이 왜인과 그 주구들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울분을 참지 못하여 국모의 원수를 갚고 나라를 구원하고자 1896년 동지를 규합하여 거의하였다.

이웃의 中人·下人 등을 대동하고 의병을 모집하여 지평·홍천 등지에서 왜적과 수 차례 교전하였다. 그러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지평의 진에 합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평(세천)의진도 전세가 불리해지자, 국력의 허약함을 탄식하면서 방법을 모색하던 끝에 원병을 요청하기로 생각하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에 대하여는 안중선을 따라 의병으로 출전하였던 이웃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우리 대장님은 유인석 대장과 대국으로 가신다.”고 전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러자 출성하였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의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서방님은, 혹은 우리 자식이 돌아오지 못한 것은 ‘새님’ 때문이라며 안중선을 원망하기도 하였다. 또는 생계가 막막하니 도와달라고 하고 혹은 은근히 헐박하여, 쌀이나 잡곡 등을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시아머니와 며느리와 딸 하나 세 식구는 가세가 날로 기울고 일경의 감시와 핍박이 심하여 월리터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부인 閔氏는 진사 민철호의 딸인데, 민씨는 남편이 의병에 출전하자 평안수를 떠놓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다.

민씨는 가세와 핍박에 견디다 못하여 노시보 반남박씨를 모시고 딸을 데리고 가제는 버린 채 아랫사람인 엄서방(嚴達淑)과 方서방(방진춘)을 데리고 밤을 틈타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칠봉산하 안회진에 있는 일가택으로 피신하여 도움을 받아 연명하고 있었다.

1904년에 인가들이 종가집이 자손이 끊어질 수 없다며 외는 길에 德面의 아들 2살 된 達厚를 양자로 삼았다. 그러나 일가의 도움도 한 두 번이고, 1905년 乙巳 4월에 시모 만남박씨가 별세하자 월봉선 건좌에 안장하였다.

1906년 閏戊는 13세 된 딸을 강릉인 김진현에게 출가시키고 4살 된 아들(達厚)을 데리고 거기서 30여리 되는 안흥면 상안리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초하루 보름이면 만스시 시어머니 묘에 참배하였다.

1908년에 閏戊夫人이 별세하여 원성군 부른면 손곡리에 안장하였다. 7세의 달순은 고아로 차라 성장함에 강선전씨와 혼인하여 원성군 청일면 봉명리에 살림을 차렸다.

달순은 생계를 모르는 양부인 종신을 찾아 나섰다. 달순은 일제하에서 활동의 자유를 생각하여 삭발하고 광산에 들어가 노동을 하는 등 인명하면서 평안도·황해도·만주 등지로 전전하면서 항일 단체인 독립군이 활동하는 곳을 드나들며 무권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일본 형사의 추적을 받으며 피살이 상습하도록 고생만 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병곡하였다. 집에 돌아온 달순은 뺏았던 버리를 다시 길러 상투를 틀고 소금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들짐에 잡혀 동사를 지으며 금입는 것으로 세상을 보냈다.

그러나 일경의 요시찰인물로 주목을 받아 축하면 일경이 구인하여 다음날 보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1949에 옛의 집에 의암선생이 왕래하였다고 하니, 지평의병에 가담하였다가 유의암 문인들과 중국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동면)

(參考資料: 楊平義兵運動史, 順興安氏族譜, 安相福氏 제공)

안종업(安鍾暉, 1864-1908)

수상장. 자는 元春, 본관은 순흥. 安潤玉의 아들이다. 양동 출신으로 지평의병진의 祇平守城精이었다. 서병두는 지평의 향교 소임인데 아전 金敎正 등과 내적이 되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평현감의 유입을 침권하여 의병의 지휘권을 침탈하려 守城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서너한 집안에서 군비를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니 한 사람도 양곡을 협조하는 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안종업은 대장소에 서병두와 김교항을 품의하고 군사를 보내어 삼개 하여 논외하였다.

그리고 이때에 단양군수 박종항이 안종업을 찾아 인사를 올렸다. 종업이 말하기를 "한결같이 옛 제도를 찾는 것을 급선무로 삼으며 잇속이나 백성들을 전무하되 의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고 역도들의 심부름꾼이 되어 그 분자를 반포하고 그 취지에 선동해서 천지간에 큰 한계와 명분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한편 안종업은 상주산성장 김태원의 폐보를 받았다. 내용은 '의병이 산성에 입성한지 30일이 되었는데 북문 파수장이 자기에게 중한 책임을 맡기지 않는 것을 원망하여 석과 내뿜하여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주장 김태원을 목을 베어 죽이고, 미처 파수장을 임명하지 못하여 그 자의 옛 보좌관을 시켜 그대로 지키게 하였다. 그 자가 밤에 문을 열고 적을 맞아들여 그만 군사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군사가 남궁영을 찾아 二水頭로 나왔다는 것이다. 또 이구현과 김동춘이 기껏말로 왜적을 배었다고 하여 삼을 받았다 하여 군사를 보내어 잡아들이게 하였다.

안종업은 그의 집안이 지평에 있으므로 백여 명의 권속이 해를 입

을까 하여 가만히 친근한 사람과 의논하여 옮기게까지 하였다. 안중
업은 시령 수성장을 사퇴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케 하여 죽기를 정하
였으나 대장소에서 종의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양동면)

【參考資料】獨立運動史資料集(1), 楊平義兵運動史,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皇城新聞(1907.3.1), 安相福氏, 제공

안종응(安鍾應, 1845-1906)

독립유공자, 작호 昌階, 호는 고깃이고 본관은 순흥. 咸和초의 아
들이다. 양평군 楊東에 세기해 온 유생인데, 의병장 안승우의 부친
이다. 성재 유증교를 스승으로 모시고, 또한 아들 승우가 성재 문하
에 들어가 부자가 위정척사사상에 철적하였다.

퇴양의 적천 중에 임금이 신임을 얻어 권력을 가진 자가 있어 퇴
양에게 떠음을 권하였는데, 퇴양은“ 부지런히 배우고 한써 행하여
임금을 섬기는 도로써 임금을 섬길 줄 안 이후에 녹을 먹으며 자신
을 영화롭게 해야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거든 만약 지름길을 찾아 남
의 밑구멍을 뚫는 짓이라도 해서 임금의 신임을 얻는다면 어찌 선비
나 군자로서 차마 할 일이겠는가” 하면서 거절하였다.

퇴양은 아들 승우와 이준영에게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유하고 이
에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은 지평의병 지의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
다. 이 때 안퇴양은 의병부대의 전투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포군 김
백선을 설득하여 의병부대에 끌어들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새길 장담에서 유언적 이하 그 운하생과 사우들이 處變 不亂을 논
의된 후에, 피은 이준영이 부인과 작별의 말을 하고 곧바로 안종응
을 만나서 계략을 물었었다. 그 당시 안퇴양은 잘 수집 자부를 만들어
통지의 함께 강채 착발하는 이속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

었다. 퇴양은 찾아온 이훈영을 보고 말하기를“ 이제 들은즉 비 고을 포군의 영수 김백선이 군수 맹영채를 찾아가 함께 의병을 일으키기를 청하자, 백이 화복을 들어 공갈하므로 김은 분연히 말하되‘ 큰 변이 이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또는 어찌 편안히 앉아 있겠단 말이오’하며 드디어 관청 뜰에서 총을 부수어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갈을 갈아 두고 머리 깎으러 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그대는 가서 만나 보라” 하였다.

퇴양은 유인석이 의병대장으로 추대될 때에 자기 대신에 안중용을 의병대장으로 추천할 만큼, 제천·충주 의진 내에서 명망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아들 안승우가 전사하였을 때에는 사돈이 되는 백옥 이 민정과 함께 장사를 치냈다.

아들 승우와 이훈영과 지평의병의 거의를 논의하여 선창의 선도적 역할을 한 데에는 안퇴양의 후원과 지도의 공로가 컸던 것이다. 1989년 정부에서는 그 공로를 기리어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양동면)

〔參考資料: 獨立有功者功勳錄(14), 省靈集, 湖西義兵事蹟, 獨立運動史資料集(1), 靑龍集, 華西學派의 斥邪思想 研究, 順興安氏 派譜〕

안준옥(安駿玉, 1845- ?)

문신. 자는 德民, 본관은 순흥, 安修默의 아들이다. 양근군수를 역임하였고 증 자헌대부이다. (양동면)

〔參考資料: 砥平鄉校誌, 順興安氏派譜, 安相編氏 제공〕

안중관(安重觀, 1683-1710)

문신. 자는 國哲, 호는 愾齋, 본관은 순흥. 승경원 좌승자 안부의

아들이다. 진사시에 합격하고, 새자의위사 위충의간, 의금부도사, 제인헌감, 홍원헌감, 공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悔窩集』이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砥平鄉校誌, 顯興安氏派譜, 安相福氏 제공》

안 후(安垺, 1636-1710)

조선조 문신. 자는 了厚, 호는 竹圃, 본관은 순흥, 동모 평북의 옛날 아홉이다. 진사가 되고, 분위에 급제하여 예조좌랑, 병조좌랑,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 경기도사, 병조랑랑 등을 거쳐 부안헌감, 장상부절, 증성원 공부승지, 우승지, 시제교, 광주복사, 형조참의, 여주복사, 공조참의, 유산부사, 호조참의, 회양부사, 양양부사 등 내외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사헌부대사헌 겸 양관 제하, 세자좌부 반객에 추증되었다. 저서에 『竹圃集』이 있고, 유희로는 설악산 흔들 바위에 시가 刻字되어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砥平鄉校誌, 顯興安氏派譜, 安在德·安相福氏 제공》

안흥관(安興寬)

한말 항일부사. 안흥관은 치평출신이다. 1907년 8월 25일 진성옹·최문봉 등과 부장 만흥관은 서울인 연창수와 총각을 휴대하고 경기도 광주·양주 등 지방에서 활동하였다. 동년 12월 5일 서울 북성파 출소를 습격하고 순사를 결박하고 일본인 점까지 습격하여 일인의 후두부 전면길이 4센치 깊이의 뼈까지 이르는 두 개의 상처를 가하였다.

또 신창용으로 하여금 일본인을 강압하고 할거하게 하였다. 그리고 신창용의 재판기록 함소침의 내용에 신창용은 실형으로 교수형에 처해지는데 그는 양주군 출신이다. 이의 재판기록에 안흥관의 활약한 의거기록이 있다. (지명면)

〔參考資料: 判決文,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양건석(梁健錫, 1893-1923)

독립운동가. 자는 伯順, 본관은 남원, 화서학파이다. 1893년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서 梁在默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독립유공자 양승만의 부친이다. 양건석은 일찍이 종조부이며 유종교의 제자 양삼환(1854-?) 등 남원양씨 문양공파 양평 문중이 건립한 '光明義塾'이란 학당에서 신구를 겸한 공부를 하였다.

이 광명의숙은 현재 용문면 '다문초등학교'의 전신이라는 설과 '광탄초등학교' 전신이라는 설이 있다. 이 학당에선 한문과 한글을 가르쳤는데, 이운형(1885-1947)도 광명의숙 출신이라고 한다.

양건석은 1905년 을사조약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우국에 참거 있다가, 1910년 경술국치(일제강점)에 대한 의분을 참지 못하여 의병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자식을 아끼는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19년 기미만세운동이 전개되자 양재은·박봉춘·윤태영 등 동지를 규합하여 동년 3월 3일 태극기 100여 배를 제작하여 인접 무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3월 5일 용문면사무소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운동에 참가하라고 독려했다.

마침내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왜경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양

재은박봉준윤태영은 해포되어 순천으로 압송되어 옥고를 치렀다. 양지사는 민첩하게 피신하여 화를 면했으나, 수시로 갖아와 가택수색을 하며 가족까지 못살게 하여 마침내 망명을 결심하였다. 양건석은 재산을 털고 밭으로 밍아 심야에 고향을 탈출하여 백당 양재훈(=1촌)이 살고 있는 김린성 동병현으로 망명하여 김규의 농장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해 6월에 항일애국단체인 한족회에 가입하여 10여 가구의 동포들을 같이 보호 지원하였다. 7월에는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하여 이의복과 함께 수학하고 10월에 파사관 과정을 수료한 후 독립군에 배치되었다. 건석은 신흥무관학교 증축공사가 있자 부친(在黔)에게 부탁하여 3천원을 헌금하고, 2개월 간 증축공사에 동원된 인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주었다.

1920년 10월 독립군 제2연대 김파진 장군의 휘하에 평산리 전투에 참여했다. 이 전투에서 양지사는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어 고생을 하였다. 1923년 4월 봉의부의 송일성을 통하여 독립군 군량미 대금으로 1만원을 기부하였는데, 이도 부친 제복으로부터 폐하 허락을 받은 것이다.

1922년까지 독립군으로 항일전선에서 참군하다가 민주사변 후에 독립군이 중국대학으로 이동할 시기에 어깨의 상처가 악화되고 심정병에 걸려 이동하지 못하고 민주현 이도하지에 남아 항일애국지사들의 중간면담과 음식제공 및 의비를 지원하다가 1928년 1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용문면)

《參考資料: 白雲文化(제5호) 韓漢淵源錄, 南原梁氏文義公譜世譜, 梁惠錫氏家譜》

양건식(梁健植, 1803-1890)

효자. 조선조 무관. 자는 槲行, 본관은 남원, 肅祖조참판 梁經河의 아들이다. 1803년(순조 3)에 용문면에서 출생하여 무과에 합격하고 수문장을 거쳐서 오위장, 직상중군,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謫職으로 자헌대부 지중추부사에 오르고, 1890년 槲行으로 贈諡헌대부공조판서겸 지의금부사이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경수(梁敬洙, 1843-1895)

무신. 자는 聖純. 본관은 남원, 梁鍾萬의 아들이다. 1843년(헌종 9) 용문면에서 출생하여 무과에 합격하고, 훈련원 부정,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1895년(고종 32) 춘서하니 묘는 용문면 월정리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규열(梁圭烈, 1877-1945)

무관.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서로군정서 군정청장. 일명 梁在萬. 자는 汝瞻, 호는 白堂. 본관은 남원. 화서학파다. 1877년 7월 11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갑탄리 37번지에서 육군 위수사령관 梁性萬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성재 유중교와 강재 유중룡이 주도한 '鳳灘講會'에 수차 참여하였다.

1898년(고종 34) 무관학교에 들어가 교육을 마치고 1900년 육군보

병 참위, 소대장, 육군 부위, 육군 정위, 육군 하병, 대구진위대 대상을 지냈다. 배당은 원래의 친탁이 노골화되고 국권이 침탈되자 권력을 버리고 단신으로 만주로 건너가 김좌진·지청천·김혁·조성환·홍진·김규식·황하수·암기탁·이희영·이상룡·김동삼 등 동지들과 항일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910년(정승) 친총학교 부교장, 1914년 부민회 허무부장, 1917년 백서농장 훈독, 1919년 한족회 외무사장, 임시정부 남만주 서로군철서 군정청장, 친흥부관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1923년 4월 대한독립군단 세연대장, 대한통의부 군사부장 등으로 한국독립운동에 자신의 힘을 기울였다. (용문면)

《參考資料》 滿洲韓人民族運動史研究, 廣義講錄, 白雲文化(제5호), 韓國獨立運動史(文), 韓國獨立史(全), 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 南原梁氏族譜, 梁惠錫氏 제공

양문환(梁文煥, 1831-1892)

조선의 무관. 자는 기부, 본관은 남원. 봉천부사 梁柱石의 셋째 아들이다. 회서 이항로의 장서인 효거 동우 상회전과 사미이며 화서 문인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삼군부 출사관을 역임하고 만경현영을 지냈고 충청대부 내금위장이 추증되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6), 絳城張氏開城派譜, 梁惠錫氏 제공

양 빈(梁彬, 1676-1736)

조선조 무신. 자는 汝賓, 본관은 남원. 희천군수 梁益設의 셋째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경상좌수사를 역임했다. 명조참판 훈

련원 도강이 추증되었다. 묘는 용문면 월정리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6), 梁惠錫氏 제공】

양선수(梁宣洙, 1791-1859)

조선말 무신. 자는 學汝. 호는 鳳西. 본관은 남원. 의금부사 梁 圃英의 장자이다. 무과에 합격하여 떠슬길에 올라 창원, 안동진영장, 경상좌수사, 장단부사. 재임 중 1859년(철종 10) 종사하였다. 중 병조참판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이다. 묘는 용문면 금곡리 갈지산에 있다. 저서에 『婚禮具分』, 『蠶錄』, 『白頭山記』, 『周易 原說』, 『中庸說解』 등이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6), 梁惠錫氏 제공】

양 성(梁城, 1726-1804)

효자. 자는 子勸. 본관은 남원. 병사 梁世勳의 첫째 아들이다. 1726년(영조 2)에 용문면에서 출생하여 생전에 부모에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래서 효행으로 조봉대부 동몽교관이 되었다. 묘는 단월면 수석동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성환(梁性煥, 1854-1917)

조선말 무신. 자는 子命. 본관은 남원. 오위도총부부총관 梁柱台의 아들. 실개 유종교 문인이다. 1854년(철종 5)에 용문면에서 출생

하이 1874년 무과에 합격하고 1880년에 처음으로 비승길에 올라 부장이 되고, 부위조관, 선원관, 훈련원 주부, 관관, 권일을 두루 역임하였다. 1889년 평해군수, 1890년 전라도방마우후, 통정대부 강원중군, 1891년 기사장, 1895년 군산형사, 1897년 육군보병 장령 군부태신 관방장, 1898년 가선대부에 오르고, 1900년 가의대부, 1897년부터 1901년에 걸쳐서 시위대 권위대 천위대의 각대대장을 일곱 번 보직 받고, 1, 2, 3대, 천위대 1, 2, 3대, 평양천위대 육연대장을 다섯 번 보직 받고, 경무시 원수부 회계국장, 1903년 청령, 참정, 헌병사령관, 경위원총관을 제수받았다. 1904년 매종무관장, 군부참모국장, 군무국장, 군부협관에 제수되고 세 번에 헌병사령관을 지냈다. 1905년 추천원경, 위수사령관, 함모국장, 1906년 주천위장으로 3등 훈장 관례상을 받고 시위훈설어단장, 1907년에 2등 시훈을 받았다. 묘는 용문면 강탄리 구반산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南原梁氏文襄公派世譜宗史編，藝溪原源錄，梁惠錫氏 제공》

양세강(梁世綱, 1699-1747)

효자. 자는 大面, 본관은 남원, 영원 郡鎭 南原의 정씨 아들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1853년(철종 4)에 명려하였다. 증지 중훈대부 사복시랑이다. 묘소는 양동면 허수리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南原梁氏世譜(6)，楊平郡誌》

양세순(梁世純, 1712-1776)

조선조 문신. 자는 晉伯, 본관은 남원, 1712년(숙종 38) 용문면에서 성균생원 梁楹의 넷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무과로 통정대부에 오

르고 거제부사를 역임하였다. 묘는 양동면 내현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자료》

양세현(梁世絢, 1707-1782)

조선조 무신. 자는 嗣伯, 본관은 남원, 경상좌수사 梁世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시작으로 훈련원 부경, 남양·철원·진라우수사, 증청병사·황해병사 등을 역임하였다. 묘는 단월면 수숙동에 있다. (단월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 숙(梁倣, 1611-1687)

조선조 문신. 자는 詒夫, 본관은 남원, 증이조참의 梁應南의 장자이다. 1611년(광해 3)에 용문면 광탄에서 출생하여 무과에 합격하고, 훈련원 첨정을 역임했다. 가선대부 이조참판이 추증되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승만(梁承萬, 1909-1990)

독립유공자. 본관은 남원인데 화서학파에 속한다. 1909년 10월 4일 용문면 광탄리에서 梁健錫의 아들, 梁在默의 손자로 태어났다.

1926년 2월 부친 건식을 따라 중국 흑룡강성 연수현 關家大屯으로 전 가족이 이주하였다. 이듬해인 1927년 2월 강제 세력이 설립한 송봉산 소재 선감학교의 교사로서 청소년들에게 독립정신을 주입시키

며 민족교육에 힘썼다.

1931년 9월 반일반만 단체인 길림민중자위군 제3군에 소속되어 한국독립군의 장사로서 1933년 2월까지 독립운동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은 1934년 3월 조선총독부 경부국 특별분서에 국외활동용의자 조선인명부를 작성하였다.

이 명부에는 '梁承萬吉林省以下下洋反日抗滿團體吉林省抗日黨의 黨首 二重 朝鮮獨立黨上上' 라고 등재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양승만은 왜적의 감시대상으로 왜가 주시하였던 것이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용문면)

《參考資料: 獨立有功者功勳錄(9), 國外容疑朝鮮人名簿, 白雲文化(제5호), 韓國獨立運動史, 南原梁氏文襄公派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 완(梁完, 1744-1816)

조선의 무신. 자는 승택, 본관은 남원. 경상좌수사梁世龍의 넷째 아들이다. 1744년(영조 20) 출생하여 기골이 장대하여 16-7세에 지인과 같이 수학하였다. 양성하여서는 마음이 청렴하고 넓으며 고아하고 간절하였다.

종국영이 죄를 받음에 심상께서 비로소 길라 뽑으려 하니, 종국영이 불리서 비변방을 삼았다. 이어서 훈원원주부, 도총부도사, 훈련원위정, 장용위초관을 역임하였다. 선전관을 세 번 역임하였으며 훈원원부정과 당상승 선전관을 두 번 역임하였다.

이후으로 홍양현감, 중상부사를 역임하고 설산중에 올라서는 강안저세부사, 견도군수를 역임하였다. 경기증군 상사참사를 하였다. 특별히 교지로 평양위유사, 오장수사를 세수받았다. 또 일종참사와 같

상좌수사를 역임하였다. 좌승지에 추증하였다.

저서에 『振奇圖說』이 있고, 묘는 단월면 수숙동에 있고, 비문은 화서 이항로(1792-1868)가 지었다. (단월면)

《參考資料》 南原梁氏文襄公派世譜宗史編, 南原梁氏世譜, 華西集, 梁惠錫氏 제공》

양 우(梁佑, 1637-1676)

효자. 자는 子山, 본관은 남원, 宣慰三의 아들이다. 관직에 나아간 지 1년에 부친 병환이 나자 사직하고 1년간 病수발을 들다가 부친이 별세하자 시묘 5년째에 병사하였다. 이에 숙종이 효행을 칭찬하여 지평을 증직하였다. 묘는 용문면 광탄리 학달동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유환(梁有煥, 1824-1933)

조선조 문신, 자는 大來, 본관은 남원, 의금부사 梁健植의 아들이다. 1824년(순조 24) 용문면에서 출생하여 무과에 합격하여 수문장을 역임하고 동정대부 첨시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중희 가선대 부규장각 직제학이다. 묘는 용문면 광탄리에 안장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응심(梁應深, 1570-1632)

남원양씨 입향조, 자는 應審, 본관은 남원, 증 참판 梁暉의 장남이다. 1600년(선조 33)에 무과에 급제하여 처음으로 선전관으로 추

시랑을 겸했다. 1년만에 이칭현감, 3년 뒤에 도총사로 병권현감이 되고, 명권도호부로 승직됨에 제임하여 형조좌랑이 되었다.

선조 말년에 평양판관, 6년 뒤에 대안군수를 역임했다. 광해군의 정사가 혼란할 때에 배관에게서 삼하여, 불리나 농사지으며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1627년(인조 5) 호적이 평안도와 황해도를 한라하고 서술이 요란하여 임금이 강화도로 피난할 때에 호종하니 군기부 청에 임명되었다.

이듬해에 조침이 오랑캐와 화친을 맺고 장수를 선발하는데 칠승장군으로 승진하여 관서병마우후를 삼았다. 1년 뒤에 영변대호부사로 이직하였다가 재상이 붕파명하게 여겨 파직 당하였다.

1588년(선조 32)에 서울 건천동에서 모친 전주이씨의 용원옹함과 함께 용문면 광탄리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묘는 경기도 파주 선영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6), 南原梁氏文襄公派世譜宗史編, 砥平郷校誌, 梁惠錫氏 家譜

양응원(梁應源, 1577-1636)

용문효자. 자는 민상. 본관은 남원. 함안 영동의 넷째 아들이다. 모친은 전주이씨 돈응교위 추방안의 딸이다. 응원은 일찍이 혼자된 모친을 길잡듯 봉양하였으며 왜구의 대란을 피하여 숨어살다가 난후 1580년(선조 32) 형 梁應源과 동생 梁應淵과 같이 용문면 광탄에 살기하였다.

형제가 재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가난한 차를 도왔다. 모친상을 당하자 6년간 상복을 면치 아니하니 세를 지닌 군자라 칭송하였다. 1633년(인조 11) 해에 이르러 효자로 旌別하였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6), 砥平郷校誌, 梁惠錫氏 家譜

양응청(梁應淸, 1579-1661)

남원양씨 입향조. 호는 哲隱. 본관은 남원. 참지중추부사 梁應의 아들이다. 관직은 음사로 중 이조참의를 역임하였다. 哲隱은 광해정란 시에 벼슬을 버리고 자연을 즐기며 용문면 광탄에 이거하였다. 여기에 종제인 양응함이 와서 함께 복거하였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6), 砥平郡校誌, 梁應錫氏 제공》



양응함 (梁應涵, 1587-1658)

남원양씨 입향조. 조선의 무신. 자는 彦泳, 본관은 남원. 梁開의 5남이다. 1611년(광해군 3) 무과에 급제하여 1613년 선전관 겸 비변랑, 1621년(광해 13) 사헌부 감찰에 승진하고, 1622년에 기장현감, 1627년(인조 5) 황주 관관으로 나갔으며 도총정력을 역임하였다.

1631년에 장기현감으로 나갔으며 돌아와서는 1636년(인조 14)

적병에게 포위된 진중에서 인물을 가려 뽑아 겸 선전관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어 훈련도정에 승진하고 1638년 참홍부사, 1640년에 태관을 거슬리는 일이 발생하여 양양에 귀양갔다가 석방되었다.

1642년(인조 20) 경원부사, 1645년 훈련도정, 1646년 경상우병사, 1648년 행수선전관, 회령부사, 1650년(효종 1) 진라우수사, 1652년

훈원도정에 김주목사, 1651년 춘천부사, 1656년(효종 7) 금군별장 가선대부 무총관 겸 훈원중군을 역임하였다.

왕군은 말수가 적고 천착하며 중후하고 피감하여 절단성이 있고 강직하고 용감여서 크게 이루면 청백하고 근신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세어하여 몸에는 화려하게 꾸민 물건을 좋아하지 않고 손에는 신분에 지나치게 치레하는 쓰임새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인마와 외복에 있어서도 부부를 사랑하여 빛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도 옆두에 두지 않았다. 청렴하고 근신함은 타고난 성품에 근본하여 겉 표면만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르는 곳마다 군졸들은 그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입고 비석을 세워 덕망을 찬양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더욱 오랜수족 생각하여 잊지 않으니 그 후세에 병사의 임무를 맡은이의 보령이 되었다.

누이(妹)가 하나 있었다. 집이 가난하고 자녀가 많았다. 그래서 이웃하에 같이 살면서 관에 있을 때에는 죽음을 덜어주고 집에 있어서는 밥이나 만찬을 나누어 먹었다. 생질들을 사랑하여 기르기를 자신이 낳은 아들과 같이 하였으니 그와 다른 흉도하고 우애함은 행실은 이것으로 비루어 알 수 있다.

功名에 이르러서는 무연히 굴러들어 온 것으로 여기고 벼슬이 있으면 그 직분을 다할 뿐이었다. 벼슬이 없으면 시골에 풀러나 있었다. 임금이께 아뢰고 외직으로 나갈 때에는 조용히 안쪽에 돌아앉아 화려한 취임식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

나이가 70세가 되어서는 다리가 아프다고 핑계하여 세평의 농막에 묻거하여 대지평이를 짊고 집신을 신고 고향의 이웃 사람을 심방하였다. 이를 보는 사람들이 시골마을의 한 노인으로 생각하고 그가 옛날의 전도사이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노령에도 항상 청렴하고 결백의 변함없는 절개로 거듭 일러 성실하게 가르친 까닭으로 그 아들과 또 손자들이 집안의 명성을 추락시킬까 두려워하고 관직에 있는 사람은 관직에 청백하고, 관직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굶주릴지언정 일찍이 일을 경영하고 구하여 찾는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

장군의 묘소와 신도비는 단월면 부곡리에 남향하여 있다. 신도비 문은 이우면이 짓고 김병길이 서하였으며, 묘갈은 남구만이 지었으며 행장은 조주석이 지었다. (용문면)

【參考資料: 京畿人物誌, 南原梁氏文襄公派世譜,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砥平郡校誌, 梁惠錫氏 제공】

양의수(梁宜洙, 1795-1873)

조선조 문신. 자는 敷汝, 본관은 남원, 증 호조참의 梁鍾英의 둘째 아들이다. 1795년(정조 19)에 출생하여 음사로 선공감역 돈녕부도정, 동지돈녕부사를 역임하였다. 묘는 용문면 금곡리 갈지산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익명(梁益命, 1653-1715)

조선조 무신. 자는 壽卿, 본관은 남원, 덕천군수 梁佛의 5남으로 용문면 광탄리에서 출생하였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으로 벼슬길에 올라 별군직 훈련원 부정, 해서수군방어사를 역임했다. 1680년(숙종 6) 허건 역모를 토벌하여 평정한 공로로 가선대부와 보사원

중공산에 올랐다. 묘는 용문면 청정리에 속하고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익무(梁益茂, 1648-1717)

조선의 문신. 자는 弼膺, 본관은 남원. 덕천군수 梁德의 셋째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전도, 회천군수를 역임하였다. 동정대부 공랑원 최승지 권 상언참찬관이 추증되었다. 묘는 용문면 금곡 청정리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文襄公派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익환(梁翊煥, 1860-1930)

조선조 문신. 자는 輔卿, 본관은 남원. 중정수사 梁世淳의 아들이다. 1860년(철종 11) 용문면에서 출생하여 무과에 장원급제하고 상의원 주부, 전설별제, 훈민원 원경, 시종원 시어를 역임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文襄公派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인석(梁寅錫, 1917- ?)

공무원. 본관은 남원. 국립대학교 서기관 梁江龍의 셋째 아들이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삼공부 서기관, 해부관 서기관, 감사원 부이사관을 역임하고 미국으로 이민갔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자료

양재만(梁在萬, 1862-1919)

조선조 문신. 자는 伯植, 본관은 남원, 고부군수 梁弼煥의 아들이다. 1862년(철종 13) 용문면에서 출생하여 무과로 선전관을 시작으로 훈련원 관관, 첨정, 경리청대관, 원창·곡산·진안·회령군수, 중추원의관을 역임하고, 동정대부에 올랐다. 묘는 용문면 금곡 칠정리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재묵(梁在默, 1871-1932)

항일투사. 汝容, 본관은 남원, 梁明煥의 아들이다. 무과에 합격하고 시종원 시어를 역임하였다. 항일독립운동 중 만주에 잠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묘는 만주 하얼빈 조선인공동묘지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재수(梁載洙, 1805- ?)

조선조 무신. 자는 聖源, 본관은 남원, 유생 梁輔哲의 아들이다. 1805년(순조 5) 용문에서 출생하고,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과 진주병마우후를 역임하였다. 묘는 용문면 구만리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재은(梁在殷, 1896-1937)

독립운동가, 자는 在殷, 본관은 남원, 화서학파이다. 1896년 9월 18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강탄리에서 용문의 부호라 할 수 있는 梁演煥의 아들로 태어났다. 1920년 7월 13일 박병효·곽명숙 등이 용문면 천도교실에 모여 조국독립을 위하여 삼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일에 대하여 찬동,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의 인상을 만들어 소지하고 군자금 1만원 모금을 목표로 활동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처사는 1921년 4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강도 및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 받고 항고하였다. 그러나 1921년 6월 13일 경성 북심법원과 8월 13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처사는 출옥 후 1937년 2월 19일 타계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용문면)

《參考資料》: 獨立有功者功勳錄(9), 南原梁氏文襄公派世譜, 梁惠錫氏 證書》

양재익(梁在翼, 1849-1920)

조선말 문신, 자는 在翼, 본관은 남원, 증·간장각 직세학 有煥의 둘째 아들이다. 1849년(헌종 15) 11월에 출생하여 1870년 부과에 합격하고, 1876년(고종 13) 급위호관이 되었다. 1881년 처음으로 출사하여 부장이 되고 다음 해에 사위가 되었다.

1883년(고종 20) 사헌부감찰, 1884년 직신현감, 내금위장 봉정대부에 올랐다. 1900년(순조 10) 양근군수, 1907년 충청남도 원질사,

세관소 관사, 새무감을 겸임하였다. 1908년 태극장을 받고 잠깐 있다가 사직하였다. 1920년 별세하였다. 묘는 용문면 갈탄리 용현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재철(梁在哲, 1882-1947)

자는 致文, 호는 歸圃, 본관은 남원, 日嬬의 아들이다. 은포는 나면서부터 뛰어난 기질이 있어 어려서부터 행동과 도량이 탁월하며 말과 웃음이 청중하였다. 은포는 예규에 성취하여 종가가 쇠퇴하고 미미한데 한을 품고 조상과 부모를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다.

모친께서 오랜 지병이 있으나 가난 중에도 부모를 잘 섬기고 지극한 효성으로 옆에서 모시기를 7년 동안을 하루같이 하였다. 조상을 당하여는 몸이 쇠하도록 슬퍼하는데 예를 다하였고, 그 뒤에 부친의 상을 당하여서도 가례를 준수하여 3년을 피눈물을 흘리며 슬피 우니, 향리에서 그 지극한 효도를 찬탄하였다.

혼탁한 세상에 나아갈 뜻을 접고 깨끗하게 뜻을 지키고 잘못을 바로 잡고 지적하기를 좋아하였다. 사연과 벗하기를 즐키며, 집을 다스림에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후생을 가르치는데 부모에 효도하고 동기간에 우애를 가르쳤다. 그러므로 용문치사라고 하였다. 묘는 용문면 갈탄리 봉화산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文襄公諱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적수(梁迪洙, 1778-1836)

조선조 무신. 자는 元德, 본관은 남원, 증 좌승지 梁純憲의 둘째

아들이며, 1814년 부과에 급제하여 처음으로 압록강 북쪽에 부임하였다. 1830년(순조 30) 이변량으로 나아갔다 회천군수로 부임하여 군내의 폐단을 제거하고 상헌서원을 중수하였다. 1835년 대구권영장이 되고 1836년(헌종 2) 종사라니, 가선대부 겸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용문면 남지 칠성리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文襄公諡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 전(梁倓, 1614-1676)

조선조 문신. 자는 子厚, 본관은 남원인데 1614년(광해 5) 용문면 왕당리에서 증 이조참의 梁德清의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덕천군수를 역임하고 이조참판이 추증되었다. 묘는 지제면 龍仁洞에 丁坐로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중운 부인 창녕조씨(昌寧曹氏)

없다. 본관이 남원인 증 승정원 좌승지 김의 하남 梁鎭運(1730-1826)의 부인으로 용문면 삼성리 申府에 살았다. 남편이 나무하러 가서 늦도록 오지 않자 아기를 업고 산에 가보니, 아미 남편은 토당이에게 팔려 거의 죽은목숨이 되어있는 것을 사덕을 다해 호랑이를 쫓아치러다 모두 목숨을 잃었다. 조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1806년(고종 33)에 원려하였다. 청분이 증성 옛터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砥平樞校誌, 高宗實錄》

양종필(梁鍾弼, 1789-1866)

조선조 무관. 자는 殷叟, 본관은 남원. 증 호조참판 梁垓의 장자이다. 1789년(정종 13)에 용문면에서 출생하여 무과에 합격하고, 관직이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묘는 단월면 봉상리 대은동에 있다. (단월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6), 梁惠錫氏 제공》

양주갑(梁柱甲, 1809-1900)

조선의 무관, 자는 日汝, 증 호조참판 梁德株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해남·홍주영감, 신도첨사를 역임하고 수직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올랐다. 묘는 단월면 자연리에 있다. (단월면)

《參考資料: 南原梁氏文義公派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주겸(梁柱謙, 1861-1923)

조선말 문신, 자는 公益, 본관은 남원, 공조판서 증장공 梁憲洙의 둘째 아들이다. 1861(철종 12)년에 용문면에서 출생하고, 1876년 출사하여 승정원 학관을 거쳐서 외무주사, 도자부세무관을 역임하고, 평양·용강·순안·영원군수를 지내고 통정대부에 올랐다. 묘는 과주군 봉서리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文義公派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주석(梁柱石, 1806-1884)

조선조 무관, 자는 道汝, 호는 龍川, 본관은 남원, 梁德株의 첫째

이들, 화서 이철로의 문인이다. 1866년 7월 9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서 출생하였다. 1883년에 부과에 급제하여 비변랑에 오르고 내지를 거쳐 외직으로 남포현감, 전주방마 우후에 재수되었다. 1864년 통정대부에 승진하여 청주영장에 재수되고 1874년에 풍천부사가 되었다. 1875년에 금위전총에 오르고 1884년 중계가 가희대부에 올랐다.

풍천이 남포현감에 부임하여서는 황충(蝗蟲) 때문에 곡식에 피해가 심하여 민심이 어지러웠다. 풍천은 황충을 잡아 삼키면서 이르기를, “차라리 내 허파를 벉을지언정 어찌 백성들의 곡식을 먹느냐” 하였다. 이로부터 황충이 곡식을 해치지 않아서 가을에 풍년이 들으니, 백성들이 크게 기이(異人)하게 여기고, 전근된 다음에 풍천의 ‘선정비(善政碑)’를 세웠다.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고 탄식면서 “임금의 사업이 어려움이 많거든 신하가 된 자가 어찌 감히 태연하게 집에 있겠는가” 하면서 즉시 병든 몸을 이끌고 항쟁하여 전쟁에 나가기를 자원한 지 잠깐 있으니, 난리가 평정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1874년(고종 11)에 만동요를 다시 설치하는 날에 특별히 풍천부사를 재수하니, 힘럽하고 근면하게 정사를 살펴서 영내가 편안하였다. 풍천의 효도와 우애는 본래 타고난 심품이고 중성스러운 의리는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빛도였다.

중안 김평복이 『고령(豊川集)』에서 “만동요를 철폐하라는 행수가 있자 승지와 서원 현감이 미처 하지 못할 새라 불행하였다. 공이 諫官에게 나아가 조정에 말하여 만동요를 철폐하지 말게 하라 하였으나, 도신은 할 수 없다고 사양하고 술에 취하여 말을 허부로 하였다. 풍

친은 봉곡하고 관직을 버리고 돌아와 자제들에게 비슬길에 오르지 말라고 경계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성재 유종교는 대신 지은 「代族叔祭梁護軍文」에서 “벽문(壁門)에 민연하여 유자의 풍도를 배웠는 바, 일부 춘추를 가슴속에 영락하였네… 대개 왕의 평생은 한 번 나오고 한 번 들어감에 天經地義(하늘의 법칙과 땅의 의리)와 함께 屈伸하여 자연스럽게 법도에 맞음이 옛 군자와 같도다. … 나라에 澆漓이 비었으니, 무슨 슬픔이 이와 같겠느냐”라고 하여 高青(한 대의 대장)과 霍光(한 대의 충신)에게 그 인물됨을 비유하였다.

『菴溪集』에는 이복은 반동요가 칠항되었을 때 양주성이 봉곡하고 관직을 버린 사실을 장하게 여겨, 중암 김평묵이 먼저 시한수를 짓고 황계 이복이 화답한 시가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이인구·조인식·이동규·유종교 등의 시도 함께 실려있다.

1806년 병인양요 때에 풍천은 나라가 잘못되면 나는 죽을 것이라며 객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출전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 때에 동문인 중암 김평묵과 황계 이복은 풍천을 염려하여 상경해 만나보기도 하였다. (용문면)

【參考文獻：重庵集，省齋集，菴溪集，菴溪源錄，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南原梁氏文義公派世譜，梁惠錫氏 家譜】

양주성(梁柱星, 1822- 1859)

부관, 자는 致五, 본관은 남원, 경상우수사 梁宣洙의 둘째 아들이다. 1822년(순조 22) 용문면에서 출생하여 1847년(현종 13) 부관에 급제하고 1851년(철종 2) 비슬길에 올라 비변랑을 거쳐 선전관이 되고, 박찬영종·철원부사, 경상좌수사와 충청수사를 역임하고 가선대부

에 올랐다. 묘는 용문면 김곡리 감지산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文義公派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주열(梁柱烈, 1884- ?)

독립투사. 양주열은 단월면 덕수리 451의 출신이다. 1919년 3월 호순 손병희 등이 독립선언을 한 이후 청정부 내 독립만세 시위에 동참하고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청정부 본화분 불나부 시장에서 군중들과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위운동을 하다가 수십명의 동지들과 일경에 붙들려서 정역 6월에 형을 받고 옥살이를 했다. <단월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5), 獨立有功者功勳錄,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양주태(梁柱台, 1816-1871)

조선조 무신. 자는 柱三, 본관은 남원. 가선대부 작은경부시 梁柱의 첫째 아들이다. 1838년 무과에 합격하고 1844(헌종 10) 미추홀에 나아가 선전관을 시작으로 홍양·성천·평안중군, 전라좌수사, 경기중군, 도총부 부총관, 경상좌병사, 가선대부 원무중군, 홍음 어영의 양명중군, 도총부부총관으로 戰功이 지대하다.

1855년 홍진에 무임하여 서양하천을 물리치고, 1860년 평양성이 위급함을 맞아 조정에서 특별히 중군을 명하여 출전하여 개강에서 적을 막아 안정을 회복하였다. 1871년(고종 8) 봄 서양 선막이 광성 전에 들어오니 어재유이 출전하여 개하였다. 조정에서 장군을 추천하여 관서지방 포군 3천여 명이 전한 200척을 이끌고 강화도에 나아

가 크게 공을 세웠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文襄公派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주헌(梁柱憲, 1824-1887)

조선조 문신. 자는 景章, 본관은 남원, 증 호조참판 梁正洙의 아들이다. 1824년(순조 24)에 출생하고,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수문장, 역사잘방을 역임하고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묘는 단월면 수숙동에 있다. (단월면)

《參考資料: 南原梁氏文襄公派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주현(梁柱顯, 1847-1890)

조선조 무신. 자는 道卿, 본관은 남원, 공조판서 오위도총부 도총관 충장공 梁憲洙의 아들이다. 1847년(헌종 12)에 태어나 1868년 무과에 합격하고 1869년 별군직을 시작으로 가선대부 한성좌윤 동지훈련원사, 경연 특진관, 훈련원 正, 내금장, 경리, 병방진군 각영병방 금군별장, 덕원 부사, 경기 중군, 영종 첨사, 장원방어사, 수원중군, 황해수사, 전라병사를 역임하였다. 묘는 단월면 수숙동에 있다. (단월면)

《參考資料: 南原梁氏文襄公派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창석(梁昌錫, 1909-1983)

유학자. 자는 股執, 호는 謙齋, 본관은 남원, 1909년 현충참봉

龍門處士 梁在竹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교사, 한학자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저서에 『謙齋集』이 있는데, 시 중에 ‘龍門八策’ 라는 아은 통정표용이 병역하고 문과와 함께 양평문화원과 양씨문중이 협력하여 용분산 모험의 거대한 바위를 세라하고 작자하여 용분사 경내에 세웠다. 묘는 용분민 칠정리에 있다. (용문연)

《參考資料：南原梁氏世譜，謙齋集，梁惠錫氏 제공》

양 척(梁試, 1624-1662)

조선의 무신, 청백리. 자는 子儀, 본관은 남원, 훈련원 중군 梁應訓의 둘째 아들이다. 부과로 벼슬길에 나아가 선전관, 수군첨도사를 거쳐 도총도사, 훈련원도정, 그리고 고부·광산·평산·봉천·영흥·해미영장을 역임하고 상주복사로 있다가 귀로 중 양산에서 병세하였다.

관리는 청백이 으뜸이다. 양척의 청렴한 절조는 비유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손꼽을 수 없고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다. 그가 북쪽 고을에 부임할 때에 관서 趙氏가 양척의 옷에 부너를 넣은 옷이 있음을 알고 붉고 검은 색으로 두 벌을 수었는데, 죽을 때까지 다시 고쳐 만들지 않고 죽어서 염습하였다.

또 자신이 집사람을 면류관을 가지고 말하면 그가 남쪽고을로부터 마줄을 버리고 면류관 들어왔는데 封拜官이 쌀을 내어 포장하여 관아에 보내어 노자에 쓰도록 하니, 부인 구석까지 불리치고 이르기를 “남편의 뜻을 어길까 두렵다”고 하였다.

양척은 타고난 성품이 간소하고 아담하여 일체의 행동이 온화하기가 한결같이 청빈한 유생과 같았다. 집에 있어서는 효도하고 우애하며 부모의 상사에 執喪하는대는 예절보다도 지나치고 그 분기함에는 스스로 관학이 있음으로 형제들에게 좋은 물건과 토지를 나누어

주고 스스로 그 보잘것없는 것만을 취하였다. 영의정 남구만은 묘갈 명에서 “모는 후세사람은 영원히 그 집안의 명성을 보전하기 일하며, 모든 향려에 있어서는 영원히 그 남은 무덤을 삼가 공경하기 바라도다” 하였다.

평소 청렴하고 검약하여 임금의 명으로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를 추증하고 치제하였다. 1006년(숙종 22)에 청백리에 오르고 이로써 셋째 아들 율祉는 장릉참봉에서 의금부도사에 올랐다. 묘는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발산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6), 梁惠錫氏 제공〕

양필 환(梁弼煥, 1833-1894)

조선의 무신. 호자. 자는 莚若, 본관은 남원, 1833년 11월 26일 풍천부사 梁柱石의 아들인데, 梁柱石에게 입양되었다. 1862년 무과에 합격하고 1869년에 수문장으로 시작하여 남양부사에 그치었다. 1894년 동학난 때에 62세로 나라를 위하는 장수의 마음으로 분개하고 탈석하면서 전주영장에 부임하였다.

고부군수로 있었는데 동학도가 전주성에 난입하여 함락직천에 있었다. 조정에서 필환을 전주영장으로 임명하고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병사들은 도산하여 없어지고, 하인이 피하라고 안전을 말하였더니, 필환이 성난 목소리고 꾸짖기를 “내가 왕명을 받았거늘 어찌 위급하고 곤란함이 있다고 하여 도망치겠느냐?” 하고 출전하여 앞에 나갔다.

동학난민이 에워싸니 수행원은 도망가고 홀로 물러섬이 없이 빈주먹으로 싸웠으나 마침내 변을 당하고 말았다. 눈을 부릅뜨고 비적을

꾸짖으며 고을 원의 지휘봉을 굳게 잡고 궁궐을 향하여 '주상전하'를
재 빈 부르고 칼영의 뜰에서 순국하였다. 양평군 단월면 미수리에
안장하였다.

권환은 타고난 성품이 감직하고 결단성이 있으며 朋友가 뛰어나
세상이 두려러 보게 하였다. 어머니가 90세에 중풍을 일으키는데 10
년 동안 약시중 들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다하였으며, 초상에는
슬픔을 다하여 3년 간 10리 길 성묘를 빼놓지 않았으니 세인이 감탄
하여 칭송이 자자하였다. 벼슬에 올라서도 면사봉공하여 백성을 사
람하였으나 사람들이 송덕비를 세워 칭송했다. <용문면>

【參考資料】南原梁氏文襄公派世譜、府使公諱柱石行狀、嶺溪淵源錄、華西學
派의 忠義孝烈錄



양헌수 (梁憲洙, 1816-1885)

조선조 무신. 화서 문인. 자는 敬雨 호
는 荷屋, 시호는 忠莊. 본관은 남원이다.
1816년(순조 16) 용문면 경탄리에서 수봉관
梁鍾任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1828년 13세
에 화서 이항로를 찾아가 성리학을 배우고,
1848년 무과에 급제하고, 이듬해에 선전관
으로 관직에 오르게 된다.

1851년 참상관(참정관: 6품)으로 승진하면서 훈련관과, 정력, 임
성 등 부인의 요직을 거치게 되었다. 1854년 평안도 동부의 최천군
수에 임명되어 외직으로 나가게 되었다. 4개월이 경과되어 모친상을
당하여 귀향하게 되었다.

하거는 1858년에 어영청 초관을 거쳐 당상관으로 승진하여 선전관 겸 사복장을 역임하고, 1859년에 감산부사로 부임하여 외적으로 나가게 되었다. 여기서 민폐를 시정하다가 남병사의 모함을 받았으나 미변사가 양현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남병사를 저명한 일이 있다.

1862년 봄에는 조정에 민폐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그후 1864년 하거는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다. 그해 7월에 폭우와 태풍으로 섬 전체가 흉년이 들었다. 하거는 창미 2천석을 출연하여 9만 600여 명을 구제하였다. 그 다음 해에 하거는 전 제주관관의 탐학한 죄를 고발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하거의 청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866년 9월에는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되어 공방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프랑스 함대의 침입을 대비한 순무영이 설치되자 천총에 임명되었다. 조정에서 양현수로 하여금 프랑스함대를 토벌케 하였는데, 하거는 출전에 앞선 양화진 환송식장에서 흥선대원군에게 당면한 난국의 수습책으로 양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스승인 화서를 불러 예우를 하여重用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하거는 500명의 병력으로 청족산성에서 배복작전을 펴서 프랑스 함대를 격퇴시키고 승전한다. 1867년에는 행용양위부호군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 1868년 승정원 좌승지, 1869년에는 황해도 병마절도사, 1873년 의금부사, 어영대장, 1875년 금위대장을 역임하였다.

1876년 오위도총부 도총관, 1879년 지중추부사 겸 삼군부사, 1884년 공조판서, 1887년 춘천부 유수 겸독려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888년 11월 22일 병세하니 경기도 파천 남면 부곡리에 안장하였다가 양평군으로 이장하였다. 신도비는 용문면 광탄리 태승정 옆에 위치하고 있다.

저서로 『荷居集』이 있다. 하거의 행장은 이조판서 김윤식이, 신도비명은 대제학 한잠식이, 묘지명은 이조판서 이재환과 동부승지 이

건찰어. 지장은 이조판서 김영수가 지었다. 묘는 양평군 향토유적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용문면)

《參考資料: 荷居集, 華西集, 國史大事典, 韓國人名大事典, 蘇溪流所錄, 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 南原梁氏文襄公派世譜,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 祥明大學校博物館), 白雲文化(18)》

양 협(梁峽, 1734-1803)

문신. 자는 龜存. 본관은 남원. 무사 梁世詵의 아들이다. 1734년(영조 10)에 용문면에서 태어나서 학과에 급제하여 비슬강에 올라 선원관, 훈원원 부정을 거쳐서 박원군수, 용원군수, 봉산군수를 역임하였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 훈(梁埴, 1736-1794)

문신. 자는 仲禮. 본관은 남원. 명사 梁世詵의 셋째 아들이다. 무과로 비슬강에 올라 선원관, 훈원원 부절, 학정·경흥·봉원부사. 1794년(영조 18) 화상 역사에 괴로가 겹치 병이 발생하여 사거하였다. 영조가 부음을 듣고 슬퍼하여 자재하고, 기선대부 수사를 증직하고 또 명조참판을 추증하였다. 묘는 용문면 횡정리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제공》

양희수(梁僎洙, 1842-1908)

조선조 무신. 자는 龜祥. 본관은 남원. 梁世詵의 당자이다. 1842

년(헌종 8) 용문면에서 출생하여 1874년(고종 11) 무과에 합격하고 훈련원 주부, 훈련원 청정, 지산원감 내급위장을 역임하였다. 묘는 용문면 방능리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南原梁氏世譜, 梁惠錫氏 세공》

여광현(呂光鉉, 1885-1962)

독립유공자. 자는 國顯. 본관은 함양. 呂圭謙의 둘째 아들이다. 여광현은 양서면 신원리 496의 출신이다. 당시 34세의 나이로 1919년 3월 31일 강상면과 4월 3일 고읍면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평소 항일의식이 부철하던 그가 광무황제의 승하를 당하여 망국의 통탄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 서울의 만세운동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최대현·이보권·신우권 등과 뜻을 모으고 거사할 날짜를 3월 31일로 정하여 선서와 태극기를 비밀리에 인쇄,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을 포섭하였다. 거사 당일인 3월 31일 오후 11시에 거사는 강상면 사무소 앞에서 군중 300여명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지행한 뒤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4월 3일에도 고읍면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는데 이때에는 고읍면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등지에서 합류하여 시위 군중의 규모가 40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들은 고읍면 만세시위에 이어서 양근읍으로 향하였으나 인경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해산하고 말았다. 이때 윤기영은 만세현장에서 일경에 체포되었다.

거사는 1919년 10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77期 90대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06년도 대
통령표창을 追授했다. (양서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5), 獨立有功者功勳錄,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여규덕(呂圭德, 1846-1902)

천도교인. 본관은 함양, 양서면 新院里 보곡에서 高麗碑의 둘째 아
들로 출생하였다. 여규덕은 천도교를 창건한 때에 교조 최시형, 간부
김연주손병화박인호 등 다섯 사람과 함께 핵심간부로 활동하였다.

『천도교창건사』에는 포덕22년(1881) 무인 6월 신사(최시형)은 단
양군 남면 천동의 여규덕 집에 개간소를 개설하고 朝鮮文歌에 여덟
편을 口誦하고 받아 적어서 간행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龍
淵文歌』라고 기록되어 있다. 양서면 신원리 여씨 중 천도교에 비판적
이었던 가족이 비난을 피하여 단양에 두 번이나 피난을 갔었다.

이때에 최시형과 핵심 간부들도 단양에 은거하여 용담유사를 간행
했던 것이다. 동학사에 의하면 “조부의 正信은 포덕24년(1883) 계미
3월 ‘동학의 북방에의 포교’를 위하여 김연국, 손병화, 박인호, 여
규덕 등과 함께 교조 최시형과 만나고 있다. 그들은 모두 특출한 사
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규덕의 조부 여규선의 아우로
서 동학의 열렬한 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대간부였다. (양서면)

《參考資料》 咸陽呂氏庚辰大同譜, 呂龍九氏 家譜

여규제(呂奎齊, 1631-1690)

함양어씨 입향조. 자는 쫘르, 본관은 함양, 高麗碑의 셋째 아들이

다. 1661년(현종 2) 장례원 시평, 사헌부 감찰, 한양부 관리를 역임하고, 홍산·진안·개령·서흥현감·가평군수를 역임했다. 이조참관에 추증되었다. 강건너 양근 문인에서 양서면 묘곡으로 이주하였다. (양서면)

〔參考資料〕 咸陽呂氏庚辰大同譜, 呂鶴九氏 제공

여규형(呂圭亨, 1849-1922)

학자. 자는 士元, 호는 荷亭. 본관은 함양, 呂豐燮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한학에 정진하여 1822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충청원 승지를 역임하고 1895년(고종 32)에 을미개혁 때에 중추원 의관이 되었다. 1910년 경술국치 후에 제일고등보통학교(경기중학) 한문 교사로 재직하였다.

시 서화 불경에 모두 능통하여 살아있는 『事文類聚』로 일컬어진다. 1916년 오세창·장지연 등과 『大東詩選』을 편찬하였다. 광대들이 부르던 '춘향가'를 중국의 『西廂記』 문체를 보방하여 희곡한 『춘향전』이 친한다. 저서에 『荷亭集』이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咸陽呂氏庚辰大同譜, 韓國人名大事典

여성구(呂聲九, 1922-1979)

정치가. 자는 鼎叔. 본관은 함양, 국회의원 卍運弘의 장남이다. 1922년 양서면 신원리에서 출생하여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구주제국대학을 졸업하였다. 조선대학교 교수와 (주)대구중공업회장, 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내부부용도계장을 역임하고 초대 양평군수를 역임하였다. (양서면)

〔參考資料〕 咸陽呂氏庚辰大同譜, 楊平郡誌, 曾孫 呂鶴九氏 증언

여성제(呂聖齊, 1625-1691)

조선조 문신. 자는 希天, 호는 雲浦, 시호는 端惠. 본관은 한양, 부사 呂爾亮의 장남으로 참판 卍繼에게 입양되었다. 1650년(효종 1) 생일이 되고, 1654년 환봉에 임명되었으나 사퇴, 이 해 가을 절시문과에 장원급제하고 검열에 등용되었다.

1665년(현종 6) 북평사, 이어 집의 동부승지 호조참의를 역임하고, 좌부승지 대사간 함경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1678년(숙종 4) 강릉부사에서 예조판서로 특진되고, 1680년 보사공신의 추복을 반대하다 좌천되었다. 이듬해 앞서 현종의 국상 때 도감으로서의 상로가 인결되어 승정대부에 올라 관의금부사를 지낸 뒤 좌참찬을 거쳐, 1684년 병조판서가 되고, 이어 이조판서를 지낸 후, 1688년 우의정에 올랐다.

이 해 남구만과 함께 동생군 抗에 대한 왕의 지나친 총애를 간하다가 경원에 위리안치 되었으나 곧 풀려나 판돈령부사가 되었으며, 이듬해 다시 우의정이 되고 이어 영의정에 승진하여 사퇴, 행판중추부사로 전임했다. 이 때 남인들이 성혼·이이를 무고하여 문묘에서 출향하리 하자, 그 불가함을 진소하였다.

그 앞서 성혼·이이를 문묘에 배향할 때 관세관이었다 해서 스스로 정죄한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 해 다시 상경하여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를 했으나 믿어들이지 않자 옥봉으로 발병하여 고향에서 별세했다. 저서로 「雲浦集」이 있다. (양석면)

【參考資料】 顯宗實錄, 肅宗實錄, 西坡集, 明谷集, 學泉集, 韓國人名大辭典

여 엄(呂嚴, 862-930)

승려. 본관은 순천, 본관은 경주, 탑호는 立機, 시호는 法鑑. 충신

보령군 남포 출생이다. 9세 때에 무량수사에 출가하여 (仁宗법사에게 화엄경을 배웠는데 6개월 뒤에 10萬偈를 암송하였다. 880년(현강왕 6) 19세에 具足戒를 받았다. 887년 교종에서 선종으로 옮긴 뒤 송업산의 무주 무염에게 선을 깨우쳤다. 뒤 당나라에 가서 靈鷲의 心印을 받았으며, 909년(효공왕 12)에 귀국하여 소백산에 은거하였다.

그의 선덕에 귀의한 고려의 지기주제군사 康置이 고려의 태조에게 上聞함으로써 태조의 부름을 받아 용문면 연수리 보리사의 주지로 있다가 930년(태조 13) 69세로 입적했다. 보리사 터에 남아 있던 그의 비는 현재 경복궁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네이버 백과사전】

여운경(呂運兢, 1894- ?)

독립운동자. 여운경은 양평 양서면 신원리 273의 출신이다. 그는 당시 25세의 나이로 1919년 2월 13일 조선독립운동 발기 취지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최광석을 지켜서 면사무소 등사기를 빌려오게 하여 인쇄를 하고 2월 하순에 양평군 내 11개 면사무소 면장에게 보냈다.

그 후 최대현·윤기영·이보원 등과 강하면사무소 앞에서 3월 31일 군중 30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하고, 4월 1일에는 양서면 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여운경은 어광현과 4월 2일 연일 양서면사무소에서 1천여 명과 시위를 가졌다가 일경에 붙잡혀 90태형을 선고받았다. (양서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 判決文,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여운형(呂運亨, 1886-1947)

독립유공자. 정치가. 호는 夢陽, 본관은 함양, 高陽鎔의 첫째 아

유료 양병군 양서면 신원리에서 출생했다. 우부학당 등에서 한학을 공부한 후 1907년 고향집에 광동학교를 세우고 신교육에 헌신했다. 그리고 강릉에 조당의숙을 세워 민족의식을 고취하던 중 국권이 빼앗기고 학교가 폐쇄되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선교사 클라크를 따라 서간도의 新興武官學校를 전학하며 국내외에서의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학교를 중퇴, 1913년 중국으로 건너갔다. 남경 금릉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다가 상해로 가서 1918년 신한청년당을 발기하여 김규식을 파리평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하였다.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조직되자 임시의정원 의원이 되었는데, 임시정부는 이를 자치운동으로 회유하고자 그 해 11월 그를 도쿄(東京)로 초청하였으나 오히려 장덕수를 풍어관으로 삼아 일본의 조야 인사들에게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1920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여 정치적 변신을 하였다. 이듬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원동피압박민족대회를 참석한 후, 한·중호조사를 조사하여 1924년 중국국민당에 가입하고 한중 상호관계를 위한 남북혁명군으로 활약했다.

1929년 영국식민지정책을 비난하다가 영국경찰에 체포되어 일본 경찰을 경유하여 본국에 압송되어 3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1933년 증옥,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에 취임하였는데 1936년 신문이 일제에 의하여 잠간되자 사임한 후 1944년 비밀간사인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안재홍 등과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 9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우익전영의 반대와 미군정의 불인정으로 실패하였다. 12월 조선인민당을 창당, 1946년 20개의 좌익단체를 규합하여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였으나 반대하여 탈

퇴하였다.

또, 근로인민당을 조직하였으나 극좌극우 양측으로부터 소외당한 채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던 중 1947년 서울 혜화동 사거리에서 7월 19일 극우파 韓育根(=한현우)이란 19세 소년으로부터 2발의 권총사격을 받고 피살되었다. 2005년 3·1절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追授되었다. (양석면)

《參考資料: 韓國獨立運動史, 韓國人名大事典, 騎驢隨筆, 明治百年史叢書,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민족문화대백과사전,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여운홍(呂運弘, 1891-1973)

정치가. 자는 奉叔, 본관은 함양. 1891년 양서면 신원리 묘곡에서 呂鼎趾의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1918년 미국 오하이오주 우스터 대학을 졸업하고,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에 가담하여 의정원 의원이 되었으며, 그 해 파리평화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1920년 삼하이의 인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귀국하여, 1922-1925년 보성전문학교의 영문학 교수로 있었다. 1946년 사민당을 창당하여 당수가 되고, 근로인민당에 가입, 간부가 되기도 하였다. 그 해 민보사 사장에 취임한 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예 선임되었고, 1950년 제2대 민의원에 당선되어 자유당 선전부장을 역임하였다.

1960년 초대 참의원에 당선되었으나 5·16군사정변으로 사퇴하고, 1963년 민주공화당 고문에 추대되었다. 저서에 『영문법』과 『봉양 여운형』 등이 있다. 묘는 양서면 신원리 묘곡에 있다. (양석면)

《參考資料: 咸陽呂氏庚辰大同譜, 呂鶴九氏 증언, 네이버지-인》

여유길(呂裕吉, 1558-1619)

조선조 문신, 성혼의 문인, 자는 德夫, 寬夫, 호는 春江, 본관은 함양, 칠정 卍世대의 증손, 칠지중추부사 卍顯光의 아들이다. 1580년(선조 13) 함성문과에 乙科로 급제, 호조 정랑 등을 거쳐, 1593년 헌납이 되고, 1599년 공주 목사, 1601년 청령, 이듬해 사예를 거쳐, 양주목사로서 시나선 정세를 하여 과직되었다.

1604년(선조 37) 군기시정으로 춘추관 권수관이 되어, 임진왜란 때 소실된 실록의 재간에 참여, 1606년 칠지중추부사, 1607년 사옹원 정, 봉상시 정을 역임했다. 이듬해 선조가 승하하자 국장도감도 정이 되고 1610년(광해군 2) 동시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한성부우윤에 승진, 1612년 도총부부총관이 되었다.

병조참판에 이르러 노부모를 위해 남양부사를 자청, 1618년 병으로 사직했다. 특히 산수를 잘 썼다. 저서로 『信江集』이 있다. (양어면)

《參考資料》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韓國人名大事典, 咸陽呂氏庚辰大同譜, 呂鶴九氏 증언, 네이버지식-인》

여이징(呂爾徵, 1588-1656)

조선조 문신, 자는 爾久, 호는 東江, 본관은 함양, 한성부 우윤 卍辭吉의 아들이며 韓百謙의 문인이다. 1610년(광해군 2)에 생원이 되고 1616년 경안도 참방에 위정되었으나 위목대리에 대한 폐모론이 일어나자 양강에 은거했다.

1623년 인조반정 후에 사포서 반파에 위정되었으나 사퇴하고, 1624년(인조 2) 식년문과에 병과로, 1626년 문과증시에 병과로 각각 급제하고, 승문원에 등용되고, 선격을 거쳐 병조·예조의 참판을 역임했다.

1636년 경기도 관찰사, 한성부좌윤, 예조참판을 지내고, 1641년(인조 19) 함경도 관찰사로 나가 전황을 배꼈었다. 뒤에 무반객으로 기용되고, 대사성, 대사헌, 강화부 유수, 부제학, 도승지, 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성리학에 밝았으며, 詩文에 뛰어나 많은 묘비명을 지었고, 친문, 斷章, 書畫에도 뛰어났다. 저서로 『東江集』이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仁祖實錄, 韓國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咸陽呂氏庚辰大同譜, 呂鶴九氏 증언, 네이버지식-인》

여이징 부인 청주한씨(淸州韓氏)

얼너, 한백경의 제자 呂爾徵(1588-1656)의 부인. 명의정 呂聖濟의 어머니로 병자호란이 일어난 다음해인 1637년(인조 15)에 강화도에 서 분신 자살하였다. 나라에서 칭려하였다. (양서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韓國人名大事典》

여필용(呂必容, 1655-1729)

문신. 자는 休翹, 본관은 함양. 呂奎齊의 아들이다. 1683년(숙종 9)에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동년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그 후에 승정원 주서, 병조좌랑, 사간원 정언, 사간, 사헌부 지평, 김의, 시강원 분학 겸 선전관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전라좌도위문 어사, 황해도 암행어사를 거쳐서 도승지, 병조·예조·호조·공조참의, 호조·예조·병조참판 등지 청언 의금부춘추관사, 도총부 부총관, 강릉·성천·동래부사, 원주목사, 경주부윤, 강원감사 등을 역임했다. (양서면)

《參考資料: 咸陽呂氏庚辰大同譜, 呂鶴九氏 증언, 네이버지식-인》

오장문(吳莊問, 章文)

의병장. 처평출신 포군으로서 임팩션을 좇아서 세신의명에 합류하였다. 증감감부인 소장, 영순장으로 증주성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그러나 관부의 분서를 파손하고 백성들에게 배를 끼쳤다 하여 군 기장하임 차원에서 처형되었다. (지평면)

《參考資料》 下沙安公伝未編義事實, 明齋集, 獨立運動史資料集(1), 從義錄》

유 규(兪圭, 1758-1838)

효자. 자는 光瑞, 본관은 창원, 昌原시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여 세상사람들이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강상면)

《參考資料》 昌原兪氏大同譜, 兪武老·兪泰錫氏 家譜》

유 감(兪臧, 1633-1692)

효자. 자는 光吉, 본관은 창원, 증 사헌부대사헌 兪滋烈의 셋째 아들이다. 효행으로 拔擢되고 동티방에 이르고 동경대부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강상면)

《參考資料》 昌原兪氏大同譜, 효행등세록, 兪武老·兪泰錫氏 家譜》

유건기(柳建基, 1693- ?)

진수유씨 임향조. 자는 仁衍, 본관은 김주, 嶺南의 柳承宗의

아들이다. 옛 광주, 현 서울 천호동에서 아우 延堯와 함께 서종변 정배리 동점으로 이주하였다. 이주하게 된 연유는 남인이었던 증조 유혁연(1616-1680)이 공조 및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훈련대장과 총융사를 겸직하였다.

그러나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적으로 숙청당하여 영해에 유배되고 이어 대정으로 위리안치되어 사사 당하자(후에 신인), 화를 피하여 형제가 북거지를 찾다가 정배리 동림에 정착하게 되었다. 묘는 정배리 515번지 갑좌에 있다. (석종면)

【參考資料: 晉州柳氏世譜, 韓國人名大事典, 柳政熙氏 제공】

유 관(柳寬, 1346-1433)

여말 조초의 문신. 자는 敬夫, 호는 夏亭, 시호는 文簡, 문관은 문화, 柳安澤의 아들이다. 유관은 1371년(고려 공민왕 20)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하다가 조선왕조 때 開國 원종공신이 되었다. 1397년(태조 6) 대사성, 이어서 형조이조의 전서를 지냈고, 강원도 전라도 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401년(태종 1) 대사헌으로서 상소하여 불교를 극력 배척하였고, 이어 간관을 탄핵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되기도 하였다. 1409년(태종 9)에 예문관대제학으로 지춘추관사를 겸직하였으며, 이듬해 『太祖實錄』 편찬을 주관하였다. 1423년(세종 6) 지춘추관사로 『高麗史』 개수의 명을 받고 이듬해 우의정으로 승진, 『高麗史』를 수교하였다.

그는 성품이 청렴 검소하고 청빈하여 세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夏亭集』이 있다. 묘역은 강하면 동호1리에 위치한다. 동호1리 간촌마을에서 약 8km 서쪽으로 들어간 곳에 신도비

〔楊平人物誌〕

와 재실이 있으며 묘는 경기도지방문화재 제62호로 지정되어있다.
(강하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韓國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유근태(柳根泰)

학자, 호는 桃隱, 본관은 문화, 청운변 도원리 사람이다. 1910년 경술국치(한일합병)에 분개하여 도원리에三一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사림과 더불어 경서와 시로 써 시국을 한탄하며 후학에게 항일정신을 고취시켰다.

이름이 31정이라 왜경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도은은 사류와 더불어 시문을 화답하고 경학, 예학, 실학, 의학 등 광범위



한 식견을 가지고 마을에 기여하였다. 주민들이 하백과 인품을 추앙하여 송덕비를 세우고 유덕을 기리고 있다. (청운면)

《參考資料: 砥平郡校誌, 文化柳氏世譜》

유 답(兪嶽, 1696-1767)

학자. 자는 慎卿, 본관은 昌原, 兪謙一의 둘째 아들이다. 벼슬이 칠층장군 첨지 중추부사에 올랐다. 묘는 강상면 송학리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昌原兪氏大同譜, 兪武老氏 제공》

유덕일(兪德一, 1666-1727)

학자. 자는 晉叔, 호는 松齋處士, 본관은 창원, 중 의정부 좌참찬 兪暉의 셋째 아들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향리 사림들이 추천하여 가신대부 호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강상면 신화리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昌原兪氏大同譜, 兪武老·兪泰錫氏 제공》

유래원(柳來琬, 1888-1956)

정치가. 양평군 초대 국회의원, 제헌국회의원. 호는 怡淵 또는 三元, 본관은 진주인데 1888년 음 5월 12일 양근군 남종면에서 법관양성소 박사 柳台永의 셋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일찍이 한학을 배우고 기호학당을 거쳐 일본에 건너가 중학교·고배상고·일본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사립학교인 양서학당에서 청소년을 모아 지도하면서 정신교육에 전념하였다.

1919년 3.1운동 때에는 '보성독립단'의 단장으로 민족사상 계몽운

청에 귀양하다가 체포되어 수원감옥에서 3년의 옥고를 치렀다. 양평을 고향리에 이주하여 삼민적 나라를 걱정하며 민족사상 계몽과 국영사업에 힘썼다.

1945년 광복 후 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지역의 입법위원으로 추대되고, 건국 제헌국회의원(1948-1950)으로 당선되어 양평군 초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광복후 혼란기에 한국의 민주발전의 통일과업을 위하여 헌신하다 1950년 68세로 逝去하였다.

정부에서는 1969년 12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였다. 묘는 남양주시 화도읍 도란공원에 있다. (양평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柳沈燮氏 제공》



유봉휘

(柳鳳輝, 1659-1727)

조선후기 문신. 자는 주남, 호는 柳庵. 본관은 문화. 영의정 柳尚淵의 아들이다. 1684(숙종 10)년 진사시에 오르고 1699년(숙종 25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홍문관 수찬·부제학 등을 역임하고 승지의금부사가 되었다.

1721년(경종 1) 사직으로서 노론이 세사 책봉을 주장하자 이를 반대하였으며, 이어 세제의 대리청정이 실현되자 소론의 영수로서 왕이 빚을 갚지 않았는데 대리 청정케 함은 부당하다고 극간하여 바깥에 이를 권회시키고, 노론은 실각하였다.

이듬해 세자시강원 우부민객이 되고 1723년(경종 3) 이조판서를 거쳐 1725년 영조가 즉위한 후 당평백으로 노론소론의 인립정권이 수립될 때 우의정에 올랐다. 이어 소론 사대신의 한사람으로 좌의정

에 재수되었으나 신임사화를 일으킨 주동자라는 노론의 탄핵으로 정릉에 안치되어 배소에서 죽었다.

사후 관직이 복구되었으나 1755년(영조 31) 다시 반역죄로 追刑당하였다. 같은 소론이었던 이광좌와는 달리 과거과에 속하여 노론의 탄압에 적극적이었으므로 노론 집권 후 신원되지 못했다. 묘는 옥천면 용천리 문화유서 묘역 내에 남향하여 있다. 비문은 여규형이 짓고 여한정이 썼다. (옥천면)

【參考資料】楊平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辭典, 』

유상운(柳尙運, 1636-1707)

조선후기의 문신. 자는 悠久. 호는 約齋 約室. 시호는 忠簡. 본관은 문화. 좌랑 柳誠吾의 아들이다. 1660년(현종 1) 진사가 되고 1666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을 시작으로 강계부사 등을 거쳐 통정대부에 올랐다.

1679년(숙종 5) 문과성시에 장원급제하여 가선대부에 오르고 도총부부총관·도승지·한성좌윤·공조참판·대사간 등을 역임하였으며, 경신대출척이 일어나자 평안도관찰사로 전임되었다.

1683(숙종 9)년 사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병조·호조·예조의 참판을 역임하고 다시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 이때 행한 선정으로 이곳 사람들은 사당을 지어 살아있는 조상을 걸어 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 후 세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되자 소론에 속하여 노론의 영수 김석주의 전횡을 탄핵하였다. 1684년(숙종 20) 갑술옥사 때에는 이조판서로 기용되어 판의금부사를 겸임하였다. 1686년(숙종 22) 영의정에 올랐으나 1688년 노론의 배척을 받은 소론의 영수 최석형을

〔楊平人物誌〕

변호하여 사직되었다.

다시 관중주부사로 전임되고 이듬해 다시 영의정에 올랐으나 탈쟁을 일한다는 노론의 탄핵으로 관중주부사에 전직되었다. 1705년 행관중주부사에 제수되고 나이 70세에 기묘초에 참여했다. 글씨를 잘 썼으며 다주의 죽봉사에 제향되었다. 묘는 옥천면 용천리에 있다. <목천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유성서(兪性瑞, 1873- ?)

혁명운동가. 양명 출신으로 열렬 위국이라고 한다. 3·1 독립운동 활동으로 학학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양명읍>

《參考資料: 獨立運動史(김승학),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유성중 부인 선산김씨(善山金氏)

열녀. 본관은 선산, 俞佑錫의 딸로 柳聖이에게 출가하여 열녀의 칭송을 받았다. <양근>

《參考資料: 楊平郡誌》

유재후(柳載厚, 1804- ?)

효자. 자는 汝汝, 본관은 분화이다. 효성이 뛰어나고 나라에서 칭려하였다. <양근>

《參考資料: 楊平郡誌》



유 정(兪淨, 1551-1609)

창원유씨 입향조. 조선의 武臣. 자는 淸
 叟. 본관은 창원. 兪必毅의 둘째 아들이다.
 어모장군으로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가 추
 증되었다. 묘는 강상면 송학리에 있다. (강
 상면)

【參考資料】昌原兪氏大同譜, 兪武老씨 제공

유 조(柳 燾, 1798-1870)

유학자. 자는 洛文, 호는 洛隱. 본관은 고흥이다. 낙은은 1798년
 6월 6일 서울에서 병조참판 柳榮五(1777-1863)의 아들로 태어나 柳
 榮九에게 입양하였다. 병조참판인 영오가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비원서원 근처리인 잠강으로 낙향함에 따라 함께 잠강에 살
 게 되었다.

잠강은 양근 벽계의 청화정사와는 20여리 거리로, 벽계마을 사람
 들은 설악면의 5일장을 보는 일일생활 권역에 속한다. 낙은은 30세
 에 화서의 청화정사 근처에 작은 서재를 짓고, 그 아들 柳重學 柳重
 敎와 일가들을 유학시키면서 수십 년 간 화서와 강론하였다.

낙은은 학문에 있어서 四書(논어·맹자·중용·대학)를 뒤주로 공부
 하였으며 특히 주자학에 전념하였다. 화서와 나이가 비슷하다하여
 처음에는 형으로 섬기다가, 뒤늦게 제자의 예를 지켜 아침저녁 뵈
 때에 반드시 절하고 존경을 표하였다. 스승 화서가 몰하자 삼상 5개

원을 행하였다. 낙은은 『華西雜言』을 읽고 나서는 “우리나라의 한 경서이니, 도를 밝히고 온미함을 밝명한 공로는 마땅히 공자에 종사되어야 한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낙은은 국가와 백성을 항상 근심하였는데, 화서와 더불어 당시의 일을 의논함에 배양 양구를 근심하여 “양구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정학을 밝히고 명교를 높이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하며 족식, 족병은 그 다음의 일이다”고 하였다.

낙은은 陽剛으로써 근본을 세워야 한다고 자제들을 가르쳤다. 스스로도 평생 재물로 그 마음에 누가 되지 않게 하여 의리에 편안하지 않은 것은 벌리하였다.

낙은의 명세가 귀중하자, 김안 사람들이 산에 가서 큰 나무 한 그루를 베었는데, 관세 둘이 나올 만하였다. 먼저 비탄 값에 하나를 팔아 경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집에서 쓰려한다는 말을 듣고는, “너희들은 부모 섬기는 것을 예로써 해어 하는데 지금 영리으로써 나를 장사치내려 하느니, 차라리 관세가 없는 친구와 나누어 쓰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황해 이북이 세문에서 이르기를 “瀟湘에 서실을 짓고 금서으로써 가계를 알았다. 『朱子』를 다룬 사람들은 그 말만 보고도 바다를 바라보듯이 여겼지만 공은 그 가운데로 들어가 수미(首尾)를 관통하였다”고 하였다.

화서는 낙은을 격려하여 “가슴에 한 점의 중속진애의 기운이 없어야, 도리분장이 미야르로 점차 진보할 수 있다”는 시를 주었다.

낙은은 철악면 울업이라는 곳에 萬御書院을 개설하고 도학을 강론하였으며, 한편 萬福書社를 열어 중앙 김재복과, 아들인 성재 유중교의 강학활동을 도왔다.

1870년 12월 13일 낙은이 서거하자 대개 화서문하의 선진들이 만사와 제물을 지었는데, 김평목·이민구·이박·장학수·이진태·김진수·이효·최영승·유기일·신계·송민영·김영복 등이다. 낙은의 유사는 성재 유충교가 지었고, 묘지는 중암 김평목이 지었다. 저서에 『洛隱遺稿』가 있다. 묘는 춘천시 남면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高興柳氏大同譜，洛隱遺稿，重菴集，省齋集，黃溪集，畏堂先生三世錄，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蕺溪淵源錄】

유종섭(柳宗燮, 1816-1892)

부관. 본관은 진주로 서종면 출신이다. 관직이 오위장인데, 병자년 전후 3개년간 흉년이 들어 주민들이 식량이 없어 조식을 굶어서 얼굴이 붓고 핏기가 없었다. 이것을 본 宗燮은 주민을 몇 사람 사서 광에서 벼를 꺼내어 매봉으로 현미를 하고 절구로 찹미를 하여 나무 터에 큰 가마솥 10여 개를 걸고 죽을 쑤어 한해동안 주민들을 구출하였다고 한다. 후일에 주민들이 은공을 잊지 않기 위하여 서종면 덕고개에 송덕비를 세웠다. (서종면)

【參考資料：鄉土의 발자취，晉州柳氏世譜，柳政熙氏 제공】

유준석(柳錫駿)

조선의 문신. 초명은 錫麟, 자는 柳仁, 본관은 진주이다. 서종면 출신으로 통정대부 연풍군수를 역임했다. 묘는 서종면 정배리 산146번지 묘좌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晉州柳氏世譜，柳政熙氏 제공】

유중교(柳重敎, 1832-1893)

학자, 화서김평복 문인, 조선 고종 때의 성리학자. 초명은 柳孟敎, 자는 稗程, 호는 省齋, 시호는 文簡, 본관은 高興이다. 1832년 2월 4일 서울 태평동에서 낙은 柳麗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3세에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5세에 어른들을 좇아 벽계로 와서 화서문화에서 글을 읽었다. 12세에 스승 화서가 개최한 강회에 참석하였는데, 이때부터 매월 한 번씩 모이는 강회에 항상 어른들을 좇아 참석하였다.

1845년 14세에는 중앙 김평복에게 수업하여 백자를 익혔는데, 중앙에게서 論訂하고 다시 화서에게 就正하였다. 이로부터 20여 년 간 경사자침의 책과 인륜사들의 의리와 천인성명의 이치를 강론하고 訂正하였다. 실재가 고금에 드분 통유가 된 것이 대개 이 때부터 기초하였던 것이다.

1852년에 화서의 명을 받들어 『東元華東史合編綱目』을 원수하였는데, 그 책은 송태조 건국 원년부터 우리나라 조선 태조대왕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것으로서 그 서법은 주자의 『綱目』의 구례를 따른 것이었다.

1857년에는 화서에게 글을 올려 망학을 논하였다. 1893년 35세에는 실약면 독내적으로 중암을 맞이하였는데, 이때 화서가 병환으로 갈석에 임하기 못하자, 중암을 맞이하여 강회의 고과를 하게 한 것이었다.

이 해 8월 서양함대가 한강에 침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벽계로 스승을 뵈러갔는데, 화서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 그대가 을 줄 뿐디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9월 화서를 좇아 서울에 올라갔다가 한 달 남게 머물고 돌아왔다. 서양함대가 강화도에 침범하자 조정에

서 화서를 불러 쓰자는 의론이 있어 화서가 상경하는 길에 모시고 다녀온 것이었다.

1867년 36세에는 중앙 김평묵과 함께 『華西雅言』을 편수하였다. 1868년 37세에는 한포서사를 열어 중앙 김평묵을 모셔 主席으로 앉히고 종래에 해오던 순강과 사맹식의 강회를 벽계의 구구(華西의 閩語講規)에 의거하여 시행하였다. 이 때에 원근의 학도들이 날로 늘어났다.

1870년 39세 정월에 ‘事親三儀’를 짓고 삭망 참일과 시칠상수의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효성이 매우 지극하였다.

1873년 42세 되는 여름에는 「華西先生年譜」를 엮고, 11월 최익현이 국정을 논하다가 투옥되고 유기일이 상소를 지었다하여 역시 투옥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두 벼이 모두 병든 몸으로 찬 감옥에 있는데 차마 따뜻한 방에 있을 수 없다하여 이부자리를 절거하였다.

1876년 45세에 선공감역에 임명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이 때에 중앙 문인 홍재귀 등 여러 사람이 왜적과의 화친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거두어지지 않았다. 1879년 48세에는 가평군 옥계리로 이거하여 자양서사를 짓고 선월대를 쌓았는데, 서사는 강학하는 장소이고 선월대는 습례하는 장소이다. 자양서사에는 주회·송우암·이화서의 유상을 모시고 문도들과 강례를 행하였다.

1881년 50세 정월에 영남 유생 이만손에게 중앙 김평묵과 함께 연명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는 이만손 등 만여명의 영남 유생이 대궐에 나가 척사위정의 상소를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귀하게 여겨 장려한 것이었다.

1882년 51세에 질병이 있어 출천 가정리로 돌아와 우거하였다.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상소 사직하고 영원히 사직에서 삭제해

출 것을 청하였다.

1884년 53세 6월 변복령이 내리자, 7 걸복을 보고 크게 불복하고 露告文을 크게 지어 세생들의 뜻을 절성시켜 놓았다.

1889년 58세 8월에는 충청북도 제천 장남으로 천거하였는데, 이는 춘천이 서울에서 가까워 이류들의 왕래가 빈번한 것을 보고 매우 불쾌히 여기 사군선의 그윽함을 취한 것이었다.

1903년 실재가 제천에서 62세에 하세하니 사림장으로 재천군 달리산에 갈사되었다. 실재는 화서에게 수업하고 후에 증암에게 다시 수업하여 수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많은 작품을 하였다. 실재 문후에는 요동 봉화현 팔왕동과 관전현 문화사, 병산군 산두재, 춘천 기정리 주일당, 지평의 금리, 제천 장담 지암영당, 양근의 비취단 등에서 세향을 물리고 있다.

업적으로는 「四書」와 「詩經」·「易經」 등에 독자적인 주석을 하고, 예제에 관해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례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밖에 「秘歌軌範」을 저술하여 악원을 정리 해명하고 스스로 악곡을 지음으로써 예악이 사회 교화에 미치는 기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었다. 또한 스승 화서의 명을 받아 「宋元華東史合編綱目」을 편찬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비판 서술하기도 하였다. 실재는 화서학파의 성리설과 의리론을 규명하고 계승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화서학파의 확고한 계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제학에 추증되고, 시호는 文簡이다. 서사에는 「省齋集」과 기타 「太極圖說人指」, 「小人學說」, 「網五常說」, 「書治義」, 「西園格書說」, 「易說」, 「人物性詞異端」 등이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省齋集，華西集，鏡菴集，恒窩集，東西交涉과 近代韓國思想，儒敎大事典，韓國人名大事典，華西學派의 철학과 시대의식，華西學派의 斥邪思想 研究，蕙溪淵源錄》

유중룡(柳重龍, 1845-1929)

학자. 초명은 柳孟龍, 자는 子雲, 호는 強齋, 본관은 고흥이다. 춘천시 남면 발산리에서 통덕랑 桂陽 柳腹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화서 이항로, 증암 김평묵, 성재 유중교에게 수학하였다. 강제는 1891년(고종 28) 이전에 가족과 함께 용문면 광탄으로 이주하여 10여 년간 살면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강제는 1897년경 전라도 완주군 화평리로 이주하여 오부자택에서 숙사로 있었다. 강제가 광탄에서 강학활동한 기록인 '광천서사순강록'(1891-1895)은 춘천시 남면 발산리에 거주하는 종손 유연정씨가 소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친필과 함께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강제의 광탄서사강회에 참석했던 양평인물로는 박학래(지평), 안승우(양동), 안성식(지평), 양성환(횡성), 양재묵(광탄), 양주목(지평), 이근원(지평), 이봉구(단월), 이덕영(지평) 조성호(문계), 등이다. 저서에 『強齋遺稿』가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廣川書社句講錄, 莫溪淵源錄, 白雲文化(5)》

유지일(兪智一, 1663-1752)

학자. 자는 達叔, 본관은 창원, 증 의정부 좌참찬 兪璉의 셋째 아들이다. 벼슬이 자헌대부 지중추부사이다. 묘는 강상면 송학리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昌原兪氏大同譜, 兪武老氏 제공》

유치선(兪致善, 1812- ?)

조선 후기 문신, 자는 子慶, 시호는 平簡, 본관은 기계, 兪(兪)씨의 아들로 한성 출신이다. 1831년(순조 31) 사마시에 합격, 응보로 관관이 되고, 1844년(헌종 10) 증광문과에 응과로 급제, 이듬해 통문관에 등용되고, 부사과, 대사성, 부총관을 거쳐 1867년(고종 4) 경기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이때에 기계유씨세묘를 증보장간하고, 1874년(고종 11) 결상도 관찰사를 지내고 1876년에 이르렀다. 묘소는 서종면 황배리 후산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憲宗實錄, 哲宗實錄, 朝鮮圖書解題, 文化通蹟分布地圖(楊平郡 詳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유홍원(柳弘源, 1743-1815)

양근효자, 자는 大郡, 관할은 진주, 柳(柳)씨의 아들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양근효자'라는 칭송을 받고 나라로부터 '동몽교관'이라는 증직과 효자성문을 받았다.

효성이 지극하였으니, 그 아버이를 침침에 잊어서는 한마디 말과 한가지 행동까지도 아버이의 말씀과 행동을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여 어려서부터 늙어서까지 하루같이 아버이를 사모하였다. 아홉살이 되어서 문안드릴 때에 이부자리를 깔고 버는 일을 만드시지 않으면 안 되었고 부모가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부축하여 모시고 다녔다.

나물 캐고 뽕감을 따러하며 콩고기와 산짐승을 잡아 아버이의 열양심취의 입맛을 맞추기에 힘썼으며, 전지를 올릴 때에는 항상 먼저 음식 맛을 보아 아버이의 입맛에 맞게 하였다. 밖으로 출타할 때는 반드시 어죽을 떠냈으며 돌아올 때는 그 시간을 어기지 않았는데,

아무리 멀어도 껌리 밥을 떠나 있지 않았으며 아무리 오래 걸려도 며칠을 넘기지 않았다.

남들이 음식을 대접할 적에 좋은 음식과 과일이 있으면 먹지 않고 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드렸다. 67세에 부친이 병환이 위중하자 잠자리에도 들지 않고 밤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간호하기를 석달 동안 하였는데 의원을 찾아가고 약을 짓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남에게 맡긴 적이 없었다.

병세의 차도를 알기 위하여 아버지의 대변 맛을 보고 북극성에게 대신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등 효성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초상을 당하고 나서는 너무 슬퍼하여 성해진 예절을 넘어 애통해 하였으며 제사 올리는 제수를 모두 직접 집감하는 등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처음 초상 때처럼 하였다.

일가친척간에 돈독하고 대인관계에는 의리에 합당하게 하였으며 1801년 마을사람들이 천주교를 믿어 화를 당할 적에 고을 원을 찾아가 실수로 믿은 것이라 용서를 부탁해 석방해주곤 하였다. 또 뱃사공이 취객을 태우고 강을 건너는데 강물에 빠져죽었다. 이에 뱃사공이 살인 혐의를 받아 구속되어 해명을 못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데 스스로 찾아가 해명하여 석방시켜 주었다.

1812년(순조 12)에 역모가 일어났다. 소식을 듣고 매일 밤 태권을 향하여 하늘에 기도하기를 5-6개월 동안 중지하지 않아 나라를 사랑하는 정성을 쏟기도 하였다. 집을 다스리는데 있어서는 내외의 구분을 엄격히 하였고 자신을 단속하는 데에 결재와 검소와 지조에 힘썼다.

하서 이항로가 그 묘갈명에서 “효도 우애 친목 선뎨 네가지 행실을 / 논어 한 책에서 근본하였네 / 인륜에 어리석고 어지럽히는 거들이여 / 그들이 먹던 찌거기는 개 돼지도 먹지 않으리” 라고 하였다. (서종면)

《參考資料: 華西集, 晉州柳氏世譜, 童蒙教官柳公墓碣銘并序(張錫鉉, 譯), 柳政熙氏 제공》

유흥원부인 용인이씨(龍仁李氏)

열녀 柳興元의 부인으로 삼신년에 정려하였다. (양근)

【參考資料：楊平郡誌】

유희진(柳希津, 1539-1592)

조선조 충신, 본관은 문화, 柳希의 아들이다. 이 충신열녀문은 조선 선조 때 함흥관관으로 재임한 유희진의 충절과 유성중의 부인 김씨의 절절을 표창하여 세운 문이다. 유희진은 문화유씨 18대 손이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함흥관관으로 재임하던 중 왜적에게 포로가 되었다. 당시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여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던 시기였는데, 왜적은 유희진에게 국왕의 거처를 대라고 재촉하면서 갖은 고문을 다 하였다. 그러나 유공은 끝내 굽히지 않고 필묵으로 일관하다가 마침내 허를 깨물고 자결함으로써 충신의 표상이 되었다.

1627년(인조 5) 나라에서는 그 충절을 기려 증신정각을 새우고, 원관을 내려 표창하였다. 또한 선산김씨는 문화유씨 21대손인 柳興中의 부인으로 그녀의 절절이 높았다. 이에 1789(정조 13)년에 열녀 정려를 내려 표창하였다.

충신 열녀문이 위치하는 곳은 행정구역상으로 양평을 희천리 206번지이다. 현재 건물은 출입문을 겸한 칠채의 종살문과 정문이 마련되어 있는데 모두 근래에 새로 보수 한 것이다.

이 정문의 상단에는 유희진에게 내린 “忠臣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直通訓大夫成興府直柳希津之門 上之五年命旣開”란 현판이 걸려 있다. 또 하단에는 문화유씨 21대손인 유성중의 부인 선산 김씨의 절절을 표창한 “烈女學生柳興中妻

儒人善山金氏之門 上之十三年 邑西命旌”이란 현판도 걸려 있다. 이 점문은 양평군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 詳明大學校博物館)】

윤 공(尹琜)

효자. 본관은 해평. 영의정 尹承勳의 아들로 수찬으로 재직 시에 죄를 받아 통천에 귀양가서 머물렀다. 어느 날 밤에 화재가 일어나 기동을 못하는 노보를 구하려고 옷에 물을 묻িয়ে 불을 끄려다 누이와 함께 불에 타죽었다. 나라에서 효자정려하였다. (강상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海平尹氏世譜】

윤 구(尹瓊, 1579-1637)



해평윤씨 입향조. 조선조 문신. 자는 次玉, 호는 靜養軒. 본관은 해평. 좌참찬 윤승길의 셋째 아들이다. 1609년(광해 1)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출사하여 1613(광해 5

년)에 의금부 도사에 이르렀다. 이때 정권을 잡은 대북파의 이이첨 등이 계축목사를 일으켜 정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숙청작업을 하였다.

이때에 의금부도사로서 불의에 항거하기 위하여 관직을 버리고 용문면 마룡리로 내려와 21년간 은둔생활을 하였다. 낙향 4년에 부친 남악공 승길이 별세하자 마룡리 마막곡에 장사지냈다. 그들은 1808년 광해군의 형 임해군을 진도로 귀양보냈다가 강화 교동으로 옮기

이 살해하였다.

이에 앞서 명의장 유명성도 새겨되었다. 다음 제거대상은 영창대군이였다. 이를 고민하던 중에 금부도사로 있을 적에 경상도에서 행상을 살해한 음모와 사모를 붙잡았는데, 이들이 의금부에서 국문을 당할 적에 이 두 도둑을 배수하여 영창대군 살해를 공격했다.

이 간신배 이어첨 도당들은 도둑에게 “영창대군의 외조부인 김세남과 공모하여 영창대군을 왕으로 모시기로 하고, 그 차질을 막기 위하여 강도짓을 하였다” 라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 이때 도당들이 영창대군과 김세남을 죽이기 위한 정치공작임을 눈치챈 유구는 물의에 항거하여 사직하고 용문산하루 피신하여 21년간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1621년(인조 1) 인조만정 후에 조정에서 누차 관직에 나오도록 권유하였으나 출사하지 않았다. 1634년(인조 12)에 왕이 봉지한 것뿐 칭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1636년(인조 14) 명자호란 때에 그의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나아가 왕을 호종하였다.

때는 추운 혹한과 전세가 불리한 가운데 강화론이 대부분 될 적에 대신들은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갑논을박하고 있을때였다. 원국군이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다 뱀이 들었다. 그러나 참나라와 화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탕약도 거부하고 1637년에 59세로 순국하였다. (용문면)

《參考資料》 海平尹氏世譜, 海平鄭家誌, 海平尹氏人脈, 尹威聖氏 家譜》

윤 근(尹謹, 1647-1721)

부친, 직은 김유, 본관은 파평, 부호군 尹元八의 셋째 아들이다.

통훈대부 어모장군, 행 용양위사과를 역임했다. 묘는 강상면 화양리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坡平尹氏版圖公派世譜, 尹濟鳳氏 제공】

윤기영(尹璣榮, 1871-1941)

독립유공자. 본관은 파평, 수방의 아들로 강상면 송화리 158번지에서 출생하였다. 1919년 3월 31일 강상면과 4월 3일 고읍면의 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평소 합일의식이 투철하던 그는 광무황제의 승하를 당하여 망국의 통한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최태현, 이보원, 신우균 등과 뜻을 모아 거사일인 3월 31일 오후 11시에 그는 강상면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계속해서 4월 3일에도 고읍면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는데, 이 때에는 고읍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강상면·강하면·양서면 등지에서 합류하여 시위 군중의 규모가 4천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고읍면 만세시위에 이어 양근읍으로 향하였으나 일본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해산되고 말았다. 이때 윤기영은 현장에서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1919년 10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강상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 雲崗先生信義日錄,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5), 判決文,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윤담무(尹潭茂, 1556-1597)

문신. 자는 仲存. 본관은 파평. 중 좌승지 卍췘의 둘째 아들이다. 1580년(선조 13) 말성분과 병과로 급제하여 승정원 도승지, 부세학을 역임했다. 중 좌찬성이다. 묘는 양서면 양수리 용진 이수두에 있다. 미석에는 대제학인에 족보에는 부세학으로 기록되어 있다. (양서면)

〔 參考資料 〕 坡平尹氏版圖公派世譜, 尹應均氏 제공

윤면동(尹冕東, 1728-1782)

조선조 문신. 자는 儀甫. 본관은 해평. 윤승길의 7대손이며 卍擇의 아들이다. 1756년(영조 32) 철시 병과에 급제하여 전언로 출사하였다. 1760년(영조 36) 알행어사에 임명되고 1762년 사헌부 좌평, 사간원 정언을 역임하였다. 이때에 사도세자를 죽이는 사건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1764년 군수로 재직 중에 사소한 문제로 투옥되었다. 1776년 승정원 승지를 거쳐 양주목사에 임명되고 선과후시에 임명되었으나 파직을 당했다. 1777년(정조 1) 정조가 능극하자 정조는 뒤주에서 끌어 죽은 아버지를 등정했던 민생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1778년 卍直에 임명되고 그 후 사각에 대한 상소를 올리고, 승정원 좌승지에 올랐다. 딸(정조) 곁에서 정조의 사망을 만으며,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는 정조를 잘 보살피었다. 1781년 병조참판의 권 병조참판에 임명되었다. 묘는 용문면 마룡리에 있다. (용문면)

〔 參考資料 〕 英祖實錄, 正祖實錄, 坡平尹氏世譜, 海平尹氏人脈, 延平郡校誌, 尹成奭氏 제공

윤상기(尹尙起)

과평윤씨 입향조. 본관은 과평, 尹信雲의 아들이다. 본래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에 살았는데 서종면 노문리 벽계로 이주하였다. 명달리 소야곡 벽진이씨 입향조 이정철과 곡성임씨 입향조 任錫祉(李廷禧의 사위)와 같은 시기에 들어왔다고 한다.

이후로 자손이 세거하여 12대가 되었는데, 노문리에 약 10여세대가 살고 정향각지에 약 100여세대가 산재하여 있다. 묘는 서종면 노문리 돌현 자좌오향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坡平尹氏領相公譜, 谷城任氏世譜(司直公派), 碧珍李氏直長公派譜, 尹應均氏 제공·李愚直 證言》

윤상룡(尹相龍, 1872-1943)

한말의 의병. 본관은 과평, 尹石勳의 아들로 1872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별세하였다. 무과에 급제하였고, 한말 일제침략기에는 항일의병에 가담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日兵의 총탄에 의해 옷소매가 뚫어지고 총탄이 귀를 스쳐나가 기적같이 살았다고 전한다. 묘는 노문리 돌고개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坡平尹氏領相公派譜, 尹應均氏 제공》

윤성득(尹誠得, 1573-1657)

문신. 자는 明卿, 본관은 과평, 상의원정 尹挺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동헌대부 재용감 직장을 거쳐 楊根郡守를 역임하였다. (강상면)

《參考資料: 坡平尹氏版圖公派譜, 後孫 尹濟胤氏 제공》



윤승길
(尹承吉, 1540-1616)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尹承吉, 호는 南信, 시호는 肅簡. 본관은 慶尙, 사헌부감찰 尹弘魯의 아들이다. 1561년 사마시와 생원 진사

시를 거쳐 1564년(명종 19)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승문원 정사, 예문관 검열, 춘추관 기사관을 역임했다. 1588년(선조 1) 승정원 주서를 거쳐 그 다음해에 성균관 전적, 교수와 형조 병조 예조 장랑을 역임했다.

1572년 경기도 압행이사에 임명되어 도내 수령의 잘못을 조사하여 기정을 바로잡고 민정을 고루 살피었다. 그 후에 사헌부 장령, 사간원 사간, 사헌부 집의 등 여러 요직을 역임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는 귀성부사 겸 귀성진병마첨절제사로서 병사모집과 군량미조달 등에 공을 세우고, 미등해 내적에 들어와 승정원동부승지가 되었다.

1594년 강원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가 되어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고 行伍之法을 실시하여 오가상조의 궤동정산을 기르고, 장정들을 기효신법으로 훈련시켜 병나라 시위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595년 평안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평양부윤·도순찰사를 역임하고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1598년 한성부 우윤과 동지의 급부사로 임명되었고, 이후 상조참판과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전보되었다. 1601년 사헌부 대사헌, 형조참판, 1603년 형조판서로 작헌 대부가 되었다.

1605(선조 38)년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고, 1907년 의정부 좌참찬에 임명되고, 1908년 정헌대부로 승급되었다. 1609년(광해군 1) 국가 원로로 기로소에 들어갔다. 1612년 익사공신에 녹훈되어 승경의 품계에 오르고 해선군에 봉해지고 관의금부사를 겸했다. 1515년 과거 시관, 사첨시제주가 되고 1616년(광해군 8) 11월 서울 북정동 자택에서 77세로 별세하였다. 조정에서는 예관과 조관을 보내 조문하였고 상사를 도왔다.

1676년(숙종 22)에 대광보국승복대부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묘역은 용문면 조현리 산30-1번지 산기슭에 위치한다. 묘 앞에는 묘비와 상석, 향로석, 그 좌우에는 동자석, 말주석, 문인석이 각각 배치되었고 양평군 향토유적 제27호로 지정되어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楊平郡校誌, 海平尹氏人脈, 尹成變氏家譜

윤승훈(尹承勳, 1549- 1611)

조선중기의 문신, 자는 自述, 호는 晴峯, 시호는 文肅, 본관은 해평. 사헌부감찰 尹弘禧의 아들로 양평군 강상면에서 우거하였다. 1573년(선조 6) 진사가 되고 그 해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82년 임진왜란 때 응교로서 선유어사를 겸하여 전란의 빛수습에 공을 세워 1594년 충청도관찰사가 되었고, 곧 이어 형조참의, 서로조도사가 되었다.

이때 藩胡가 난을 일으키자 토벌할 것을 조정에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병사 이수일을 시켜 중군을 이끌고 해 갈래로 진격 소탕하였으니 어유간에서 풍산보에 이르는 300여리에 변호의 부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 때의 공로로 정헌대부의 품계에 올랐다.

호조참판, 대사헌을 거쳐 1597(선조 30)년 사은사로 명에 다녀온 뒤 이조판서가 되었다.

그 후 명조판서를 거쳐 1601년 우의정으로 승진되었으나, 이듬해 이항복을 선구하려다 3사의 탄핵으로 면직되었다. 이후 다시 기용되어 1603년 좌의정에 이어 1604년 영의정이 되었으나 선조에 대한 존 초의 결정에 소중하였다는 좌의정 유영경의 모함으로 한때 파직되었으나 곧 선원되어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묘는 강상면 회향리의 높이 170cm의 석축단이 마련된 해평윤씨 묘역 내에 남향하여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韓國人名大事典,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海平尹氏世譜》

윤 신(尹璣, 1568-1624)

자는 증고, 본관은 해평, 좌완성 尹肅吉의 아들이다. 1588년 1584년(선조 17)에 1595년 진사시회에 합격하고 1599년 을식으로 의금부 도사를 해수받고 1600년에 금오랑이 되고 이어 훈련도감달에 뽑혀 활약한 공이 크므로 낭청에서 공로살을 받았으며, 봉진현감을 거쳐 농성현령을 지냈다. 1610년(광해 2) 3월 공조좌랑, 형조좌랑이 되었다. 1613년에 양근군수를 해수받았는데, 이것은 높은 아바지를 봉양하지 못해서였다. 그리고 평양소유에 해수되었다. 병에 걸려 치료하다가 1624년(인조 2)에 여주로 농박으로 내려가 요양중 별세하니, 윤 분간 조현리 남악공 묘하에 장사지냈다. (용문면)

《參考資料》 海平尹氏世譜, 應尹公墓碣銘, 尹成燮氏 재공》

윤응선(尹膺善, 1854-1924)

성리학자. 호는 鳴堂. 본관은 과평. 尹教明의 아들, 朴世和의 문인이다. 1854년 강상면 병산리에서 태어났다. 1866년 병인양요를 피하여 할아버지와 함께 충북 청풍면 장선리 방대로 이주하여 살았다. 1885년 함경북도를 유람하고 北靑까지 갔다 돌아왔다. 1889년 천거로 의금부도시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893년 스승 의당 박세화를 장선리에서 만났다.

1896년 의당 명에 따라 의암 유인석 휘하의 의병진을 위문하고, 그 다음해에 서의를 의당이 가 있는 月岳山 계곡 용하동으로 옮겼다. 1900년 잡설잡록을 지었고, 1903년 의암 유인석이 주관하는 춘천 가정리 향음주례에 제자들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정서를 공부하는데 전념하였다.

1905년 청풍에서 유림이 향약을 조직하였을 때 도헌으로 추대되어 향약의 실목을 정리하고 독약출기를 규정하는 등 교화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때 스승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려하였던 것이 발각되어 의당과 함께 문경에 구금되었다가 한성감옥으로 이감되었다가 1906년 4월 감옥에서 6개월만에 석방되자, 의당을 모시고 용하동으로 돌아왔다.

그 후 용하동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밀곡서당을 짓고 강학에 힘쓰다가 1899년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로 이주하였다. 여기서 의당의 명으로 서간도 풍도를 보기 위해 떠났다가 돌아왔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여 스승 박세화가 단식자결한 후 이후로는 권천 음성 등지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1912년에 스승의 『의당집』을 교열하고 그 해에 충주 오류동(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으로 이주하였다. 1920년에 다시 음성군 삼성면 가산리로 이사하였다. 1924년 가산리 천궁재에서 별세했다.

회당은 공자·추자·윤공·우암을 도봉의 개승자로 모시고 있어 똑같은 도봉을 제시하는 화서학과와는 교분이 두터웠다. 화서학과 강의에 박제화가 가끔 참여한 일이나 회당의 제자 신현국을 급제 이근원의 처친이라고 하는 등, 박제화의 深友가 화서의 삼의와 같아서 화서학과로 보는 이도 있을 정도로 교분이 두터웠다. 저서에 『麗堂集』이 있다. 음성의 증봉사, 해원의 海山(28)호에 제향하고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靈敏大事典, 儒學近百年 韓國人名大事典, 尹濟胤氏 제공

윤 정(尹 紘, 1554-1637)

과명훈에 입학조, 자는 子長, 호는 觀淵, 본관은 慶州이다, 1554년(명종 9) 12월 11일 의정부 좌찬성 尹 汝康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문학으로 진사가 되고 1579년(선조 12) 사마시에 합격하고 1602년(선조 35)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사복시랑을 거쳐 1604년(선조 37)에 거산찰방이 되었다.

1605년에 감찰, 영조·호조좌랑 및 정랑을 역임하고 전주 부관, 경상도사, 1608년(선조 41) 통감대부 사음원 집, 풍상시 집, 칠중장군 용양위부호군, 상의원 집, 1637년(인조 15) 44세로 타계하였다.

관한은 병산리 지래(芝谷)를 북거지로 생각하고 농장을 일구고 가끔 왕래하였다. 그러던 중에 정치적 혼란으로 조정에서 불려날 뜻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참판공 인정전 연회에 취하였다가 뺨이 난입하는 변을 보고 다음날 가솔을 데리고 양근 수난촌에 와서 밭을 일구어 정착함으로써 후손이 世居하게 되고 따라서 강상면 과평촌씨 일가의 입향조가 되었다. (강상면)

〔參考資料〕 坡平尹氏版圖公洵譜, 尹濟胤氏 제공

윤종언(尹宗彦, 1712-1788)

학자. 자는 幼成, 호는 芝谷. 본관은 坡平, 默齋 尹休徵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1773년(영조 49)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성균관 전직, 한림원 시교, 봉교, 사헌부 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학문에 전력하여 영재를 배출시켰다. 비문은 6세손 회당 윤응선이 썼다. 저서에 유교가 1권 가천되고 있다. 묘는 강상면 병산리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韓國文化遺蹟總覽, 坡平尹氏版圖公派世譜, 尹濟胤氏 제공

윤지성(尹知誠, 1578-1646)

문신. 자는 敬實. 본관은 坡平, 부제학 尹暲茂의 장남이다. 사헌부 감찰을 역임하였다. 묘는 양서면 양수리 용진 담부묘 근처에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坡平尹氏版圖公派世譜, 尹應均氏 제공

윤 집(尹鑣, 1601-1669)

문신. 자는 純夫. 호는 夢溪. 본관은 坡平, 부제학 尹暲茂의 손자, 칠지충추부사 知敬(知誠의 아우)의 아들이다. 진사가 되고 1636년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판서·이조판서를 역임했다. 명자호란시 거의 하려다 강화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두었다. 묘는 서종면 수입리 능골(九時谷)에 있었다. 이장시에 유물이 출토되고 도자기로 원묘지명은 양평문화원에 보관되었다가 후손이 가져갔다. (서종면)

《參考資料》: 坡平尹氏版圖公派世譜, 尹應均氏 제공

윤창립(尹昌立, 1595- ?)

조선조 문신, 자는 季振, 본관은 海平, 승길의 손자이며 尹勳의 둘째 아들이다. 1615년(광해 7) 22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618년(광해 10)에 식년분과에 전시에 응시하여 미행을 했고 1623년(光 1) 선덕사에 경시 문과에서 을과로 급제하여 참정, 응교 등을 역임하였다.

1627년(인조 5) 5월 3일 명나라에 가는 외교사절로서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발탁되어 사신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 때 청요호관에 의한 강화조약 직후라 대명관계와 대항관계로 사신의 임무가 중요한 때였다. 동지사에는 변응벽을, 서장관에는 윤창립을 임명하였다.

그런데 태풍을 만나 도중에 해난사고로 순국하였다. 이때 윤창립이 안송하는 배에 타고있던 72명이 모두 실종되었다. 특히 글씨에 능하여 명성이 높았는데, 글씨는 현재 박물관에 소장되었다. 화승지에 증직되었다. 묘는 용문면 소현리 산(와)1번지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朝鮮王朝實錄, 海平尹氏世譜, 海平尹氏入脈, 砥平郡校誌, 尹成燮氏 제공》

윤창원(尹昌元, 1630- 1679)

부친, 자는 季而, 본관은 海平, 양근군수 尹滿의 장남이다. 인조 8년에 출생하니 재기괴연하고 성호부에하여 부과에 급제하였다. 직부에 충실하여 해이함이 없었고 유유를 업숙히 지켰다. 또한 학문 중 편아 집을 다스림에 힘도가 있었으며 자전분현에 이르기를 중신 이후로 그 가정의 기반으로 삼고, 효수돈목으로 집을 수호하는 근본을 삼았다.

미흡이 참봉질군 윤창수사를 역임하였다. 묘는 옥천면 영천동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坡平尹氏版圖公派世譜, 韓國文化遺蹟總覽, 尹濟鳳氏 제공》

윤창형(尹昌亨, 1613-1683)

조선조 무신. 본관은 海平, 남악공 윤승길의 손자이며 의금부도사 구(王+致)의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1660년(현종 1) 무과에 급제하여 진위장군, 어모장군을 역임하고 1669년 절충장군에 이르렀다. 1670년 만포 첨절제사, 1673년(현종 14) 장단부사에 임명되고, 충청수군절도사를 거쳐 1676년(숙종 2) 제주목사에 이르렀다.

재임기간에 흉년이 들어 구휼에 힘쓰고 본토와의 통신발전과 목축 사업에 신력을 다하였고, 해안 항만시설도 완공하였다. 1681년 8월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에서 이생을 보내다 서거하였다. (용문면)

《參考資料: 顯宗實錄, 肅宗實錄, 砥平鄉校誌, 海平尹氏世譜, 海平尹氏人脈, 尹成燮氏 제공》

윤치국(尹致國)

부송윤씨 입향조. 자는 사검, 본관은 부송이다. 며주군 대신면에 세거하다가 치국이 청운면 감운리로 이주하여 세거하고 있다. (형문면)

《參考資料: 砥平鄉校誌》

윤태훈(尹泰勳, 1874- ?)

독립유공자. 자는 德來, 본관은 철원, 卍씨의 아들이다. 1905년

11월 乙巳物約으로 밀재에게 국권이 바탈당하고 이듬해 일본불갑부가 설치되는 등 나라의 위망이 눈앞에 전개됨으로 가족적 항일부쟁이 전개되자 1907년 정미의병 때에 화서문인 화남 박달호(1850-1921)의 권에 투신하여 항전하였다. 이 때에 박성춘 등 동요의병 30여 명과 함께 강원도 평창군 삼평면 녹산에서 일본군 전부수비대 병사들과 교전하는 등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항부에서는 건국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2006년 11월 17일자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하였다. 묘소는 개군면 부리 산43-2번지에 있다.

《개군면》

《參考資料》 楡州郡史, 獨立運動史資料集, 尹海顯氏 재공》

윤택현(尹澤顯, 1704-1779)

조선조 부신. 자는 仲綱, 본관은 해평, 관서 尹承吉의 6대손이다. 서사로 관직에 나아가 사경, 부장 등을 두루 역임하여 절충장군에 이르렀다. 묘자로 중의 호조참판이다. 묘는 용문면 아물리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顯宗實錄, 肅宗實錄, 砥平郡校誌, 海平尹氏世譜, 海平尹氏人脈, 尹成嬰氏 재공》

윤팔원(尹八元, 1618-1690)

부신. 자는 仁學, 본관은 화평, 양근군수 尹誠得의 셋째 아들이다. 자선대부 중추부사 등 지사 行 용양위부호군을 지냈다. 묘는 갈상면에 있다. (갈상면)

《參考資料》 坡平尹氏版圖公派世譜, 尹濟胤氏 재공》

이건용(李建容)

조선말 문신. 1908년 4월 5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의하면, 양근군에서 큰불이 나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군 당국은 불탄 집을 복구하기 위하여 建築團成社를 조직하고 취지서를 널리 알렸다.

이때에 옥천면에 사는 전 참관 이건용은 숙부 전승지 이병훈과 함께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도, 불에 탄 집을 보조하기 위하여 주목 50주를, 옥천리 불탄 집에는 각각 6원과 조 4石을 나누어주었다. 대한매일신보에도 50원을 연보하였다. 11월에 읍내면 용문학교에 正租 30石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옥천면)

【參考資料】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大韓每日新報(1908.4.5), 같은 신문(1908.11.9)



이 경(李炯)

한산이씨 입향조. 호는 蘭隱, 본관은 한산, 한산군 추후진의 둘째 아들이다. 1453년(단종 1) 계유정난이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양주군 용정촌에 은둔하였다. 세

조가 왕위에 즉위하자 그 해 12월에 부친이 졸서하였다.

사육신 등 많은 자류들이 국형에 처할 때에 종백씨 백헌 이개(1417-1456)가 참화를 당하자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로 가던 도중 지평에 이르렀을 때, 단종이 사사되었다는 비보를 접하고 용문면 광탄리 대란곡에 은둔하여 평생토록 두문불출하고 밭 갈고 뉘나무하며 살았다.

11세에 타계하니 지평 대안쪽에 장사지냈다. 그 자손들이 지평에 300여년 동안 세거하고 있으며 월산리에 '송선사'에 모시고 제향하고 있다. (지평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砥平鄉校誌, 後孫 李昌求氏 제공

이경기(李慶祺, 1554-1632)

본신, 자는 경應, 호는 栗天啓, 東谷, 본관은 경의. 현령 李吉의 아들로 양평에 무거하였다. 1575년(선조 9) 사마시에 합격하고 1585년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시정자를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흩어진 병사를 모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척들에 의해 길어 막혀 행재소에 가지 못하자 어머니를 방문한 일로 파직되었다.

그 후 다시 기용되어 개천군수, 영언, 지평, 정령, 원척, 직장, 사에 등을 역임하였다. 1609년(광해군 1) 광해군의 어지러운 정사를 보고 양근으로 내려가 은거하였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잠시 내성시 정에 기용되었으나 곧 사퇴하고 다시 양근으로 은퇴하였다. (양평읍)

〔參考資料〕 光海君日記, 開朝榜目, 내고향 경기도의 인물

이경률(李景暎)



전주이씨 입향조, 자는 景暎, 호는 退隱堂, 본관은 전주, 李華彦의 아들이다. 효령대군 6세손으로 宣祖 때에 관직을 사임하고 지평 광양에 복거하였다. 광양이란

곳은 이웃한 여주군 대신면 계림리에 처가가 있으며 부친의 묘도 있었으므로 낙향지로 택한 것 같다. (지평면)

〈參考資料〉 延平郡校誌

이경엄(李景嚴, 1579- 1652)

조선의 문신, 자는 子陵, 호는 石門, 玄樾, 연동부원군 李好問의 셋째 아들이다. 1601년 증사마에 합격하고 1610년(광해군 2)에 현감으로서 안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17년(장해 9) 인목대비를 폐하는 데 대하여 百官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현감으로 있던 석문은 "이 일은 중대하여 소관들이 의논할 바가 아니니 의정부에서 잘 처리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1624년(인조 2)에 배천군수로 있을 때에 근무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사헌부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1628년(인조 6) 가례(嘉禮) 때 사옹원 정으로 있던 중 加資를 받았으나, 얼마 뒤 평안북도 칠산군 가도의 문안사로 가서 까닭 없이 직제해 파직되었다.

1647년(인조 25) 연천군수로 있으면서 수령으로 천거한 자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탄핵을 사간원으로부터 받기도 하였다. 1649년(孝宗 1)에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었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옥현면)

〈參考資料〉 延安李氏副使公派世譜, 韓國人名大事典, 李哲和氏 제공

이계상(李啓商)

독립운동가. 양서면 용담동 113번지 출신으로 공산주의자이다. 1919년 3월 전후해서 항일활동을 보면 주로 러시아 등 공산권에서 활동하였다. 1926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원 겸 세무위원으로

있었고, 1927년에는 임시정부 재무위원으로 위촉된다. 이계사는 공산주의자로 기록되어있다.

그 후에 한국노농회 총상회원으로 있다가 임시정부산하 인성학교 학감까지 지내고 교민들 교복에 힘써오면서 교민단 총부지를 맡기도 하였다. (양면면)

《參考資料》 朝鮮民族運動年鑑、高等醫業關係年表、日帝侵略下韓國36年史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이계손(李係孫)

문신, 본관은 연안, 시호는 호성, 통례문 무사 李洵의 아들이다. 미술이 중원대부 공조전서, 원동성, 은성광록대부 좌복서 연성부원군에 책봉되었다. 도화과 문장이 당대에 뛰어나고 후세에 빛나고 있다. 묘는 일천하고 옥천면 신안리 산99번지 부천 칠의교 좌편에 단을 설치하여 받들고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延安李氏副使公派世譜、李哲和氏 계공

이근명(李根命, 1840- ?)

조선조 문신, 자는 靉九, 본관은 진와, 원서 추충의의 아들로 출생하여 관서 時望에게 입양하였다. 1871년(고종 8)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한림학사를 거쳐 대사성, 이조참판을 역임하고 1888년 華商天津務理通商事務, 1894년 의주부윤, 이듬해 궁내부 특전관을 지냈다.

다시 중정부 관원사, 비서원 경, 왕정을 거쳐 내부대신이 되고, 1903년 종문관 학사를 거쳐 의랑에 특전되었다가 태의원 도제조겸

영돈령부사에 이르렀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일본 정부에 의해 자락이 되고 은사금을 받았다. (서종면)

《參考資料: 高宗記事, 韓國人名大事典》

이근원(李根元, 1840-1918)

성리학자. 자는 文仲, 호는 滌溪, 坪堤寓. 본관은 전주이다. 1840년 경기 양평군 지재면 금계리에서 老稼堂 李養鶴의 아들로 태어났다. 1866년(고종3)에 이항로 문하에 들어갔으며, 스승이 서거한 후 김평묵·유중교를 사사하여 화서학파의 중추적 인물이 되었다.

금계는 10세에 외숙 李禮俞에게 글을 배웠고, 이현성이근수 등과 교유하였다. 그런데 이들 셋은 모두 화서선생의 제자였다. 그 뒤 17세 때에 조상온에게 수업하였다. 1866년(고종 3) 27세 4월에 화서 이항로(1792-1868) 문하에 들어갔다.

1868년 가평군 설악면에 유중교가 개설한 한포서사로 가서 중암과 성재를 만나게 된다. 1868년 스승이 서거한 후에는 중암 김평묵, 성재 유중교를 스승으로 모시고, 과거공부도 전패하고 도학공부에 전력하였다.

금계가 이처럼 과거공부를 버리고 학문에만 전념한 것은 금계의 스승인 화서·중암·성재가 살아간 그대로였다. 즉 금계는 평생동안 스승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기에 지조를 지켰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화서학파의 기본정신인 도학과 의리정신, 그리고 척사사상이 누구보다도 강력히 흐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1876년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자 좌시하지 않고 유인석·홍재귀·유기인·박창호 등과 함께 혁양소를 옹립했다.

1881년 2월에 처음으로 동문·사우들이 모여 강회를 열어 학문을 토론하고 학풍을 진화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급개는 일제치하의 시대 속에서 직접 의병을 일으키는데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학문과 교섭에 관념하면서 정신적 항쟁을 하였다.

1894년 변복령이 내리자 華夷衣服論(을 지어, 의복이 바뀌면 정신의 가치기준도 달라진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비난하였다. 1895년 단발령이 내리자 용문산에 들어가 유중악, 유홍식, 유봉석, 이소응 등과 거의할 것을 논의할 때에 참여한 까도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정국에 초연하게 대처하였다.

화서학과의 도학적 기본정신인 의리론의 문체에 있어서는 '나아가서 나라를 붙잡는 것(進而執持)'과 '물러나서 나라를 붙잡는 것(退而執持)'이 같은 의리라고 하면서 자신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의병운동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1896년과 1902년에 의병군자금을 내놓기도 하였고, 1896년에는 춘천의병장 습재 이소응이 사평현의 갑역 맹명세에게 구원병을 청하러 왔다가 도리어 구금되자, 유준용·이창우 등 동문 유생들과 함께 찾아가 위로하기도 하였다.

1902년 선생은 의병군자금으로 4냥을 내놓았다. 이때 처평의 안종응·나상현도 군자금을 출연하였다. 1903년 최익현 박인수 등과 화서이항로 후사를 위한 '강수계'를 조직할 때에 참여하였다. 1905년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講義齋(講義齋) 창건사에도 출전하여 유곡선생과 화서선생을 봉안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급개는 1906년 권일과 장혁선이 "급개가 의병을 일으켜 '일진회'를 습격하려고 한다"는 모함을 하여, 이주에 있는 일본헌병대에 구금되기도 했었다. 이때 급개는 헌병대장에게 "가외한다는 것은 오늘날

의 당연한 일이다. 내가 지혜와 힘이 못 미쳐서 할 수 없는 것이 한이었는데, 이제 빈 이름을 얻었으니, 실로 부끄럼이 적어 없다”고 하였다. 정혁선과 대질하는 자리에서 말하기를 “의가 얼마나 좋은 것인데 나 같은 노쇠하고 병든 사람에게 띄워 주느냐. 이것이 진실로 놀그막의 영광이다” 하였다.

이 사실은 문인 박정화가 『羅江錄』에 기록해놓았다. 그 후 1910년 경술국치(한일합방) 때에는 일제가 주는 은사금을 거꾸하다 헌병 분견소에서 1주일간 고초를 겪기도 하였는데 이 사실은 박정화가 기록한 『羅江日記』에 잘 나타나 있다.

금계의 성리설에 대한 입장은 유종교를 옹호하는 한편, 유종교와 이항로의 성리설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밝히는 데 있었다. 스승 이항로가 별세한 뒤 심철논쟁 등의 문제로 유기일·홍재구가 유종교를 비난하자 동문 유인석·유중악 등과 함께 유종교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금계는 명덕을 행로 파악하였다. 또한 心生理氣를 말하면서, 심에 있어서 이가 기의 주재가 되는 것을 심의 본체 모습이라 하여 ‘心生理說’의 당위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금계의 학문의 기본은 敬義를 기본규범으로 삼는 居敬論에 두고 있다. 이것은 또한 화서학파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금계는 금리정사 동쪽에 一畝堂을 지어 주자를 모시고, 후에 우암(송시열), 화서(이항로), 중암(김평묵), 성재(유종교) 四賢을 추배하고 평소 존경하고 사모하고 철함은 물론, 매년 3월에는 강회를 실시하여 학풍을 진작시키며 수많은 민재를 양성하였다. 김상내(의병장), 김태원(의병장), 안승우(의병장), 이규현(의병장), 장익환(의병장), 잠식인(군자금치원), 박준빈(박사), 최형근 등 걸기, 강권, 정상, 송청, 평안, 함경, 황해도에 산재한 수많은 학자들은 금

개가 배출한 제자들로 도학계 외리, 위정척사를 실현하여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주고 화서학과와 양명학을 밀내준 인물들이다.

흔히들 말하기를 성재 유충교의 뛰어난 제자 세 사람을 '경민(敬民)·경문(敬文)·경암(敬菴)'이라 하는데, 세 사람 중에 유인식은 齋에, 유중악은 文에, 이근원은 菴에 뛰어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계는 양명충신으로는 화서의 강도를 계승하여 후학을 배출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다. 금계의 문인은 현재 150여 명에 이른다.

저술에는 「孝宗說」, 「自警文」, 「持敬說」, 「明德說」, 「慎言說」, 「窮說」, 「華夷衣服辨」, 「田廬說」 등이 있고, 편서에 『宋諒略覽』과 『鏡溪集』이 있다. 묘간본은 제자인 아조참관 閔丙承과 박세화의 문인 曹堂 尹興 등이 지었고, 비석에는 민병승의 글을 비서승원 宋元亨이 쓰고, 제자 최형근 등 유림들이 세웠다. 행장은 문인 장암 추추顯이 지었다.

(지평면)

《參考資料》 鏡溪集, 楊西集, 砥昌日記, 儒教大事典, 儒學近百年, 蕺溪遺集錄,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 鮮明大學校博物館), 麗西學派의 斥邪思想 砥平學校誌, 研究, 蓬山書院研究》

이근풍(李根豊, 1841-1916)

조선후기 문신. 자는 和政, 본관은 진의, 경상최도맹마권도사 추玄瑞의 아들이다. 1859년 부시에 급제하였고, 1872년 함흥 부사, 1876년 공주 영감, 1880년 곡원부사, 1882년 관찰부우윤에 올랐고 1885년 정홍군수로 나갔다. 1887년 충주원의관을 지냈고, 1901년 복성 군수, 1902년 갑산군수, 1905년 평안남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가의대부 충주부사에 이르렀다. (서종면)

《參考資料》 朝鮮王朝實錄, 全義李氏姓譜》

이기준(李耆俊, 1555-1583)

조선의 문신. 자는 孚先, 본관은 전의, 청백리 이계신의 셋째 아들이다. 성품이 굳세고 높으며 청렴결백하여 기개와 의리가 생판신조였다. 옳지 않으면 남에게서 터럭 끝 하나라도 남에게서 받는 법이 없고, 도리에 맞는 일이면 당당하게 그 자리에 버티어 서서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였다.

대부인께서 황달을 앓으실 때에 밤낮으로 옷을 벗지 않고 가시는 곳은 어디나 모시고 다니며 술한 약을 다 지어 바치니 원근 선비들이 약이나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보내주었다. 이는 기준의 효성에 감동하였기 때문이다.

1579년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1580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보직되고 다시 부정자로 재직 중에 별세하였다. 청감이 유배를 갔을 때에는 물을 담아걸고 세상 사람과 접촉을 끊고 지내더니, 하루는 집안 사람들과 청감의 잡히게 된 시말을 이야기한 눈물을 흘리더니 피를 토하고 그 이튿날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석종면)

〔參考資料〕 全義李氏清江公子孫錄, 李天浩氏 傳公



이기진 (李箕鎭, 1687-1755)

조선조 문신. 자는 君範, 호는 牧谷. 시호는 文憲. 본관은 德水, 양구현감 李嵩의 아들, 백부인 삼척부사 嵩에게 입양되었다. 권상하의 문인이다. 1717년(숙종 43) 진사가 되고, 이해 정시문과에 병

개로 급제, 예문관, 홍문관에 재직하고, 1721년(경종 1) 헌납으로 100일에 재봉된 연잉군(후에 成祖: 1634-1776)에 대해 용언을 퍼뜨린 유봉휘의 처벌을 주청하다가 신임사화로 파직되었다.

1725년(영조 1) 영조가 즉위하자 등용되어 홍문관 교리가 되고, 이듬해 시독관이 되어 신임사화를 일으킨 소론들에 대한 懲罰을 펼치려 하여 의리를 말한 것을 7언하여 한때 영조의 신임을 잃기도 했다. 이해 승지를 지내고 이조 참의를 거쳐 1727년 부제학 등을 역임하고 강화부 유수가 되었으나 왕세자 관례때에 封奠文을 빠뜨린 사건으로 파면당했다.

고향에 머물고 있던 중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급기 살정하여 대사성에 임명되었으나 난이 평정된 뒤에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 1729년 다시 기용되어 함경도 관찰사, 대사간, 경상도 관찰사, 영조 관서, 경기도 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1741년(영조 17) 판의금부사, 이조관서를 지내고 1744년 홍주목사로 나갔다가 이듬해 다시 경기도 관찰사, 판의금부사를 지내고 이어 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1749년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51년 광주부 유수로 한봉도를 세어 옹렸고, 판돈령부사에 이르렀다. 저서에 『敦谷集』이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景宗實錄, 英祖實錄, 夷朝集,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이노병(李魯秉, 1780-1862)

조선조 문신, 자는 문禮, 본관은 석주인데, 1780년(영조 16) 옥천군수 송연模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1807년(순조 7)에 진사가 되고 1811년 경시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1827년 사간원 대사

간, 1831년 성균관 대사성, 1834년 이조참의 등을 지냈다. 1838년 승지로서 태조 미성개의 영정 모사를 감독했고 이듬해에는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후 1846년 형조판서, 대사헌, 1850년 한성부판윤, 이조판서가 되었고, 1853년 강화부 유수를 지낸 뒤 1855년 다시 대사헌이 되었으며, 1859년 공조, 예조판서, 판의금부사를 역임하고 1862년 의정부 좌참찬에 오른 후 기로소에 들어갔다.

1862년 12월 6일 별세하니 수 83세이다. 묘소는 여주군 북내면 송천리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同祖實錄 憲宗實錄 哲宗實錄 德水李氏世譜, 李光·李載潤氏 제공》

이노술(李魯述, 1741-1799)

조선조 문신. 자는 伯善, 본관은 덕수이니, 1741년 목사 李聖模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1768년 생원, 진사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1770년(영조 46) 점시문과에 급제하였다. 1773년 예문관 검열, 1774년 봉교, 1776년 홍문관 부교리, 부수환을 역임하였다. 1780년 경기도 도사, 1781년 사헌부 지평, 1782년 황해도 도사, 1792년 교리, 삼수도호부사, 1794년 동부승지, 안동내도호부사를 거쳐, 1796년 좌승지를 거쳐 1798년 호조참관, 1799년(정조 23) 명조참관을 역임하였다.

1799년 1월 10일 별세하니 향년 59세이다. 묘는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德水李氏世譜, 李光·李載潤氏 제공》

이노익(李魯益, 1767-1821)

조선조 문신, 자는 귀애, 호는 叢樵, 시호는 奉清, 본관은 덕수이다. 1767년 임의정 추광모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1790년 진사에 합격, 응보로 벼슬에 올라 1806년 부사과로서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홍문관 부교리, 규장각 직각 등을 거쳐 1812년 세자시강원 보위, 1815년 원소제조 등을 지냈다.

1816년 경기도관찰사, 이듬해 전라도관찰사를 거쳐 1819년 대사헌이 되었다가 곧 형조판서에 올라 피변사 제조를 겸했으며, 전하사로 횡다라에 다녀왔다.

1820년 예조판서를 거쳐 한성부 관윤으로 세자시강원 좌부빈객을 겸했다가 공조판서로 올랐다. 이듬해인 1821년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가 5월 20일 인지에서 병사하니 향년 55세였다. 묘소는 원주시 호기면 동막리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純祖實錄, 國朝人物記, 韓國人名大辭典, 德水李氏世譜, 李光 李載潤氏 제공

이노집(李魯集, 1773-1841)

조선조 문신, 자는 稚叔, 호는 笠川, 본관은 덕수이다. 1773년 추광모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백부인 참판 추광모의 양자로 출계했다. 1801년 생원, 진사 양시에 급제하고, 1807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816년(순조 16) 증시에 상원하였다. 1818년 대사간, 1826년 대사성, 1830년 이조참의, 1836년 예방승사를 거쳐 호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841년 7월 9일 병사하니 향년 68세이다. 묘는 여주군 절동면 장안리에 있다. (양동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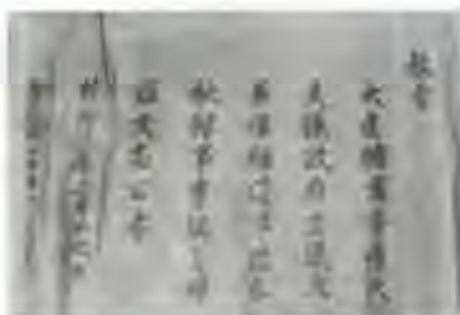
〔參考資料〕 德水李氏世譜, 李光 李載潤氏 제공

이노춘(李魯春, 1752-1816)

문신, 자는 君正, 본관은 덕수이니, 1752년 동지돈녕 부사 李龍模의 차남으로 출생했다. 1773년 생원이 되었고, 1779년 유생강제에서 製脣官가 되었으며, 1880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에 등용되었다. 1782년 이조좌랑을 거쳐 이듬해 부응교에 올라 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정조 초에 『弘文館志』를 편찬하여 1784년에 간행했다.

1784년 홍문관 응교에 올랐으나 체재공을 탄핵하다가 평안도 雲山에 유배되어 두 달만에 풀려났으나 다시 흑산도에 안치되었다. 1789년 풀려나 좌의정 이병모의 권의로 이조참의가 되고 이듬해 예조참판, 승지를 지냈다. 이해 순조가 즉위하자 대사간,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1802년 실목청 당상이 되어 정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이어 성균관 대사성이 되고 1803년 예조참판을 거쳐 공조판서가 되었으나 1806년 탄핵을 받고 거제도에 유배되었다가 1809년 풀려났다. 1816년 11월 11일 별세하니, 청주시 서면 단봉에 장사지냈다. (양동면)

《參考資料: 純祖實錄, 國朝榜目, 朝鮮圖書解題, 韓國人名大事典, 德水李氏世譜, 李光李載潤氏 家譜》



이단하 (李端夏, 1625-1689)

조선조 문신, 자는 季周, 호는 畏齋, 松巖, 시호는 文忠, 본관은 덕수, 판서 李植의 아들이며 송시열의 문인이다. 음보로 벼슬에 나

가 풍조좌랑으로 재직 중 1662년(현종 3) 증광문과에 응시로 급제, 봉명사, 부교리, 미호 정령을 거쳐 1668년 교리로 敎習校正廳의 교정관이 되었다.

이듬해 훈연별대의 왕실을 주정하여 시행케 하고, 응교, 사간, 사인, 동부승지 등을 역임한 뒤 1674년에 대사성으로 대제학을 겸했다. 이해 숙종 즉위 후 西人으로서 22차 服制問題로 숙청당한 이레새신 지말의 부당성을 상소했다가 과직, 이듬해 학직 당하였다. 1680년(숙종 6) 경신대준칙이 되어 肅宗改修實錄의 편찬에 참여했다.

1684년 예조 관서가 되어 사창절목을 지어 왕에게 바쳤으며, 이해 차관관에 올라 선묘보감을 지어 올렸고, 1686년(숙종 12) 우의정, 이듬해 좌의정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직, 맹 관동평부사로 있다가 타계했다. 文名이 높았다. 저서로 『經濟集』과 편서 『北關誌』가 있다. 양동면에 있는 이탄하의 묘는 양명군 향토유적 제37호로 지정되었다. (양동면)

【參考資料】 肅宗實錄, 肅宗實錄, 增補文獻備考, 國朝人物志, 睡谷集,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이 담(李潭, 1723-1775)

조선조 문신. 자는 景龍, 호는 潭暉, 시호는 文穆. 본관은 덕수이다. 1723년 형조참판 李芻鎬의 아들로 출생했다. 1747년 생원에 장원하고, 1756년 선공감 봉서로서 정시문과에 급제 후 예문관 검일이 되었다. 이듬해 사간원 정언을 거쳐 1758년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

1759년 경상도 안행어사, 북평사를 거쳐 함경도 안행어사로 나갔으나 과도한 안행어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과직되었다. 이듬해 다시 교리로 복직했다가 연원군수로 나갔으며, 1761년 의주부윤으로

올랐다가, 1763년 대사간에 올랐다. 이어 승지, 대사헌, 대사성, 이조참의 등을 역임하고 1766년 황해도 관찰사로 나가 재해지역에 대한 세금을 감면했다.

1768년 홍문관 부제학을 거쳐 대사헌, 도승지, 병조참판을 지내고 이듬해 이조, 공조, 병조참판을 역임했다. 1770년 다시 이조 참관이 되어 편집청 당상으로 『東國文獻備考』 편찬에 참여했다.

이어 한성부 우윤, 경상도 관찰사, 대사간, 우참찬 등을 역임. 1773년 이조판서, 이듬해 홍문관 제학을 거쳐 1775년 형조판서가 되었으나 병으로 사직, 1775년 11월 12일 별세하니 향년 53세이다. 묘는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英祖實錄, 滿選考, 德水李氏世譜, 李光·李載潤氏 제공

이 당(李當, 1661-1712)

조선조 무신. 자는 槀叔, 본관은 덕수인데, 1661년(현종 2) 李維夏의 셋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1704년 사산감역으로 출사하여 이듬해인 1705년 세자의위사 시직으로 전임하였다. 1706년 세자의위사 부술로 승차하였고, 1707년 사복사 주부로 전임하였다가 의금부 도사로 승차하였다. 1709년 봉정대부 行 양구현감, 회양진관 병마절제 도위 등을 역임했다.

1710년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1712년 의령고 주부에 배명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712년(숙종38) 11월 30일 별세하니 향년 52세다. 묘는 양동면 석곡리 목곡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德水李氏世譜, 李光·李載潤氏 제공

이대룡(李大龍, 1567-?)

전주이씨 임항조. 자는 公端. 본관은 전주, 경병군 수백의 증손, 영원군 龜의 둘째 아들로 장의대부 1급이다. 윤계군이 강상면 송학리에 이거하여 살면서 아들을 셋 두었으니, 甲(1588-?), 乙(1617-?), 丙 삼형제이다. 윤계군이 종서하자 의정부 선영으로 모시고 삼형제는 강상면에 세거하였다. 삼형제 묘소가 모두 송학리에 있고, 세취부인 창녕성씨의 묘도 강상면 송학리에 있는 것을 보면 강상면 임항조는 윤계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강상면)

〔參考資料〕 全州李氏景明君派世譜, 李視世氏 家譜

이덕수(李德秀, 1673-1735) ①

효사. 자는 汝厚. 호는 恥齋. 본관은 양성이다. 1717년(숙종 43) 생원시에 합격하고 현릉 참봉을 지냈다. 효우경약으로 세인의 추종하는 자가 되었다. 1742(영조 18)에 효행으로 정려하였다. 묘는 평운면에 있다. (단월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磁平郡校誌

이덕수(李德壽, 1673-1744) ②

조선조 문신. 자는 子忠. 호는 西郊 또는 龜湖. 본관은 현의. 시호는 文貞. 장관 李觀明의 아들이며 삼연 귀창흡의 문인이다. 음보로 직상을 지내고 1713년(숙종 39)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수찬, 지평, 부교리, 이주의 낭관을 지내고, 1734년 간성군수로 있다가 정종이 죽자 실록청 낭상으로 尙書院에 참여했다.

1730년(영조 6) 대사간에 오르고, 1732년 대제학으로서 경종의 행장을 짓고, 1735년 동지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후 이조판서에 올라 대제학을 겸임. 1738년(영조 14) 우참찬으로 동지경연사를 겸임했다. 문장에 능하고 글씨에 뛰어났다. 저서에 『西堂集』, 편저에 『廟寶鑑』이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英祖實錄, 朝鮮金石總覽, 朝鮮圖書解題, 韓國人名大事典, 全義李氏清江公子孫錄,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森明大學校博物館), 李天浩氏 家譜

이덕형(李德馨, 1561-1613)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강주, 자는 명보, 호는 蘭陰, 시호는 文翼이다. 지중추부사 李民馨의 아들이며, 명의정 이산해의 사위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고, 문학에 단봉하여 어린 나이로 양사언과 박연한 사이였다. 또한 어렸을 때 이항복과 막역한 사이로 많은 밀화가 알려져 있다.

1580년(선조 13)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친다. 1592(선조 25) 예조참판과 대제학을 겸임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패수까지 쳐 올라와 죄의를 청하니 한음은 난독으로 적진에 들어가 대의로서 그들을 공박하였다. 그 뒤 정주까지 왕을 호종하였고, 청원사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명군의 파병을 성취시켰다.

정유재란시 좌찬성에 올랐고, 좌의정을 역임하였고, 1601년 행판 중추부사로 경상·전라·충청·강원 4도 세참사를 겸하여 전란 뒤의 민심수습과 군대의 정비에 노력하였다. 이듬해 명의정이 되었으며, 1604년 이항복이 그의 상을 들어 호성공신에 녹훈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본인의 사양과 주위의 시기로 백복되지 못하였다.

(楊平人物誌)

한때 영중주부사로 한직에 있다가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전주사로 행나라에 다니와서 영의정에 복직되었다. 1613(광해군 5)년 영창대군의 처형과 폐보권을 반대하다가 사직, 양평 양서면에 내려와 국사의 그릇됨을 상소하며 세위를 보내다 53세로 병사하였다. 저서에 『衡陽遺稿』가 있다.

묘소는 양서면 북왕리의 산북에 위치한다. 양수리에서 북왕리로 가는 지방도를 따라 가면 사촌교에 이르러 갈림길이 나온다. 이 갈림길의 남쪽에 선도바가 있고, 갈림길에서 봉원묘원이 있는 곳으로 약 150m 떨어진 곳에 제실이 마련되어 있다.

묘소는 이 제실의 남쪽야산의 7부능선에 서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선도바는 1653(효종 4)년에 세운 것으로 미머리 천자는 향규상이 썼는데 "衡陽政文憲公神道先主神道碑銘"이라 되어 있고 미문은 禮辭이 관했다. 묘와 선도바는 경기도지방문화재 제89호로 지정되어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楊平文化遺蹟總覽, 韓國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佈地圖(楊平郡- 祥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이 류(李留, 1642-1688)

조선조 문신, 자는 子久, 본관은 비수, 1612년 백달 누관의 손과 효 누관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1648년(인조 26) 1월 23일 부친상을 당하니 나이 7세의 어린 나이였다. 어리 완직을 거쳐 홍산현감을 역임한 후 1688년(숙종 14) 향년 47세로 타계하였다. 이조참판을 증직 받았다. 묘는 양동면 팔학리 배아곡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德水李氏世譜, 李光-李載岡氏 世公】



이만웅(李萬雄, 1620-1661)

조선후기의 문신. 자는 心甫, 호는 夢淵. 본관은 전의, 중추부사 李行建의 아들로 서양평 서종면 수입리에서 성장하였다. 1639년(인조 17)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어 참봉을 지냈다. 1650년(효종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었다. 의정부, 시강원 설서, 사간원 正言 1660년 연안부사, 1661년 황해관찰사를 지냈다. 사후에 이조판서로 증직되었다.

신도비는 서종면 수입리의 앞으로 개울을 바라보는 나지막한 구릉 앞단에 북향하여 있다. 비문은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송시열이 찬하고,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 김창협이 서문, 후손 정하가 전을 했다. (서종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全義李氏清江公子孫錄, 李天浩氏 제공

이만응(李晚應, 1857-1938)

독립유공자. 자는 敬德, 호는 九樞, 본관은 전주이다. 1857년 9월 17일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 유역 강촌리에서 신조대왕의 아홉째 아들 경창군(10세)의 8대손 李道彬의 둘째 아들로 출생했다. 형은 李晉應, 동생은 李錫應인데, 삼형제가 모두 의병장으로 1895년 춘원에서 의병을 일으킨 중추적 인물들이다.

구초는 조선말기 대표적인 칙사위정파의 거두 화서 이항로의 고제인 성재 유중교와 백형 직헌(直憲)에게 수업하였다. 그러므로 칙사

사상이 철저하고 도학과 의리를 중하게 여겼다.

18세기 왜노가 정한본을 바탕으로 조선정벌을 노리더니, 마침내 19세기에 상륙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선을 침략하기에 이른다. 그것이 1884년 김홍집·박영효·서광범 등 개화부리들이 왜노와 맞모은 갑신쿠데타이다.

1884년 왜노의 사주를 받은 박영효·유길준·김홍집·정병하 등 혁신들이 단행한 갑오개혁, 1895년 국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과 무장한 왜군으로 대권을 빼앗기고 공포를 조성하여 유길준이 고종의 머리를 축삭하고 정병하가 황제자의 머리를 강제로 삭발하고 전국적으로 탄압령을 강제시행하고, 이어서 변복령을 내렸던 정변들이다.

이 왜족과 그 주구들의 만민족행위에 대하여, 대마도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 면암 최익현은 상소문에서 “김홍집·정병하·유길준·조희연 등은 역적에서도 지극히 흉악한 자들이니, 그들을 한워만족하고 나아가 그들의 10족까지 몰살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 면암의 피가 끓는 주장은 을분으로 가득 찬 우리 조국만 황포의 민족감정을 태변한 것이다.

그래서 강원도 춘천지방에서는 유생과 포수를 중심으로 저항을 모색하게 되었다. 1895년 12월 6일(陽1896.1.20) 춘천 및 인근지역의 주민 2천여 명이 이만수·유중남·유중박·이만웅·이성웅·이변웅 등을 중심으로 봉기하였다. 이 때 이만웅의 종조부인 이변수(李彦壽)는 물레 곳곳에 방을 붙이고 봉문을 돌리 인심을 각동하였으며 산비 이수준, 민영문, 유홍석 등도 의병에 참여하였다.

또한 유생 정인회는 군인으로 신망이 있던 심익환과 상인 박현성을 참여토록 하여 보군 40여명을 의병에 가담시킴으로써 전력을 증

강하였다. 이때에 이면수·유중락·이만응·이경응 등은 춘천부에서 명망 있는 선비였던 창촌출신 습재 이소응(1852-1928)을 대장으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이소응은 대장직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춘천 의진은 대장 이소응, 군사장 이면수, 아감 이만응 등으로 전후좌우가 편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춘천출신 이면수·이소응·이진응·이만응·이경응·이면응 등은 경찰군과 후손으로 춘천의병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896년 의병해산을 위해 강원도 춘천관찰사로 부임한 이재곤(1859-1943)이 춘천의병을 해산시키려 하였다. 의병장 이만응은 족절인 관찰사 이재곤에게 편지로 꾸짖어 말하기를

“조정은 왜력과 그 주구들이 개화불 밀미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국권이 그들의 손아귀에서 있고, 그들에 의해 국모가 치참하게 시해되고, 그들에 의해 금상(今上:고종)과 왕세자께서 머리를 득삭당하고, 백성이 강제로 삭발당하는 등 나라가 보존되지 못하고 생사가 갈림길에 서있어 백성들이 의분이 터져 아우성인데, 하물며 나라의 녹을 먹고 나라의 은혜를 입은 선원으로서 의병을 해산하라니, 도대체 자네는 어느나라 사람이며 누구의 후손인가? 나라를 사랑하고 인군에 충성하는 충정으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의병들에게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 하며 호되게 꾸짖었다. 이에 대하여 이재곤은 답하기를 “아저씨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조선의 춘천 관찰사라는 직무로 불가피하게 의병해산을 권유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사죄하였다.

가평 벌업산(寶鰲山) 전투에서 패전한 춘천의병은 약사원 전투에서도 장수 이진응이 천사하는 등 패전을 거듭하였다. 장수인 백형이

순국하자 이만흥과 이경용 형제는 군사를 정리하고 의논 끝에 반출된 노모를 모시는 일이 또한 중하기 때문에 동생인 경용이 상수를 맡게 되었다.

동생에게 군사를 맡긴 이만흥은 노모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여수 금사면 추복리 삼산유곡으로 이주하였다. 이만흥은 여기서 엄중지(엄주완) 백 숙사로 있으면서 승지의 아들 엄항집(임서정부 국무위원 겸 천전부장)과 승지의 동생 任履(한홍원명장, 대신중학교시) 등을 교육하였다.

이만흥은 1932년 7월 29일 보동리에서 향년 82세로 별세하였다. 묘소는 대신면 보동리에 안장하였다가 다음해인 이해종씨 17세 때에 양평군 개군면 양덕리로 이장하였다. 구호 이만흥의 자서전은 『寒川 訓行錄』이 있는데 족질인 재화가 정리하였다. 정부에서는 1999년에 선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개군면)

《參考資料: 春川抗日獨立運動史, 白雲文化(17)》

이말정(李末丁, 1395-1461)

부안 시호는 79號, 본관판 인안, 증 병조판서 李(諱)의 셋째 아들이다. 1426년(세종 8) 차마시에 급제하고 집교, 예빈 소윤을 지냈다. 준중적덕증의보조공신 보국숭록대부 좌찬성 연성부위군에 추증되었다. 묘는 영천에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延安李氏副使公諱世諱 李(和)氏 계공》

이면하(李冕夏, 1619-1648)

조선조 문신, 자는 伯暉, 호는 伯谷, 본관은 덕수, 1619년 7월 19

일택당 李栢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612년 진사에 장원하고 그 해 가을 성시 분과에 급제하였다. 평소 재주와 인물이 두드러져 앞길이크게 열려 있었으나 높은 직전이 있어 벼슬하기를 즐겨하지 않았고 사서, 기사관, 정언, 홍문관 수찬을 역임한 후에는 늘 고향에 거주하였다.

1647년 6월 13일 부친 삼을 당하여 출퍼한 나머지 건강을 해친 끝에 1648년 1월 23일에 별세하니 향년 30세이다. 문예를 일찍 성취했고 재주가 탁월하였으나 일찍 별세하여 관명이 높지 않았다.

생전에 '혼자 힘으로 서서 두렵지 않고 세상을 피해 살아서 번민이 없다'는 뜻에서 귀한 택당의 당호를 몸소 실천하고자 하여 세속적인 명예나 이익에 무관심한 채 마음 씀에 너무 고뇌하더니 결국 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다. 임종 때 집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경연에서 강론하는 소임은 내가 감당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 일로 나를 부를 때면 마음이 늘 불안했다'고 하였다.

우암 송시열이 지은 행장이 전하며 부제학이 증직되었다. 묘는 양동면 향하리 백아곡 택당 묘하 좌쪽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德水李氏世譜, 李光·李載潤氏 제공〕

이명준(李命俊, 1572- 1630)

조선중기의 문신. 자는 昌期, 호는 淵路進思齋, 본관은 천의, 청백리 李濟의 넷째 아들로서 외우당 이정암백사 이항복우계 성혼의 문인이기도 하다.

1600(선조 28)년에 진사가 되었고 1603년 성시분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효조형조의 과방을 역임하였다. 1613(광해군 5)년 계축옥사 때 경상북도의 영덕에 유배된 후, 1623년(인조 1)에 인조반정으로

유배에서 풀려나 참령으로 다시 기용되었다. 다시 훈문관에 등용되었다가 충청도관찰사를 거쳐 감증부사를 역임하였다. 1630(인조 7)년 시폐를 논하는 상소를 올리 대사간이 되었고 다시 병조참판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한 후 돌아갔다. 화산성으로 추증되었다.

서적으로는 『濶高遺稿』가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고려대학교의 화산문고 등에 보관되어 있다. 신도비는 서촌면 수일리 향도유적 10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재신 신도비 근처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全義李氏·清江公子孫錄, 李天浩氏 제공》

이문성(李文誠, 1503-1575)

조선의 부선. 자는 미仲, 본관은 천의, 양주목사 추공의 아들이다. 부모를 일찍 여의어 공부를 못하였다. 1532년(중종 27) 14初 을과에 장원급제하여 전권판사복시 관관, 도총도사가 되었다.

1546년 상의원 첨성, 장원부사, 절충장군, 현절제사를 거쳐 1559년(명종 10) 황주목사, 이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倭寇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1560년 평산군수, 1562년 호군으로 내사복사를 겸임하고, 1563년 영남우도 병마절도사, 호남 우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하고 전주목사를 지냈다. 묘소는 서종면 내수일리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中宗實錄, 明宗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全義李氏·清江公子孫錄, 李天浩氏 제공》

이문호(李文鎬)

의명상 그는 자칭 출신이다. 이문호는 『梅泉野談』 일부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 지평에서 일으켰다. (지평면)

《參考資料: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梅泉野錄》

이민성(李民聖, 1538-1618)

초명은 天覽, 본관은 광주이다. 1539년(중종 34)에 태어났다. 광해군이 품계를 내리고 실적을 채수하게하였다. 처음 벼슬길에 나아가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1618년(광해 10) 별세하니, 여의정이 증직되었다. 묘는 양서면 북왕리에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光海君日記, 廣州李氏大同譜, 李鍾元氏 제공》

이민목(李敏玉, ? - 1896)

맹영재 부하. 본관은 덕수로 지평 사람이다. 안승우의 외종숙이며 이춘명의 족속이다. 안승우가 의병을 일으키자 자진하여 참여했고 장희협 전투를 치르는 열성적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유안석이 내장으로 취임한 후 맹영재의 첩자 역할을 하였다하여 신이백·최진사·조선달 등과 처형당했다. (양동면)

《參考資料: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獨立運動史資料集(1), 韓末의 堤川義兵, 楊平義兵運動史》

이백겸(李伯謙, ? - 1412)

문신. 본관은 연안, 증 호조판서 李亮의 둘째 아들이다. 南臺 장령, 知雨州事(경북 예천)를 지냈고, 증병조판서이다. (옥천면)

《參考資料: 延安李氏副使公派世譜, 李哲和氏 제공》

이 번(李蕃, 1645-1701) ①

조선조 부신. 자는 子芳, 본관은 비수. 1645년(인조 23) 외세 추
瑞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669년(현종 10) 생원시에 급제하였고
봉훈대부 행 김재군수. 전주전관 병마동원 절제사를 역임하였다. 동
훈대부 시복시상을 증직 받았다. 묘는 양동면 삼산리 남쪽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德水李氏世譜, 李光·李載潤氏 제공〕

이 번(李蕃, 1641-1708) ②

조선조 부신. 자는 茂伯, 본관은 비수이다. 1641년 백당의 손자요
송노당 추瑞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660년 6월 11일 부친상을
당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묘를 하였고, 여러 관직을 거쳐 삼척부사
를 역임하였다. 1708년 3월 5일 별세하니 향년 68세이며 자헌성을
증직받았다. 묘는 양동면 석곡리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德水李氏世譜, 李光氏·李載潤氏 제공〕

이병륜(李秉綸)

조선조 부신. 1908년 4월 5일자 '내한메일선보'에 의하면 양근군
에서 큰 불이 나 이재민이 발생하고 군 당국은 불탄 집을 복구하기
위하여 '建塲期成社'를 조직하고 취지서를 널리 알렸다. 이때에 옥
진면에 사는 한 송지 이병륜은 큰조카 된 참판 이진용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도, 불에 탄 집을 보조하기 위하여 11수 50수를 축천리
불탄 집에는 각각 6원과 조 44을 나누어주고, 대한 메일선보에도

성금 50원을 내놓았다. (옥천면)

《參考資料: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大韓每日新報(1908.4.5)》

이병모(李秉模, 1742-1806)

조선후기의 문신. 자는 靜則, 호는 靜修齋. 시호는 文肅. 본관은 덕수, 증의정 李沂의 자로 양평군 양서면 북포리에서 무거하였다.

1773년(영조 49)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그 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여러 요직을 거쳐 1801(순조 1)년 실록청총재관이 되었고 영중추부사를 거쳐 1805년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글씨와 문장에도 뛰어나 평안도관찰사로 재직할 때 묘향산 수충사의 휴정의 비문을 지었으며 1797(정조 21)년에 왕명으로 『三綱行實圖』와 『二倫行實圖』등을 편찬하였다.

묘는 양서면 북포2리 마을의 나지막한 구릉에 北向하여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 鮮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이병원(李炳元, 1849- ?)

유학자. 자는 子善, 호는 柳窩. 본관은 전주. 일명 長亨인데 이항로·유중교 문인이다. 지제면 현곡에 살았으며 의병군자금을 내고, 1896년에는 춘천의병장 습재 이소용이 사돈이 되는 지평감역 맹영재에게 구원병을 청하러 왔다가 도리어 맹영재에게 구금되자, 미근원·유중용 등 동문 유생들과 함께 찾아가 위로하기도 하였다. 1903년 최익현 등이 화서 이항로의 후사관을 위한 강수계에 참가하고 50냥을

중인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蘇溪源流詩, 講修契修成蹟

이보원(李輔元, 1869- ?)

독립유공자. 감성면 명산리 출신. 1919년 3.1운동 때에 강하면 사 무소 앞에서 최대한윤기영 등을 중심으로 3월 31일 오후 11시경에 군중 30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하였다. 4월 19일에는 양서면사 무소 앞에서도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혀서 90대형(答刑)을 받고 옥살이를 하였다.

정무에서는 고인의 공로를 기리어 199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강양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2),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 獨立有功者功勳誌(2),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이보정(李補丁, 1393-1456)

자칭 諱甫, 호는 補谷, 본관은 연안, 증 병조판서 李伯謙의 둘째 아들이다. 1417년(대종 17) 서마시에 급제하고, 1420년 문과에 급제하여 봉상시 직장, 사첨시 주부, 사문사 서랑관, 세조과랑, 이조 직랑을 역임하였다. 세종 때 김현진 신철시에 학사로 선임되었다. 이어 현종시 소윤, 총문관 교리, 김포현령, 봉상시 판사, 사간원 좌간사, 공조판의 등을 두루 역임하고 가선대부에 올랐다.

『국조명신록』에 최불홍유의 공신으로 등재되고, 청백의 문수를 지냈다. 63세에 졸서하니, 성종 때에 순충보조공신 병조판서 총문관대세화 연천군에 책봉되었다. 묘소는 옥천면 용칠리 능곡에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延安李氏副使公派世譜, 李哲和氏 제공

이 북(李堧, 1822-1882)

성리학자, 호자, 자는 仲文, 호는 黃溪, 본관은 벽천이다. 1822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벽계에서 李恒老의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일찍부터 가정에서 수업하여 학문이 이루어졌으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 위정백사와 존화양의 의리를 고수하며 훈육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효행 또한 저극하였다. 그래서 학문에 능하였고 항상 의리를 강조하며 경세제민에 관심을 두었다.

인접한 수임리 집장 이재로가 세도를 무려 벽계 반곡의 개인소유 산(荒地)을 강제로 침탈하려고 산불을 놓는 등 행패를 부리자 양근 군수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그 폐단을 시정하여 몇 집의 묘소가 보존되었다.

일찍이 중암 김평묵, 홍암 박경수, 성재 유중교 제현들과 서로 도의의 교분을 가졌는데, 중암은 ‘祭선생문’에서 “四氣의 조화를 갖추고 千古의 비결을 함축하여 고인에 교화하여 본다면 伯也와 유사하다” 하였고, 성재도 “마음의 깊고 앎은 쉽게 벗출 수 없으나, 斷道에 보호가 됨은 믿어 의심할 것이 없다” 하였다. 아! 이 두 분의 말씀에 누가 감히 이의를 하겠는가?

황계는 특히 춘추의 의리에 엄하여 서양 오랑캐가 국경에 침입했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는 왜적을 따른 뒤에 반드시 있을 일이다. 그러나 세상 번고가 극에 이르러 국가를 다스릴 수 없게 되어 서로를 오랑캐와 짐승의 지경으로 빠지게 된 것이다. 어찌 분개할

이 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偶時事詩 84수를 지었다.

국내 동지들을 두루 생각하여 자기 별 장의 글로써 時義를 권면하였으며, 비록 양쪽 방위에 마음에 달고 있는 뜻을 크게 써서 길어 놓았을데, 왼쪽에는 ‘論世道’라고 하고, 오른쪽에는 ‘촌화양이’라고 하여 중입할 때마다 삼가고 절제하여 욕사라도 마음에서 잊지 않았다.

황계는 선공감어를 의임했으나 항상 선비의 지조를 잃지 않았다. 벽계에 노산상사를 얻어 장서를 가르치고 후진을 양성하여 인재를 배출하다 서거하였다.

서거하는 날 저녁에 사람들이 오랑캐가 국경 밖으로 죽습되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 벽상을 치며 두 세 번 “봉쇄하다! 봉쇄하다!” 외치고는 영원히 잠들었다. 이 어찌 위대한 죽음이 아니겠는가!

황계의 서서모는 『黃溪集』 3책과 『菴溪日錄』 등이 있다. 『황계집』에는 날로 기울어져 가는 세대를 걱정하여 읊은 후국시 86수가 있다. 황계의 서산 등 친필은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수 십어 점이 소장되어있다. 묘소는 노문리 벽계의 남쪽 2기로 지질 전대마을 뒷산에 있다. 묘갈명은 화서 외5대손인 보현 장기덕이 지었다. (서종면)

《參考資料 - 黃溪集, 菴溪, 菴溪錄, 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 華西先生文集》

이복경(李福景)

의병운동자. 이복경은 지평출신이다. 의병 평생 매 걸기, 지평에서 활약하였다. (1907. 8-1909) 일본에 의해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자 의병천에 참여하여 의병활동을 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獨立運動史》

이복영(李福永)

의병 수성장, 지평 사람으로 호는 是菴인데, 감역을 역임하였다. 지평의진에서 활동할 적에 정선수성장에 임명되어 의병을 적극 후원하였다. 특히 제천전투에서 패하고 서행하기 전, 대진을 준비할 때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1), 韓末의 堤川義兵,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이사룡(李士龍)

전주이씨 입향조. 이사룡은 임사룡의 사위로 광평대군의 10대손이다. 中宗反正으로 충청도 복상동으로 피신하였다가 여주군 康村面으로 이주하고 다시 지평면 망미리(筋雲)으로 이주하여 양평군의 입향조가 되었다. (지평면)

《參考資料: 砥平鄕校誌》

이 상(李相)

학자. 본관은 전주, 능원대군 李備의 증손이다. 난세를 피하여 지평현 판동리에 북거지를 택하여 낙향하였다. 은거하면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을 뿐 아니라, 자손들도 조심하며 세상을 살았다. 청운면 삼성리에 사우를 짓고 문중의 중심을 이루었다. (청운면)

《參考資料: 砥平鄕校誌》

이상빈(李尙彬, 1859-1919)

항일의사. 자는 汝文, 본관은 전주인데, 1859년(철종 10) 기미 10월 3일에 경기도 여주군 개군면 주읍리(현 양평군)에서 부친 弼震과 모친 설주이씨 사이에서 독자로 출생하여 1919년 3월 11일 별세했다.

의사는 성종대왕의 다섯째 아들인 회산군(愼)의 13세손이다. 고조의 이름은 觀馨, 증조의 이름은 行德, 조고의 이름은 述載이다. 述載가 일남일녀를 두었는데, 남애는 弼震, 여애는 청주라씨 개현조에게 출가하여 需榮을 낳았다.

유학의 가문에서 태어나 한문을 수학하여, 도학과 의리를 생활의 기만으로 삼았다. 의사는 일세에 의하여 국권이 침탈되고 민족이 노예화되자 단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였다.

1919년 전국적으로 항일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자, 의사는 과수영, 김명규 등과 밀모하여 태극기를 제작하고, 도로변에 태극기를 세양하고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 헌병분견대는 곡수 장터에서부터 주읍리, 내리, 불곡리, 신대를 경유하여 양평으로 가는 도로변을 순찰하며 태극기를 쫓아내고 선량한 주민들에게 가진 만행을 자질렀다.

1919년 3월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양평 곡수 장터에는 300여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공은 선두에 서서 만세를 외치면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잔악한 일본 헌병들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金永植(1856. 11. 1)지사는 장터에서 헌병대가 쏜 총에 맞아 전사하고, 그밖에 이원훈·이병훈·이재순·이철형·이봉규·이남규·이명규·이인규·박치형·김봉수 등 수 십명이 체포되거나 구타를 당하는 등 막대한 당하였다.

시위군중은 준비백산하고 알았다. 같은 주읍리에서 주리하는 헌병

대에 발각되어 총에 복부를 맞아 강이 터진 상태에서 집으로 모였으나 그 날로 순국하였다.

의사의 시신은 가족이 수습하여 내리 산16번지 선영에 장사지냈다. 의사는 나주청씨 사이에서 딸 하나를 두고 아들이 없어서, 후聖根을 테릴사위를 하여 살다가 1936년 별세하였다. 후氏가 가산을 정리하여 고향으로 떠나면서 논 300여 평을 남겼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친 의사의 뜻을 기리고 원통한 한을 생각하며 85세의 딸과 종인들이 차례를 지내며 묘를 수호하고 있다. 85세 된 딸이 양자를 부탁하며 대를 계승시켜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여, 祥손을 양자로 입후하였다.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같이 전사한 김영규지사는 1991년 8월 15일 애국장을 받았으나 함께 밀보한 이상빈 의사는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개군면)

《參考資料: 全州李氏禧山君源譜, 독립운동공훈사, 개군면주유리 이봉구씨의 증언》

이석기(李碩基, 1598-1653)

조선조 문신, 孝子. 자는 德典, 본관은 진의, 호자요 永興府使인 李壽俊의 아들이다. 어머니가 병석에 있을 때에 지혈을 약에 타서 간호했다. 인조 때 효행으로 뽐혀 선공감역이 되고, 1624년(인조 2) 사마시에 합격, 감찰, 황간현감을 지냈다. 그 후 형조정령 종친부 권부를 거쳐 의빈부 도사를 지냈다. 현종 때 효도로 우참찬에 추증되었다. 1670년(현종11)에 부친 수준은 崩逝하되 석기에게는 우참찬을 추증하는 것으로 정문에 대신하였다. 진신대부들이 모두 서로 전하여 세상에 드문 거룩한 일이라고 하였다. 열살 때에 부친이 사신

으로 중국에 갔다가 귀국하는 도중에 객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을 듣고 붕곡하며 애제할 처지는 몸이 마치 어선 같았다. 상성하여서도 부친을 모시기 풍함을 즐겨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어머니 허씨를 지성으로 받들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애 힘썼다. 온화한 얼굴로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며 차리를 깨드리고 즐기는 음식을 받드는 일과 번기를 깨끗이 준비하는 일들은 반드시 몸소 보살폈다.

밤에 나갔다가 죽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느라 차마 먹지 못하였다. 1629년 모부인께서 병으로 늙자 빗날을 가리지 않고 오조한 마음으로 병 시중을 쓰는데 옷을 벗거나 잠자리에 드는 일이 없었다. 모부인이 물러나가 있으라는 명을 받고 한 방에 와 있으면서도 문득 방문이나 벽 사이에 귀를 기울이고 모부인의 숨소리와 말소리에 신경을 기울이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기를 백여 일이나 되었다.

오직 밤이 희박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약에 섞어서 잡수시게 하기를 거듭하니 살한 손가락이 없었다. 그 때가 마침 일동인데도 복욕재계하고 복부실성을 향하여 희박되기를 빌며 또한 내면을 맛보아 병의 정후를 알아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어이 모친이 별세하자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붕곡을 그치지 않았다.

상옷을 벗는 일이 없고 사람과 말할 때에 한번도 처아를 드러내고 웃는 일이 없었다. 조석으로 다만 미음 죽만 마시면서 3년상을 마치니, 이 소식을 듣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였다. 형제와 표창이 있던 날 조정에서는 아버지하 자식의 시적에 처동이 있다는 이유로 증직만으로 끝나니, 군자들이 모두 한스럽게 여겼다. (석충면)

【參考資料】 南漢集, 韓國人名大事典, 全義李氏肅工公子孫錄, 李天吉氏 제공

이선세(李善世)

항일운동자. 이선세는 양평출신이다. 그는 1919년 3.1독립운동이 발발시 전후해서 국내독립운동에 적극참여 활약한 공적을 남기었다.

(양평면)

《參考資料: 韓國獨立運動史,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이 섭(李涉, 1533-1615)

효자. 자는 시경, 본관은 덕수, 1533년(중종 28) 1월 6일 관서 주원祥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555년 사마시에 합격했으나, 같은 해 11월 21일 부친이 별세한 후 외가인 전남 고령의 우일장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1570년(선조 3) 별세하였다.

섭은 타고난 성품이 고아하며 엄숙하고 과묵하여 밀떡이 남에게 언사나 얼굴빛을 내보이지 않았다. 재물과 이익을 대하면 마치 자신이 더러워지는 듯이 여겼으니 깨끗한 행실과 높은 절개는 세속을 수월하여 모두 기술했다가 어렵다.

부친이 병이 깊어서 해를 넘길 때에 옷의 바를 끄르지 않은 채 길을 떠나지 않고 약 시중을 들었으며 뽕을 당해서는 몹시 슬퍼하여 몸이 쇠약해졌으나 다행히 생명은 부지했다.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는 중풍에 걸려 쇠약해진 지 오래되었으나 상례를 집행함에 부친과 같이 하였다. 그러므로 병이 더욱 위독해졌다.

집안 사람들이 울면서 예를 바꾸기를 권했으나 동의하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뜻밖에 병이 어찌런 위독하니 지금 비록 권법을 쓴다 해도 살고 죽는네는 이익됨이 없이 헛되이 네 마음만 상할 것이다”고 했다. 가족들이 볼래 맛있는 음식을 즐겨하여 조금이라도 고기반찬

이 섞이면 분명 비었다. 마할네 생을 이기지 못하고 별세하였다.

1637년 12월 2일 통정대부 증정원 좌승지 김 경언참찬관에 추증되었다. 묘소는 양동면 팔하리 백아곡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德水李氏世譜, 李光·李載潤氏 제공》

이성모(李聖模, 1715-1789)

조원조 문신. 자는 汝仰, 본관은 파수. 1715년 참의 홍의의 장남으로 양동에서 출생했다. 1740년 진사시 합격한 후 의능참봉, 동부봉사, 평시사 봉사, 손부사 직감, 안성군수, 성천부사를 거쳐 진주목사를 역임하였다. 1789년 5월 17일 별세하니, 1788년 이조참관에 증직되었다. 묘는 양동면 팔하리 백아곡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德水李氏世譜, 李光·李載潤氏 제공》

이성서(李聖瑞, 1856- 1909)

독립유공자. 지병출신 이성서는 양평군 단원면 양곡 출신이다. 그는 1907년 의병전에 참여하고 정재하이 80여명의 의병들과 경기도 적성군 읍내에 일경과 진부를 받았으며, 천일과 일당들을 피격시키고 삭녕군과 황해도 토산군 등 의진활동을 계속하여 코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경성 지방재판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적사의 재판기록은 1907년(음력 1) 음력 8월 1일 정재하 외 약 80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경기도 적성군 읍내에 침입하여 집어온 의장사 원사당을 총살에 처하고 삭녕군에 진입하여 군 주사를 휘박하여 총30정과 탄약 5개 및 60원을 빼앗았다. 또 황해도 토산군 서항에 나타나 동장, 집장 등을 붙잡아 온 230원을 빼앗고 군형 이방을

협박하여 탄약 1상자, 탄환 약 3천발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건국공훈을 기리고자 1991년 대통령표창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단월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1), 判決文,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獨立有功者功勳錄(1)》

이성수(李聖袖, 1698-1773)

효자. 자는 士吉, 본관은 양성, 단월면 덕수리 백동 사람이다. 1717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814년(순조 14)에 효행으로 나라에서 칭려하였다. (단월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이성적(李聖迪)

효자. 자는 士吉, 본관은 양성, 李鸞의 셋째아들이다. 1727년(영조 3)에 증광시에 합격하고 진사가 되었다. 1841년(헌종 7)에 칭려하였다. 성적의 행장은 종질 진사 딸이 지었다. 단월면 덕일리 백동에 효자정문이 있다. (단월면)

《參考資料: 砥平郡校誌》

이세춘(李世春, 1884- ?)

합일운동자. 용문면 신철리 34번지 거주자. 이세춘은 주소를 서울 경성부 송인동 2번지 사립 중앙학교 기숙사에 유학하는 당시 학생의 신분이었다. 1919년 3월 1일 경성부 파고다공원에서 이계창·오

〔楊平人物誌〕

한영·김성국·김병수·이광상·위하찬, 김진호·박상진 등 16명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활동하다가 일경에 잡혀 들어가 징역 7월을 선고받았다. 이세훈의 11명에 대하여 모두 3년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 기록이 재판문서에 나타난다. (용문면)

【參考資料】獨立運動史資料集(5), 獨立運動史資料集(13), 判決文,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砥平道中

金尚容

여기 저기 산봉우리의 잔설(殘雪)에 석양(夕陽)이 비치니,
굴짜기 짐들은 모두 사립문을 달는구나.
말을 멈추고 기이(奇異)한 시귀(詩句) 생각하니,
또 시냇가 어귀엔 저녁 구름만 흘러간다.

이수백(李守白, 1577-1634)

문신. 본관은 양성. 1577년 개군면 부원리에서 참판 이수윤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선조 때에 부가에 급제하여 1605년(선조 39)에 성안관관, 1617년(광해 9) 포도종사가 되고, 그후 갑산부사로 부임하여 재임 중 선정을 베풀어 한성도 보성리에 선정비의 세워졌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관무공신에 책호되었고, 양남군에 봉하여졌다. 묘는 개군면 부원리에 있다. (개군면)

【參考資料】宣祖實錄, 光海君日記, 陽城李氏大同譜, 네고장 경기도의 인물】

이수정(李守貞, 1477-1504)

자는 幹仲, 호는 貞節, 素寒齋, 본관은 광주, 관중추부사 李世佐의 넷째 아들이다. 사마 양시에 장원하고, 1501년(연산군 7)에 대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김열에 보직되고 승정원 주서, 봉상시 주부를 거쳐 홍문관 부수찬에 이르렀다. 이어 세자시강원 사서, 동학교수가 되었다. 1504년(연산 10)에 연산주가 황란해지자 내폐(內嬖)의 제구(繼具)에 걸려들었고, 간신 임사홍이 채 마음대로 다스려 집안 전체가 화를 입게 되었다. 그때 나이 28세였다.

그러나 1506년 증종반정으로 원유(冤誣)를 밟혀 벗어주고 도승시 겸 홍문관 부수찬을 추증하였다. 후에 아들이 귀하게 되어 이조판서 찬성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尹氏)의 복위문제에 얽혀서 일어난 갑자사화 때 화를 당하자, 당시 장인이 되는 관관 신승언이 시신을 거두어 양시면 복왕리에 장사지냈다. (양서면)

【參考資料: 廣州李氏大同譜, 平山申氏齊靖公派譜, 廣李世精崇德靈神道碑銘, 李鍾根氏 제공】

이수정부인 평산신씨(1480-1524)

절부, 본관은 평산인데, 영의정 申朝鼎의 증손녀요, 관관 申承演의 딸이다. 남편 정재 이수경이 1504년 화를 당한 후 20년을 수절하며 홀로 살면서 7세인 장사 윤경(1498-년생)과 6세인 차남 준경(1499-년생)을 잘 길렀다. 나이 30에 사화로 말미암아 남편이 화를 당하여 사별하고, 사대부의 아내였던 신씨의 신분 또한 전도되어, 가지 못할 곳에 가고, 하지 못할 일을 하며, 적지 못할 수모를 당하

는 둘 피눈물나는 재빨리 감내했다. 초근목피로 새 식구가 겨우 안정하면서도 두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엄함과 어머니의 자애를 보이며 『소학』과 『요경』을 가르쳐 효가 백행의 근본임을 깨우쳐 주고, 『대학』을 가르쳐 유도의 기본원리를 형성시키고 추기치인의 처침을 터득케 하였다. 신부인이 아들에게 항상 타이르기를 “과부의 마음을 보잘것이 없으니 빗으로 사귀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 너희는 부지런하고 공손하지 않으면 불것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였다. 두 아들이 병심하고 독서에 열심하여 학식을 넓히고 심성을 단기에 뒀다. 미로써 가문을 지키고 일으켰으니, 첫째 아들 윤경은 어머니의 가르침에 해설이 빠르고 변화정진하여 과문에 급제하여 비슬이 당상관에 이르고 시호가 正獻으로 착한 사람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겼고, 둘째 아들 준경 또한 영의정에 이르고 시호가 충성으로 청백리에 죽었되었다. 시경에 이르기를 “주나라 문왕의 많은 사손이 인후하고 풍족이 선화한 정사는 꼭 후세의 티어라 칭한다”고 하였으니, 가칭과 국가가 어찌 다르다고 할 것인가? 서양의 한 교육자는 “교육의 중심은 가정에 있고, 가정의 중심은 어머니에게 있다”고 하였다. 신부인의 숙덕과 절조와 교훈은 비록 두 아들이 왕이 아닐 뿐, 빠르게 길러서 나라에 공을 세우고 후세의 귀감이 되고, 세인의 추종하는 바가 되었으니, 주나라 태왕태사에 건줄만하다고 하였다. 세인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당대의 사람은 물론, 만세의 여민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廣州李氏大同譜, 平山申氏興靖公派譜, 廣李世積崇德齋神道碑銘, 李鍾根氏 世公》

이수준(李壽俊, 1559-1607)

조선조 문신, 호자, 자는 壽徵, 호는 龍溪, 志齋 本관은 全의.

병마절도사 李濟의 둘째 아들이고 우계 성혼의 문인이다. 1579년(선조 22) 사마시를 거쳐 1590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에 등용되고, 갑찰, 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강화에 들어가서 흩어진 병사들을 모아 방어에 힘쓰고, 이듬해 통진현감을 거쳐, 1595년 영해부사가 되었다. 1599년 강화부사에 이어, 봉상시 첨정, 장령, 공주목사, 강계부사, 사부시랑, 승문원 판교, 길주 목사, 영흥 부사 등을 역임했다. 1606년 승문원 판교 겸 춘추관 권수관이 되어 임진왜란 때 소실된 실록의 冊子에 참여했으며, 이해 정조사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오던 도중 황해도 봉산에서 별세했다.

부친 성강이 調所에서 병이 위독하게 되니, 台微은 향을 피우고 하늘을 무너러 희생되기를 빌었고, 또 대변의 맛을 보아 길흉을 증험하기도 하고, 손가락을 깨어 피를 약에 섞어 드리기도 하였다. 기어코 상을 당하자 맨발로 관을 모시고 돌아와서 불소 흙을 적다가 묘를 만들었으며, 손수 채수를 받들었고 하루 죽 한 그릇씩을 먹으면서 3년 동안을 하루처럼 한결같이 모시었다.

부친상 때에 찾아온 부조금품을 모아 따로 저축하여 義田을 마련하여 范文正公의 옛 일을 본받으려 하였고, 그 호를 스스로 '志仁'이라 하였다. 1670년(현종 11) 나라에서 효행으로 旌闈하였다. (서종면)

【參考資料】 宣祖實錄, 備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全義李氏清江公子孫錄, 李天浩氏 계공

이순명 부인 옥 금(玉今)

일녀. 양근군의 아전 李順命의 부인인데, 남편이 병으로 죽자 부모가 흠이 끝나기를 기다려 강제로 개가시키려하자 복매어 죽었다.

倣倣라고도 하며 연산군 때에 정려됐다. (양근)

《參考資料》 東國輿地勝覽, 楊平郡誌》



이순몽 (李順蒙, 1386-1449)

조선 초기의 무관. 본관은 영천, 시호는 威立. 영양군 추평의 아들이다. 1405(태종 5)년 을축으로 벼슬에 올라 1417년 부과에 급제. 1418년 의흥위 첨사, 동지총제를 역임하고 1419년(세종 원년) 무군절제사로 태마도정벌에 참여 대승을 거두었으며, 1423(세종 4)년에 중군절제사로 역임축을 도발하였다.

1434년 경상도 도절제사, 1477년 영종추원사를 지냈다. 영천의 삼현사와 송월당에 봉향되었다. 묘역은 개군면 공세리 속창 아랫무술 마을에 위치한다. 정군의 생가인 송월당은 보물 제52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묘는 경기도지방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어있다. (개군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 祥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이승원(李崇元, 1428-1491)

조선조 문신. 자는 仲仁, 시호는 忠肅. 본관은 연안, 원관 李補의 아들 1433년(단종 17) 증광문과에 장원하여 사재감 주부가 되고, 정언을 거쳐 1459년(세조 5) 지평이 되었다. 이듬해 高麗事件으로 파직되었다가 원조정벌에 다시 등용되고, 시조지령 부쳐봉례문사 겸

등을 역임, 사인에 승진하고 군사감 정이 되었다.

1468년(세조 13) 관결사, 이듬해 동부승지, 이어 좌승지가 되었다. 1471년 형조판서가 되고, 1477년 대사헌이 되고, 1481년 한성부 판윤을 거쳐 이듬해 평안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이조판서가 되었다. 1485년 우참찬으로 정조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89년 형조 판서를 지낸 후 1491년 신병으로 병조 판서를 사직하고 타계하였다.

묘는 옥현면에 있고 비문은 홍문관 대제학 홍귀달이 썼다. 중종 때 창백리에 녹선되고, 1648년(인조 26) 지례의 도동사에 제향하고 있다. (옥현면)

《參考資料》 世祖實錄, 成宗實錄,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이승룡(李承龍, 1853-1896)

독립유공자, 의명장. 자는 秀雲, 호는 龍坡. 本貫은 청해이다. 青海伯 襄烈公 李之蘭의 15대손이다. 지사는 1853년 계축 정월 17일에 양근군 동종면 대곡동(양평읍 대흥리)에서 부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겸 오위장 李殷錫과 모친 경주최씨 사이에서 6남 4녀 중 4남으로 출생하였다.

중요를 가훈으로 하는 전통의 가문에서 태어난 지사는 어려서부터 명달하고 명민하며 강개한 기질이 있었다. 그리하여 독서를 좋아하여 10세에 사시삼경을 읽었다. 또한 무서도 익히고 지리에도 관심을 가져 장차 유망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1866년 14세 때 병인양요시에는 나라가 위태로움을 당하였으니,

고 고종에게 추천하여 임명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사가 부임을 사양하였다. 고종이 어진으로 지사를 불러 사양 이유를 물은 즉, 지사가 대답하기를 “황공하오나 백성들의 생판고가 막심한데다가 쌀 관오리의 착취와 헌납금 과잉징수로 민요가 일어났으니 통곡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고종은 즉석에서 헌납금 탕감을 윤허하시고 속히 부임하여 위민정치를 하라고 하였다.

지사는 강령현감으로 부임하여 백성들을 위안시키고 관속들의 빈폐와 갈부금을 없애고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1890년 39세에 정월 이웃 고을 연안부에 민요가 발생하자 황해감사 오준명이 나라에 상계를 올려 지사를 민요수습 명사관으로 임명하였다. 지사는 5개군 수령과 난민의 대표를 불러 시시비비를 상재회 조사하여 중립적 위치에서 사리를 판단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요를 수습하였다.

1892년 40세에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3년거상을 다하고 상정하였다. 이 때는 1894년으로 전국에는 동학난이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清日兩國軍이 주둔하여 세상 인심이 혼란하였다. 결국 6월에 청일양군이 충돌하여 일본이 승리하고, 이를 등진 개화세력에 의해 변화가 부딪하여 주권은 일본인과 그 주구들에 의하여 농락되었다.

1895년 왜적과 창괴들에 의해 8월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이어 유길준 등에 의해 단발령이 강제로 실시되었다. 공은 분통한 마음으로 즉시 상경하여 민영환을 만나 변괴를 통곡하고 민영환과 더불어 밤새도록 분통한 심정이 오고갔는데, 민영환이 ‘원수를 돌아내고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의병을 일으키는 길이 있을 뿐이다’고 한 말을 듣고는 의병을 일으킬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지사는 아들 언덕에게 곡포시해사건을 말하고는 원수를 갚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나가니 나는 가사를 잘 준비하며 집을 나왔다.

지사는 양근 지평 광주 여주 양주 등지를 돌며 “국모를 시해하고 조국을 강탈하는 왜놈들을 선하와 백성원 도리로 어찌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원수를 갚고 나라를 지킵시다.”하며 양근읍에 깃발을 세우고 의병 1천여 명을 모집하여 ‘斥倭國母報讐之旗’를 날리며 훈련을 시켰다. 한편 김모들과 작전계획을 세웠는데, 서울을 공격하기엔 미흡하니 먼저 남한산성으로 가서 거기서 병력증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1897년 정월 초 아음을 틈타 얼음판 한강을 건너 밤세도록 행군하여 다음 날 새벽에 남한산성을 순조롭게 입성하였다. 지사는 선일주구 광주군수 박기인을 대의로써 협력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박기인이 완강히 거부함으로 관수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입성 후에 훈련을 더욱 맹렬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도 권역에 적서를 보내 의병을 증모하였는데 사방에서 운집하니 한달 남짓하여 10,000여 명으로 증강되었다.

이렇게 증강된 의병들을 훈련하면서 수어장대에서 참모들과 서울공격을 논의하는 중에 서울의 박연한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다. 그 내용은 조창의 고위층이 수비군과 내통하여 협공의 기사를 모의하기 위하여 서울의 모처로 만나자는 것이었다.

이 내용에 대하여 김모들의 의견은 흥분될지 모르니 전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사는 곰곰히 생각한 끝에 워낙 친한 친구인지라 기사의 복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급한 마음이 앞서서 서울 상봉을 결행하였다. 지사는 두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약속장소로 잠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권일 적당의 잔악한 꾀였음이다.

지사는 체포되고 말았다. 장수를 잃어버린 군사들은 그만 흩어지고 말았다.

1896년 명신 2월 14일 외적은 공을 남한산성으로 끌고 와서 장여 의병들과 함께 김포가 갈로 목을 쳐서 순국하였다. 지사의 순국을 소문으로 들은 부인 안동김씨는 사람을 데리고 남한산성으로 갔다. 지사의 시신은 목이 한쪽 끝만 붙은 채 머리가 겨우 붙어 있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지경이었다. 시신을 견우어 지평현 상서면 원곡리(現 용문면 삼성리 산56번지) 백고개 묘좌로 안장하였다.

지사의 묘에는 1967년 지사의 손자 重臣이 묘비 등 석물을 갖추고 비문은 족보의 기록을 그대로 각자하였다. 지사의 행적은 아들 연년이 지은 가장을 「吉源家史」에 기록하였다.

지사가 국가를 위하여 왜적을 토벌하려고 의로써 의병을 모으고 남한산성까지 입성하여 장귀 박기인을 참하였고, 서운 전력을 크게 꿈꾸다 체포되어 비록 뜻을 이루진 못하였으나 순국순도한 것은 사실로 입증되었다. 후세인이 크게 숭배하고 기점으로 삼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3년 지사의 건국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양명읍)

《參考資料: 獨立運動史, 韓國獨立史, 楊平義兵運動史, 青海李氏武厚公派世譜, 青海楊平, 寒溪 李重臣翁 贈언》

이승조(李承祖, 1862-1926)

한말의 군수. 자는 鼎學, 호는 渭石. 본관은 벽진. 李(이)씨의 李孫(이손). 李謙德의 아들이다. 승조는 가평군수로 취임 이후 1908년 8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군내의 보성·대성 두 학교에 봉급을

대동야 교육의 권취방법을 완성시켰다. (서종면)

《參考資料: 講修契作成錄, 藝溪鼎錄, 慶城新聞(1908.8.30)》



이 식(李植, 1584-1647)

조선조 분신. 자는 汝固, 호는 澤堂, 시호는 文靖, 본관은 덕수, 좌의정 李尙의 현손, 증 좌찬성 李汝仁의 아들이다.

1584년(선조 17)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592년(선조 25) 9세에 임진왜란을 만나 피난을 다니다가 12세에야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나중에는 정철(1537-1588), 이안눌(1571-1637),

구실(1558-1618) 등 역사적 거목급 인사에게서 수학하였다.

1609년(광해 1) 생원이 되고 다음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13년 세자시강원 실서가 되었으나, 허남인 관관 심정재가 그의 장인 김세남의 옥사에 연루되자 사퇴했다. 그 해 가을에 아버지가 이주에서 병세하하 알평군 양동면 늪지에 잘사지내고 3년살을 지냈다.

1616년 복명사가 되어 함경도로 가야했으나 거류에 사직하고 돌아와 이듬해에 선전관이 되어 황해도에 출장 갔다. 1618년 이이첨 등 간사한 무리들에 의해 인목대비 폐모론이 일자 비문을 삭피하고 낙향하여 양동면 양하리 백아곡에 백풍당을 짓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619년 병조좌랑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사퇴하고, 이어 지세교승문원 대술관 등에 뽑혔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621년 병나라 사신이 오자 원필사 이이첨이 총사관으로 지명하였으나 병을 핑계로 사양하였다. 누차 총사의 병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왕명을 어겼

나 하여 한때 구금되었다. 광해군과 이이첨 일당의 횡포와 배륵행위는 님로 극에 달하였다.

1623년(인조 1) 마침내 인조반정으로 세상은 회복되고, 이조 좌랑에 등용되었다. 이후 성균관 전직, 홍문관 부수관을 역임하였다. 1624년 이괄이 난을 일으키자 다시 부수찬에 기용되고, 어영사 이귀의 종사관이 되어 임진강까지 갔으나 관군이 패퇴하자 서울로 돌아와 왕을 모시고 공주로 피난을 갔다. 사헌부 지평, 홍문관 수찬이 되고 환도 후에 이조정랑이 되었다.

1625년 예조참의, 승정원 좌부승지로 만언소를 올려 시국의 폐단을 논했으며, 1626년에 형조참판으로 춘추관 수찬관을 겸하여 『光海君日記』 편찬에 참여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세찰사 이원익의 관희사가 되어 소현세자의 분조를 따라 전주로 내려갔다가 돌아와 대사간이 되었다. 이때 조정에 남을 비방·모함하는 분위기가 일자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예조참의·과승지 등에 다시 기용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이듬해에 충주목사로 나갔다.

1629년 대사간이 되었으나 봉당의 폐해를 논하는 劄子를 올리고 사퇴했다. 이듬해 또 대사간과 병조참의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했다. 1631년 또 대사간이 되었으나 왕의 사친을 원종으로 추존하는 것이 고레가 아님을 주장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간성현감으로 좌천되었다.

1635년 대사상·대사간을 거쳐 이조참의가 되었다가 가선대부에 오르고 홍문관 예문관 양관의 대제학에 지성균사를 겸하였다. 이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남한산성으로 호종하였다. 1637년 대사헌, 병조참판을 거쳐서 1640년 이조참판·대제학·대사헌, 다시 이조참판이 되어 『宣祖實錄』 개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642년 칠상헌과 함께 처화를 주장한다 하여 심양에 갇혀있다가 돌아올 때 다시 의주에서 구치되었으나 탈출해 돌아왔다. 1643년 내재학에 올라 赤雲山 사고를 답사하고 돌아왔으며, 이조판서 이경충의 발의에 따라 변신을 설치하여 『선조실록』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어 대사헌·형조판서를 거쳐 1644년 예조·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이듬해 소헌세자가 죽자 예조판서로서 그 지문을 지었고, 이어 봉림대군을 세자에 책봉하는 勅命文을 지었다.

그 뒤에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고, 얼마 후에 다시 동지춘추관사로 기용되어 예조판서·대제학에 연이어 임명되었으나 모두 병을 이유로 사퇴했다. 1646년(인조 24) 예조판서로 문과 별시의 시험관이 되어 총재했다가 시책에 역의가 있다는 오해를 받아 관직이 삭탈되었고 이듬해에 별세했다. 1650년(효종 1) 관직이 복구되고, 1686년(숙종 12)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여주의 거현서원에 제향하고 있다.

백당은 당대의 이름난 학자로서 문하에 많은 제자를 길렀다. 특히 문장에 뛰어나 상촌 신흙, 원사 이장권, 예곡 장유와 함께 '한문9대 문장가'로 알려져 있다. 한말의 창강 김택영은 '한문9대문장가'의 한 사람으로 꼽기도 하였다.

백당의 묘는 양동면 쌀하리 백아가에 있으며, 묘와 백당당은 양평군 향토유적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저서로 『澤堂集』, 『朱子大全前編』, 『朱子詩論小分』, 『初學詩訓增輯』, 『杜詩批解』가 있고 편서로 『赤城』, 『野史初木』 등이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仁祖實錄, 畏齋集, 朱子大全, 顯朝人物考, 延平地校誌, 楊平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韓國文化遺蹟總覽, 李光·李載潤氏 제공》

이신하(李紳夏, 1623-1690)

조선조 문신. 자는 仲崗, 호는 逸老堂. 본관은 碭水. 맥당 李植의 둘째 아들로 1623년 출생하였다. 젊은 시절 관직에 출사한 부친 맥당 및 형님의 빈자리를 채워 가사에 주력하였으며 1647년 부친상, 1648년 형님의 상을 치른 후 30세인 1652년 영남참봉에 증사하였다가 논영부 봉사로 전임하였다.

1662년 서방고 별감에 배명되고 잠흥고 주부로 승차하였다가 세컨현감을 역임한 후 용인현령으로 천직하였다. 1667년 진병으로 사직하였고 그 이듬해인 1668년 은진현감으로 서복되어 3년을 역임하고 세자의위사 익위를 거쳐 한성부 서울으로 승차하였다가 백천군수로 부임하여 집무하던 중, 53세인 1675년 송시열을 필두로 한 서인정권이 몰락하고 남인이 득세한 정변이 일어나자 위중에 실수를 했다는 구실로 파직당하였다.

그로 인하여 서울의 집을 팔고 가솔을 이끌고 여주로 낙향하여 노후를 쇠세하였다. 그 후에도 군자감 관관과 한산군수를 제수하였으나 즉시 영을 거두도록 조치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58세인 1680년 서인정권이 복권되자 잡라원 첨정에 배명되었으나 “60이 불원한 나이에 구차하게 벼슬을 하겠는가?” 하며 사양하였다. 다만 인경황후의 상을 담하여 피할 수 없이 한성부 서울을 밟아보다가 증씨가 지나자 즉시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그 후 청송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87년 지세들의 강권으로 아찌못하여 예빈시 정을 제수하였다. 묘는 양동면 석곡리 모곡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碭水李氏世譜, 李光李載潤氏 家譜〕

이 심(李愔)①

조선의 문신. 호는 竹峰. 본관은 전주. 요령태군과의 지평 입향조 정윤의 첫째 아들이다. 선조 갑자에 병사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사헌부집의에 이르렀다. (지평면)

《參考資料: 砥平縣校誌》

이 심(李深)②

청해이씨 입향조. 본관은 청해. 통문관 수찬 李愔翁의 아들이다. 성창지는 동북면 읍북동, 현 상대리 대곡부락이다. 미술품 불훈대부행 사복시 관관이다. (양평읍)

《參考資料: 西海李氏武侯公派世譜, 李愔臣氏 公傳》

이안성(李安性, 1554-1613)

조선조 문신. 자는 養伯. 본관은 여주. 1554년 5월 11일 을사 무술의 창남인데, 맥당 李栢의 아버지가 된다. 17세인 1570년 부친상을 당하여 3년 상을 마치고 진남 고부에서 시를 짓기로 아주한 후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했다. 46세인 1599년 갑戌도감 낭관이 되었고 1600년 군자감 주부를 거쳐, 1603년 1월 20일 상의원 별좌에 임명되어, 12월 26일 안기도 별방으로 전임한 후 조봉대부에 올라 1605년 모친 병환으로 사직하였다. 1613년 8월 12일 여주 대신면 보통리 농락에서 별세하였다.

성품이 충실스럽고 인성이 두터웠으며, 인척부터 가문의 규범을 이어받아 선을 즐기고 참된 지식의 명치를 생각하여 엄령된 행동을

한일이 없었다. 일에 임해서는 자상하고 민첩하여 능숙하게 처리하였고, 남과 교제 할 때는 귀권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은 정성으로 대함으로써 선비들의 환심을 샀다.

1629년 1월 5일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증직되었고, 다시 6월 자헌대부 이조판서에 증직되었고, 12월 27일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관의금부사에 추증되었다. 묘는 양동면 쌍하리 맥아곡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德水李氏世譜, 李光·李載潤氏 제공》

이 양(李亮, ? -1385)

연안이씨 입향조. 고려말 문신. 본관은 延安, 派系가 되는 肅의 증손이요, 연성부원군 李係孫의 둘째 아들이다. 중현대부 관전외감 정인데, 증직 호조판서다. 묘는 양평읍 신에리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延安李氏副使公派世譜, 李哲和氏 제공》

이양신(李亮信, 1801-1867)

조선조 문신. 자는 正雨, 본관은 德水이니, 1801년 이조참판 李魯元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849년 식년시 문과에 장권 급제한 후 1850년 헌납, 1851년 부수찬, 1857년 강령현감을 거쳐 호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867년 8월 18일 별세하니 향년 67세이다. 묘는 양동면 석곡리 석실부락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德水李氏世譜, 李光·李載潤氏 제공》

이양우(李良祐, 1346-1417)

여말 조조의 문신. 시호는 文獻, 본관은 순주, 환종대군 李元柱의 아들이며, 태조 이성계의 조카이다. 고려 말기에 사복시장으로 출사하였으며, 1402(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때 공을 세워 상사공신 2등으로 영안군에 봉해졌으며, 의정부 한성사가 되었다. 1408(태종 8년) 사문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태종 12년(1412) 원원부원군에 진봉된 후, 홍재가 대왕보국승목대부에 이르렀다. 있는 양서면 대길리에 있다. 묘소입구에 위치한 신도비는 순종 2년(1908) 7월에 건립된 것으로 비문은 이우면이 짓고, 윤용구가 글씨를 썼다. 묘와 신도비는 일평군 향토유적 제31호로 지정되었다. (양서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經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辭典》

이양흠(李養翕, 1809-1878)

한말 유학자. 자는 政鼎, 호는 惺齋, 본관은 전주, 李祐宗의 둘째 아들이다. 은거하여 농사지으며 뜻을 고상하게 두고 의로운 것을 행함에 세인이 추종하였다. 금계 이근원의 부친으로 묘갈은 중앙 길새북이 지었다. 묘소는 지세면 원산리 평장에 있다. (지평면)

《參考資料》 全州李氏全城君派世譜, 德範集》

이언복(李彦福)

전주이씨 임평조, 본관은 전주, 李寧人君 증손 西川君 李信의 4대 손이다.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에 난을 피하여 홍천군 남면 신대의

작작동에 정착하였다. 여기서 오남미녀를 길렀다. 아들이 仁松 仁松 起松 起成 起天 다섯인데, 그 중에 첫째 아들 仁松의 손자 통정대부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 守審이 지평 강동면 유곡리에 이주하여 새 거하고, 둘째 아들 仁松은 청운면 비룡리에 이주하여 정착하고, 셋째 아들 起松과 넷째 아들 起成은 단월면에 이거하고, 다섯째 아들 起天은 청운면 갈운리에 이거하여 후손이 새기하고 있다. (청운면)

《參考資料: 蘆平郡校誌》

이 여(李翕, 1645-1718)

조선후기 문신. 자는 治用, 호는 睡谷 睡村 補陰, 시호는 文敬, 본관은 덕수, 사정 李神夏의 아들로, 우암 송시열의 문인이다. 1680(숙종 6)년에 춘당대시문과에 4등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에 제수되었고 홍문관정자승지를 거쳐 1688(숙종 12)년 부세학이 되었다.

그러나 1689년 기사환국으로 송시열과 함께 면직되었다가 1694년 갑술옥사로 남인이 몰락하자 형조참관에 기용되었고 중궁복위교명문을 짓기도 하였다. 이후 사간원 대사간을 시차으로 숙종 27년(1701)에는 판의금부사로 재직시 옥사를 엄정하게 다스려 이름을 떨쳤다.

1703년 좌의정에 제수되었고 1710(숙종 36)년 영의정에 올랐으며 이후 판중추부사로 올랐다. 학식이 있었고 특히 문장에 뛰어났다. 묘는 양동면 개정리의 나지막한 구릉 상부에 西向하고 있는데, 정경 부인 풍천임씨와 합장됐다. 저서에 『睡谷集』이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韓國人名大事典,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靈敏大事典, 李光·李載潤氏 제공》

이연년(李延年, 1870-1944)

독립유공자. 호명은 李穆年, 호적 名은 穆年, 자는 敬文. 號는 松石, 본관은 淸海이다. 1874년 12월 9일 양평읍 대흥리에서 李承龍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895년 의병전쟁에 나섰다. 남한산성에서 부원어 순국하자 복수심에 불타 있었다. 그런데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자 부사과직을 사임하고 귀향하여 34세에 의병을 일으켰다. 지사는 읍문산을 근거로 학과 싸웠고 여주, 기평, 흥천, 황성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1908년 청운년 삼성리 전투중, 무상으로 해포되어 감옥에 구금되었다. 옥중 생활 8개월에 다시 완도의 고금도로 유배되었다. 여기서 지사는 한 사람을 만나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가서 재기를 꾀하려다가 다시 귀국하여 일제군 한계리에서 5년을 은거하며 후학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의병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주군 대신면으로 이주하여 대곡서당을 열고 후학을 양성했다. 형 시효가 지나서 귀천으로 가서 4년이 지난 다음에 대흥리 집으로 돌아왔다. 지사는 1944년 4월 1일 조국광복도 보지 못하고 생애를 마감하였다.

정부는 건국공로를 인정하여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양평읍)

《參考資料》 獨立運動史, 韓國獨立史, 楊平義兵運動史, 獨立運動功勳錄, 靑海李氏武厚公派世譜, 靑海楊平, 寒溪 李重臣翁 증언》

이에윤(李禮胤, 1568-1636)

부친. 자는 爾尹, 본관은 전주. 평해군 李禧의 첫째 아들이다. 원

전왜란 시에 선조가 피난할 적에 호종하였다. 그 둘째아들 직이 지재면 원산리 평장으로 낙향하여 세거하자 후손들이 지재면 원산리 평장에 충의묘를 짓고 영정을 모셨다. (지평면)

《參考資料: 全州李氏全城君派世譜》

이 오(李晤)①

무신. 본관은 전주. 윤계군의 셋째 아들이다. 행적 어모장군, 훈련원 첨정을 지냈으며, 증 통정대부 호조참의이다. 묘는 강상면 송학리 학곡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全州李氏景明君派世譜, 李根世氏 제공》

이 오(李紮)②

양성이씨 입향조. 자는 顔老, 본관은 양성이다. 동몽교관이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부친의 장지를 단월면 백동 동우리곡에 장례를 지내고, 무덤 아래 백동에 세거하여 왔다. 좌승지로 증직되었는데 그 아들 李翬의 공훈으로 추증된 것이다. (단월면)

《參考資料: 砥平郡校誌》

이용준(李容俊)

항일운동자. 이용준은 양평 갈산면 공룡리 출신이다. 그는 농업을 경영하면서 37세의 나이로 1919년 3월 24일 오후 2시경 갈산면 양근리에서 군중 4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갈산면 사

(楊平人物誌)

부소에 물러가 둔 사무실 내에 들어가 면장 김찬재와 면서기 서명일을 끌어내어 독립민세를 강요하고 불려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 잡혀 들어가 심형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양명읍)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5), 判決文,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이용채(李容彩)

침일부사, 압령출신으로 일명 유괴라고도 쓴다. 그는 의열투쟁은 독립운동자료집에 의하면 1905년 11월에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양여한 신조약이 이루어진 것을 일본의 침략행위로 보고 부당함을 불타고 공비하며 시병을 요구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일제의 침략전쟁과 국내 혁신들의 배국행위로 국권을 강탈당하는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현실판계가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었다.

1905년 11월 17일 이지훈·이근택·이완용·권중현이 마음대로 외교권을 넘겨버렸으니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격노하였다. 그는 신칙자를 복을 베고자 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수·김동필, 박대하·이홍래 등과 약속을 다짐하고 기사를 계획하였으나 일경에 발각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용채 외 3인은 피살하고, 세포된 황경모는 옥사하고, 미종희 외 2명은 사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나인영과 오기호 등 25명은 지도 및 진도에 5년-10년의 유배형을 당하였다.

(양명읍)

《參考資料: 獨立運動史(7), 獨立運動史資料集(11), 判決文,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이우분(李愚分, 1926-1953)

G25삼권 선봉공사, 1926년 6월 26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본분리

에서 벽전인 李永和의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보현 장기덕에게 수업하고, 1950년 24세에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가와 민족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나라의 부름을 받고 참전하다가, 강원도 인제지구 전투에서 전사 순국하였다.

서종면 노문리 벽계 마을회관 뒤에는 1991년에 세운 '韓國戰爭蘆門水入戰歿勇士追念碑'가 있다. 이 비는 벽계구곡에 위치한 노문리 수입리의 6.25전몰용사 이우분을 비롯한 이평진·구자열·윤병훈·강금식·노경복·최을용·이종래·백승욱·신수영·김용식·남상익·함수화·오교식·오교일 등 15인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개인이 사재를 들여 세운 것이다. (서종면)

【參考資料】蘆門水入戰歿勇士追念碑文, 碧珍李氏族譜, 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이우신(李友信, 1762-1822)

조선조 유학자. 자는 益之, 호는 文原, 睡山, 본관은 덕수, 1762년 사옹원 봉사 李魯一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나 관직에 뜻이 없어 旂招로 정연관, 서연관, 자의 등에 재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아 순조 임금은 서신으로 국정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저서로 『睡山遺稿』가 있다. 이 『睡山遺稿』는 1권에는 각체詩 161수, 歌行 8수, 疏 4편, 謔啓 6편, 書 36편이 편철되었고 2권에는 書 128편, 序 7편, 記 1편이 편철되었다. 3권에는 祭文 7편, 上樞文 1편, 雜著 14편, 墓地銘 3편, 墓表 1편, 행장 1편, 讀易小記가 편철되어 있고, 4권에는 강의잡록, 유고습유 등이 편철되어 있다.

이단상·김창흡의 학맥을 이은 김양행에게 수학하였고, 학문과 재주

가 뛰어나고 힘써 직조를 지켜 사림의 존경을 받았다. 기호학파의 기복인 이항로, 이재은 등은 수신의 문하생으로 알려져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韓國人名大事典, 德水李氏世譜, 李光·李載潤氏 家譜》

이원계(李元桂, ? - 1388)

부친, 시호는 龍平, 문관은 전주, 환조대왕(子春)의 1자로, 어머니는 한산이씨다. 태조고황제 1110년에는 의안대군 등 3형제의 유훈에 가 매우 두터웠다. 태조고황제와 함께 누차 흥건적과 왜구를 토벌, 뛰어난 공을 세웠다. 1359년(고려 공민왕 8)에 흥건적의 압록강을 건너와 노략질을 하자 이를 격파하여 2등공신이 되고 1361년 2차 침입 때 內府승으로서 安祐 등과 함께 博川에서 흥건적을 크게 무찌르고 다음 해에는 수도인 개경을 수복하는데 공을 세워 1363년에 또 2등공신에 책봉되었다.

1375년(고려 우왕 1) 元宗가 고려 국왕으로 임명한 肅王 보자가 반역자 金義의 무리를 거느리고 이미 신주에 도착하였다는 보고에 따라 국방경비를 강화할 때 동지밀직사로서 원수가 되어 서북방어의 임무를 담당하여 적도를 막아내었다. 1377년(고려 우왕 3) 왜구가 강화도에 침입하자 상원수인 崔世(1320-1397)와 함께 격파하였다.

1380년(고려 우왕 6) 3월 왜구가 또 다시 光州 화순능성을 침범하자 원수로서 나가 막아냈고 동년 8월 왜적이 배 500척을 진포에 매어 두고 양광(충청)-전라경상 3도의 연해에서 노략질하자 원계는 楊廣道순찰사가 되어 출전, 邊安烈과 함께 3도 도순찰사인 태조고황제를 도와 남원 운봉에 이르러 대승하였다. 유명한 이 왕신대첩에서 많은 포로와 말 1,600이 귀를 포획하고, 해야될 수 없이 많은 무기

를 노획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1388년(우왕 14) 고려가 요동을 정벌할 때 공은 조전원수로 출전하여 우군도봉사인 태조 고향제의 회군에 처음에는 고려의 충신으로서 반대하였으나 마침내 회군에 협조하게 되었다. 태조고황제 개국 후 회군 2등공신에 봉해졌다.

위화도회군 이후 태조 고향제 독립의 기운이 높아지자 공은 대대로 은혜를 입어온 고려왕조를 배반할 수도 없고, 한편 형제로서의 효우를 버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었다. 고려 충신이었던 원제는 충신불사이군의 신념을 지켜 태 아들에게 “너희는 나와 입맛이 다르니 숙부(태조고황제)를 도와서 충효를 다하여라.” 유언하고, 다음의 필명시를 남기고 1388년 10월 23일 음독 자결하였다.

이 나라 땅 안에 이 몸 둘 곳이 어대있고,
죽어 지하에서 태백중용을 만나 놓고 싶어라.
같은 처지에서 마름질[處身]함이 다르다 말 마오,
형만 땅에는 바다에 뱃배 띄운 일 없어라.

이 필명시는 1908년(순종 2) 18세 종손 원제가 진정하여 왕의 율령을 받아 무덤을 수축할 때 지석에 음각되어 있어서 재확인되었다. 처음에 陟山君에 봉해졌고 오랑캐 토벌과 왜구 토벌의赫赫한 전공으로 다시 추충절의보리공신 삼중대왕 완산군에 올랐다. 태조 고향제는 등극 후 完山伯으로 추봉하고 ‘襄平’이란 시호를 내렸다.

1872년(고종 9) 완풍대군 겸 영종정경으로 추증되고, 자손들은 4세봉군(四世封君) 겸 종정경 증직의 은전을 입게 되었다.

묘소는 함흥군 북주 동면 경흥리 귀주동 정릉 오른쪽 언덕에 있다. 묘비문과 신도비명은 순종 때 왕실지권이었던 完顯君 李載完이

관승하였다. 남북분단으로 요전에서 향사를 올릴 수 없어 1964년 양평군 청서면 대실리 농곡에 神廟(廟)을 설립하고 음력 10월 첫 일요일에 세일제를 봉행하고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太祖實錄, 全州李氏完豐大君派世譜, 白雲文化(5)》

이유록(李綏祿, 1564-1620)

조선중기의 문신. 자는 繼之, 호는 東阜. 본관은 진주, 청정 손희 嗣의 아들이다. 1585(선조 18)년 진사가 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승문원 첨자 등을 거쳐 1593년 병조좌랑이 되고, 외척으로 차산군수, 화산군수를 거쳐 내직으로 돌아와서 세자시강원 문학·홍문관 부수관을 지냈다.

1602년 서북면제찰사 미원익의 종사관으로 활약하여 전후 절서회 목에 공헌하였다. 1605(선조 38)년 대자시령, 봉례원상례를 거쳐 다시 외직으로 광주목사, 봉산군수, 상주목사 등을 역임하여 백성들의 구휼에 힘썼다.

광해군 때에 상의원상풍상시정·사헌부 상림을 역임하고 1617(광해군 9)년 안목대비 폐모론에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 후 사직하고 고향으로 은퇴하여 이원익, 정업 등과 교류했다. 뒤에 이주목사에 임명되고 탕상관의 품계에 올랐으나 명을 핑계로 취임하지 않았다. 열리정에 추증되었다.

신도비는 양근리 102번지에서 용문면 조원리 산48-13번지 묘소 입구로 옮겼다. 비문은 김삼헌이 짓고, 용문가가 썼으며 허목이 전하였다. 신도비는 양평군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어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이유제(李有濟, 1664-1705)

무신. 자는 汝集, 본관은 전주, 운계군의 둘째 아들 李晦의 아들이요 李暉의 제자이다. 1677년(숙종 3)에 태어나고 행질중장군 용양위부호군을 역임하고,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同知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이 증직되었다. 묘는 강상면 송학리에 있다. (강상면)

【參考資料】 全州李氏景明君派世譜, 李根世氏 제공



이윤경

(李潤慶, 1498-1562)

조선조 문신. 자는 重吉, 호는 崇德齋, 시호는 正獻, 본관은 광주, 수완 李于直의 아들이다. 1504년 아버지가 갑자사화에 연루되자 친 가족이 화를 입어 충북 괴산에 유배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난 후 서울에 올라와 1531년(중종 26) 진사가 되고, 1534년 식년문과에 명과로 급제, 예문관에 등용된 후 저작, 수찬, 교리를 거쳐 사간이 되었다. 이어 의주부윤을 거쳐, 1545년(명종 1) 대사간이 되어 현량과의 부설을 청했고, 대운을 제거하는 데 가담하여 위사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이듬해 섬주 목사가 되었으나 아들 李悅이 대운 윤임의 일파로 몰려 사사되자, 이로 인하여 1550년 관직이 삭탈되었다가 1553년 용서되어 승지를 지냈다. 이 해에 구수담(1500-1550)의 일파라는 무고로 문외출송 되었다가 다시 등용되어 형조참의에 보직되고, 1555년 전주

부유이 되고, 을묘왜변이 일어나자 영암의 수성장이 되어 왜구의 침입을 방어한 공으로 가선대부에 오르고 전라도 관찰사에 승진했다.

그 후 경기도 관찰사, 함경도관찰사, 도승지를 거쳐 1560년(명종 15)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이때 여진족이 자주 국경을 노략질하자, 국왕이 최척위사로 천시되어, 병중에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해 소인을 다하다가 궁안에서 병사했다. 저서로 『吳德齋遺稿』가 전한다.

(양석면)

《參考資料：明宗實錄、海東名臣錄、吳德齋遺稿、민족문화대백과사전、韓國人名大辭典》

이윤석 부인 金氏

연니: 칭해인 李胤錫(1796-1822)과 결혼하였는데, 남편은 생원, 진사가 되고 부사과가 되었으나 96세로 요절하였다. 김씨는 3년상을 마치고 자전하려다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다가 관청을 잠시 다녀온 후에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자전하였다. 유림들이 나라에 표창을 건의하였다. 묘는 양석면 증동리 고원에 있다. (양석면)

《參考資料：青海李氏世譜、李胤錫氏 諱言》

이은모(李殷模, 1745-1802)

조선조 문신, 자헌 子獻, 본관은 덕수, 통덕랑 李諤의 장남으로 1745년 출생하여 백부인 삭녕군수 李潤의 양자로 출계했다. 1778년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고 1775년 정시문과에 급제한 후 영언, 부수안, 헌납, 교리, 대사기 등을 거쳐 공조집관을 역임하였다. 1802년 8월 4일 별세하니 향년 58세이다. 묘는 양동면 잠산리 금곡이다.

(양동면)

《參考資料: 德水李氏世譜, 李光·李載潤氏 제공》

이익모(李翊模, 1747-1811)

조선조 문신. 자는汝幹, 본관은 덕수, 李濬의 아들로 1747년 출생하여 李濬의 양자로 출계했다. 1777년 생원이 되고 음보로 관직에 올라 광흥창 봉사 제직 중 1790년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1792년 홍문록과 도당록에 뽑혔다.

1796년 사헌부 집의로 사문사의 서장관이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후 홍문관 부수찬, 응교를 거쳐 1799년 예조, 이조참의, 승지 등을 지내고, 1800년 순조가 즉위하자 정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이어 이조참판, 홍문관 부제학을 지내고, 1803년 함경도관찰사로 나가 민가의 화재와 산불로 수천호가 불타자 이재민 구호에 힘썼다.

1805년 한성부 관윤, 우참찬, 홍문관 제학과 예조, 공조, 이조판서를 역임. 이듬해 대사헌이 되었으나, 앞서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시파를 공격하다 시사 당헌 무의정 김달순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고 광양에 유배되어 3년만인 1809년 풀려났다. 1811년 1월 14일 별세하니 향년 65세이다. 묘소는 양평읍 궁흥리에 있었는데, 무후하여 화장하였다. (양동면)

《參考資料: 德水李氏世譜, 李光·李載潤氏 제공》

이익주(李翊周, 1634-1704)

효자. 자는 文雨, 호는 間溪, 본관은 陽城, 李鑿의 셋째 아들이다. 1660년(현종1) 증광진사에 합격하고 1664년 태릉참봉이 되었으

(韓平人物誌)

이, 그 해 모친의 권업병을 간호하면서 손가락을 매어 바늘 입에 넣어 봉양했다. 돌아가신 후에 10년간을 관혼상제 등 불소 살탕을 하면서 부친에 효도를 다했다.

1675년 부친상을 당하여 3년 시묘를 마치고 1682년 제형으로 중부시주부, 형조좌랑, 공조성랑에 올랐다. 1688년 호조성랑이 된 후 기사한국으로 부문불공하다가 1694년 황제원사의 겸 차박훈도감랑참, 평시서랑을 거쳐 장례원 참칭에 오르고 안악군수로 부임하였다.

이 무렵 먼이온 대흥년으로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였는데, 한신적으로 구휼에 노력하나, 어사와 관할사가 최우수 목민관으로 뽑신하여 울경대부에 올라 보사종훈 1등에 녹훈되었다. 1698년 해주목사로 승진하여 율곡이이의 활약을 장훈하여 다시 크게 부활시켰으며, 부역을 경감하여 고을 풍속이 크게 달라져 해주 사람들이 시벽에 그 덕을 기리어 세졌다.

묘비문은 영의정 유상문이 짓고 영삼 유봉휘가 썼다. 묘는 단원면 덕수리 백동에 있고 영정가에는 영정을 봉안하고 있다. (단월면)

《參考資料》 韓國文化遺蹟總覽, 韓平郡校誌

이익진(李翼鎭, 1703-1779)

조선조 문신. 자는汝明, 호는 林嶺, 본관은 비추이다. 1703년 병마원세도위 수종의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여러 관직을 지휘 평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779년 7월 25일 별세하니 나이 77세이며 별세 후 이조판서를 증직 받았다. 묘는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德水李氏世譜, 李光 李載閔氏 家譜

이일선(李一善)

항일운동자. 양평출신으로 기독교 목사이다. 1936년 전후, 항일운동에 참여로 양주 봉안촌에 농민이상촌을 건설하는데 일익을 한 대표로 농촌산간개간을 시작으로 농민동맹운동 조직에 적극성을 띠고 농민과 교도들의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이상농촌 건설에 산간개간으로 마을을 이루고 새농민들을 모아 이상촌을 건설한다. 이 개간농업이 성공하면서 공동생활의 이상촌으로 성공하게 된다. 이 때는 일제침략하에 민족운동으로 봉안이상촌을 세우게 됐다.

이일선牧사는 몽양 여운형이 새로 설립한 광동학교를 다녔다. 그는 「참 살길 여기 있다」라는 책자에 보면, 일제말기에 용문산에서 결성했다는 농민동맹에는 여운형과 김용기가 함께 관여했다고 암시한다. 그는 「가나안으로 가는길」이란 저서에 농민동맹운동을 기록하고 있다.

1944년 10월 8일 용문산을 거점으로 한 독립운동의 분기지를 만들었다. 그는 농민대표 김용기와 10여명이 일제하에 징병, 징용에 걸린 자들을 도피시키고, 군사물자 수송차량을 폭파 또는 첩로파괴, 관공서 및 법원서류를 방화하고, 항씨개명에 항거하면서 봉안촌에 많은 애국청년들을 보호하고 일제의 패망과 새나라 건설을 토론하고 협의하는 등 독립운동에 적극참여 하였다. (양평면)

【參考資料: 독립운동사(10),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이 자(李蓄, 1652-1737)

조선조 문신, 자는仲培, 호는 守孤堂, 본관은 덕수, 1652년 6월 25일 문충공 李繼夏의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1689년 3월 30일 부

친이 별세하여 3년 곡을 마친 뒤 백지에 쓴 문헌 등을 세우고 권력하던 중, 1692년 칠천군 일개면 봉산리에 낙향하여 考堂永宅之所에 건물을 짓고 백당, 외제 두 아버지의 유고를 보관하고 당방을 수고당이라 하였고 『兩先集藏山記』와 『孤堂記』(장원도 유형문화재 88호)를 지었다.

1719년 공조과랑, 1725년 영휘전 령, 장악원 율정, 1726년 군자감 감, 1731 참지중추부사에 이르고 1734년 통정대부에 올라 공조감의 품 역임한 후 1757년 1월 21일 별세하니 수 76세이다. 묘는 양동면 금왕리에 있다. (양동면)

【參考資料】 德水李氏世譜, 李光氏, 李載潤氏 세공

이재복(李再福)

독립운동가. 지사는 지평군 남동면 남상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살았다. 1907년부터 1910년까지 4차례 일본수비대와 전투를 벌였다. 강원, 경기 등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7년형을 받고 장기간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다.

지사는 이경숙의 의전에 합류하여 각 지방으로 관야원 때에 형제는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2월 러시아와 전쟁도말 직후 곧 바로 우리정부를 압박하며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한일협약」에 강제로 고분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 을사늑약은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식민지화 정책을 가속화 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광부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 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여 우리 민족의 부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제군과 친일주구들을 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재복은 이와 같은 시기에 1908년 3월부터 7월까지 의진에 투신하여 맹렬한 활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지사는 일제군과 4차례의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1908년 9월 21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실형 7년을 선고받고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5년 건국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양동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1),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

이재의(李載義, 1877-1950)

유하자. 자는 聖力, 호는 樂山, 본관은 전주이니, 李晚應의 장남으로 1877년 춘천시 남면 하방곡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총속 이소응과 부친에게 한학을 수학하였다. 1895년 을미의병 때에 17세로 부친 만응을 따라 춘천의병에 참전하였다.

약사현 전투에서 패전 후에 부친 만응과 함께 여주군 금사면 주곡리로 이주하여 학문을 익혔다. 부친 만응은 다시 대신면 보통리로 이주하여 후학을 가르쳤다.

요산은 1944년 장손 해종이 왜군에 의해 강제징용 당해 만주로 싸우러 갈 때에는 해종을 생각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움을 못 견디어 다만 하늘에 빨리 죽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왜노의 행정이 갈수록 가혹하여 백성은 잔학한 벌을 받아 편안히 살 수 없다. 전쟁이 확전됨에 따라 징용이 실시되어 20대의 청년들이 모두 편안한 날이 없었다.

요산은 “살들러 가는 백성들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갔다. 이것이 철천지한이 되는데 어찌 일본이 망하지 않겠는가?”하며 한탄하였다. 1946년에는 중북 제천에 있는 자암영당에 참배하고 5현(朱子-朱卷-華西-言邸-較庵)에 대한 시를 각각 지었는데, 그 중 화서 이항로에 대하여는,

주자의 도학을 맑게 조승 했으니,
하늘이 천명을 우리 동쪽에 감응시켰으나
이단을 물리치고 중화로 돌아가는 상임한 별들은
천원이 밝명하지 못한 것을 밝명한 것이니 스스로 덕은 공이다.

라고 하였다. 이 시를 통해보면 요산은 화서가 주자의 학통을 계승한 동양의 대현임을 밝히고 이단과 사설, 중화와 異說을 엄격히 구분하여 밝힌 것을 덕천에 마치 않았다. 그러므로 요산의 학문은 조선조의 모든 선비들이 그러하였듯이 존화양이와 치사위정 사상에 독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은 민생습과 이장간, 백남한 등과 교류하기도 하였다. 요산은 개군면 향터리에 있고, 저서로는 『樂山遺稿』가 전한다. (개군면)

【參考資料】樂山遺稿, 白雲文化(17), 李海鍾氏 贈書】

이재준 부인 安氏

열녀. 선비 李載俊의 아내로 아버를 따라 양근읍에 살았다. 남편이 병을 앓아 위급한 상태에 이르자, 살리지 못할 것을 알고 스스로 목매었다가 시비 신금이 구하여서 살아났다.

그러나 마침내 남편이 죽지 한 번 뚱뚱하더니, 붓을 들어 시부모와 아버지께 드리는 글을 써서 2번 위에 놓고 재물을 갖고꾸 갖고

이르기를 “사후에라도 욕을 먹어서야 되느냐”하고 나머지 약간의 돈을 두 이란 자식에게 나누어주고, 다시 한 쪽의 글을 써서 벽에 붙였다. “내 비록 물에 빠져 죽더라도 건져내려 볼 것 없다. 공연히 수고만 할 뿐이다”고 하고서는 곁에서 쭈 하나를 내서 찧다.

신금이 그 까닭을 물으니 “내가 나를 못 죽게 하니 내 카이이 물에 뛰어 들려는 데 듣자니 물고기는 냄새를 싫어한다니 이것을 지너 어복에 장사지내지 않으려고 그런다” 하는 대답이라 신금의 말이 “정 그러시다면 저도 따라 가겠습니다.” 웃기를 말아 향을 켜 붙이고 맑이 되어 잠깐 조는 사이 안씨는 강가로 빠져나갔다.

신금이 올라 깨어 따라가면서 어디를 가시느냐고 소리치니, 안씨는 “웬 머리 말이냐!” 하면서 몸을 강에 던지니, 때에 큰비가 온 후라 흙탕물이 넘쳐흐르는 중이었다. 신금은 큰 소리로 “우리 상전이 죽었다”고 외쳐 마을 사람이 올라서 뛰쳐나오니 신금 역시 물에 뛰어 들었다.

군수 李丁蘭이 백성을 모아 머리 날을 찾아 건져서 신금은 떠올랐으나 안씨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하였다. 조정에 알리자, 정려분충 비문이 함께 내렸는데, 신금은 나이 20세였다고 한다. (양평면)

《參考資料: 南漢誌, 廣州郡誌, 廣州縣校誌》

이 적(李勳, 1162-1225)

고려의 부신. 본관은 瓜平이며 태장군 李俊善의 아들이다. 함문지후, 병부랑중을 거쳐 1216년(고종 3) 우군 병마관관으로 서북면에 침입한 거란군을 몽탄역에서 격퇴하고 경상도 안찰사가 되었다. 이듬해 거란의 재침이 있자 좌군병마부사로 출전, 광탄에서 대승하고 상서좌승에 임명되었다.

그 해 강동성에 거란족이 침입하자 동북면병마사가 되어 서울 무



받았다. 1219년(희종 6)에 우승선에 오르고 주밀원부사, 상서좌복사, 지주밀원사, 주밀원사, 역사대부 등 요직을 역임했다. 고려 사절요에 “공의 인품이 清廉剛功하고 平易溫柔하며, 평시에 아무런 담기가 없으나 격방을 치고 전지에 임하여서는 남들이 드러내지 못하는 용맹이 있다. 또한, 성품이 검소하여 품이 귀하게 되고 벼슬이 높아도 그 거처와 이복은 亂上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묘역은 지평면 지평리 매비산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양평군 향토유적 제22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평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楊平文化遺蹟總覽, 韓國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國史大事典, 韓國人名大事典》

이정자(李貞子)

효부. 李貞子는 전주 이씨로 시할아버지와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는데, 25세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죽고 홀로 시조부모를 봉양하였다. 시어머니 상을 당해서는 남편을 대신해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 삭방일에 제바람이 부나 춤기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성묘를 하며 살례를 다하였다.

그 후에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를 효성으로 모셨고, 두 분의 상례 때에도 시어머니 때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슬픔을 다하였으니, 그 기간이 7년이였다. 그러므로 마을의 노소남녀가 모두 칭송이 자자하였다. 이에 양동 유림들이 그 효행을 기리고 귀감을 삼고자 쌍학리

창촌에 효열가를 지었다.

양동유림을 중심으로 한 유도회에서 자체로 기금을 조성한 후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73년 10월에 준공하였다. 관학지방에 한하기와를 얻은 킷치마 목조건물로서, 정자 상단에는 효열각이란 현액이 걸려있다. 이 효열각은 양평군 향토유적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양동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楊平郡誌,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이정철(李廷哲, 1628-1705)

백진이씨 입향조. 본관은 백진, 가선대부 봉지중추부사 추분호의 아들로 분음에게 입양되었다. 벽계마을 화서 이항로의 고조부가 된다. 경기도 고양에서 서종면 명달리 소유족으로 이주함으로써 서종면의 입향조가 되었다. 묘소는 서종면 노문리 벽계마을 후산(蔚山)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韓珍李氏直長公派譜, 李惠直氏 譜言》

이정호(李挺豪)

영해이씨 입향조. 자는 英海, 초호 思心 후에 瞻瞻, 본관은 영해, 중효조창의 수(守)總의 첫째 아들이다. 만학은 어려서부터 법도를 엄격히 지키고 재주가 뛰어나 여러 선배들이 우러러보았다. 일찍이 성균관시에 오르고 1511년(중종 6) 분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을 거쳐 통훈대부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었다.

1519년 남곤심장 등이 기묘사화를 일으켜 신진개혁을 서두르던 정암 조상조(1482-1519)와 김안로를 제거하여 유배시켰다. 그러나 김

안로(1481-1537)는 1524년에 이조판서에 오르고, 그 아들 김희가 요해상주와 결혼한 뒤부터 권력남용이 잦아 영의정 남곤과 대사헌 이환 등의 탄핵으로 종덕에 유배되었다.

1527년 남곤이 죽고 그 일파가 실각되자, 정인 채부택과 처를 시켜 동궁(후에 인종)의 안정을 위해 김안로를 불러들여게 하여 등용시키려함에, 섭정하던 왕비 윤씨와 대사헌 심언광(1487-?)이 합세하여 조정대신들도 모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간 이언척이 불가함을 주장하다가 심언광의 탄핵을 받아 좌적되었다.

1530년(중종 25) 김안로가 돌아와 후의정에 오르고 권력을 장악하여 상왕필 이행 등을 귀양보내고 좌의정이 되자 마른말을 하는 조계옥 김극성 등을 귀양보내는 등 장악이 혼란에 빠졌다. 이때에 반각은 불의의 세력에 관하자 알고 김안로의 죄를 극진히 논의하였다. 그러자 김안로가 반각을 함경도 경성으로 유배시켰다. 그 후에 김안로가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마침내는 문성왕후의 배위를 도모하다가 사사되자, 9년 만에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후 반각은 정사에 뜻을 두지 않고 분한 마음으로 양평 황대리에서 집거하다가 별세하였다. 묘는 의정부시 신라동 비수봉 아래 묘좌에 있다. (양명음)

《參考資料：中宗實錄，青海李氏世德(上)，青海李氏武厚公誦世譜，青海楊平，李重臣墓 墓誌》



이제신

(李濟臣, 1536-1583)

조선 전기의 문신. 자는 濟臣, 호는 濟川, 본관은 전위. 명파의

도사李文誠의 아들이요 용문 조육의 문인이다. 1558년(명종 13) 사마시, 1564년(명종 19) 식년문과에乙科로 급제한 뒤 검열, 전직, 형조, 공조, 호조의 정랑, 감찰을 역임하였다.

사은사의 종사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예조정랑으로 춘추관기주관을 겸해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울산부사, 正言, 군기시첨정, 지평 등을 거쳐 1578년(선조 11) 전주목사로 특진되었다. 그 뒤 강계부사와 1582(선조 15)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시문에 능했고 글씨를 잘 써 석예로도 이름이 높았으며 저서에는 『清江集』이 있다. 1623년(선조 36)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선조 때에 청백리에도 특선되었다.

신도비는 서종면 외수입리 마을 어귀에 위치한다. 비문은 신홍이 지었다. 수입3리(내수입리) 506번지에는 청강의 재실이 있으며, 재실에서 북으로 약 200m 떨어진 산록에는 청강의 묘소가 있다. 신도비는 양평군 향토유적 제10호로 지정되었다. (서종면)

【參考資料】 全義李氏清江公子孫錄, 楊平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李天浩氏 제공】

이제현(李躋賢, 1734-1841)

효자. 자는 景純, 호는 醉菊, 본관은 양성이다. 1734년(영조 10) 3월 20일에 태어나고 1857년(철종 8) 2월 17일에 별세하였다. 1790년(정조 14)에 증광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효행과 덕의로 세상이 칭송하니, 1811년(헌종 7)에 정려하였다. 단월면 덕일리 백동에 정문이 있다. 저서에 『醉菊遺稿』가 있다. (단월면)

【參考資料】 砥平郡校誌】

이제후(李濟後, 1636- ?)

문신. 자는 協節, 본관은 연안. 송충암의 아들이다. 생원시에 합격하고 문보로 용남취령을 지내고 1681년(숙종 7) 보사원종 1등공신에 책봉되었다. 사후에 파승직에 추증되었다. 묘는 옥천면 옥천리 두곡에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延安李氏副使公派世譜, 李哲和氏 제공

이종남(李種南, 1723-1776)

무신. 본관은 한산. 1723년(경종 3)에 추서왕의 옥자로 태어나서 원충정군 행 용양위부호군이다. 묘는 청운면 가천리에 있다. (청운면)

《參考資料》 韓山李氏龜泉公派世譜, 李昌求氏 제공

이종순(李宗淳)

결수이씨 입향조. 여주 이포에서 세기하다가 남양홍씨 이천암 후손을 혼학하기 위하여 용문면 화선리로 이주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한 관계로 홍씨 골안에 수급후 이후 삼대를 장사지내는 통홍씨세와는 수백 년을 전하게 지내왔다는 것이다. (용문면)

《參考資料》 延平鄉校誌

이주영(李周永, 1888-1951)

학자. 자는 公伯, 호는 友石, 본관은 연안. 양근향교 직인 추림의 아들이다. 자량이 온화하고 후덕하며 문필이 뛰어났다. 조상 숭

배사상이 특별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가 망하자 통탄하고, 일제의 한국민족 말살정책으로 황씨개명을 강제하에 따르지 않고 왜정에 항거하였다.

사숙을 개선하여 후예를 교도하고 민족정신 고취와 함양에 노력하였다. 1945년 광복 후에는 기술을 보급하고 어려운 백성들 구제에 힘썼다. 1950년 6.25전란시에는 음으로 민생의 안위를 도모하였다. 세인이 감탄하여 그 공로를 칭송하고 숭덕지사라 불렀다. 묘는 옥현면 아신리 두곡에 있다. (옥현면)

《參考資料: 延安李氏副使公派世譜, 李哲和氏 증언》



이 준(李埈, 1812-1853)

성리학자. 자는 伯欽, 호는 槐園, 본관은 華西 李恒老의 첫째 아들이다. 괴원은 1812년 10월 16일 양근 벽계에서 화서의 장자로 태어났다. 1835년 24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는데, 이후로 다시는 과거에 응하지 않고 한결같이 가정의 가르침을 받들어 가업을 전하는 것으로써 일을 삼았다.

부친 화서를 모시고 性道의 근원과 원하의 사리를 논하고 여쭙고 하였는데 왕왕 화서가 인정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견해를 버리고 따르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화서가 그 문하생 중에 능히 따를 만한 자가 없었던 일로써 '父子間知己'라고 일컬어졌다.

괴원은 그 학문의 대개로 말하자면, 한결같이 화서의 뜻에 따라 『小學』과 『家範』을 근본으로 삼고 『대학』 『논어』 『맹자』 『중용』으로써

주장을 삼은 다음 경서와 시기에도 차근차근 순서가 있어 흥미한 말
음과 심오한 뜻을 관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특히 서(書)를 좋아
하였는 바, 『주자대전』 주자서류 등의 책에 있어 글자의 뜻을 구하
고 구획의 뜻을 캐서 텅금언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화서가 일찍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퇴계 우암 이하의 여러 선
현들이 주자서를 전공하여 道義를 闡發하고 해석한 것이 매우 많은
바 늘 이것들을 수습하여 중본의 가치를 보고자 하니, 다만 그 글들
이 책이 이미 많은데다가 山積에 흠어져 있어 수습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피원이 그 뜻을 이루고자 힘을 다해 찾아 나, 5년 동안 30여
가의 주석을 취합하였다. 주자대전의 문장 순서에 따라 편을 나누어
책을 만들었는데 모두 70권으로 이것이 이른 바 『朱子大全補疑輯補』
이다. 또 『朱子大全樹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朱子大全補疑輯補』
에서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빼고 그 동이(同異)를 참고하
여 화서에게 결핍한 내용들로 그 중에는 스스로 특색한 의논도 많이
있어 왕왕 선배들이 밝히지 못한 곳을 발명한 곳이 있다.

또 부친 화서의 뜻을 따라 『元朝重刊音編綱目』을 편집하고자 동
문들과 함께 명제를 강구하기로 하였으나, 미처 원고는 풀이지 못하고
고 세상을 떠났다.

피원은 아버지 섭김에 효심이 지극하였다. 거처하는 바루에 떡을
끓여 두 개씩 떡장을 만들고 한 곳에는 “必有必讀” 이라고 써 붙였는
데, 이는 공자책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고 한 곳에는 “和而後食” 라
고 써 붙였는데 이것은 약물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함하
이 『禮藏』이라고 관액하였는데, 이는 ‘古人 日禮以 公儀’의 뜻
을 취한 것이었다.

괴원은 부모 공양하는 일체를 힘을 다해 갖추지 않음이 없었으며 출납하고 올리고 내리는 일을 반드시 몸소 하여 남을 시킨 적이 없었다.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일을 몸소 조치하여 흠잡이에 일정한 법도가 있었다.

누이동생이 여절을 알은 적이 있는데, 적절 태리고 나가 밖에서 우기하면서 몸소 간호하였는데, 역시 한 번도 전염된 적이 없었다. 친구들에게도 정의가 돈독하여 死生과 절발에 힘을 다해 구원하였으며 재물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일용 기구들까지 손닿을 대로 내다 팔아서 정의를 펴기도 하였다.

1853년 중국에 일이 있어 내외가 소란스러워 오랑캐 군대가 우리나라로 넘어올까 근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오늘날 급급한 근심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으니, 밖을 밖을 생각만 하고 내수의 방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선후의 차례를 잃은 것이다. 이른바 내수는 인심을 얻고 백성의 생활을 편히 해 주는 것일 뿐인데, 파격의 폐단을 혁파하고 벼슬길을 깨끗이 하고 탐관오리를 제거하는 세 가지가 인심을 얻는 요체이며, 환곡의 폐단을 청리하고 균정을 바르게 하고 선제를 균등히 하는 세 가지가 백성의 생활을 편히 하는 요체이다. 인심이 귀의하고 백성의 생활이 견고해지면 국가의 근본이 서서 외적의 근심할 것이 못된다. 이것이 비록 오황한 듯하지만 7년 병에 3년 폭은 속을 구하지 않고서는 끝내 회생할 날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버리고 어찌 다른 침경이나 신묘한 방법이 있겠는가” 하였다.

또 난리를 피하여 목숨을 도모하라는 자가 있었는데, 웃으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온 나라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혼자 살 계획만 하는가! 바둑을 두는 자가 천체가 다 죽었는데

한 킷만 사는 것을 보았는가!” 하였다. 괴원은 특히 산수에 능하였다. 세상에서 能吏로 칭해지던 자가 괴원과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바로 탄복하고 말하기를, ‘林下에서 독서하는 선비로서 군국의 기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공에게서 보았다’고 하였다 한다.

괴원은 평소에는 남의 과오를 말한 적이 없으나 談論을 변론하는 즈음에서는 반드시 인륜을 끝까지 다하여 관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왕왕 남의 비방을 받기도 하였으나, 후회하지 않았다. 1850년 여흥 열림에 들어갔다가, 두각을 두루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현관에 걸려 있는 시를 읽다가 단종 때의 일을 예기한 태복에 이르러서는 눈물이 흘러 얼굴을 적시고 뺨을 잊지 못하였다. 역사나 전기책을 읽다가도 옛 사람이 절개를 지키 의리에 죽은 대복을 만나면 반드시 그리하였다.

괴원은 6월 중에도 꽃꽂이 앉아 『宋書柳詒』를 초안하였는데 파리 내가리 만한 작은 글자를 날마다 수십 판씩 쓰곤 하였다. 이를 본 상재 유종고가 더위에 병들지도 않는다고 묻자 “정력이 이르는 곳에 피기가 능히 참변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글씨를 보통 여느 필필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두 공경하고 조심하였는데, 아무리 큰 책을 베끼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판으로 찍어 낸 듯 하였다. 문량은 처음에는 아름다운 문체에 뜻을 두었으나 나중에는 朱子와 朱子の 문장에서 힘을 얻어 1角을 없애고 문체를 가렸다.

1852년 화서의 명을 받들어 흥원 삼포에 작은 농장을 경영하고 온 집안이 다 이주하여, 정선법을 삼구하고 향운례를 시행하여 강학병 농하고자 하였다. 괴원은 이듬해 3월 성묘하러 가다가 흥원 갈길산에서 말이 허둥대어 떨어져 다졌는데, 29일 객관에서 허세하였다.

저서로는 『槐園集』과 『朱子年譜拾遺』, 『海東遺韻錄』, 『飲禮考說』, 『吾禮備要』, 『律呂解』, 『雜說錄』 등이 있다. 괴원의 行狀은 민안 최익

현이 짓고, 유사는 상재 유중교가 지었다. 묘는 서종면 도분리 백계 후산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華西集, 槐園集, 槐園手錄, 槐園日史, 朱子大全前疑輯補, 續修李氏族譜》

이준경(李浚慶, 1499-1472)

조선조 문신. 자는 原書, 호는 東華, 南堂, 紅蓮居士, 청백리로 시호는 忠正, 본관은 廣州. 홍문관수찬 李守貞의 아들로 한성에서 태어났다. 모친 평산신씨에게서 『소학』 『효경』 『대학』을 배우는 한편, 외조부인 신승연과 황효헌에게서 학업을 담고, 이연경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을 배웠다.

1504년 6세의 나이로 충청도 괴산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났다. 1522년(중종 17) 생원, 1531년(중종 26) 식년문과에 올라로 급제한 뒤, 1533년 홍문관 부수찬 사경으로서 기묘사화 때 피죄인의 무죄를 논했다가 김안노의 미움을 사서 한때 파직되기도 하였다.

1537년 김안노 일파가 제거된 뒤에 다시 등용되어 세자시강원 원선·사헌부 장령·홍문관교리 등을 거쳐 1541년 홍문관 직제학, 무제학으로 승진되고 승정원승지를 지냈다. 1543년(중종 38) 문신정사에 장원, 한성부우윤, 대사성을 지냈다. 중종이 승하하자 고부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형조참판이 되었다.

1545년에 평안도관찰사, 1548년에 다시 내직으로 옮겨서 병조판서, 한성부 관윤,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병조판서 때에 이기(1476-1552)의 뇌물청탁 관직부탁을 거절, 율임 일파로 몰려 보은에 유배되었다. 1553년 함경도 지방에 아인들이 침입하자 함경도순변사가 되어 이를 조유하여 물러가게 하고, 이어 대사헌 병조판서를 지내고 형조판서

가 되었다.

1533년(명종 10) 진바사 두문찰사로 호남지방에 침입한 왜구를 저퇴한 뒤 우찬성,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535년(명종 20) 영의정에 올랐다. 1567년 명종이 순하하자 하실군 釣을 왕으로 세우고 院相으로서 국정을 보좌하였다. 이 때에 기묘사화 때에 죄를 받은 조광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노수산·유희준 등을 석방하여 등용하고 신진 사류로부터 공각을 받았다.

1571년(선조 8)영의정을 사임하고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위풍 때 갈자 분당이 있을 것이라는 유서를 올려 이미 유실물 등의 규탄을 받았으나, 뒤에 동·서 분당이 일어나 그의 예언이 적중되었다. 저서에 『東華遺稿』, 『朝鮮風俗』 등이 있다. 선조 묘정에 배향되고 구계서원 등에 제향하고 있다. 묘는 양서면 부용리의 야산에 있는데 경기도지방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되어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민족문화대백과사전, 柳德齋遺稿, 楊平文化遺蹟總覽, 韓國人名大事典,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이중열(李中悅, 1518-1547)

조선초 문신. 자는 仲和, 호는 果齋, 본관은 강주, 명초 판서 李 潤慶의 아들이다. 1530년(중종 24)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이조 정랑에 이르렀다. 1545년(명종 즉위) 을사사화에 연루된 어위를 변호하다가 파직되어 이듬해 갑산에 유배되고, 1547년 사사되었다. 학문이 뛰어나 이황에게 크게 촉망을 받았고, 유희준·노수산 등 학자와 교유가 깊었다. 선조 때 찬원되었다. 편저에 『乙巳傳聞錄』이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明宗實錄, 宣祖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이중하(李重夏, 1846-1917)

조선조 문신. 자는 厚脣, 호는 上堂, 珥齋. 본관은 전주, 원각 李寅植의 아들이다. 1873년(고종 10) 진사가 되고, 1882년(고종 10)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1885년 안변부사로서 上們勸界使가 되어 청나라 차관 豐元柱와 백두산 정계비를 답사, 국경분쟁의 해소에 노력했으나 양국의 견해차이로 실패했다.

그 후 덕원부사를 거쳐 1890년 참의교섭통상사무가 되고, 1892년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1894년 협관교섭통상사무를 거쳐 공조참의에 전직. 이 해 갑오경장으로 제1차 김홍집 내각에 입각하여 내무협관이 되었다.

이듬해 지방제도 개편 때 대구부 관찰사가 되고 이어 평안도 관찰사, 궁내부 좌진관, 규장각 세학을 역임. 한일합방 후에는 이재규이 하영이근살과 存壽會社를 세웠다. 저서에 『上堂文集』, 『勸界雜記』, 『勸界日記』 등이 있다. (양명음)

〔參考資料〕 日省錄, 承政院日記, 朝鮮圖書解題, 陰晴史, 韓國人名大事典,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이 증(李增, 1556-1593)

임진왜란 순절. 본관은 전주, 부호군 李夢祥의 아들로 1592년 6월 선조대왕이 의주로 몽진할 때에 의병을 일으키라는 격문이 전국에 선포되었다. 이를 접한 증은 분안히 일어나 江浦小郡인 양평 땅에서 다수의 의사를 모집하여 무기와 군량 등 행장을 꾸려 평양성 부근까지 토벌에 나섰다.

여기서 각 지역에서 모인 의승군과 합세하여 선조 26년 평양성

탈환 작전에 참가하였다. 이증은 여기서 37세로 전사하여 의관으로 양평을 신애리 단지동 천영하에 장사지냈다. 초상에서는 잘사람을 추증하였다. (양평읍)

《參考資料: 全州李氏克豐大君流譜, 李貞斐 贈언》

이지성(李之星, 1633-1712)

함평이씨 입향조. 자는 子文, 호는 白川堂, 본관은 함평, 충청도 권관사 구위 李存心의 손자요, 난개 李楚高의 아들이다. 1633년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白川에서 출생하여 생원과 진사가 되고, 군수를 지냈으며 서종헌 도장리로 이기하여 살았다. 비슬이 가선대부 등 지증추부사에 이르렀다.

저서에 시집이 있으나 분실되었다. 조부의 저서 『九龍集』은 문집이라기보다 시집이나, 마로 비주어 백월당의 시 손씨도 짐작할 만하다. 백월당을 도장리의 개적자라고 본다면 백월당의 4촌 형인 개촌 이지익(1625-1694)의 왕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지익은 3도 백을 역임했고 기르소에 들어갔으며 자헌대부 예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이다. 명지도 많은 북한강 건너 금남리에서 이듬해 도장리 사촌 동생집에 행차가 있었다면 마땅히 도장리는 '白川所'라고 불렀을 것 같다. 그리고 도장리를 '국노수'라 하거나 후산을 '蓮花所'이라 하는 것은 380년전 도장리에 자리잡고 80세를 살았던 함평이씨 백월당 이지성과 부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白川堂遺稿』가 발견되면 밝혀질 것이며, 그 유고야말로 도장리 향토사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백월당 묘소는 도장리 국노수 연화봉에 임좌에 있다. (석종면)

《參考資料: 咸平李氏族譜, 李聖範·朴完培 제공》

이지현(李趾賢, 1723-1753)

효자. 자는 景美, 호는 菊隱인데, 본관은 양성이다. 1723년(경종 3)에 태어나서 1753년(영조 29) 11월 18일 별세하였다. 효행으로 1849년(현종 15)에 정려하였다. 단월면 덕일리 백동에 정려분이 있다. 수가 91세로 『菊隱遺稿』 2권이 있다. (단월면)

《參考資料: 砥平鄕校誌, 楊平郡誌》



이 직(李楫, 1597-1659)

전주이씨 입향조. 본관은 전주로 소덕대부 영산군 李禮胤의 차남으로 지계면 입향조이다. 세거지인 양주군 미금면에서 양평군 지계면 월산리 금의로 이주하여

입향조가 되었다. 관직은 선교랑으로 63세에 타계하니, 지계면 월산리 취암 아래 심곡에 장사지냈다. (지평면)

《參考資料: 全州李氏全城君派世譜》

이진규(李盡珪, 1899- ?)

항일독립운동자. 양평출신으로 경성부 송의동 123번지에 거주하였다. 직업은 연희전문학교 서기로 재직하던 예수교도이다. 약관 20세의 나이로 1919년 3월 24일 양평읍 소재지 만세시위는 당시 연희전문학교 서기 이진규가 독립선언서와 '대한독립단' 명의로 된 격문 10여 장을 가지고 양근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책문의 내용은 “지금 일제의 각 경찰서는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악익자나 괴물로 같이 취급하고 있다. 태황제폐하는 암살당하였다. 2천만 동포는 다리 없고 인금 없는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10년간의 능욕을 당하고 나라 없는 노예가 되었다. 이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대한독립만세를 불러 흥, 갈 아래 죽는 것이 낫다. 독립의 시기는 왔다. 이 시기는 놓치면 다시 오기 어렵다. 모두 일어나 민족자결을 위하여 독립기를 높이 들고 항쟁을 받고 있는 형제자매를 구하고 적적배를 차단하여 우리 심안을 상쾌하게 하자! 흥포의, 이 시기를 잃지 말고 독립기를 휘날리며 일어나 독립을 달성하자! 대한독립만세!” 이진규는 격문을 뿌리며 격려하였다. 이날은 양군을 장난로 사람이 많이 보였다. 이진규는 거리의 1천여 명 군중들에게 “조선민족이 이 기회에 일본의 羈絆에서 벗어나 독립하지 못하면 큰일이다” 하는 요지의 연설과 동시에 독립선언서와 격문을 주어 독립만세를 불렀다.

1천여 군중들도 호응하여 만세를 부르며 기세를 올렸다. 계속해서 시위행진을 하며 시장을 일주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창호·김경성·서삼석·김석봉·한봉철 등 양군 사람들이 동조하여 함께 시위만세를 전개하였다. 이진규는 일경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2년형 선고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양명읍)

《參考資料: 獨立運動史(2),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 判決文,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이징명(李徵明, 1648-1699)

조선조의 문신, 자는 伯祥, 본관은 정의, 황해도 편암사 李萬維의 아들이며 송시열의 문인이다. 1673년(현종 14) 설문관에 임명, 1684

년(숙종 10) 정시문과에 內科로 급제. 예조와 명조의 좌랑, 삼사의 비서를 역임했다. 1686년 부교리로서 최빈 장씨의 어머니가 궁중에 무단 출입함에 적극적으로 그 주방을 상소하고 과직당하였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에 남해로 유배되었다.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로 풀려나와 이조 좌랑이 되고 예조와 이조의 관의, 우부승지를 거쳐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신정을 베풀었다. 이어 관찰사, 대사간을 역임하고, 1699년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 (서종면)

〔參考資料〕 肅宗實錄, 國朝人物考, 全義李氏清江公子孫錄, 韓國人名大事典

이징하(李徵夏, 1655-1727)

조선조 분신. 자는 주배, 본관은 천의, 萬雄의 아들, 李徵明의 아우이다. 음척으로 비슬길에 나아가 내척으로 내시교관을 거쳐 장악원 주부, 의금부 도사, 평사서령, 익위사 위수, 사복시 관관, 선례청 낭청을 거쳐 장악원 취정을 역임했다.

외직으로 황주 관관, 봉훈대부 공주 목사, 연안 부사, 밀양부사를 역임하였다. 1713년 선례청 낭청에서 회양부사로 재수되고, 1715년 청주목사에 부임하여 진흙을 잘하여 포상문을 받았다.

1718년 무주부사, 1720년 황주목사로 부임하여 진흙을 잘하여 황주진명마찰절제사를 겸하게 되었다. 이어 돈녕부 도감, 동지돈녕부사, 자헌대부에 올랐다.

글씨를 잘 썼는데, 남양주의 이세연 묘갈명, 양평의 이만웅 신도비와 용문 조옥 묘갈명, 건봉사목양대사기적비명, 전 등이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朝鮮王朝實錄, 龍門集, 全義李氏清江公子孫錄, 李萬雄神道碑, NAVER-블로그, 李天浩氏 제공

이 청(李清)

미말 무신. 일명 李乙年. 호는 默軒 默淵요 본관은 연안으로 별장 동정 守家들이나, 연안이씨 4파 중의 하나인 부사공파 1세조인데, 시조 신라 연안후 공의 후손이다.

묵한은 한성이 端正하고 沈黙한데다 직사가 시용간이 많아 報告하고 결행하는 데에 사복달이 없었다. 그러므로 조야가 칭선하고 감히 비의로 대하는 자가 없었다. 23세손 강화가 지은 선도비명에

집을 觀湖에서 일으키니, 그 家道 일원히 贊成하리
天相이 유충은 신처럼 높고 불처럼 살이 흐르세
●●●와 同榜으로 사직을 들고 언 및 드리우셨네
경탄스런 조칙은 海濱가 감복할데
端正하고 沈黙한 賢人. 직사 또한 명망하셨네
오직 精一하고 오직 和順함은 천생의 弘德이라
邪曲을 물리치고 忠貞을 나추며 신하의 직분 다하셨네
험함으로 말인 山河인들 그 遺方 가릴 수 없네
좋은 비석에 諸君 새겨니 군자의 忠誠이네.

1300년(공민왕 9)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嶽南光祿人正, 김교장군, 좌우위 보승, 장군, 봉제문 副使를 역임하였다. 묘는 옥천면 新陵里에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延安李氏副使公派世譜, 李哲和氏 재공

이춘명(李春明, 1864- ?)(1)

부림유공자. 이춘명은 양평군 문암리에서 거주했다. 그는 흥생지

가 망구로 나타난다. 33세 때 1907년 9월 의선에 참가하고 김준수 밑에서 활동하다가 경성헌병 양근분소에 자수한 일이 있으나, 1908년 12월 4일 신원영과 재야활동으로 이원보·고정복과 함께 암약하던 중 체포되어 징역 5년에 처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양평읍)

《參考資料》判決文, 楊平義兵運動史,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이춘명(李春明)②

조선의 효자. 이춘명은 조선 고종 때 갈우리 출신의 효자로 효령대군의 17대손. 이후혜의 3남이다. 전언에 의하면 부친의 병환 중에 시약을 받들고 쟁과 잉어를 잡아 시중을 들었다. 손가락 피를 7차례 드려 생명을 연장시켰다고 한다. 이후 부친이 별세하자 8년간 시묘살이를 하는 등 부모에 대한 효행이 나라에 알려져 고종 29년(1892) 예조에서는 그에게 효자정문을 내려 표창하는 한편 '증 동몽교관조봉대부'의 직첩을 하사하였다.

효자정문이 위치한 곳은 철운면 갈우리 속칭 양지말의 산록이다. 현재의 정려는 근년에 보수한 것으로 정면 1칸(2.4m), 측면 1칸(2.43m)의 규모이다. 정문에는 '효자정어각'이라는 현액과 그 안에는 "효자 증 동몽교관조봉대부 이춘명지문각 상지증위 십팔년 명정"이라는 현판이 걸려져 있다. 이 효자정문은 양평군 향토유적 제 14호로 지정되어있다. (철운면)

《參考資料》楊平文化遺蹟總覽, 韓國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이춘영(李春永, 1869-1896)

동립유공자, 의병장, 육의사. 자는 友, 호는 楓隱, 본관은 덕수인데, 지평에 세거하였다. 물미의병의 大義(大義) 중 한 사람이다. 1869년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서 李成和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부친을 이어고 가사를 돌보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였다.

어은은 성품과 기질이 빼어나고 얼굴은 환옥이요 소리는 우뢰와 같고 눈썹에는 눈빛이 서리고 눈은 새벽 같으며 기개가 우뚝하여 사물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고 성인의 큰 뜻을 즐기 들으며 광달하여 포용심이 있고 검박아서 덕을 이룬 군자와 같으니 보는 사람은 모두 장래에 크게 쓰임 인물로 기네하였다.

또 성품이 감개한 고로 큰 절개가 있고 도량이 넓어 계획하기를 좋아하며 비근 말을 잘 받아들이고 담기와 용맹이 복출하였다. 병자조약 이후로 나라의 변괴가 갈가지로 나타나더니 내적과 왜적의 부리가 야합하여 국모를 시해하고 횡포와 악독을 일삼아 예의도덕이 무너지고 국가가 멸망할 즈음에 이르렀다.

충신과 역적 사람과 짐승의 구별을 아는 어은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국적이 이와 같은데도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낸 남자의 뜻이 있다 하겠는가” 하며 구국의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병서와 경제서적에 유의하며 덧없이 난리를 풀리지고 바쁜 대로 돌아오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 밥을 많이 먹어 능히 한말 밥을 먹었다고 하며 용기도 대단하였다.

왕성하여 의위 유인석 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자기 몸을 탐고 남을 다스리는 도를 듣게 되자 한가한 지역에 숨어살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학지를 지느리며 가난을 잊어버리고 글을 읽어서 스스로 龍淵(龍淵)의 효도와 자애가 있었다.

여기서 중군장 이괴은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워 크게 이겼는데, 적병의 시체만도 5060이 되었다. 적이 멀리 달아났으므로 할당 군사들을 집합하였는데, 그 중 두 군사가 있어 추적하던 발길을 멈추지 않고 4050명의 적군을 추적하는 등 기세가 고조되었다.

서과 응수하던 중군장은 권총이 비둘라지며 나가자 양자 뒤에 있는 홍신표에게 주면서 “이거 보시오, 쉼일인지 모르겠오” 하였는데, 이때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이정규는 시령 이괴은 곁으로 가서 조상하였는데, 그 감회를

“아! ‘공은 천하 만고의 대인이라’ 이를 만하다. 한 나라의 난을 담당하는 자는 한 나라의 대인이고, 천하의 대인이고, 한 세상의 난을 담당하는 자는 한 세상의 대인이고, 만고(萬古)의 난을 담당하는 자는 만고의 대인이니, 오늘날의 난을 시험해 보면 천하 만고에 다시 또 있는 일이라. ‘공은 능히 천하 만고의 난을 담당하였다.’는 내말이 어찌 한갓 말일 따름이겠는가”라고 기록하였다. 장암 이규원은 ‘六義士傳文’에서 “항배를 움켜 잡고 정하며, 후덥을 높이고 이적을 불리치는 재회를 세워 지산에서 기의하여 충주에서 순원하니 충성은 해와 달을 꿰뚫고 신의는 돼지와 삼고기에까지 미쳤다.”라고 하였고, 괴은 이준영에 대한 평가는 옥산 이정규와 장암 이규원의 기록에서 진실로 모두 드러났다. 묘는 양명군 향토유적 제18호로 지정되었다. (양동면)

【參考資料】獨立有功者功勳錄(1), 韓國獨立運動史(文), 從義錄, 六義士列傳, 安公下少乙未忠義事, 昭義新編, 楊平義兵運動史, 文化遺跡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華西學派의 斥邪思想 研究】

이충형(李忠亨)

성혜이씨 입양조. 본관은 칠해. 추후손의 장남이다. 양주군 고령

이라는 곳에서 양서면 증동리 고헌부락으로 이거하였다. 성균 생원과 진사가 되고 수직으로 품계가 통정대부에 올랐다. 13대가 세기하고 있다. 자손이 양평 여주 이천 등지에 산기하며 관내에 약 30세대가 살고 있다. 증동리 이주호씨의 12대조가 된다. 별세하자 광주군 퇴촌면에 안장하였다. (양서면)

《參考資料》 靑海李氏世譜, 李周鎰氏 譜冊

이 침(李忱, 1489-1526)

정명군. 자는 誠之, 시호는 貞敏, 본관은 전주이다. 실종대왕의 딸세 아들인데, 모친은 숙의 남양공씨 증추부시 종일동의 딸이다. 정명군은 단아하고 겸소한 성품에 학문이 뛰어나 명망이 높았다. 1493년(연산군 3)에는 정명군 봉호를 받았고, 중종대왕의 지우를 받아 1506년(중종 1)에는 정국원중훈에 책봉되고 종친부 종부사 사육원의 도체조를 맡고 문소전을 관장하였다.

1526년(중종 21)에 타계하니 의정부시 신곡동 묘자봉 서쪽 간좌에 안장했다. 1871년(고종 8)에 '貞敏'의 시호를 받았다. 정렬결백하여 자기 자신을 지켰다고 해서 '貞'자를 쓰고 옛 성현의 가르침을 좋아하여 배우는데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敏'자를 썼다.

행초창의 김영이 지은 묘표에는 "타고난 기품이 명특 영민하고 단정 중후하며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고, 품류와 여자, 기호와 욕구에 담담하시어 여러 왕자들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강상면 송학3리 정민사에 봉안하고 있다. 정명군의 증손자 훈계군(大龍)이 전주이씨 강상면 입향조가 된다. (강상면)

《參考資料》 全州李氏景明君派世譜, 貞敏, 후손 李根世氏 제공

이 탁(李鐸, 1898-1967)

독립유공자. 호는 東岳, 본관은 경주, 손/孫의 셋째 아들이다. 1898년 6월 2일 황분면 연수리에서 출생하였다. 군방에서 한문을 수학하다 1916년 19세 때에 상경하여 경신학교 고등 보통과에서 두 학기를 마치고 도중에 내려왔다.

이탁은 1919년 3월에 만주로 망명하여 화서문인 박장호를 도총제로 하고 유인석 문인 조병선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독립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같은 해 9월에 江納縣(江界)에 거주하는 공자교회의 유력자 김승과 김조하에 보창단을 조직하고 그 취지문을 함하 헌성 서명에 배포하여 단원을 모집하였다. 한편, 무산·진도지방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였다.

1920년대에는 북로군정서에 가입하여 사관연성소 학부반장에 임명되었으며, 칠산리 독립전쟁에 참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1921년 9월에는 길림에서 교성대를 만성하게 되자 대장에 나중소, 부관에 최준형, 중대장 이범석, 그리고 소대장에는 이탁이인하금훈남의 등이 임명되어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1923년에는 길림성 기주 교보들의 교육기관인 樺林流塾에서 교사를 지냈으며, 1924년에는 체포되어 철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1926년 12월 15일 가중옥하였다.

그런데 그가 활동한 독립단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광복군 사령부 참모장으로 상해, 북경 등지에서 편약 중 1928년 상리에서 병사한다. 그가 만주에서 활동하면서 3월 하순 洪南杓과 1919년 9월부터 1920년 6월까지 활동한 것이 재판기록에 보인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의 소식이 전해지자 만주방면에서는 8월 13일 서간도와 북간도의 동포들이 봉기하여 국내독립운동과 호응하

이 약 1백회의 시위운동이 벌어졌다. 이때에 노령방편은 한족회, 중앙총회를 중심으로 대한국민회의가 이루어지고, 노령·북만주와 연결되고 항일독립운동이 전개되면서 의군부까지 조직하고 많은 인사들이 지역마다 독립군을 편성하였다.

국민회독립군과 군무도독부군의 편성으로 길림성, 철질현에 군영을 설치하여 서일, 금좌진 등과 함께 군정부를 조직한 것이 북로군정서의 정신이다.

한편 서간도 방편에는 유하현을 중심으로 경학사, 부민단 등을 통하여 기류 동포들을 모아 자치지구 한족회를 조직, 군사기관으로 군정부를 설치하고 李南天, 이범석 등을 교관으로 하여 신흥전문학교를 발전시켜 나아가 5월에는 대한독립단 결성을 보고 국내외의 조직망을 갖게 되면서 작전 모금활동도 하였다.

따라서 겨울에 대한독립단 대표 김승학(화서학과), 한족회 대표 李鏞, 청년연합회 대표 안병찬 등의 활동으로 각 단체가 통합을 이룬다. 1920년 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에 광복군 참리부(임정내무부직속 동치기관)와 광복군 사령부(군부부 직속 군사기관)로 통합하고 각 지방에 광복군 군영을 설치하게 되니 이것이 '광복군'이란 공식명칭의 최초 사용되었다.

이때 광복군 참리부장은 화서학과의 조병준(박문일 수제자), 사령부 사령장은 화서학과의 조병선(유인석 문인)이다. 지방군영은 6개 지역이었다. 광복군은 국내서도 서울총영을 위시하여 도영, 군영, 별영으로 하고 국내외 연합으로 조국광복권을 전개해 도시도 하기로 했다.

이밖에 남만주에는 독립군비단 광한단, 광복단, 흥업단, 태극단, 내지단, 신민단, 의민단 등의 많은 투쟁조직 단체가 무기를 구입하

고 군대훈련을 통하여 만주지역에서 일군, 일정을 습격하고 혹은 서내취입도 하면서 활동하였다. 3·1독립운동 후 조처에 있어서 국내전입 작전에 가장 활기를 띠었던 부장군은 대한독립단, 광복군, 군미단 등이었다. 이 시기에 수많은 독립군 부장전투에 참여한 후 병사한 기록이다.

병무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8, 대통령 표창, 1991년 애국장을 추시하였다. (용문면)

《參考資料：明治百年史叢書，韓國獨立運動史，韓國獨立運動史 研究，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森明大學校博物館，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이택신(李澤身, 1697-1772)

조선조 문신. 자는 子潤, 본관은 함평, 누시위의 손자, 종상의 정자이다. 벼슬이 관어, 금관현감, 함주진관을 역임했다. 묘소는 서종면 도상리 연화봉 아래 선영구대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咸平李氏族譜，李聖範氏 증언》

이태형(李泰亨, 1670-1759)

학자, 문관은 비진으로 정철의 아들이다. 벼슬은 지중추부사이다. 화서 이항로의 증조부이며, 묘소는 서종면 노문리 비계 후산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碧陰李氏眞長公族譜》



이항로
(李恒老, 1792-1868)

조선말기 성리학자. 자는 而述, 호는 華西, 시호는 文敬. 초명은 光老, 본관은 벽진, 李恒老의 아들이다.

1792년 양근군 서종면 노문리 벽계 출신이다. 3세에 千字文을 배고 6세에 십팔사략을 배웠으며 12세에는 상서를 익혔다. 1808년(순조 8) 한성시에 합격했으나 과거에 불점이 있음을 보고 이를 단념. 오로지 학문에만 전심하며 후진을 양성했다.

화서는 14, 5세 때부터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 연마에 주력할 계획을 했었다. 16세에 화서는 부친 우복현이 글을 배우던 임종주(1734-?)의 아들 영서 임노(1755-1828)를 만나보았다. 또 21세에는 지평에 가서 죽촌 이우신(1762-1822)을 만나보았다.

1813년(22세)에 학문을 스승에게서 이어받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하였다. 화서는 민감한 세상을 떠나 쌍계사와 고달사 등 절간이나 조용한 곳을 찾아 '위기' 공부에 전념하였다. 공부함에 있어서 화서는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주자의 학문을 연구하였다. 화서는 『朱子大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미한 말과 중요한 뜻을 차례 차례로 터득하였다.

또한 주자의 사상을 철저히 계승한 송자(송시열)의 저서 『朱子大全』을 읽고서는 그 학문이 진실로 주자 이후의 正統임을 깨닫고 주자 다음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화서는 항상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주자를 존주하지 않으면 공자의 문정에 들어갈 수 없고 송자를 헐장하지 않으면 주자의 계통에 접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화서는 매일 들을 부림에 일어나자마자 불이없이 『詩經』의 역서와 주자의 『경재잡』을 외우고 난 후에,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정제하고 가묘에 참배하였다. 이 『경재잡』도 『백학동학규』와 마찬가지로 화서의 인격형성과 생활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나아가 그 학파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화서의 학문은 성과 경을 수양의 근본으로 하였고,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화서는 『傲하는 공부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한말까지 공도 아예 따라 생겨나고 천만가지 악도 아예 따라 소멸된다고 하였다.

1824년 33세에는 가택에 있는 조종암을 남사하고, 계획한 바 있었으나 실현하지 못했는데, 존화양이의 취지로 『見心亭』을 세우려고 하였던 것이다.

민위 최익현은 『華西先生傳』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선생의 학문은 『소학』과 『주자가례』로 근본을 삼고, 『대학』, 『논어』, 『맹자』, 『중용』으로 주를 삼았다. 그런 다음 경서에 비쳐 차근차근 순서가 있었으며, 주자를 공자 후의 일인자라고 여기 경서의 주석을 위치하여 『朱子大全』, 『朱子語類』에 이르기까지 사랑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였고 공경하기를 神明과 같이 하였다.

이어 『朱子大全』을 읽었는데, 성주의 전체와 준주의 대용이 이 책에 있음을 보고는 시조리와 종조리가 참으로 주자 이후의 정종이라고 생각하여, 그 존송하고 심복하기를 주자 다음으로 하였으니, 그 분로의 정대함이 이더하였기 때문에 선생의 知行 공부가 傲으로 일관하게 된 것이다. 비록 시대는 주자송자와 다르지만 사실은 서로 부합하는 것이다.”

화서는 『問答講義』를 만들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화서의 여승강

규 중에서 강계 9조목은 화서의 교육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그 첫째와 여덟 번째 조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릇 같이 강학하는 사람들은 인원수만 배워 입으로 읽기만 일삼지 말고 반드시 내 몸에 들어켜서 체험할 것을 생각하여 마음으로는 그 묘리를 깨닫고 몸으로는 그 실천에 힘쓸 것.

이 조목은 서론으로 요지는 강학자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배움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화서는 知行並進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조선말기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화서학파들의 현실참여는 이런 화서의 실천교육의 영향에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⑧ 북쪽 오랑캐들(청국인)은 의관을 부귀 없애고 서쪽 귀신들은(서양인) 心術을 좀먹고 있으니, 마땅히 몸을 깨끗이 하고 다리를 세우며 마음을 밝히고 눈을 부릅떠 성현들의 가르침과 父祖의 유업을 추락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선비된 사람의 천두칠미한 법문인 것이다.

이 조목의 요지는 장나라와 서양 두 이적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치사위정(치사위정)을 강조하고 있다.

화서의 교육사상과 교육목표와 목적은 모두 이 조목들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강계 9조목은 화서 문인은 물론, 화서학파가 강학소에서 강회할 때에 먼저 함께 낭송하였다고 한다. 화서가 경기도 양근군 벽계리와 강원도 홍천군 삼포리에서 강학활동을 통하여 양성한 문인은 460명으로 조사되었다.

화서로부터 강학을 받은 화서문하생들은 다시 강학소(정사, 서사, 서재 등)를 열어, 강학활동을 통하여 후학을 배출하였다.

화서의 도학을 계승한 세자들도 강학활동을 통하여 인재를 배출하였다. 이들이 바로 치사위정 사상을 배워서 전국적으로 항일구국운

등을 수행했던 그 많은 화서학파들의 주축을 이루는 인물이라 할 것이다.

1846년(55세)에 화서는 장남 준을 시켜서 『주자대전집자』 20책을 편찬하였다. 이 책의 내용과 강령은 화서가 직접하고 그 고증과 해석은 준이 집필한 것으로서 주자의 학설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한 것이다. 『주자대전차의』에 실려있는 20여 명의 해석들을 종합하고 『어맹정의』와 같이 편집하여 화서와 그의 장남은 『주자대전차의집보』 121권 70책을 편찬하고, 다시 중요한 것만 뽑아 拔說를 곁들여 『주자대전집자』 20책을 만든 것이다.

1847년(56세) 여름에 화서는 서해 동쪽 산기슭에 제월대를 만들고 시를 세기 교훈이 되게 하였으며, 이곳에서 경사를 강론하였다고 한다. 화서는 제자들과 잔취하고 강학하면서 벽계구곡·노산관성 지역의 명승지에 명옥정, 애내성중만고심, 채취암, 낙시암, 문실담, 석문, 일주암 등이라 명명하고 암각해 놓았다. '채취암'과 '애내성중만고심'은 주자의 『武夷神歌』에서 따온 말로 주자가 활동하던 『武夷九曲』에 견주어 본 것 같다.

1848년(57세)에는 『二程朱書集疑』 수십권을 편찬하였다. 이것은 증암 김병복을 시켜서 편찬토록 한 것인데, 화서는 “朱子의 학문이 전부 두 정자(명도, 이천)에게서 근본을 삼은 것이므로 그 전서가 당연히 『朱子大書』과 표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二程朱書集疑』는 이러한 견해에 입각해서 편찬된 중요한 주해서이다. 그 해에 화서는 『心性理氣之辨』을 저술하였다. 화서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신명으로서 이와 기가 합쳐있고 동리 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성은 마음의 본체로서 이가 기를 타고 안정하고 있는 것이며, 형은 마음의 작용으로서 이가 기를 타고 동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1850년(59세)에 화서는 강학규정인 「여숙강규」를 화성지어 수강자들에게 실천케 하였다. 1852년(61)에 화서는 『송원화동사합편강목』 60권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1852년 61세에 성재 유중교에게 편수를 시키고 그 뒤에 중앙 김평묵에게 다시 수정케 하여 1863년 화서의 나이 72세에 완성되었다.

1856년(65세)에 화서는 『周易傳義同異釋義』 2권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성자가 쓴 『傳』에 주력을 하였다가 朱子의 『本義』를 연구한 다음에야 성인들이 주역을 저작한 근본 뜻을 알게 되어 저술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화서는 「임천오씨태극설변」을 지었다.

1860년(69세)에 화서는 윤희의 「중용후난」에 대한 변을 지어 그 화설의 근본이 잘못되었음을 규명하였다. 1863년(72세)에 그는 「關郭錄辨」을 지었다. 이 글에서 화서는 팔탄 남숙관순암 안정복엄재 이정관 등이 변론한 양학설을 다시 수정하여 그 原位를 규명하였다. 1864년(73세)에 화서는 「나정암곤지기기의」를 지어 나정암을 조목조목 비판하려고 하였으나 건강이 감내하지 못하여 별 단을 하지 못하였다.

1867년(76세)에는 『華西雅言』이 편찬되었다. 이 책은 화서가 그동안 기록해 두었던 수고 중에서 대체에 관계가 있고 일용에 적당한 것을 발췌하여 문인들이 36편 891조를 만들어 강습자료로 쓰고자 만든 책이다. 이 책에는 화서학문의 정수가 되는 심오하고 긴요한 내용들이 실려 있다.

1890년(몰후31)에 『華西集』 32권이 간행되었다.

그 후 1986년에 『華西集』은 속집과 변암 최익현이 지은 「화서이선 생신도비명명서」와 연보를 보충하여 영인 간행되었다.

화서에게 처음 내려진 벼슬은 1840년(49세)에 이조로부터 경사에 밝은 선비로 권거되어 세수된 '휘경원참봉'이다. 그러나 화서는 여

기에 부임하지 않는다.

그 후에 1864년(73세)에 영의정 김좌근과 좌의정 조두순의 추천으로 1월에 화서는 장원시 밭제를 제수받았으나 이어서 전라도사로 전임시키려하자 상소를 올려 사퇴하였다. 7월에 화서는 사헌부시평에, 그 해 저술에는 사헌부掌書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는다.

1866년(75세) 8월에 양직이 서울 마포 서강까지 들어오므로 삼안히 피난길에 나서고 온통 혼란하였다. 화서는 달려가 국사에 협력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중지하였다. 9월에 양직이 강화도를 함락하였다. 조절에서는 화서를 충청원동부승시에 특배하였는데, 국론이 일치하지 못하여 좌의정 김병학이 주장한 것이다.

화서는 병든 몸으로 전이(수레)에 싣려 상경한 며칠 후에 갑문에 나아가 상소하여 사직하고 겸하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화서는 2일 후에 공조참판에 승진되었으나 사직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허락 받지 못했는데, 그 다음 날도 거듭 사직 상소를 올리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진술하였다. 5일 후에 화서는 도총부부총관에 제수되었는데 또 사직 상소를 올렸고, 다시 5일 후에 또다시 사직 상소를 올려 마침내 재임을 허락받는다.

10월에 화서는 동기의금부사에 제수되었는데, 사직 상소를 자신의 정치적 소견과 함께 올렸다. 당시 화서는 노쇠하여 봉직할 수 없으므로, 사동순의 편지에 답하여 거취의 의의 분문하여야 하는 도리를 다하려던 심정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화서는 재미 퇴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또 상소하여 소견을 진술하고 '만동요'의 복원을 청하고 백제로 내려갔다.

1868년 3월 18일 77세로 서거하다. 백제에서 10여리 떨어진 정배리 동점골에 원시로 장사되었다. 그 후 2001년 3월 백제 노산으로

만장하였다. 1869년에 고종황제는 직제교 조병숙으로 하여금 재문을 짓게 하고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끔 했다.

전국 각도에 산재한 華西學派는 약 8000원이 명에 이르고, 각지방 유림들이 화서 이항로를 사모하여 봉안한 祠宇나 齋을 보면 경양사(충주), 정의재(평북 태천), 경현단(경기 가평), 노산사(경기 양평), 대통묘(경기 가평), 두류단(전남 신안), 봉산서재(강원 평창), 석가현(충북 음성), 송화묘(평북 개천), 운담영당(경기 포천), 일지당(경기 양평), 일치단(경기 포천), 자양서사(경기 가평), 자양영당(충북 제천), 천근사(황해 평산), 평호단(전남 완도), 한포서사(경기 가평), 화산단(전남 신안) 등 18곳이다.

화서 이항로의 사당인 서종면 노문리 蘆山祠는 경기도지방문화재 기념물 제43호로 지정되고, 노문리 벽계의 화서 이항로의 생가는 경기도지방문화재 제105호로 지정되어 있다.

저서로 『華西集』, 『華西雜言』, 『朱子大全淵疑輯補』, 『宋元華東史合編綱目』 등이다. (서종면)

【參考資料】 華西集, 高宗實錄, 儒教淵源圖, 韓國儒學史, 國朝榜目, 華西學派의 斥邪思想 研究, 韓國文化遺蹟總覽-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蘆山書齋 研究

이행건(李行健, 1588-1654)

조선조의 문신. 자는 士以, 호는 箕谷, 본관은 권의, 李重基의 아들로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어려서부터 인품이 준결스럽고 특이하여 상촌 신희이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5, 6세에 비로소 글을 읽어 성사를 모조리 통달하였고, 1612년(광해군 4)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당시 종조부 경준이 적신의 모함에 죽게 되자, 벼슬을 단

남하고 부모를 모시고 향리로 낙향하여 운둔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으로 다시 벼슬길에 올라 사포서별제가 되었다가 상을 당하여 동생 行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여생을 짓고 시묘하였다.

1628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1630년 2월 원주목사 임명세가 소를 올려 선조의 능인 복능은 땅이 불길하고 또한 물기운이 있다고 하자 의견이 궁중에 문분하였다. 그리하여 땅을 파본 결과 그렇지 않음이 판명되어 심방세(1587-1632)

를 옹호·옹호하다가 이를 계기로 탄핵받아 사간원에서 해임되어 사에 불 거처 개성부 경역의 외직으로 나아갔다.

이후 출성공 이귀가 이조판서가 되어 다시 청망을 되찾았고 차적이 많이 풍복인 표리를 하사 받았다. 대부언의 탈상 후 시장원원선봉에원상례를 역임하였고, 1636년 병자호란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독전어사로 선임되어 풍설을 무릅쓰고 갖은 고생을 다하였다.

적군이 물리가자 왕을 호위한 공로로 통정대부가 되어 승정원에 들어가 등부승지를 거쳐 좌승지에 이르렀으며 공조참의를 역임하고 중추부사에 이르렀다. 1651년 8월 동지중추사로서 일생을 마쳤다. 소무원종공신으로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신도비는 서종빈 수입리의 전의이씨 전산 길변에 남서향하여 있다. 비문은 송시열이 판하고 유상운이 썼으며 이정하가 친하였다. (서종면)

《參考資料：仁祖實錄，高朝人物考，全善李氏清江公子孫錄，楊平文化館總覽，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附屬前，韓國人名大事典，李天浩氏 제공)》

이행원(李行遠, 1592-1648)

조선후기의 문신. 자는 士致, 호는 西華, 시호는 孝貞, 본관은 천의, 신계현령 李重基의 아들로서 서종면 수입리에서 성장하였다.

1610년(광해군 2) 진사가 되고, 1617년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정자박사를 거쳤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그 날 밤 假注書로 숙적하였다가 이귀·심명세·최명길 등이 난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호응하였다. 곧 장유가 교서의 초고를 부르면서 서계 하자 한 자의 착오도 없이 끝 수행하였는 바 사람들이 假注書라고 칭찬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시 승지로서 남한산성에 왕을 호종하여 적화를 격각 주장하였다. 和約한 후 부빈객으로 불모로 잡혀가는 봉림대군을 호종하여 심양으로 갔다. 이곳에서 請 관리들이 김상헌등을 잡아가지 않자고 공갈하고 위협하니 좋은 말로 변명하여 명성이 자자하였다.

또한 일본 사신 현방이 왔을 때에는 선위사가 되어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였는데, 10년 후 현방이 시골 지어 보내고 문방구를 선사하면 시 안부를 물었다 한다. 심양에서 귀국한 후 대사헌·이조판서·병조판서를 거쳐 1647년 우의정에 올랐다. 인조 26년(1648) 사은청사로 명을 참고 길을 떠났는데 의주에 이르러 일생을 마쳤다. 글씨에 뛰어났으며 문장이 좋았다. 칠백리에 녹선되었다.

신도비는 서종면 수동리 및 문호리와 옥천면 선복리 갈라지는 3거리상의 도로변에 도로를 향하여 서향하고 있다. 비문은 우암 송시열이 찬하고 유상운이 썼다. (서종면)

《參考資料: 全義李氏流江公子孫錄, 楊平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韓國人名大事典, 李天浩氏 제공》



이호민(李好閔, 1553-1634) ①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孝瞻, 호는 左峰, 南郭, 師翁이며, 시호는 文愷. 본관은 연안, 延安김 汝叔의 증손이며 이천현감 李翺의 넷째 아들이다. 선조 12년(1579)에 진사가 되고 1584년에 별시문과에 올라로 급제한 뒤 사관으로 발탁되고 계속해서 응교, 원한 집의를 역임하였다.

1592년 이조좌랑으로 임진왜란을 만나 의주까지 왕을 호종하였다가 요양으로 가서 명나라에 지원을 요청. 이어총이 이끄는 명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성호군, 행사적을 거쳐 1595년 부제학으로 명나라의 외교문서를 천발하여 초안하였다.

1596년 참판관을 거쳐 1599년 동지중추부사가 되어 사은사로서 명나라에 다니왔다. 1601년 예조판서로 인성왕후의 諡文을 다시 썼고 대제학, 좌찬성을 지냈다. 1604년 호성공신 2등으로 연릉군에 봉해진다. 그 뒤 대량보국승복대부가 되고 연능부원군에 진봉되었다.

1608년 선조가 즉자 명창대군의 즉위를 반대하고 칙서의 구별 없이 장자를 용립하여야 된다는 입장론을 주장하였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諫諍請諫承應使로 명나라에 가서 입찰론을 내세웠다. 공을 세운 데 대하여 포상하려 하자 「諫諍時功勞辭賞」을 올려 이를 사양하였다.

1612년 김식제의 옥사에 연루되었고 1614년 정은 등이 명창대군 살해에 대한 양의를 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자 諫諍收應備輔外諫, 諫을 올려 이들의 양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광해군 7년(1615) 정인

홍 등의 원찬관에 봉차, 7년간 교외에서 대죄하였다.

인조반정 후 구신으로 무대를 받았고 죽은 뒤 청백리에 올랐다. 문장과 시에 능했으며 의주에 있을 때 적의 수중에 있는 서울을 삼도의 군사가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詩「龍鱗行在下三道兵進攻漢城」은 절창으로 널리 애송되었다. 지에의 도동향사에 제형되었다.

묘는 옥천면 신북2리 속칭 말골(마골)의 마유산에 위치한다. 묘비는 인조 12년(1634)에 건립된 것으로 비명은 김주우가 글씨를 썼다. 선도비는 인조 13년(1635)에 건립된 것으로 비문은 이명환이 글씨를 썼고, 김주우가 글씨를 썼다. 이호민의 명정, 묘, 유적 등은 모두 경기도지방문화재 제144호로 지정되었고, 선도비는 양평군 향토유적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저서로는 『五峰集』 16권이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延安李氏副使公派世譜, 楊平文化遺蹟總覽, 京畿文化財大觀, 韓國人名大事典, 國史大事典, 白雲文化(5),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 李哲和氏 제공》

이호민(李好敏, 1762-1823)(2)

조선조 문신. 자는 學余, 호는 龜軒, 시호는 孝獻, 본관은 진의, 이조판서 李章會의 장남인데 부사 端會에게 入養되었다. 1801년 庭試에 급제하여 승정원 주서가 되고 1802년에 정언으로 옮겨서 상소를 올려 성학에 힘쓰고 기강을 세우는 요새를 진술하였다.

병조정랑 동학교수, 훈국, 실록낭청 종사를 거쳐 홍문관 부수관, 1804년 숙선옹주의 차례도청 일을 본 후에 형조참의, 동부승지를 지내고, 1806년에 황해감사, 1809년에 원자가 출생하므로 예방승지로 가선대부로 승진하고, 의금부 호조참판 부총판 한정우윤이 되고, 1811년 강원감사, 1813년에 이조참판에서 다시 도승지로 함명되고,

1815년 처헌대부로 승진되고, 한성판윤,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817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1822년에 중국사신으로 갔다 역시는 예조판서가 되고, 1823년에는 형조판서로 12월에 서거하였다. 묘소는 양근군 백포에서 동군 가좌역 임파로 이장하였다. (석종면)

《參考資料：楊平文化遺蹟總覽，韓國人名大事典，國史大事典，全義李氏清江公子孫錄，李天浩氏 傳記》

이희장(李晦章, 1752- 1816)

유학자. 자는 致在, 호는 友鹿洲, 증 미조침의 추聖胤의 아들이다. 우목현은 인효가 엄명하여 다른 사람의 추종하였다. 우목현 음악과 사물의 갈림에 가질 위하여 일찍이 소동파의 글을 읽다가 이천 선생을 간사하다고 배척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크게 노하여 자제들에게 소동파의 글을 읽지 못하게 하였다.

또 한번은 침에서 부리고 있던 준마를 다른 사람이 빌려 타다가 말아 죽은 일이 있었다. 이 때에 우목현은 조금도 애석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말하기를 「모든 만물의 생체는 운수가 있는 것이다.」 하였으며, 우목현이 평소애 의로써 사물을 내쳐하였던 사실을 잊을 수 있겠다.

우목현은 임참의에게 수학하였는데, 임참의가 침 한 개를 사놓고 아직 들어가 갈기 전에 그 침이 오래 전부터 잡귀가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들었다. 이에 우목현은 먼저 가서 하루 저녁 갈 것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우목현은 집에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이렇다 할 아무런 일이 없었다. 이로 보아 우목현의 천성이 어떨 지부터 암칭하여 간사한 것을 관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외아들 화서가 병에 걸려서 점점 위태롭게 되자 외간에서는 장야 부상을 풀어서 예맥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이에 화옥

신기령이 소문을 믿지 않으며 “이 친구는 칭대한 사람이니, 반드시 사실이 음란하게 할 수 없다.” 말하고 뒤이어 살펴보았다. 과연 그러한 일이 없었다. 화옥이 매우 기뻐하였으니, 우복현이 친구에게 믿음을 받는 것이 대개 이와 같았다.

우복현은 어렸을 때에 글을 배운 소곡 임종주가 죽은 뒤에는 항상 그 문묘에는 항상 팔과 과일을 보내 제사 돕기를 종신토록 매지하지 않았다.

1800년(정조 24)에 서양 천주교가 전국에 널리 유행하여 시골에 사는 부녀자들도 많이 점점 물들어 갔다. 이에 우복현은 크게 두려워하여 매우 엄밀히 물리쳤다. 그때 우복현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온 모두 천주교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듬해(천유년)에 나라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토벌하여 죽는 사람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 근처에는 한 사람도 연류된 자가 없었다. 이에 식자들은 우복현의 공이라고 칭찬하였다.

우복현이 사는 집을 첩화정사라 하고 동쪽에는 환이 하나 있었는데, 이를 우복현이라 하였다. 우복현은 항상 손님을 맞이하여 대담하며 풍류를 즐겼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대개 남기세신기령·이정유와 그 동생 정임, 신경현·권치인·신재순·이정보·정렴 등과 여러 노성한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양평군 북쪽, 현 설악면 미원에 조광조·김식·이재신·남언강·김육 다섯 분을 모셔 놓고 제향을 지냈는데 1792년(정종 16) 3월에 칠향하였다. 그리하여 속사에 살았던 삼연 김창흡을 화옥 신기령과 더불어 북향할 것을 주장하여 선비들과 상소하여 사액을 청하였으나 윤희는 받지 못하였다.

고종황제 때에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증직되니, 이는 화서선생으로 인하여 받은 것이다. 묘소는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서 최근 서종면 노문리 벽계 노산사 후산에 이장하였

다. (서종면)

《參考資料: 華西集, 華西 李恒老先生 研究, 暨李氏直長公顯譜, 李恒老先生의 生涯와 思想》

이효함(李孝誠, 1590-1634)

광주이씨 입향조. 자는 子和. 본관은 광주이다. 1621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직언을 역임하고 권직을 사임하였다. 인조반정 후 서인이 정권을 잡자 고위 관에 직평 충정에 복귀하게 되었다. 승정원 도승지를 두증하였다. 이로써 효함의 자손이 세거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廣州李氏大同譜(1), 羅平郡校誌, 이건재씨 제공》

이희여(李希呂)

광주이씨 입향조. 자는 希熊. 관직이 승사랑, 조산대부이다. 원주의 호장 추비(의)의 후손이다. 지평으로 이주하게 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선대가 원주 평성 성지에 살았기에 (간척) 되는 지역 양동면 배원리에 낙향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양동면)

《參考資料: 羅平郡校誌》

임백원(任百元, 1816-1909)

교사. 본관은 풍천으로 효행이 시급하여 나라에서 뵈워하였다. (양근)

《參考資料: 楊平郡誌》

임석지(任錫趾, 1666- ?)

곡성임씨 임향조, 무신, 자는 大貴, 본관은 곡성, 선략장군 任善紀의 차남, 관직은 증호조참판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이 다. 본거지인 경기도 면천군 남면에서 서종면 명달리 소유곡으로 이주했다. 이주한 연유는 알 수 없으나, 백전이씨 임향조 이정철의 이주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화서 이항로의 고조부 정철은 석지의 장인이라는 사실로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묘는 서종면 명달리 명달현 유좌로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谷城任氏世譜, 李惠直氏 證言, 任在九氏 證言〕

임을선(林乙善, ? - 1896)

독립유공자, 지평출신으로 윤성호의 마부였다. 1895년 5월 4일 기록에는 윤성호와 그의 마부 임을선은 경군(서울군사)에게 잡혀 지평, 상동에서 죽었다고 한다.

중군장 안승우가 濟州에 머물렀을 적에 윤성호가 우익장이 되고 임을선은 그의 종사가 되어 심부름을 했었다. 세천에서 세한 뒤에 장좌들은 모두가 放勳에 모였으나 윤성호는 원주에서 군사를 모집하고 있었다.

임을선은 대진을 쫓아 단양으로 향하다가 증로에서 소리내어 우니 뒤에 따라오던 자가 그 까닭을 묻자 임을선은 말하기를 “각 진의 장좌들은 모두 여기에 있는데 유독 우리군장 어른께서는 출전한 뒤에 간 곳을 알지 못하였는데, 아마도 혼자서 산성을 지키고 적을 대항하다가 적의 칼날에 죽은 것 같다. 그러므로 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기에 알지 못했느냐” 하니, 그는 마침 “장군의 명령을 받고 떠난 곳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고 대답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내전을 따라 단양읍에 이르자 비로소 중군장이 순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임춘선이 복을 놓아 크게 소리치 울면서 “하느님도 어찌 차마 이렇게 하는가”하고 손으로 땅을 치며 피가 흘러 옷에 가득하니 사립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대개 두 사람의 죽음을 찬탄한 것이었다는 기록이다.

이전에 윤성호의 부하였던 군사 박운선이 재능에게 돈 100량을 받고 윤성호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령에 이른 것이다. 박운선이란 자는 지령사람이다.

1886년 유인석 의병대 편제가 장기 항전을 위해 서북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윤성호와 함께 정탐을 나갔다가 허군에 붙잡히 지령 살동에서 처살되었다. 임춘선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이 장이하다, 알 길이 없다.

정부에서는 1986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追諡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毅菴柳先生西行大略，獨立運動史(1)，獨立運動史資料集(1)，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楊平義兵運動史】

임지연 부인 김씨(金氏)

임지연, 林之衍의 부인으로 남편이 병사하자 개가할 것을 勸誘할까 두려워하여 목매어 남편의 뒤를 따랐다. 1734년(정조 18)에 旌閭하였다. (양근)

【參考資料：楊平郡誌】

임치훈(任致勛, 1698-1739)

부친: 자는 巨卿, 본관은 익녕, 부총관 任錫勳의 둘째 아들이다.

부과에 급제하여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겸 오위장이다. 묘는 서종면 노분리 石峴(돌고개)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谷城任氏世譜, 李愚直氏 證言, 任在九氏 證言》

임호연(林豪淵, 1920- ?)

독립유공자. 양동면 석곡리 437번지 출신이다. 1937년 일본에 건너가 일본대학 전문부 경제과에 다녔다. 학교 재학시절에 일본경찰로부터 사상적 요시찰 학생으로 지목되어 수시로 연행되고 조사를 받는 등 많은 고통을 겪었다.

1942년경 귀국한 그는 태평양전쟁에서 일제의 패망으로 조국독립이 다가왔음을 일반 군중들에게 알리는 한편, 동지를 규합하여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조직한 결사대를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벌여 오던 중 1942년 5월, 일본경찰에 발각되어서 같은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어, 1943년 2월 24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44년 11월 22일에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건국공로를 기리어 1980, 1990년에 대통령표창,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양동면)

《參考資料: 西大門刑務所執行指揮書, 獨立有功者功勳錄(6),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ㅈ

자옥 / 진현

자옥(子玉)

신라의 양근소수. 신라 일성왕 때에 자옥을 양근현 소수(현령)로 삼았는데, 집사 毛毳가 논박하여 말하기를 '자옥은 문적으로 출신하지 않았으니 가히 지방관의 자리를 맡길 수 없다'고 하였다. 시중이 삼의하여 말하기를 '비록 문적출신은 아니나 일찍이 큰 당나라에 가서 학생이 되어 공부하였으니, 또한 가히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왕이 그 말대로 소수로 삼았다. (양평읍)

《參考資料》 鄉誌(4), 韓國史 卷의 楳平史

장세철(張世哲, 1552-1632)

조선조 문신, 자는 時保, 본관은 인동, 중어조판서 張欽安의 아들이다. 1552년(명종 7) 7월 29일 출생하여 1582년(선조 15) 생원이 되고 내직으로 급부도사, 선교령 참봉, 사복 관관을 역임하였다. 외직으로는 용강, 연안, 옥천, 선산, 충주, 죽천, 권주 등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이어서 가신대부에 오르고 호조참의 와 한성부 우윤을 역임하였다. 말년에 양평군 양평읍 비평리로 낙향하여卜居하고 여생을 보냈다. 1632년(인조 10) 12월 13일 81세로 졸서하였다. 아들

이 自好 自如 自定 自學 自舊 다섯을 두었다. 묘는 양평읍 덕평리 산8-8번지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仁同張氏族譜, 戶曹參議漢城府右尹張公墓碑文, 張結相氏 제공》

장술후(張述厚, 1847-1876)

유학자. 자는 程友, 아명은 通釋, 본관은 결성, 敬流居士 張學誥의 첫째 아들이다. 화서 이항로의 문인으로 화서가 강학할 때에 참여하였다. 문필이 뛰어났다. 유북이 강원대학교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묘소는 서종면 노문리 가마봉 아래 조부 장희진 묘하 남쪽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結城張氏開城派譜, 閔勳講錄, 結城張氏塋碑記, 華西學派의 斥邪思想 研究》

장술흠(張述欽, 1856-1890)

유학자. 자는 榮友, 호는 連軒, 본관은 결성, 경외기사 張學誥의 둘째 아들이요 화서 이항로의 문인이다. 외숙인 이준의 저서 『槐園集』을 편찬하고,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다리골 원판윤 닥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유북이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묘소는 서종면 노문리 가마봉 아래 조부인 장희진 묘하 좌쪽에 있다. 묘표는 양서 박준빈이 쓰고 묘갈은 학산 조중업이 지었다. 저서에 『連軒遺稿』가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華西集, 結城張氏開城派譜, 結城張氏塋碑記, 蘇溪淵源錄》

장시서(張時瑞, 1653-1709)

조선조 武臣. 본관은 結城. 가의내부 불지중추부사 張維翰의 증손이요, 전사 張利興의 아들이다. 1653년(효종 4) 출생하여 1709년(숙종 35)에 종사하였다. 필증장군 필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인데, 가신대부 병조참판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추증되었다. 묘소는 서종면 노분리 가마골 아래 벽계마을 건너편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開京誌, 韓國文化遺蹟總覽, 結城張氏開城詠譜, 結城張氏塋碑記, 白雲文化(13)》

장자호(張自好, 1583-1600)

문신. 자는 守謙. 본관은 인동. 현성부수윤 張世臣의 셋째 아들이다. 1583년(계미, 선조 16) 5월 양평에서 태어나서 1612년(광해 4) 생원시에 합격하고 다음 해에 충광시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설서 춘추관 시사관을 역임하였다. 1616년(광해 8) 홍문관 부수찬, 1617년 통훈대부 사헌부감찰, 1620년 통정대부 예조참의·공조참의, 1621년(광해 13) 승정원 동부승지, 1626년(인조 4) 필증장군 용양위부호군, 1636년(인조 14) 병조참지, 부경부사, 영흥도호부사를 지냈다. 1640년 고원군수, 1641년(인조 19) 홍주목사·길주목사, 1646년(인조 24) 3월 12일에 홍주목사로 나아갔다. 그 해에 장자호는 환갑을 맞이하였다. 환갑 해를 만나 8월에 동갑계 '꽃(花)생(生)鮮(鮮)을' 들 만들어 친구들과 인목과 우의천 다녔다. 이계첩은 1646년 8월 개인인 韓元之가 기록하였는데, 명년에는 31명의 상명·자·생일·관직·본관 등이 기록되어 있다.

- 俞善曾：字季省，生日正月初七日，官正郎，杞平人
 柳宜涵：字養虛，生日二月初三日，官縣監，全州人
 韓必厚：字厚而，生日二月初七日，官正郎，清州人
 尹 晷：字養遠，生日二月初七日，官縣監，坡平人
 鄭世規：字君則，生日二月初十日，官留守，東萊人
 尹就之：字仲將，生日二月二十日，官同知，海平人
 李興仁：字子壽，生日二月二十二日，官主簿，星山人
 閔 鎰：字子中，生日二月二十四日，官縣監，驪州人
 韓仁及：字元之，生日四月初九日，官判書，清州人
 李有養：字子正，生日四月二十六日，官府使，全州人
 柳允昌：字伯勗，生日四月二十六日，官郡守，全州人
 •張自好：字守謙，生日五月初六日，官郡守堂上，玉山人
 白賢民：字景由，生日五月初六日，官僉知，水原人
 李 蕃：字馨伯，生日六月十七日，官正郎，全州人
 趙 煥：字子和，生日七月初十日，官郡守，淳昌人
 朴 鏞：字景望，生日八月十三日，官典籍，忠州人
 趙昌遠：字大孚，生日八月十八日，官府院君，漢陽人
 洪觀一：字漸五，生日八月二十日，官郡守，南陽人
 權 禧：字正鄉，生日八月二十三日，官主簿，安東人
 金 垺：字叔平，生日九月初一日，官郡守，安東人
 任俊伯：字士秀，生日九月初三日，官經歷，豐川人
 洪再吉：字壽繼，生日九月十五日，官奉事，南陽人
 具 楠：字子挺，生日九月十六日，官縣監，綾州人
 崔來吉：字子大，生日九月二十三日，官完川君，全州人
 洪茂業：字敬夫，生日九月二十三日，官郡守，南陽人
 權任中：字景用，生日九月二十九日，官府使，安東人
 金俊元：字英伯，生日十月十六日，官僉知，安東人

金大範: 字元伯, 生於壬子, 庚子科, 晉州人, 湖營人.
李永賢: 字子恒, 生於開三, 月十五日, 官(忠)評, 全州人.
李 應: 字樂而, 生於九月二十五日, 官(忠)監, 全州人.
李 鑾: 字仲輝, 生於五月十八日, 官(忠)使, 晉州人.

이 契帖은 총 11페이지로 『契帖(契帖)』, 『契帖(契帖)』, 『契帖(契帖)』 세 부분으로 편찬되어 있다. 여기에 명단을 수록하는 것은 후 개원 후손이 300년 전 조상의 교우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개첩은 장자호의 후손 張祐相氏가 소장하고 있다. 장자호의 묘는 양평읍 덕평리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仁同張氏族譜, 戶曹參議漢城府右尹張公義碑文, 張祐相氏 家譜》

장집성(張集星, 1792-1862)

경성장씨 입향조. 자는 擬誠, 본관은 경성. 명소장관 張聖五의 증손, 동덕랑 張觀信의 아들로 봉직량이다. 장남 희진(이항로의 장서)이 1835년 노문리 작가에 왔다. 열세하차 사촌인 화서 이항로가 혼자된 딸 벽진이씨와 그 시부모를 벽계로 이거토록 하여 서종면 노문리 벽계 입향조가 되었다. 묘는 가마봉 아래 결성정씨 묘역 곁에 있다. 묘표는 楊西 朴峻彬이 지었다. (서종면)

《參考資料: 東寧廳稿, 結城張氏家譜, 結城張氏柳成洞譜, 5代孫 張集星翁 墓誌》

장취오(張聚五, 1684-1770)

조선조 문신. 자는 士賢, 호는 又庵. 본관은 경성. 김충장군 장지

중추부사 겸 오위장 張時瑞의 아들이다. 우계는 재질이 총명하여 문학으로 당시에 이름을 날렸는데, 1732년 증시마시에 합격하고 1756년(영조 32) 문과에 급제하여 동중추 판결사를 역임하고 비슬이 가의대부 행병조참판 겸 동지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이르렀다.

우계는 선대의 결의와 도학을 계승하여 특히 병자호란 이후 존병척척의 의리를 되새겨 문화민족의 인륜도덕을 중시하고 오랑캐의 鄙陋한 풍속을 혁신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당시 40만의 구원병을 보내어 우리 강토를 왜적의 말발굽에서 구해 준 명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北苑에 설치한 대보단에 참배하고, 그곳에서 군왕과 신하들이 함께 하는 시회에 참여하여 '구갑추유성모기전(舊甲追惟 聖慈來繼)'이란 시구를 짓기도 하였는데, 그 뜻은 "명나라가 멸망하던 그 해를 생각하며, 군왕의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사무친다"는 내용이다. 영조대왕은 우계를 특히 아끼고 사랑하여 『御製論慶篇』 및 『大報禮慶帖 御製御筆 聯句』와 『御製自省篇』 등의 책을 하사하였는데 후손이 소장하고 있다.

우계는 효도와 우애, 일가간의 화친과 조상을 높이고 종인을 수합하는 일을 스스로 자신의 임무로 삼아 남다른 정성을 쏟았다. 그리하여 종민들과 함께 족보를 간행하였는데 10년 여에 걸쳐 완성한 다음 서문과 발문을 지어 그 일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결성·옥산·진주·순천·단양·울진·홍신·화산 등 張氏八縣(개미보)의 족보가 처음 있게 되었다.

1763년(숙목) 우계가 편찬한 개미보 서문에는 "대개 종족이 있으면 족보가 있는 것은 몇몇한 이치이다. 우리 장씨는 30 세대를 지나 오면서, 각과가 점차 멀어지 하나로 통일하기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난을 여러 차례 겪는 동안 세침이 많이 결손되어 최소우목

의 형편을 상고할 수 없게 되었으며 돈친목족의 풍속이 차츰 쇠하게 되었다. 할 수 없거니와 여러 종인들은 차츰부터 또 몇 대가 지나면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불초한 내가 옥산과 종인 만급과 더불어 분발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물보이는 수고를 꺼리지 않고 오직 성의를 다하여 역사를 시작하니 10년 만에 완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우계의 평생 사업과 행적은 지금 문헌이 잔결되어 다 상고할 수 없으나, 살피 본 바와 같이 절의를 숭상하고 요우복족을 위해 애쓰는 것을 통하여 그 일생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계의 눈물겨운 10년 역사로 이루어진 족보의 편찬은 조상을 숭배하고 후손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본받을 바라 하겠다. 이 족보의 편찬으로 장씨 관관의 향간족보인 『張氏風譜』 6권이 있다.

우계의 묘소는 본래 서울 방우리 봉화산에 있었으나 실전되어 8대손 기초이 소서에 목욕재계하고 눈물을 흘리며 삼일 동안 산을 헤매어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석종면 노분리 벽계마을 남쪽 기마봉 아래 사과원에 선단을 설치하여 제향을 올리고 있다. 신도비 문은 남은 안상섭이 지었고 글씨는 9대손 장석현이 썼다. (석종면)

《參考資料》 結城張氏族譜(장간호, 尙未譜), 結城張氏塹碑記, 結城張氏開城函譜, 開京誌, 韓國文化遺蹟總覽, 城南市史》

장학수(張學洙, 1827-1874)

유학자. 자는 율仁, 호는 敬菴, 본관은 결성이나, 호자 張會鎭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외조부인 화서 미함로의 가르침을 받았다. 화서는 1835년 사위가 벽계에서 일찍 타계하자 이곳에 거처를 마련하여 주고, 홀로된 딸을 시부모와 함께 이주케 하여 살게 함으로써 경

와는 벽계에서 살게되었다.

경와는 자질이 비범하고 행실이 방정하였는데,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가난한 선비의 가정에서 모친인 효절부 벽진이씨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 밖으로는 외조부 화서에게 글을 배웠고, 안으로는 선친을 제술하여 문필·학문이 숙취되고 언행이 독실하였다. 학문은 사서를 근본으로 하여 위기지학에 전념하였으며, 특히 敬 공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존주의리에 특히 엄밀하였는데, 가전되어 오는 '大報增廣帖'을 모사하여 이것을 사우들과 함께 장문하기도 하였다. 김종암은 그 발문에 쓰기를 "그 네외의 연원을 살펴본다면 역시 여기에 미칠 수 있으리라" 하였다. 유영재는 「대보단갱첩」을 읽고서는 "벽계에 사는 장학수씨의 집에서 묵심하고 서로 선왕의 유지를 논하였다. …장씨가 일찍이 우암선생의 글을 외조부인 화서선생에게 배웠는데, 그렇다면 그가 이 갱첩을 높이 만드는 것이 반드시 공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였다. 경와는 1847-1850년에 외숙인 이준이 화서의 명으로 『주자대전차의집보』를 편술할 때에, 상계사와 벽계에서 『주자대전차의집보』 中의 28권 84판, 42권 85판, 47권 86판 중 41판~84판, 54권 90판 중 21판-90판, 56권 72판, 61권 64판을 필사하였다.

1872년에는 인접한 수임리의 집장 이재로가 세도를 받고 권력을 남용하여 벽계 반곡의 6·7 戶의 개인 묘지(山)를 침탈하려고 위협하는 한편 산에 풀을 놓는 등 횡포를 자행할 때에 외숙인 황계 이복과 더불어 양근군수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선조의 묘소를 수호하는 등 위선하였고, 한편 사회 악폐를 시정하였다. 또한 선고의 유사를 지어 화서에게 묘지명을 청하여 받는 등 부모에 대한 효심도 지극했다.

경와의 저서로는 『敬窩遺稿』가 있고, 간찰 유목 20여 권이 강원대

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유언악기 유물가증목록 2203-2311면), 나머지 문헌은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다. 경와의 묘소는 서종면 노문리 백계마을 건너편 가마봉 아래 신영국내에 있다. 묘표는 양서 박준민이 짓고, 묘갈은 학산 조종업이 지었다, 증손 기덕이 가정을 지었으며, 종와 김용숙이 행장을 지었다. (서종면)

《參考資料：華西集、槐園手錄、槐園集、重龍集、省齋集、敬窩遺稿、結城張氏開城演講、結城張氏堅碑記、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

장회진(張會鎭, 1808-1835)

효자. 조선말기 유학자. 자는 正文, 호는 東雪. 본관은 결성이나, 1808년 7월 7일 서울에서 풍덕양 張集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동우는 학서의 고제자로서 학행이 높고 또 출신의 효성으로 옛 황상에게 비견되고 있다. 부인 백전씨도 또한 효절이 있어 사람들이 진효부에 비교하고 있다.

동우는 천품이 비범하여 어려서부터 양기, 바둑, 쌍륙 따위의 놀이를 눈에 접하지 않았다. 10세에는 청봉 이상우에게 취학하였는데, 아무리 큰 추위나 푸터운 날씨에도 조금도 개를라 한 적이 없었다. 길가에 구렁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단정한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서 절대 돌리보지 않았다. 한밤은 4場에 잤는데 어떤 사람이 초고한 밭을 주자 죽지 돌리치며 말하기를 "초고를 밭에 파기에 입력하는 것은 먼저 임금을 축이는 것이다" 하였다.

질풍이 단결명정하여 남의 실행을 보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였고, 남의 과실을 들으면 마치 자신을 더럽히게 뵈어 두려워하였다. 부랑을 집안에 들이지 않고 향녀를 품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 남을 접대할 때는 자신을 낮춤으로 하였고, 집안을 다스릴 때는 청숙



함으로 하였다.

추운 사람을 만나면 옷을 벗어 입혀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자신의 밥을 먹여주었으며, 웃어근과 말할 때는 자세 교훈하는 일을 말하고, 어린 사람과 말할 때는 부형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일을 말하였으며, 농업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부류에까지도 그 일에 따라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기쁘고 흡족히 여겨 그 인후함에 복종하였다.

효성 또한 지극하여 출입할 때마다 사당에 참배하였다. 대인이 출타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반드시 촛불을 밝혀놓고 먼저 잠자는 일이 없었다. 계절에 나오는 새로운 음식물은 부모에게 공양하지 못했으면 먼저 맛보는 일이 없었다. 대인이 일찍이 여질에 걸려 한 달이 넘도록 자주 발생하였는데 낮에는 띠를 풀지 않고 밤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서 죽을 끓이고 약을 달이는 일을 몸소 다 하였다. 집안 사람들이 몹시 초췌해진 모습을 보고 대신하기를 간청하였으나 한 번도 듣지 않았다.

어머니가 한 번은 중병을 앓아 생명이 위태로운 일이 있는데, 의원의 말이 전우골 한 부를 써야만 낫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갑자기 얻을 수가 없어, 노심초사하며 자나깨

나 마련하기 위해 애쓰던 중에 북도의 포상이 소에다 힘을 싣고 마침 문 앞에 이르러서는 소가 다리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소를 잡게 되었다.

동우가 의원이 한 말로 장사꾼에게 말하고 간청하니, 그 장사꾼이 그 뜻에 감동하여 수牛牌 한 부를 주었는데, 이 약을 써서 병이 과연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사람들이 모두 동우의 효성이 지극하여 하늘을 감동시켜 생긴 일이라고들 하였다.

그 뒤에 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동우가 천정에 근권하러 와있던 아내를 데리고 가서 간호해 드리려고 하였는데, 시내로 나가 불고기를 구해다가 공양하려 하다가 갑자기 깊은 물에 빠졌는데 미처 구하지 못하였다. 향리의 친구들과 어른들이 애통래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효도가 저급까지 사람들 입에 회자되어 사람들이 모두 효자라고 말한다.

동우는 18세에 화서의 사위가 되어 성리학을 듣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하여 싫어하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았다. 1教集義로써 心의 근본을 삼고 格物致知로써 道修의 요체를 삼았는데, 특히 심경을 좋아하여 평생동안 외우고 읽으며 말하기를 "이 책은 유자의 학문의 정로이다" 라고 하였다. 程朱의 글을 가장 좋아하여 首善切要處를 하나하나 자리 오른 쪽에 써서 물이 놓고 아침저녁으로 정제하고 반성하였다.

동문 중에 하기 암현수, 괴원 이준, 금권 임규식, 응봉 이용현 등과 함께 강론하고 연미하였는데, 특히 괴원과 더불어는 함께 송자서를 읽으면서 의심나고 막히는 것이 있으면 책자를 바린해 두고 그때마다 기뻐하여 번갈아 가며 찾고 검색하여 김보배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다.

동우는 화서의 문하에 출입하면서부터 뜻을 우뚝이 세워 일종인성

을 털끝만치도 망과하지 않았다. 언행이 일치하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다름이 없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날로 견고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날로 확고하여 학문과 의리가 울연히 동방의 기유가 되었으나, 효도를 위해서 세상을 떠나니, 이 때는 1835년 5월 13일 이요, 향년 28세이다.

중암 김평묵은 그의 아들의 기필 教誨記를 지으면서 “옛날에 선동 우장이 화서선생의 문하에 사위가 되어 옷을 걷어올리고 학업을 배울 때에는 본디 주경의 학문으로 평생동안 휘쓸 방향으로 살았으니, 선생의 기망과 선장이 스스로 기망했던 바가 어찌 황문숙 아래에 있었으랴! 그러나 상여의 통곡이 갑자기 함연에서 일어나고 밟았다”고 하였다. 묘소는 벽계 남쪽 가마봉에 있다.

동우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유림들이 정성으로 「효자동우장선생기행비」를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벽계마을 건너편에 벽진이씨의 효절부비와 함께 나란히 세웠다. 또한 벽계 마을회관 뒤에는 「효자동우장선생, 효절부벽진이씨추모비」를 유지인사 몇몇이 세웠다.

지서로 「東寧遺稿」가 있다. 화서가 묘지명을 짓고, 도승지 민병승이 묘갈문을 짓고, 묘표는 금운 안상섭이 지었으며, 행장은 양서 박준빈이 지었다. 효자비문은 학산 조종업이 짓고, 추모비문은 금운 안상섭이 지었다. (서종면)

【參考資料: 華西集, 東寧遺稿, 槐園集, 重菴集, 黃溪集, 楊西集, 結城張氏 暨碑記, 白雲文化(13), 韓國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 校博物館), 錦雲年誌, 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

장희진 부인 벽진이씨(碧珍李氏)

효절부. 본관은 벽진, 화서 이항로의 장녀로 서종면 벽계 출신이다. 결성인 張集星의 아들이요 화서문인인 동우 張會顯에게 출가하

었다. 이씨는 숙임의 시과 장정의 행실이 있는데다가 밖으로는 부친의 엄한 교훈과 안으로는 보부인 고령바씨의 바른 교화가 있었다. 太江 太娘을 사모하고 틈틈이 女四君을 읽어서 부덕이 지극히 갖추어졌다.

부모를 섬김에 길을 떠나지 않고 시중들고 음식 할만하는 일을 오직 부모가 원하는 대로하여서 기쁘게 해드리는데 힘썼다. 출가함에 이르러서는 사부모 봉양과 남편 받드는 일이 법도를 따라 옛 여진 부인에게 권중 안하였다. 하루는 원정에 歸寧하고 있을 때, 남편 동우가 와서 대부인의 병환을 얘기하고 함께 집으로 가서 간호하려 하였는데, 동우가 어머니를 공양할 음식물을 구할 생각으로 시내에 가서 울고기를 잡다가 깊은 물에 미끄러져 미처 구하지 못하였으니, 이 때 이씨의 나이가 26세였다.

이에 부인이 부르짖으며 손가락을 베어 피를 흘려 넣었으나 희생할 기량이 없었다. 이에 크게 통곡하다가 기절하니, 주위 사람이 구하였다. 다시 약을 바쳐 쫓아 죽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주위에서 막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주위에서 타이르기를 “남편이 亂도에 사망하였는데 여진 부인이 장안에 죽고자 하니 천지 綱常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시 아버지는 누구를 의지하며 어린 자식은 누가 기르며 풍사는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대가 그렇게 한다면 그대 자신은 물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強의 후사는 어찌할 것인가! 아픔을 참고 슬픔을 눈리 문호를 보전하느니만 못하다”고 하였다. 반박하여 말을 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거나 사람이 있는 틈을 타서 기필코 목숨을 버리려 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부친 화서가 매우 근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옆에 꼭 붙어서 그

거동을 지켜 나머지 삶을 보살피게 하였다. 이에 그 가르침을 역지로 좇아 거상의 예를 극진히 하여 삼년상을 마쳤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자 슬픔과 정성이 능히 갖추어졌으며, 늙은 시아버지를 효성으로 봉양하고 남편의 동생에게 우애하고 자녀를 교육하여 가업을 어둑하였다.

부친 화서가 무욕을 당하였을 때 포졸들이 무례하게 내탕으로 난 입하자 엄한 말로 꾸짖어 말하기를 “어찌 이처럼 무례하는가? 죄가 있고 없는 것은 공대에서 저절로 밝혀질 것이거늘 어찌 내외의 구분이 없는가?” 하였다. 금년이 미 말을 듣고 포졸들 꾸짖어 엄금시켰다 한다.

화서는 외손부 심씨에게 써 준 시에서 ‘네 시아버지가 나를 따라 배워서 함께 朱子書를 읽었다. 옛날 王祥과 벗한 만하더니 마침내 王祥과 같은 효도에 죽었다. 네 시어머니가 동곡하다 기절하여 약을 마시고 좇아 죽으려 하였다. 주위 사람이 급히 구해내고 道埋로써 차근차근 이해시켰다. 시아버지 봉양에 남편 효도를 대신하고 시동생을 길러 남편의 아름다움을 이루었다. 저를에는 『女四書』를 읽으며 옛 卍氏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 손수 배끼 잘 싸서 보관하여 내가 시집을 때 준 것이다. 네 시아버지가 비록 살지는 못했으나 王祥과 비교하기에 해롭지 않고 네 시어머니가 죽지는 않았으나 陳季姬와 같음에 부끄럽지 않다.’고 하였다.

화서가 외손부 심씨에게 써준 이 시는 친필 그대로 화서기념관 앞에 현존 장기택이 자연석에 각자하여 수비하였다.

이씨의 「효절부기행비」는 노문리 이씨가 출생한 친정집(화서교택) 건너편에 전국 유림들이 건립위원회를 조직하여 1999년 동우 장회진의 효자비와 함께 나란히 세웠다. 그 후 1년이 지나서 뜻 있는 인사 10명이 벽계 바울회관 앞에 「효친부유인벽진이씨주모비」를 세웠다.

묘소는 벽계 남쪽 가마봉에 무군(상희진)묘에 합장되어 있다. 이조 형판 도승의 단은 민병승이 묘표를 지었고, 양서 박준만이 경장을 지었으며, 효절부기행비문은 최운 이지풍이 지었다. (서종면)

《參考資料》 華西集, 東甯遺稿, 結城張氏塋碑記, 結城張氏開城派譜, 李順謙 麗人碧珍李氏紀行碑文, 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

전언보(全彦輔)

정선전씨 입향조, 정선군 순검의 후손이다. 전씨가 지평에 세거하게 된 것은 입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형제가 전국 각지로 산거하게 되자, 양동면 삼산리에 북거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그 자손이 양평에 세거하게 된 것이다. 입향조 전언보는 33세 되던 겨울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참전을 결심하고 남한산성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일반인의 출입도 금지되어 있고 연락도 어려워 참전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양동면)

《參考資料》 砥平郡校誌

전이란(全伊蘭)

효부, 全川蘭은 명선인 全錫謙의 딸로 14세에 재혼하였다. 김안이 매우 가난한데다 26세에 남편이 죽고 홀로되어 늙은 처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재가하지 않고, 매일 주절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눈이 멀어서 글을 보지 못했다. 매일 난물을 뱉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머니를 홀로 두고 나갈 수가 없어서 혹은 입을 다물고, 혹은 이곳에 팔고 불일을 보곤 다시 얻어오곤 하였다.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자신의 몫을 한 수저 뜨고는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곤 하였다. 시어머니가 중풍에 걸려 대소변을 받아내고 간병하기를 극진히 하니, 그 기간이 40년이나 된다. 미천이관의 효행과 청절에 모든 사람들이 감복하였다.

이에 그 효행을 기리고 후세의 귀감을 삼고자 양동유림을 중심으로 한 유도회에서 자체로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73년 10월에 효열각을 준공하였다. 팔작지붕에 한식기와의 얽은 겹처마 목조건물로서, 정각 상단에는 효열각이란 현액이 걸려있다. 이 효열각은 양평군 향토유적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양동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楊平郡誌, 孝行記文, 양평군 양동면의 관광지 및 문화재' - 네이버 지식iN》

전창식(全昌植)

의병운동자. 전창식은 旌善人으로 1853년(철종 4) 2월 15일 지평에 세거하여 全諤伯의 아들로 지평면 망미리에서 출생하였다. 일세의 만행이 자행되고 국권이 왜적에게 농락되자 분개하여 같은 동네 조도환 등과 같이 1895년 11월에 일어난 을미의병에 가담하였으나, 1896년 2월 8일(음3.22) 출정하여 의병진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소식이 끊어져 자손들은 2월 8일을 기일로 삼아 제사지내고 있다. 묘는 지평면 망미리 금락곡에 있다. (지평면)

《參考資料》 旌善全氏世譜, 昌寧曹氏昌山君派譜, 方弘奎氏 재공》

정경선(鄭敬先)

분신. 자는 龜元, 본관은 경주, 한림 鄭承祖의 손자, 교리 鄭范漢

의 아들이다. 벼슬이 봉경대부에 평해군수를 역임하였다. 묘는 옥천면 아신리 상곡에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韓國文化遺蹟總覽〕

정경시(鄭慶時, 1855-1929)

독립운동가. 직사는 양동면 향하리 197번지 종신이다. 경기도 광주에 分館進塾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하였으며 1919년 3월 23일 창운선 봉두리에서 장남을 어용하여 신재원·김종학등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선경찰에 체포되었다.

동년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1920년 6월에 출옥하였다. 정경시는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아 하지만 1920년 6월에 대한독립단 경기도 지단장 한덕라의 권유로 독립단에 가입하여 임시정부의 직분을 양평지방에 배포하는 한편 독립군자금 모집계획을 추진하였다.

직사는 양명군수, 양명정환시 일경 등에게 사형취행산고문 등을 유폐하는 등 활동하다가 1921년 8월에 다시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80년에 대웅병효봉,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양동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5), 獨立運動史, 明治百年史叢書, 判決文, 樞平獨立運動史資料集, 東亞日報(1921.6.9) 〕

정귀하 부인 延安金氏

얼나. 연안김씨는 직평에 사는 鄭國壽의 아들 鄭龜(하)에게 종가하였다. 남편이 20에 고질병으로 여러 달 고생하다가 죽으니, 김씨는

고복한 후에 약을 먹고 남편의 뒤를 따랐다. 함께 장사지내고 노소가 그 길가에 탄복하고 경송하여 유럽 송일 등 40여 인이 나라에 표창을 건의하였다. 이에 청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지평면)

〔參考資料 砥平郡校誌〕

정근옹주(貞謹翁主, ? -1613)

정근옹주(?-1613)는 조선 제 14대 왕인 선조의 9女로서 후궁인 정빈민씨의 소생이다. 병조판서를 지낸 김이원의 아들인 김극빈에게 출가하였다. 김극빈은 일선위에 봉해졌다. 묘는 강상면 명상리의 나지막한 구릉상에 남편인 일선위 묘와 동-서로 나란히 하여 동행하여있는데 어느 묘가 옹주 묘인지는 묘비가 없어 확실하지 않다. (강상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畿內陵園誌,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정덕화(鄭德和, 1788- ?)

문신. 자는 醇一, 호는 山熊. 병조참판 鄭湖慶의 아들이다. 1814년(순조 14) 진사시에 합격하고, 1817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주서·지평, 장령, 부교, 1836년 헌납 수찬, 1845년 대사간, 승지가 되고, 1852년 강화유수, 1851년 호조참판, 동지사의 부사로 정나라에 다녀왔다. 1858년 호조참판을 역임하였다. 묘는 양평에 있다. (양평읍)

〔참고자료: 哲宗實錄, 日省錄,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정동섭(鄭東燮)

한말의 의병. 정동섭은 지평출신으로 1907년 8월-1909년까지 경기도 각 지역의 주요 의병장과 활약하면서 의병항쟁사에 남겨지고 있을 뿐이다. (지평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1), 橫平獨立運動史資料集》

정문덕(鄭文德, 1438-1509)

분신. 자는 仁實, 본관은 경주, 한성판윤 鄭之禮의 둘째 아들이다. 1438년(세종 20) 출생하여 1461년(세조 7) 사마시에 합격한 후 선병으로 40년을 고생하다가 1504년 66세로 관직에 나아가 봉훈대부 함인서별제를 지냈다. 묘는 옥천면 아신리 하곡에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韓國人名大辭典, 韓國文化遺蹟總覽》

정백창(鄭百昌, 1588-1635)

조선조의 분신. 자는 德餘, 호는 玄谷谷(玄谷子)天谷, 본관은 원주, 관찰사 鄭叔成의 아들이다. 1588년(선조 21) 생원 진사가 되고, 1611년(광해군 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이듬해 추서할 기차 접견, 봉교, 대교 등을 지냈다.

1613년 절망하고 아한을 알한다는 탄핵으로 좌적당했다가 곧 내교로 복직, 오랫동안 사관으로 있었으며, 1615년 이이첨 등 대각 일당들의 비행을 사초에 기재하여 다시 좌적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부수찬에 제등용되어 원납, 교리, 수찬, 1625년(인조 3) 보부, 사간, 사인 등을 역임, 이 해 사카독서한 후

이듬해 접의로 문과중시에 올라로 급제했으나, 국구인 그의 장인 한준겸의 턱백이라는 비난을 받고 취임하지 않았다가 1627년 동부승지가 되고 다음해 예조 참의, 대사간을 지낸 후 1631년 이조 참판이 되었다.

이 해 죄인 이행원의 죄를 태만히 한 죄로 다시 파직되었다가 1632년 대사간에 복직되었으나 척신이라는 논란으로 사직했다. 승정원 좌부승지, 부제학을 거쳐 도승지를 지내고, 1634년 경기도 관찰사에 제직 중 병사했다. 저서에 『玄谷集』이 있다. (양명음)

《參考資料》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人物志, 韓國人名大事典》

정백창부인 청주한씨(淸州韓氏)

얼너 왕비의 친계아버지가 되는 한준겸(1557-1627)의 딸로 정백창(1588-1635)에게 시집갔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다음해인 1637년(인조 15) 강화도에서 분신 자살하였다. 나라에서 정려하였다. (양명음)

《參考資料》 楊平郡誌, 韓國人名大事典》

정승조(鄭承祖)

분신, 자는 述而, 호는 薇菴, 본관은 경주, 鄭文德의 셋째 아들이요 김종직의 분인이다. 1494년(성종 2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분향한림을 거쳐 황해도 어사가 되었고, 사헌부 감찰이 되었다. 정열에 제직 중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가 일어나, 유자광·이극돈 등 소인의 부리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세조를 가리킨 것이라 얽어 매이 명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귀양을 갔다.

이때 갑종직의 제자인 비암도 연유시켜 곤장을 맞고 제주도로 귀양가 종종반절을 보지 못하고 적소에서 세상을 떠났다. 묘를 실천하여 옥천면 아산리 상곡에 빙을 실치하여 모시고 재향하고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韓國人名大事典, 韓國文化遺蹟總覽)

정 업(鄭暉, 1563-1625)

조선조의 문신. 자는 時暉, 호는 守暉, 暉軒, 시호는 文獻. 본관은 초계. 전사 鄭惟諫의 아들이며 영의정 이산보의 사위. 이어 성혼·송익필의 문인이다. 1583년(선조 16)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에 등용되고, 1587년에 갑괄, 형조 좌랑을 지내고, 1593년 함주 관관으로 왜군을 격퇴, 그 공으로 중화부사가 되었다.

홍분관 수찬, 사헌부 정랑, 시천군수를 역임하고, 1597년 정유제란 때 예조 영랑으로 급고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후 사성이 되었다. 수원 부사를 거쳐 이듬해 울교로 필선을 겸임. 이어 승지, 형조참의, 나주 목사를 거쳐 대사간에 이르렀으나, 1602년(선조 35) 성혼의 문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종성부사로 좌천되었다.

1603년 청주·홍주의 부사를 역임하고, 광해군 즉위 초 예조 참의, 대사성, 승지, 관감사, 대사간, 충청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1612년(광해군 4) 도승지로 왕을 경연에 자주 나가도록 했고, 1614년 공조 참관이 되었다. 1617년 폐보관이 일어나자 자위하여 양양부사로 나갔다가 1년 만에 사퇴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대사성 겸 동지경연 원자사부가 되어 학제를 상정했고, 이어 반 타지에 전임되었으나 언재나 대사성을 겸함으로써 이때부터 대사성을 겸직하게 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대사헌을 거

처 좌참찬, 좌부빈객 등을 지냈다. 저서에 『守夢集』, 『近思錄釋疑』 등이 있다. (개군면)

《參考資料》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守夢集, 韓國人名大事典》

정영운(鄭永雲)

독립유공자, 의병장. 정영운은 압평출신이다. 1879-1910년 사이에 의병활동을 하면서 임행숙의진에 동참하여 동료의병 100여명과 함께 각지를 다니면서 활약하였다.

1907년 11월 1일 어주군 흥곡면 중신동 산속에서 어주경찰서 소속 순사 5명을 만나 그중 권태령 福島藤太郎, 尾田章, 金漢水 등 4명을 사살한 뒤 의병활동을 계속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그 후 1990년 2월 16일 경성지방 재판소에서 소위 살인죄로 교수형을 언도 받아 징소하였으나, 동년 3월 1일 경성 공소원에서 교수형이 확정되어 꽃다운 나이 32세에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건국공로를 기리어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양평읍)

《參考資料》 判決文,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1),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獨立有功者功勳錄(9)》

정 옥(鄭旭, 1735-1805)

철산정씨 입향조. 자는 汝明, 본관은 철산, 鄭天의 아들이다. 정기만의 증조부가 강원도 남춘권 궁동에서 옥원면 신북리 동박으로 이주하여 자손이 세기하고 있다. 옥의 아들은 海表(1770년생), 海範(1773년생), 海章(1776년생) 3형제다. 옥의 묘는 신북리 조항마을에

있고 기타는 생천(劍陽亭)과 꽃전(花田) 등지에 있다. (옥천연)

《參考資料: 靑山鄭氏大同譜, 鄭其漢氏 증언》

정윤득(鄭允得)

항일운동자. 정윤득은 양명출신으로 1910년(경술) 항일운동을 꾀동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의 활동은 경술년에 홍콩의 한인이 발행하는 '진한민보' 제 181호에 활동한 사실이 기록되고 있다. (양명읍)

《參考資料: 梅泉野錄,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정인교(鄭寅敎, 1890- ?)

독립운동자. 정인교는 양명출신이다. 그는 세종, 재미의 항일운동 집북군에 참여했다. 1921년 2월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하고, 한편 한국독립당 조직에 참여했다. 독립당의 국민위원의 규정에 따라 후보국민위원 10인을 선거하였는데, 정인교는 위원으로 당선되었다.

그 후 청년동맹회가 조직되고 의엄단위의 인식구성위원으로 선임되어 북경주재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조선독립운동을 관여하였다. (양명읍)

《參考資料: 獨立有功者功勳錄(丙), 明治百年史叢書, 韓國民族運動史料(중국판),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정인수 부인 영산신씨(靈山辛氏)

연나, 鄭仁壽에게 출가하여 1667년 어주군수로부터 일니표창을 받

았다. (양근)

《參考資料: 楊平郡誌》



정재화

(鄭在和, 1754- 1790)

조선 제21대 영조의 제2자인 강헌세자(莊祖)의 부마로서, 본관은 영일, 송강 정철의 6대손이다.

1766년(영조 42) 정조와 동복 남매간인 청선공주와 혼인, 흥은부위의 작위를 얻었다. 용모가 준수하고 처신이 신중하여 매부되는 정조의 총애를 받았으나 36세를 일기로 1790년(정조 14)에 별세하니 소생으로는 2남 2녀를 두었다. 1897년(광무 1) 두 분의 작위가 흥은위와 공주로 추봉되었다. 흥은위는 일찍이 결혼한 청선공주를 이의고 후배로 밀양 박씨와 재혼 1남을 얻었다.

묘역은 청운면 비룡2리 속칭 도형마을의 북서편 능선 단부에 위치한다. 묘역에는 본래 제실 등 부속건물이 있었으나 625매 소실되었다고 전한다. 묘는 양평군 향토유적 제15호로 지정되었다. (청운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産總覽, 文化遺産分布地圖(楊平郡·詳明大學校博物館)》

정지연(鄭芝衍, 1572- 1583)

조선전기의 문신. 자는 伯之, 호는 南峰, 본관은 동래, 상삼시절 鄭惟仁의 아들이며 이종호·이황·서경덕·성재원의 문하생이다. 1549

년(명종 4) 사마시에 급제하여 진사가 된 뒤 1566년 선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재직로 있을 때 이황을 추천으로 양순사부가 되어 하성군관을 보도하였다.

1569년(선조 2) 의금부도사로 재직시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지내면서 칠본을 별었다는 칭송을 들었다. 1574년 대사성·대사간·대사헌을 거쳐 1581년 부의정에 올랐다. 1583년 병이 겹쳐 커저 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여러 번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고 병중에 있으면서도 글로 국사를 논의하다가 돌아갔다.

돌아가기 전 임금이 대신할 인물을 추천하라고 하자 이산해를 권거하였고 또 유소로 추비를 추천하였는데, 특히 이이의 장단점을 골고루 이야기 한 뒤 기질을 잘 파악하여 들으면 나라에 커나란 보탬이 될 것이라 하였다. 묘는 옥천면 아신리에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楊平文化遺蹟總覽，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韓國人名大辭典〕

정창손(鄭昌孫, 1402-1487)

조선초기의 문신. 자는 昌仲, 호는 충신, 시호는 忠貞, 본관은 충례. 증추원사 鄭欽之의 아들이다. 1423년(세종 5) 사마시를 거쳐 1426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였고 집현전의 서적랑과 교리를 역임하면서 『동감훈의』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443년 집현전 응교가 되어 최안리 등과 한글 창제에 반대하다가 파직, 투옥되기도 하였고 세종의 불경사업에 반대하여 좌천되기도 하였다. 1447년(세종 29) 문과증시에 등제한 후 1449년 집현전 부제학으로 춘추관·린수관·수사관을 겸직하면서 『高麗史』 『世宗實錄』 『楊平要覽』 등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문종 때에는 대사헌을 역임하였으며 대제학 병조판서를 지내며 『文宗實錄』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1453년(단종 1) 이조판서 1455년(세조 1) 좌찬성으로 이조판서를 겸했으며, 좌익공신 3등에 녹훈되고 봉원군에 봉해졌다. 이듬해 사위 김질에게 들은 성삼문, 박팽년의 단종복위 음모를 고변한 공으로 좌익공신 2등에 승차되고 부원군에 진봉되었으며, 이어 대사성, 대제학을 역임하였고, 1457년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1468년 예종 즉위 후 남아장순의 옥사를 다스려 익대공신 3등이 되었다. 1469년 성종이 즉위하자 원상이 되었으며 1472년 궐상을 하사 받았다. 1471년(성종 2) 좌리공신 2등이 되고 1475년(성종 6)에 다시 영의정을 지낸 후 1485년(성종 16) 치사하기까지 3대조에서 15년 간 영상을 역임하였다.

1487년(성종 18) 86세로 별세하니 왕은 창빈계상 이라 하여 3일간 친조하고 부의를 후사하였다. 그 후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의 폐비론에 참가한 죄로 부관참시 되었으나, 1506년(중종 1) 신원되고, 1514년(중종 9) 정백리에 녹선되었다.

성종대왕 묘정에 배향되었다. 묘역이 위치하는 곳은 양서면 부용리 향북 부락의 야산이다. 신도비는 원래 서기정이 1488년에 지었으나, 파쇄 후 개장 때 의선 이원익이 1623년(선조 1)에 재건하였다. 비문은 한준겸이 추찬하고 설열이 글을 썼다. 묘역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85호로 지정되어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博物館)、韓國人名大事典

정 총(鄭摠, 1358-1397)

고려말 조선초 학자. 자는 夢祖, 호는 復齋, 시호는 文懿. 본관은

칭주, 정당문학 庭術의 아들이다. 우왕조 文科에 장원, 1358년(우왕 11) 사예가 되고, 1391년(공양왕 3) 이조 관서를 거쳐 정당문학에 이르렀다. 조선 초에 개국공신 1등으로 서원군에 봉해졌으며, 정도전 등과 함께 『高麗史』를 편찬하여 1395년(태조 4) 완성했다.

이 해 예문관 춘추관 태학사로서 왕의 壽命 및 印信을 중 짓을 상하리 명나라에 파견되었다가 표사가 불순하다고 明帝에게 드립잡혀 대라위에 묶매 도중에 죽었다. 글씨를 잘 썼다. 저서에 『復讐遺稿』가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高麗史, 太祖實錄, 應鑾室記述, 韓國人名大事典》

조공근(趙公瑾, 1547-1629)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懷甫, 호는 梅嶺, 본관은 高陽. 종문관 전한 趙德融의 아들이다. 1588년(선조 21) 생원 진사가 되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직서 참봉으로 종묘의 신주를 모시고 피난하여 영변에 봉안케 하였다.

선조가 광해군을 세자로 삼아 대소조로 나누자 이에 대한 미비점을 상주하여 마침내 분조의 체면을 갖추게 하였다. 1601년(선조 34) 옥천군수, 1605년 형조정랑에 이어 1606년에는 평창군수를 역임하였다. 1612년(광해군 4년) 앞서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시종한 공으로 위성공신에 녹훈되고, 한흥군에 봉하여 졌다.

개모론이 일어나자 병을 핑계로 양근(지금의 양평)에 들어가 치사를 칭하였고, 인조반란이 일어나 광해군 때의 준찰을 모두 삭제함에

따라 삭훈되었다. 그러나 입전왜란 때 묘사의 신주를 모신 공로가 참작되어 1627년(인조 5) 동지중추부사, 가의대부에 올랐다.

1629년(인조 7)에 83세의 일기로 별세하였다. 묘역이 위치하는 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양평읍 도곡3리 산 33번지이다. 신도비의 비문은 조경이 짓고 이삼달이 전했다. 묘와 신도비는 양평군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어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漢陽趙氏兵參公派講,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조찬희씨 제공》

조덕원(趙德源, 1522-1582)

문신. 자는 景混, 본관은 한양, 증 승정원 좌승지 趙憲의 아들이다. 1543년 전사가 되고 1553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전한, 세자시강원 보덕 등을 역임하였다. 증 좌찬성 대례학 한계군이다. 묘는 양평읍 도곡리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漢陽趙氏兵參公派講, 조찬희씨 제공》

조도환(曹道煥, 1854-1896)

의병운동자. 조도환은 창녕인 曹載論의 아들로 1854년 5월 16일 지평면 망미리에서 출생하였다. 일제의 만행이 차행되고 국권이 왜적에게 농락되자 분개하였다. 1895년 윤력 11월에 신국척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나자 지평에서도 거의하였다. 이 때에 같은 마을 전창식 등과 함께 참전하였으나 1896년 2월 8일(음3.21) 출정한 후에 소식이 끊어졌다. 묘는 용문면 화전리에 단을 설치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昌寧曹氏昌山君派講, 方弘運氏 제공》

조동준(趙東駿, 1877-1957)

학자. 자는 澗八, 호는 夢湖. 본관은 평양. 양주군에 사는 나주목사 趙然의 아들 趙斗 尤로 趙斗 賢을 두었는데, 趙南 弘의 아들 趙東 駿(1820-1971)은 일제하의 혼란한 시대와 함께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심산유곡인 서종면 노문리 진대에 들어와 정착하였다. 초동학의 사촌인 동준은 현감 趙東 賢의 아들인데 尤賢에게 입후하였다.

봉호는 원래 가평군 호명리에 살았는데, 사촌이 노문리 진대에 살므로 망래하다가 벽계의 장용환(1874-1938)과 알게되었다. 장용환은 사랑채에 봉호 조동준을 초빙하여 아들 기덕과 마을과 인근의 학도들을 교육하게 하였다. 그 후 진대에서 숙사로 다년간 학생을 양성하였다. 이우중·장기덕·김여양·조용구 등 10여인이 수업을 받은바 있다.

봉호가 학당에서 제자들에게 낭송해 한 風樹圖이 지금 전하고 있다. 내용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함을 한탄하는 글로 부모 생전에 효도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근래 봉호의 제자 장기덕(1920-2003)이 기억을 실려 1993년 백운문화 제10호(p.136-137)에 게재하였다.(석종면)

〈參考資料〉 豐壤趙氏世譜(2), 白雲文化(10), 趙南弘氏 제공

조문형(趙門衡, 1618-1699)

문신. 자는 敬甫, 호는 龍村. 본관은 평양. 용문 趙寧의 증손이다. 세 살에 아버자를 여의고 어머니를 따라 지령을 떠나 광주 문촌에 있는 위조부 趙同知에서 성장하였다. 19세기 화자 학문에 뜻을 두고 집을 떠나 사관 金克후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1636년(인조 14) 겨울



에 외숙이 있는 전북 고창군청 숙소에 갔다가 오랑개가 서울을 범했다는 말을 듣고 둔촌에 계신 모친을 근심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상경할 때에 중도에서 마차가 실동하여 도보로 달려왔다. 모친은 이미 지평으로 피신하였다.

문형은 과거를 피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여 1679년(숙종 5)에 추천으로 선공감역을 시작으로 전생서주부, 지에현감으로 잘 다스리고 둔촌으로 돌아와서는 초가집에 粗食으로 검소하게 살다가 흥원목사로 나아가 많은 치적을 남겼다. 용문면 덕촌리에 있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8호 운계서원에 조육·조성·신번·조형생 등과 배향되어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砥平郡校誌, 平壤趙氏世譜)

조 성(趙晟, 1492-1555)

조선조의 학자. 자는 伯暘, 호는 養心堂. 본관은 평양, 조수함의 아들이며 조광조이연경의 문인이다. 1513년(중종 8)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병으로 30년을 요양으로 보냈다. 의학, 율리, 산수, 천문, 지리 등에精通하여 의산윤의 삼학교관을 지냈다. 부사과를 거쳐, 의영고령(義盈庫令)에 이르렀다.

성리학에 밝았으며 글씨에도 능했다. 후학을 양성하여 많은 학자를 배출했고, 특히 추천으로 조정의 律呂의 5음을 바로잡았다. 조성은 경기문화재자료 18호인 운계서원에 제향하고 있다. 저서로 『養心

정문이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明宗實錄, 龍門集, 顯朝人物考, 韓國人名大辭典》

조승경(曹承慶, 1342- ?)

충신 자는 1忠, 본관은 창녕, 상호군 曹義忠의 장남이다. 1365년(공민 14)에 文科에 급제하여 낭상을 지내고 신돈의 난폭한 정치에 반대하여 부친과 더불어 경북 영천군 삼수리로 내려갔다. 1377년(우왕 3) 상호군에 재수되었으나 1391년 용문면 용문산 아래 조현리에 은거하며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켰다. 이에 이태조가 강제로 추방하였다. 묘는 실전하고 현북 고창 흥덕에 후손이 절단하였다. (용문면)

《參考資料》 高宗曹氏上護軍公派世譜, 曹承和氏 家譜》



조승달(曹承達, 1345-1404)

고려말 문신. 자는 1剛, 호는 卓翁, 본관은 창녕, 상호군 曹義忠의 차남이다.

1345년(충목 1)에 의종의 아들로 태어나 1366년(공민 15)에 문과에 급제하여 좌랑에 있었으나 요승 1世의 폭정에 의해 관직을 삭탈 당하고 투옥되는 등 침체를 마르잡는 데 앞장섰다.

신돈이 죽은 다음에 상호군에 재수되었지만 1392년 이성계의 등극에 반대하여 아들 1忠과 함께 용문면 조현리에서 은거하여 고사리를 재워하여 연명하면서 13여년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태조가 수차 불렀지만 소옹은 끝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니, 태조가 조씨일문 70여호를 강제로 추방하여 일가가 흩어졌다. 소옹의 청정 명철이 백이숙제나 청포은과 비견된다고 하겠다. 1903년 후손 秉準이 조현리 과당골에서 묘를 찾고 규찰이 비를 세웠다. (용문면)

【參考資料】昌寧曹氏上護軍公派世譜, 曹圭純氏 제공

조안효(趙安孝)

호는 陽村, 본관은 양주, 강화부사 趙惟仁의 둘째 아들이다. 1451년 (문종 1) 조봉대부 전라 도사, 판관을 역임하고 1458년(세조 3) 통정대부로 안동부사를 지냈다. 묘는 양평읍 양근리(4)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韓國文化遺蹟總覽

조억기(曹億基)

고려 학자. 호는 松窟, 본관은 창녕, 상호군 曹承述의 첫째 아들이다. 1380년 급제하였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용문면 조현리에 은거하였다. 용문산 가야봉에 올라가 송경을 바라보며 종절을 다짐하고 큰 바위에 '國望臺'이라 세 글자를 새겨놓았다. (용문면)

【參考資料】昌寧曹氏上護軍公派世譜, 조규창씨 제공

조언수(趙彦秀, 1497-1574)

문관. 자는 伯高, 호는 信善堂, 시호는 貞簡, 본관은 양주, 내세학 趙永生의 5대 종손이며 돈녕 趙邦佐의 아들이다. 1497년(연산군

3) 출생하여 1531년(중종 26) 사마시에 합격하고, 1535년 병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견열이 되고, 1539년 사서를 거쳐 1545년(인종 1) 사인이 되고, 그 해 평종이 즉위한 뒤 시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원종공신 1등에 책호되고, 광부승지가 되었다. 1548년 내시헌이 되고, 성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49년 이후 함경도관찰사 1551년 한성부 좌윤이 되고 이듬해 강원도관찰사에 이어 한성부 우윤, 예조이조참판을 역임하고, 1558년(명종 14) 한성부 판윤, 다음해에 형조판서를 지냈다.

1561년 동지중추부사 우참찬 등을 지내고, 1566년 공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지중추부지사를 역임하였다. 죽은 뒤에는 상을 치를 돈이 없어 부의금으로 겨우 염습하였을 정도로 청빈하였다고 한다. 묘소는 미산해가 있고, 신도비문은 율곡 이이가 지었다. 묘는 강하면 황금리에 있다. (강하면)

《參考資料：中宗實錄，明宗實錄，宣祖實錄，海東名臣錄，國朝人物考，韓國人名大事典，韓國文化通誌總覽》

조영호(趙瑛鎬, 1889-1919)

활인독립운동가. 조영호는 양평 용문면 마룡리 출신이다. 직업은 농업은 전업으로 하면서 갑화산까지 감하며 성실히 살아왔다. 그는 당시 30세의 나이로 1919년 8월 30일 김윤구·신준근과 함께 용문면 장탄리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독립가를 높이 들고 군중과 같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독립은 천운이니 사람의 힘이 미칠 바가 아니다. 일꾼인은 불더거리”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경찰에 3인이 잡혔다. 조영호는 징역 8월에 처하여 부옥된 기록이다. (용문면)

《參考資料：獨立運動史資料集(5) 判決文，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조 옥(趙昱, 1498-1557)

유학자. 자는 景陽, 호는 龍門·眞齊, 시호는 文康. 본관은 평양. 판관 柳守의 아들이다. 1516년(중종 11)에 생원 진사 양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조광조, 김석을 사사하면서 학문연마에 힘썼다. 기묘사화 때 두 스승이 연부되었으나 연소하다고 하여 화를 면하였다.

그 뒤에 형인 趙晟과 삭녕지역에 집을 짓고 학문을 감론하며 지냈는데, 세인들은 그들을 정호, 정이 형제에 비겨 칭송하였다. 뒤에 선원전, 순릉, 영릉 등의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다. 어머니가 별세한 뒤 용문산에 들어가 은거하였는데 학문이 알려지 용문선생이라 일컬어졌다. 명종 때 조식 등과 함께 천거되어 내성시 주부가 제수되었고 이듬해 장수현감에 이르렀다. 시문과 시화에 능하였으며 서경덕, 이황 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류하였다.

이조참의에 추증되었고 운계서원(경기도문화재자료 제18호)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龍門集』이 있다. 묘역은 덕촌리 속칭 퇴촌마을에서 북동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야산록으로, 운계서원의 산록 서편에 위치하여 있고 양평군 향토유적 제26호로 지정되었다. (용문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韓國人名大事典,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砥平郡校誌

조 윤(趙養, 1587-1657)

문신. 자는 季彦, 호는 隱丘, 본관은 한양. 趙公瑞의 넷째 아들이다. 1606년(선조 39) 생원시에 합격하고 1624년(인조 1)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의정부 사인, 홍문관 응교, 시강원 보덕을 거쳐서 영해

후자를 역임하였다. 1636년(인조14) 병자호란 때에는 청나라와의 강화를 반대하여 여러번 시화상소를 올리다 1637년에 심문 밖으로 물리친을 당하였다. 묘는 양평읍 도곡리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漢陽趙氏兵爭公議譜, 조선의씨 제공】

조인환(曹仁煥)

독립운동가, 본관은 장녕인데, 양평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가나 후손은 갖지 못하였다. 1907년 충청에서 농민을 규합하여 의병부대를 조직한 뒤 경기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의병부쟁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8월 경기 양평군 양평읍의 군청·세부서·우편물취급소 등 관청을 습격, 파괴하고 출동한 일본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 뒤 허위의 19도 연합의병의 서울진공작전이 실패한 뒤 임진강 유역의 의병들은 서로 연합하여 임진강연합의병을 편성하였으나, 1908년 허위가 불철한 후에는 부대별로 독자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양평읍)

【參考資料】 梅泉野錄, 明治百年史叢書, 楊平義兵運動史,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조중화(趙重和)

효자, 용문면 삼설리에 효자 조중화와 그의 아들 趙重豪에게 동봉교관이 증직되고 1634년(인조 12) 5월에 효자상려하였다. (용문면)

【參考資料】 砥平鄉校誌】

조천주(曹天柱, 1400- ?)

유학자. 자는 敬之, 본관은 창녕, 曹億基의 장남이다. 1400년 (정종 2)에 태어나서 조부와 부친의 유훈을 이어받아 과거를 버리고 부모에 효도하다가 조부와 부친이 별세한 후 용문면 조현리를 떠나 가평군 상면 덕현리로 이거하였다. 이곳을 지금도 조가터라고 한다. 묘는 가평읍 급대리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昌寧曹氏上護軍公派世譜, 조규창씨 제공



조형생(趙亨生, 1564- ?)

문신. 자는 龜町, 호는 龜谷, 趙昱의 손자다. 1602년(선조 35) 사마시에 합격하고 선비들의 권거로 사재감 주부에 제수되고 1624년 이괄난 때에 공조좌랑으로 어가를 호위하였다. 1654년(효종 5) 예산현감으로 있다가 3년만에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왔다.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고 의리를 중하게 여기고, 생활에 매우 검소하고 의복이 단정하며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당시 명사인 정수몽, 임소암, 이택당 등과 막연한 사이로 교분이 두터웠다. 용문면 덕촌리 운계서원에 배향하고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砥平郡校誌

지 천(智泉, 1324-1395)

고려말 승려. 성은 金氏, 본관은 재녕, 호는 竺源, 시호는 正智이고 司率監副승 延의 아들이다. 10세에 장수산 현암사로 출가하여 불경을 공부하고 1353년 원나라 연경에 가서 指掌을 찾아 수도한 다음

1356년 귀국하여 수행에 힘썼다. 1380년 용인의 배려사를 중수하고 1365년 원마산 직별암에서 62세로 입적하였다. 화장후 많은 사리가 나와 수행을 높이 평가하였다.

채지 조안이 1388년(태조 7) 용문사에 창제국사 지천의 부도와 비를 세웠다. (용문면)

〔參考資料: 高麗佛敎史研究, 朝鮮金石總覽, 楊平郡誌,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진 현(陳絃)

여양정씨 입향조. 본관은 여양, 11世의 장남이다. 세종연 노문리 입향조로, 부인이 연일정씨인데 수입리 전주강씨 입향조 강명덕의 부인이 연일정씨라 동서지간으로 같은 시기에 들어와 정착하였다고 전한다. 장근호(1952년생)의 8대조가 되는 진현의 부인 연일정씨의 묘는 이천리에 있으나, 진현의 묘는 지평면 수창동에 있다. (석종면)

〔參考資料: 關陽陳氏大同譜, 姜東錫氏-陳根吳氏 제공〕

大

천낙귀 / 최준삼

천낙귀(千洛龜, 1859-1923)

유학자. 자는 致施, 호는 松齋, 본관은 영양, 증가선대부한성부좌윤 겸 오위도총부부총관 千錫壽의 외아들이다. 화서 이항로의 고제형제 유종교와 지평의 금계 이근원의 문인이다. 벼슬이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을 역임하였다. 금강산 성조암을 탐방하고 선조 천만리의 정덕과 인용의 행적을 살피기도 하였다.

1902년 12월에 의병군자금을 내고, 1903년(계묘) 변함 최익현, 금계 이근원, 의암 유인석, 주도로 先師 화서 이항로 추모사업을 위하여 전국 유림 600여 명이 강수계를 조직할 적에 재원으로 동참하고 50냥을 헌성하였다.

1905년(을사) 9월에 최익현이근원 등 52명이 율곡 이이선생과 화서 이항로 선생을 모시고 강명권수하기 위하여 강수계를 창건하려고 通文을 발의할 때에 동참하였고, 이 講修齋(蓬山講齋)는 1906년에 준공을 보고 율곡선생과 화서선생 두 선생을 봉안하였다.

1907년(순종 1) 청미의병 봉기시 원용관이 봉기하여 평창군 봉평에 이르자 원용관 의병장의 참모종사가 되어 활약하였다.

그 해에 봉평에서 지평면 국사봉 아래 수곡리로 이주하였다. 송재는 여기서 스승에게서 배운 도학과 의리를 감탄하고 수많은 제자

를 양정하며 병상이 많았다. 여주의 우원 송시열 지당 시분해의 유사와 충북 화양동에 있던 만동묘의 유사를 지냈다.

의술 또한 탁월하여 향리 주민이 날치명을 앓거나 병에 걸리면 무료로 치료하여 주었고 향리 대소사에 예법을 물어오면 친절히 가르쳐 주었다. 그러므로 권학자라면 양평군 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 후학을 이어 증손자 천세기가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을 적에 천학자의 증손자라며 군민의 지지도가 높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보사부장관을 지낸 천명기는 천세기 동생이다.

키서에 『松齋遺稿』가 있으며 한재 독립기념관에 보존되고 있다. 묘는 지평면 수곡리에 있다. (지평면)

【參考資料】 錦溪集, 蘇溪淵源錄, 韓末의 堤川義兵, 華西學派의 斥邪思想 研究, 講修契修成錄, 湖西義兵事蹟, 堤川義兵과 傳統文化

천후근(千厚根, 1879- ?)

한말의 의병. 자는 德載, 호는 健軒. 본관은 영양, 종재 丁洛龜의 아들로 화서학파에 속한다. 1905년에 완용팔이 봉기하자 강릉(평창) 봉평에서 만나 참모총사가 되어 활약하였다. 1907년(정미) 부친 송재를 따라 지평면 수곡리로 이주하여 후손이 살고 있다. 묘소는 지평면 수곡리에 있다. (지평면)

【參考資料】 湖西義兵事蹟, 韓末의 堤川義兵, 華西學派의 斥邪思想 研究, 蓬山書齋研究, 양명의병기념관적지는 지평면

최유강(崔有江, 1375- ?)

경주최씨 임실조, 호는 士孫. 본관은 경주이다. 고려조 을묘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음보로 익술을 지낸 후 갑자년에 원문과에 급제하였다. 비서정자, 중서사인, 문하시랑 지제에 이르러 봉익대부 권법관서에 올랐다. 태조가 누차 예를 갖추어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고 여주 대송면 계림동에 복거하여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키다 하세하였다. 지제면 수곡리 수곡서원에 제향하고 있다. (지평면)

【參考資料: 砥平鄉校誌】

최경상(崔景祥, 1545-1628)

강릉최씨 입향조. 자는 孟說, 호는 鶴阜, 본관은 강릉, 경호거사 관서 최세철의 손자요, 영월군수 崔壽增의 첫째 아들이다. 1545년(인종 1) 태어나서 1628년(인조 6)에 별세하였다. 양주에서 살다가 서종면으로 갈마곡으로 이주하여 양평 입향조가 되었다. 1675년(현종 15)에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당시 심리학자 지퇴당 이정향(1549-1607)과 교유하였다. 아들이 基錫·基鐵·基濬·基謙 넷을 두었는데, 서종면에는 장자 기석의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江陵崔氏大同譜, 崔德根氏 제공】

최섭(崔涉, 1786-1847)

효자. 자는 汝州, 호는 忍默齋, 본관은 경주, 입향조 최유강의 후손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1803년(철종 14)에 나라에서 효자로 권려

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延平郡校誌》

최광식(崔光植)

항일운동자. 최광식은 양평출신이다. 1919년 3.1운동 때에 독립운동에 한 입적이 독립운동사에 밝혀지고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獨立運動史(2),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최광악(崔匡岳, 1756-1816)

조선의 효자. 자는 1高, 본관은 강릉. 崔匡岳의 첫째 아들이다. 효사실문이 위치하는 곳은 충현리 산원부락이다. 중앙선 지평역 사거리에서 883번 도로를 따라 북으로 약 3.2km지난 곳에 산원부락이 있고, 정문은 도로 서편의 마을 어귀에 남쪽을 정면으로 위치한다.

이 정문은 조선조 이복 충신의 효자 최광악과 최밀배 부자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고종 19년(1882)에 당시 지평현의 유민 73명이 임금께 상소하여 지평현감이 직접 감독하여 9월에 완공되었다. 정문은 판각지붕에 삼문형태를 갖추고 있는 목조건물이다. 중앙의 출입문 상단에 걸린 현판에는 ‘孝子衛朝奉大夫崔匡岳之門 高宗十九年壬午九月 卅 命額’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최광악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 정문은 양평군 향토유적 제21호로 지정되었다.

그는 8세 때 86세의 노인이 병세치전에 닭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거울뿔 4km떨어진 원산리까지 가서 소원을 풀어드렸고, 또 콩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녹마위에 얼음을 채고 가서 3마리를 낚아 보전을 봉양하였다고 한다.

그는 부친 최광악이 별세하자 집에서 약 2km떨어진 묘소에 울락을 짓고 시묘를 했으며 호랑이도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식사 때마다 등에 업어 왕래케 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지평면)

【參考資料】江陵崔氏大同譜, 砥平鄉校誌, 楊平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崔容莊氏 제공

최기벽(崔基僻, 1573-1645)

무관. 자는 子勤, 호는 梅汀, 본관은 강릉, 사헌부 대사헌 崔景祥의 넷째 아들이다. 1612년 생원, 1612년(광해군 4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다. 1613년에 성균관 박사로 있으면서 이이첨의 심복들이 여론을 조작, 인목대비 폐모론을 상소하자 반대하다가 당시의 세도가 이이첨의 미움을 받고 동생 기백과 함께 성균관에서 퇴관 당하여 금고형을 받고 향리 원주로 내려가 살다가 인조반정 후 억울함이 풀렸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 55세로 관설현 허후와 더불어 의병장 사한 김창일(1548-1631)의 종사관으로 강화도에서 근왕하였다. 또 원주에서 반역을 꾀하는 것을 분쇄한 공으로 1628년(인조 6년)에 소무원종공신 일등훈이 내려졌다. 1645년(인조 23) 9월 9일 타계하였고, 1676년(숙종 2)에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추증되었다.

묘는 강원도 원성군 호지면 호매곡에 있다. 묘비는 넷째 아들 문석 짓고, 장례 백운 이명은이 서하고, 묘지명, 신도비문은 미수 허목이 찬하였고 휴곡 구시복이 서하고, 사당 '월의각' 상량문은 11대 손 현석 최규하가 지었다. (서종면)

【參考資料】江陵崔氏大同譜, 崔德根氏 제공

최기석(崔基錫)

부친: 자는 錫之, 본관은 김릉, 증좌승지 崔景祥의 셋째 아들이다. 수직으로 협지중추부사 협승장군 용양위 부호군이다. 묘는 서종면 문호리 갈마곡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江陵崔氏大同譜, 崔德根氏 제공》

최기철(崔基鐵, 1569-1655)

부친: 자는 鐵之, 본관은 강릉인데, 崔淵庵의 둘째 아들이다. 1606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가선대부 용양위 부호군에 이르렀다. (서종면)

《參考資料: 江陵崔氏大同譜, 崔德根氏 제공》

최대평(崔大平)

의병장, 최대평(57)은 양근군 남중면 신의출신이다. 그는 무죄한 의 수형으로서 부하 3백여명을 인솔하고 양근군을 근거 삼아 의용군까지 댈나늘고 또한 정성을 습격할 목적으로 양근을 출발하여 남중면 문원에 도착하다 일본기병 7명을 만나 교전하다가 타격을 받고 퇴각한 일이 있었다.

교전하던 그 해 12월 24일 귀순하여 이곳에 종사하고 있다는 기록이 남겨져고 있다. (갈현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최대현(崔大鉉, 1852-1931)

독립유공자. 최대현은 양평출신이다. 일명 崔大奎라고도 한다. 한말에는 의병장으로 경기도 일원에서 활약하였으며, 3.1운동 때는 양평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왜적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같은 해 8월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자주적 외교권을 강탈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지배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여 우리민족 우리주권을 부러화시켰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최대현은 대한제국 시기 오위장 출신으로 1907년 군대해산 후 의병을 일으켜 부하 700여명을 이끌고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부정부패를 전개하였다. 이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1919년 3월 31일 양평군 강하면 사무소 앞에서 68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연병 300여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다음날 4월 1일 양서면 도곡리 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 부근에서 집합한 2천여 명과 함께 다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걸군하였다.

이후 시위군중을 인솔하고 고읍면 용암리 언덕까지 행진하고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11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 30원을 받고 이에 불복 공고하여 11월 17일 경성북지법원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20원으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을 기리어 192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양명읍)

《參考資料》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 韓國獨立運動史, 韓國獨立史, 獨立運動史資料集,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獨立新聞(1919.11.15)

최동준(崔東準, 1640-1698)

문신, 자는 半叔, 호는 愚拙堂. 본관은 강릉. 崔基龍의 넷째 아들이다. 1630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응직으로 강양을 거쳐 관산군수를 역임하였다. 8조집관에 추증되었다. 묘는 서령군 상서면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 江陵崔氏大同譜, 崔德根氏 제공

최문활(崔文活, 1600-1666)

문신, 자는 達顯, 본관은 양양, 중 이조참판 崔基龍의 둘째 아들이다. 1630년(인조 8) 지년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문신·보령·함양·한령을 거쳐 예조정랑을 역임하였다. 1627년(인조 27) 청묘호란 때 강화도에서 강의한 공로로 포상을 받고 재용직장에 임명하였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조왕이 청나라와의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여 척화장소를 문했다. 묘는 양시면 양수리 용전에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江陵崔氏大同譜, 崔德根氏 제공

최병배(崔秉培, 1778-1856)

효자, 자는 汝根, 본관은 강릉. 효자 崔世鎭의 아들로 거제면 송현리에서 태어났다. 8세에 83세의 모친이 화병 중에 위중한 상태였

는데, 모친이 닭고기를 먹고싶다고 하자, 이 말을 듣고는 동지설날 설한에도 밤중에 십리나 떨어진 원산리까지 가서 닭을 구하여 모친 소원을 풀어드렸다. 또 며칠 뒤에 물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기에 독 바위에 얼음을 깨고 붕어 세 마리를 낚아서 모친에게 봉양했다.

이러한 효행이 알려지자 지평유림 73명이 임금에게 상소하여 1882년(고종 19)에 효성이 지극한 최광악과 최병배 부자에게 증 조봉대부가 내려지고 정려하였다.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효자영문의 우측에 걸린 현판은 '孝子贈奉天大童蒙教官崔秉培之門 高宗十九年壬午九月 卅 命'이라 새겨져 있는데 이는 최광악의 아들 최병배의 효행을 기린 것이다. 정문이 내려진 것을 지평현감 이봉헌이 뽕소 감독하여 그 해 9월에 건립되었다. 이 정문은 양평군 향토유적 제21호로 지정되었다. (지평면)

【參考資料】江陵崔氏大同譜, 砥平鄉校誌,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祥明大學校博物館), 崔容莊氏 제공

최복현(崔福鉉, 1906- ?)

독립유공자, 최복현은 용문면 출신이다. 일명 崔福鉉이라 한다. 지사는 1939년 서울 중앙고보학교 지리교사로 재직 중에 임진왜란 역사의 이순신 장군 권적이야기와 백두산 절계비 등 내용을 강의하여 항일사상을 고취시켰다.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는 예언 사실과 1940년부터 재학생 5명이 최복현 교사를 중심으로 '5인독서회'를 조직을 하고 독립쟁취를 결의하고 한일유격정보와 임시정부 소식을 수습하면서 항일사상 고취시켰다. 이렇게 학생운동을 극비 진행 중 1941년 8월 22일 5인 독서회 조직이 발각되어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다음 동대문에서 구속되었

다가 한경도로 이송되고 1942년 9월 12일 현흥지방위원에서 모란빌
위반죄로 징역 1년미결 30일 동산1형을 받고 복역 중 1943년 1월 5
일 출옥하였다.

지사는 1943년 1월부터 광복할 때까지 만주에서 한인노부자에게
민족사상을 고취하였다. 그는 교사는 교육자가 역사의 사실을 날조
하며 학생을 선동했다고 날뛰던 일경들에게 백부산상계비의 내력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내 역사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항일사상을 가
지게 되었다며 그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니 저 학생들은 식방해 주
지 바란다"고 말하였다. 여기에 관련된 학생들은 약 1백일만에 함흥
형무소에서 식방되고 최복현 교사는 3년형을 처르고 출옥하였다.

상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 대통령 표창, 1980년에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용문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 獨立有功者功勳誌, 楊平義兵運動史, 楊平獨立運動
史資料集》

최상은(崔相殷, 1644- ?)



상봉키씨 입향조. 자는 陽熙, 호는 東里.
본관은 강릉. 崔顯孝의 아들이다. 본래는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에 세거하였는
대, 만년에 지평면 송현으로 이주하였다.
1672년(현종 13) 중사마시에 급제하고 1686
년(숙종 22) 분과에 합격하여 이조정랑을
역임하였다. 1703년(숙종 29) 해남원감으로
재위 중에 병세하였다. 때는 동진기에 강릉 선산으로 향사지내고자
운구하는데 대관령에 대설이 내리 갈 수가 없었다. 양평에 거주하는

사종이 지평 월산리에 길지가 있으니 이곳에 잠사지내라고 권고하여 송현 행목동에 장례를 지내고, 그 후 자손이 세거하여 살게되었다.

(지평면)

【參考資料】江陵崔氏大同譜, 砥平鄕校誌, 崔容莊氏 제공



최세절

(崔世節, 1479- 1535)

조선초 문신, 자는 介之, 호는 梅窓 또는 鏡湖居士로 본관은 강릉이요, 명조참판 崔應賢의 첫째 아들이다. 1498년(연산 4)에 사마

양시에 급제하고 1504년(연산 10) 밀시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그 후 무과에 급제하고 호당에도 뽑혔으며 이조참의 및 예조참의와 관서·호남·영남·관동의 4도 감사를 역임하였다.

대사헌과 형조호조병조공조 4조의 참판과 오위도총부 부총판, 순변도절제사, 한성부 우윤을 지내고, 1533년(중종 28) 형조호조이조판서를 지냈다. 특히 공조참판 재직시에 보루각의 신자격루(국보 제229호)를 고안 제작함에 공을 세웠음이 자격루의 창동제수수통에 '제조 공조참판 최세절'이라고 양각 되어있다.(자격루 상단에 표기)

신자격루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만원짜리 지폐에 그 모양이 잘 나타나 있다. 고위공직자로는 남달리 위선사업에 힘을 기울였던 고 최규하 대통령은 경호거사의 14대 손이다. 묘는 서종면 문호4리 88-1번지 갈마곡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江陵崔氏大同譜, col's choice 블로그, 崔德根氏 제공

최수증(崔壽增, 1501-1552)

문신. 본관은 강릉(江陵府) 崔世節의 첫째 아들이며, 1534년(중종 29) 증사마시에 합격하여 영월군수를 역임하고 사후에 좌통례 홍문대부가 추증되었다. 묘는 서흥면 문호리 갈매곡에 있다. (서흥면)

《參考資料》 江陵崔氏大同譜, 崔德根氏 家譜

최영석(崔榮錫, 1850-1915)

효자. 자는 稚九, 호는 東袖. 본관은 청주, 씨슬이 불경대부 김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 증추부사를 지냈다. 심상을 당하여 시묘하며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니, 향리에서 효행에 놀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효행이 시숙하여 절리하였다. (지평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砥平郡校誌

최용갑부인 동래정씨(東萊鄭氏)

열녀. 楊川川에게 출가하여 19세에 남편과 사별하였다. 처허미녀가 불쌍히 여기게 시키려 하자 가마에서 도주하였다. 양동면 팔하의 후씨에게 봉안하였다. (양동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최용근(崔龍根)

영일운동가. 최용순은 양평출신으로 1936년 농민동맹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는 영주의 봉안초에 중년 이상은 건설을 위해 산간계

간사업을 추진하여 농민소득사업이 실패하여 농촌은 공동생활의 이상촌으로 발바꿈하여 농민공동생활에 뒷받침이 되었다. 그리하여 농민동맹집사이 가능한데서 성공하게 되었다. 이때 김용기를 중심으로 밀재의 식민통치에 반항하면서 비밀조직이 결성되고 농민의 공동생활에 의한 주체적 운동이 일어났으니 귀농운동이 아닌 농민운동이었다.

계속해서 각지역마다 농민대표들을 소집하고 최용순은 대표들과 함께 농민동맹을 결성하고, 양주에 김용기, 양평에 이장호·최용근·신재익·권중준·문용, 여주에 신홍진, 공양에 박성복, 홍천에 주한집 등 동맹사업을 세우고, 일제 하에 정용, 정병, 강제자출을 망해하고 사업목적에 따라 관공서 및 법원서류를 발화하며, 전쟁용 분자수송의 절도를 파괴하고, 많은 애국투사를 도피시켰다.

그들로 하여금 항일투쟁에 가담하게 하고 일제 패망과 새나라 건설을 위한 힘의도 하였다. 밀재말기의 국내항일농민 조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특히 용문산을 근거로 한 농민동맹이 결성되었다는 것은 특히 주목할 점이다.

일제하에 비밀학생조직이나 국외와 연락된 항일조직이 있었고, 다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1백 1십여 만명의 정용과 3십여만 징발로 인해 농민이 거의 잡혀갔고 거기다 징병이 강요당하고 있던 터에 남아있던 농민들은 숨을 돌릴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 속에서 농민동맹을 결성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항쟁이었다. (양평읍)

【參考資料】獨立運動史(10),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최우석(崔宇錫(友錫))

항일운동자. 최우석은 청운변 다대리 출신이다. 1907년 10월경 의

명 청대부의 부하로 들어가 지평 및 흥천에서 활동하면서 일본 수비대와 교전하였다. 1908년 2월 순천에서 무하 30명을 모집하고 5월 23일 일본군과 교전하다 패주하였다. 9월 중순 일본수비대에 사수됐다. 일의 활동한 사실을 미추이 여주 검사국 및 법원에서 옥살이를 하였다는 기록이다. (청운면)

《參考資料: 判決文, 權平獨立運動史資料集》

최익현(崔益鉉, 1833-1906)

독립유공자. 조선말기 문신. 자는 稔謙, 호는 勉庵, 초명은 奇男, 관향은 갈수이다. 1833년에 경기도 포천군 내북면 가재리에서 朴相仿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4세에 부친을 따라 단양으로 가서 살았고 1843년 11세에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로 이사하여 21세까지 살았다. 여기서 민암은 노문리 벽계로 가서 화서 이항로 문하생으로 입문하고 스승 화서 내에서 유숙하면서 수업하였다. 부친 益는 이미 화서의 명성을 듣고 화서의 문인이 된지 여러 해였다. 이때에 화서 奇男을 명하여 화서에게 제자의 예를 올리고 수업하게 된 것이다.

당시 화서는 어린 기남을 보고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고 청심으로 교도하여 돌보았다. 화서는 특별히 사랑하여 「洛敬圖直」이라는 네 글자를 크게 써서 주었다. 자못에 집으로 갔다가 다음해에 화서의 명으로 팔개를 받고 벽계에 머물러 수업하다 12월에 다시 하석하였다. 이때 화서는 「勉庵」 두 글자를 태자로 써서 주었는데 이것이 민암의 호이다. 1850년 여름 18세에는 또 화서에게서 「存心明理」라는 네 글자를 받았다.

1855년 23세에 명정과 갑자에 급제하였다. 민암이 과거에 합격을 시작으로 승부원 부첨자, 사헌부지평, 장령 등을 거쳤다. 민암은 내

원군의 실정에 대하여 경북궁 역사정지, 조세경감, 당백전학과, 4문의 세를 받지 말 것 등을 들어 조목조목 통박하였다. 고종이 기꺼워하여 통정대부에 승차시키고 동부승지에 재수 되었으나, 사임하고 이후에도 서정을 논박하였다가 제주도 유배되었다가 1875년에 돌아왔다.

1876년 조정이 일본의 구로다(黒田清隆, 1840-1900) 수호봉상을 청하였는데, 조정에서 이에 응하고자 하자 격렬한 저항을 올려 극력 반대하였다. 면암은 도끼를 가지고 광하문 밖에 나아가 엎드려 상소문을 올리고 노숙하며 짚을 새웠다. 극렬한 반대상소로 면암은 흑산도에 유배되고 말았다. 3년 후인 1879년에 돌아와 다음해 호군 및 특진관을 배명하고 대원군이 재집권하여 지헌대부에 승차, 공조판서에 재수 하였다.

1885년 물기사변시 역할을 족치고 옛 복제를 회복할 것을 상소하였고 단발령을 내리자 복수보발을 계획하였으며 유길준이 협박하며 불면의 뜻을 나타내고 구금되었다가 김홍집의 피살과 전 국민의 반대로 단발령이 폐지되자 풀려났다.

1898년에 의정부 잔정 궁내부 특진관에拜命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임하고 12조의 사무책을 건의하고 국정을 바로 잡을 것을 역설하였고 1902년 4월에 정헌대부로 승진하였다. 12월 2일 황제가 입대할 것을 유사하여 수목헌에 입대 5조 사무책을 진상하고 포덕문 밖에서 대명하였다. 그후 동월 8일 사무책을 실행을 간청하고 또 일본차관의 그릇됨을 역설하였다.

1900년에는 가평에 있는 조종암 대동단, 황년 제향에 참석하고 재실에서 강회를 베풀었다. 1903년에는 강수계를 논의하여 강했는데, 그 목적은 화서의 추모사업으로 문집·화동강록, 주차집보를 간행하는 일, 구택을 도로 물리는 일, 묘소에 비석을 세우는 일, 영당을 창건하는 일 등이었다.

1905년 1월 고종이 3만전과 3석미를 하사하였으나 사양, 환납하고 1월 14일 정기관찰사에 체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다시 시무책을 권의하였다. 2월 6일 앞서와 시무책에서 배국역신을 저탄할 것을 주장한 것이 화가 되어 일군사실부에 구금된 후 8일만에 왜헌병에 압송되어 포천집으로 돌아왔으나 그 후 다시 명동헌병대에 체포되어 충청도 징산으로 압송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강수계의 유행무실에 따라 9월 9일에는 평창군 봉평면에 龍川(龍川) 창건을 위해 어우면·어근원 등 50명과 함께 동문을 건너 1906년에 창건되었다.

그 해 11월 18일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5적을 매일 짓을 강령히 권의, 상소하고 온 국민에게 보내는 '근고 8도 사면서'를 고제 백룡인에게 작성케 하여 전국에 포고하였다. 이어 백룡인에게 전남 능주에서 5원에 저사할 수 있도록 모병, 군수등 준비를 하라는 명을 내렸다.

1906년 2월 거의하기로 결심하고, 가교를 하직하고 가족들과 작별한 후 창의한 계획을 위하여 호남을 향해 떠났다. 변암은 관서 이용원·김하진, 관찰사 이도재, 참판 이상연, 이남규·박종식·신우 등에게 편지를 보내 함께 거의하기를 권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크게 실망하였다. 문인 백룡인의 피체로 능주 거사마저 어의치 못하자 부인 고석진부터 갑오의병장 임병찬을 추천받고, 문인 학계학을 파견하여 함께 거의하기로 하였다.

그 후 능주에서는 변암을 맹주로 하여 호남창의소를 설치하고 거사에 만전을 기하였으되 그 후 제2기 의병의 전체적 선봉이 되어 큰 활약을 올렸다. 이때 임병찬이 와서 "호서회병이 선수를 맹주로 추대하여 일군을 토벌코자 한다"하니 곧 출동기로 하였으나 참관 민중식이 능주에서 거의한다는 말을 듣고 "호서의 맹주가 있으니 나는 영호남의 의병을 규합 호서와 상응하겠다" 하였다. 박한일·남규진이 와서 동원하고 심병을 새긴 인장과 준양토복기를 만들어 주고 호서에서 활약케 하였다. 변암은 이태윤을 시켜 오재연과 함께 부기를

장비하여 운봉을 지키게하고 변암은 최재학과 태인에 있는 임병찬에게 가서 상중에 있는 임의사에게 거의하기를 명하여 소집, 군량, 연병의 일을 맡겼다.

이때 의암 유인석이 서신으로 토적의 계획을 물어오니 변암은 남쪽으로 상응하여 토적할 것을 답하고 영남의 조재하이양호에게 영남에서 의병을 규합하여 상응할 것을 명하였다.

1906년 윤4월 13일 태인에 머무르면서 무성서원에 배알하고 여러 문생들을 거느리고 강회를 하고 거의의 상소문을 읊었다. 그리고 문생들과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나에게 종유하는 재군들은 나와 생사를 같이할 수 있겠소?”하였다. 이에 문하생들이 모두 좋다고 하여 자리를 같이한 80여 명과 향교에 들어가 거의하여 토적할 뜻을 先響에 고하고, 곧 이어 고을의 부노들을 불러 대의를 일깨우니, 모두 호응하였다.

고용진이 강종희 등 30여명 포수를 이끌고 합세하여 군세가 대단하였다. 정읍·순창·곡성에 유전하는 동안 많은 의병이 내참하고 군량과 무기도 준비되어 임병찬·김기술·유종규·김재용·강종희·이동주·이용길·손종궁·정시해·임상순·임병인·송윤주·임병대·이도순·최종달·신인구 등에게 명하여 부서를 정하고 임무를 주었다. 그리고 각 군에 격문을 급히 보내어 결기할 것을 촉구하고 거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변암은 일본정부에 서신을 보내어 신의를 배반한 16조의 죄목을 열거 그 죄상을 따졌다. 변암은 왜적을 규탄하고 의병군을 명솔하여 정읍과 순창 등지로 진군하다가 4월 20일에 전주 관찰사 한진창, 순창군수 이진용 등이 일군과 연합하여 전주, 순창의 진위대병으로 공격하였다. 변암은 진위대에게 귀환을 권하였으나 듣지 않고 말포하므로 격전이 벌어져 의병장 정시해가 전사하고 의병 전여 명이 कै멸당하였다.

변암은 23일 임병찬 등 12인과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어 왜군사

형부에 구금되었다. 6월 25일 일군 사령부에서 대마도 감금 3년의 선고를 받고 7월 8일 2년 감금의 선고를 받은 임병찬과 함께 대마도 위출열 경비대안에 감금되었다.

변암은 여기서도 일해와 항쟁하다가 단석하고 황새에게 돌릴 유서를 물리주며 임병찬으로 하여금 쓰게 하고 죽기를 찬성하였다. 맹새가 위독하자 대장이 군의관을 파견, 진찰하고 약을 보냈으나 거절하고 11월 17일 구국항쟁의 영수인 변암은 적지 대마도에서 동지들의 애도 속에 서기하니 향년 74세였다.

저서로 『勉菴集』이 있다. 정부에서는 1922년에 건국공로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서종면)

《參考資料》 獨立有功者功勳錄(1), 勉菴集, 勉菴詩集, 獨立運動史資料集(2), 儒教大事典, 韓末湖南地域義兵運動史研究, 嶺南史學(11)

최춘삼(崔春三, 1901-1928)

독립군. 최춘삼은 양평출신으로 3.1운동 당시에 독립군으로 만주와 러시아 땅에서 항일투쟁을 하였다. 최춘삼은 만주 중동진전에서 이종순·이우성 등의 선민부 정치부위원으로 활약하였다. (양평읍)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 日帝治下韓國36年史,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풍천임씨(豊川任氏)

효린부. 1925년 남편과 사별하고, 시부모 봉양과 자녀를 길러 재인의 모범이 되어 양평군수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양근)

《參考資料》 楊平郡誌

ㅎ

한건 / 흥효창

한 건(韓 健, 1554-1633)

청주한씨 입향조. 자는 彦直, 본관은 淸州, 顯海장군 충좌위 부사과 韓汝亮의 아들이다. 약 400여년 전에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에서 양서면 북포1리 북개로 이주하여 살았다. 자식이 7男5女인데, 양서면에 세거하여온 한씨들은 약 30세대로 아들 有赫 有喆 有珏 有明 有旻 有品 有昌 7형제 중에 첫째 아들 유혁의 후손들이다. 묘소는 양서면 상심현에 있다. (양서면)

《參考資料: 淸州韓氏族譜, 韓基喆氏 증언》

한덕이(韓 惠履, 1871-1939)

독립유공자. 한덕이는 고읍면 옥천리 806의 출신이다. 기독교 장노로서 1920년대 조선독립운동 활동을 하면서 대한독립단에 참여하고 신유균의 권고를 받고 1920년 5월 경기도 독립지단장으로 양동면 쌍학리, 광주군 남종면 등 서당교사를 역임하면서 양평군내 독립신문을 배포를 하고 대한독립단 명의로 군자금 모금책으로 활동하였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보내온 격문을 인쇄, 배포하였으며 군수를 비롯한 권일분자들에게 사형집행신고문을 우송하는 한편 군내 부호들

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렇게 계속 활동하던 중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사무소에서 동지 이재규 등이 다시 광주시방독립단 규약을 만들어 인쇄하여 군자금을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1921년 5월에 모두 체포되어 그는 수년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70년에 건국훈장 애국상을 추서했다. (옥천면)

《參考資料: 明治百年史叢書, 判決文,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東亞日報(1921.6.9.-25.)》

한복경(韓復慶)

호자, 본관은 정주인데 동지중추부사였다. 부모에 효행이 뛰어나서 1831년(순조 31) 나라에서 칭려하였다. (양근)

《參考資料: 楊平郡誌, 純祖實錄》

한봉철(韓奉喆, 1897- ?)

독립운동가, 갈산면(양평읍) 양근리 151번지 출신이다. 농업에 종사하다 22세 나이로 항일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1919년 3월 23-24일에 양평일대에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여 한창호, 김경성, 이상식, 김희봉과 함께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활약하다가 밀정에 체포되어 마천대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또한 독립군과 만주, 노령지역에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한때는 '고려총신청년회' 등에 가입하고 독립군으로 활동해온 바 있다. 그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기명으로 사용한 이름에는 高子, 相子, 韓慶 등이

있다. (양명면)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5), 明治百年史叢書, 獨立運動史(2), 判決文,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한상열(韓相烈, 1876- ?)

한말의 의병. 한상열은 양평출신이다. 그는 1907년 8월부터 1908년까지 경기도 지평과 강원도 횡성에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그가 군대 강제해산에 따라 10월 31일 시위대 해산병 500명과 지방 향병 500명의 이 연합의병부대가 여주에서 일본군과 접전하고자 도강을 시도하고 있었다.

당시 31일부터 한갑복·민광호·한상열·이인영·여용서·심상희, 장모씨 등과 의병장이 거느리는 해산군 및 의병부대로 8,000여명의 연합의병부대가 횡성, 지평간, 毛古谷에 모여서 진지를 구축하고 고지에 방어공사를 하면서 각 방면에 격문을 돌려 의병을 소집하고 원주와 충주를 탈환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양명면)

《參考資料: 獨立有功者功勳錄(1),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獨立運動史, 梅泉野錄, 漢城新聞, 1907.10.15》

한진교(韓震敎, 1871- ?)

항일운동자. 韓殿敎라고도 하며, 서종면 정매리 167번지(?) 출신이다. 그는 대한독립단에 입단하여 1920년도 해외동포들의 입단운동을 권장하고 국내 항일운동에 참여의식을 고취시켰다. 우국지사들과 합류하여 비밀문서를 발송하고 독립운동에 동참하며 삼해 입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는 임무를 맡았다.

한진교는 1919년 5월 비밀전사 대한독립군 환영단을 조직하기 위한 글을 배포하고 군사금을 지원 받는데 역할을 하였다. 그는 조직을 이용하여 왜병에 대한 앙상단 취지문서 1천매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22년 1월 12일 고등경찰보고서에 의하면 종로경찰서에서 배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明治百年史叢書,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한창호(韓昌鎬, 1896- ?)

항일운동자, 김산면 양근리 427의 출신이다. 그는 커피업이 자천기 수리업이다. 한창호는 23세 나이로 1919년 3월 23, 4일에 양평일원에 장날마다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한 시기에 합세하여 김경성, 서상석, 김석봉, 한봉철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지 시위운동을 주도하고, 군중들과 국난을 회복코자 독립만세 시위하다가 헌병에 분견소에 끌려갔다. 이로 인해 경성지방법원의 징역 10월에 처하여 옥고를 치렀다. (양평읍)

〔參考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 楊平獨立運動史資料集

함 규(咸規)

양근함씨의 증시조. 시호는 龜厚. 본관은 양근, 신라 김文王(7-875) 때에 출생하였다. 용문산에 성지를 구축하고 살았던 成軸의 19대 후예가 된다. 함규는 용문산 함왕성지에 살면서 항양의 호족으로 사임하며 영도하에 있는 백성을 어질게 다스리 후삼국이 수립하여 혼란할 때에 그의 영도에 잘 따랐다.

함규는 군사를 일으켜 고려 왕건태조(877-943)를 도와 고려개국에 공을 세워 익찬개국공신으로 은칭광록대부광평시랑 평장사 태위 반열에 올랐다. 옥천면을 고읍면이라 하였듯이 이 지역을 근거로 호족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함왕성이라 터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咸規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楊根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평의 역사상 첫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함규다. 그러나 묘를 실전하여 1993년 9월 5일 옥천면 아신리 산91번지에 신단을 만들고 매년 5월 5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楊根邑誌, 大東嶺府群玉, 함씨 성의 뿌리찾기-네이버 지식IN, 江陵咸氏族譜, 楊根咸氏族譜, 韓國文化遺蹟總覽,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역사기행》

함 순(咸淳)

문신, 자는 子眞, 호는 甫隱, 시호는 文淵, 본관은 양근, 咸有 一의 아들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문장과 필개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임춘·오세재·이인로·조봉·황보항·이담지 등과 망년우를 맺었는데, 세상에서는 이들을 죽림칠현이라고 한다. 양양현감을 지냈다. (옥천면)

《參考資料: 楊根邑誌, 大東嶺府群玉, 함씨 성의 뿌리찾기-네이버 지식IN, 江陵 咸氏族譜, 楊根咸氏族譜》

함양옹주(咸陽翁主)

함양옹주는 조선조 정종의 딸딸로 정종의 후궁인 지씨의 소생이다. 함양옹주는 밀양박씨 박경개과 결혼하여 아들 1명을 두었다. 박경개은 밀령위에 봉해지고, 그 생부는 박득중이다. (옥천면)

《參考資料: 韓國史 卷 楊平史》

함유일(咸有一, 1106-1185)

고려 문신. 자 군차. 시호는 貞敏. 본관은 양근. 咸興의 5대손 德範의 아들이다. 제상 이준양에게 의탁해 있던 중 1126년(인종 4) 이자겸의 난 때 이부기관어 되어 이준양을 도와 대궐을 지켰고, 1135년 묘청의 난 때 하급관리로 공을 세워 서경유수목사가 되었다. 추밀원사 왕충의 권거로 선군기사이로서 내시에 들어가 군대의 주사를 맡았다. 교로도감이 되어, 부당을 교외로 추방하고 음사를 불치르는데 미신타피에 힘썼다.

뒤에 감찰어사·황주관판·사병도감·참사를 지내고, 1170년(명종 1) 병부랑중이 되고, 상서좌승을 지냈다. 도야순이 도회 仁(인)에게 만관 권고의 편지를 보낸 사건에 연루되어 내시의 격이 삭제되었는데, 1179년(명종 9) 공부장서로 지사하였다. 일생을 배움만을 읽고 실그릇을 쓰며 청빈하게 살았다. (옥천면)

《參考資料》 楊根邑誌, 大東龍府群王, 함씨 성의 뿌리찾기-내이버 지식IN, 江陵咸氏族譜, 楊根咸氏族譜

함 혁(咸赫)

강릉함씨의 원조. 시호는 文簡. 함혁은 아득한 날고 3800 년 전에 한강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이 소국을 형성할 때 지금의 양평군 용문천 서쪽(현재 옥천면 용천리 삼북)에 咸(咸)을 붙고 풍기한 촌락으로 세칭 함왕주막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함왕의 비각은 중앙선 양평역 캠프 건너편 동산에 있었으나 1960년 6.25동란 때에 소실되었다.

그러다 1955년 옥천면 용천리 고을 함왕상지 하에 위치한 함다사 북원지 명당 측면에 별도로 4칸의 집을 세우고 咸(咸)이라 현판하고 영정을 봉안하고 제사하여 왔으나 1983년 함왕성 유허비를 건립하고

고유제 행사시에 조계종측의 권고로 함씨각으로 고치고 예년 양력 5월 5일에 제향하고 있다.

함씨의 후손들은 양근을 본관으로 삼아 世系를 이어왔으며, 15세손 信(일명 훈)이 785년(신라 원성왕 1) 金周元(강릉 김씨의 시조)을 따라 강릉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어 본관을 강릉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咸氏閣'은 옥천면 용천리 사나사 경내에 있다. (옥천면)

【參考資料: 楊根邑誌, 함씨 성의 뿌리찾기-네이버 지식iN, 江陵 咸氏族譜, 楊根咸氏族譜, 韓國文化遺蹟總覽】

허 격(許格, 1595-1690)

조선조 학자, 자는 春長, 호는 滄池, 鷗湖, 崑湖, 崑湖處士, 본관은 양천, 좌찬성 許篈의 5대손, 효자 許篈의 다섯째 아들이다. 이안눌(1571-1637)의 문인이다. 문장과 기철로 이름나 있고 서종면 수임리 바치울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627년(이조 5)에 조정이 청나라와 화친한 것에 대하여 비분함은 이기지 못하고 산천을 방랑하다가 덕수이씨 문정공 이석(1584-1647)의 권유로 과거에 나갔었으나 범식이 맞지 않아 빠졌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에는 태백산에 있으면서 의사를 보집하여 참전하려다 남한산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북망통곡하였다. 창제는 의리상 세상에 서지 않겠다고 절벽위에서 떨어져 죽으려 할 때 마침 붙잡은 사람이 있어서 죽지않고 단양 산속에 은둔하여 지냈다. 또한 천자 명나라 황제 의종이 순사직하고 오랑캐가 북정에 진주한 후 온 천하가 다 머리를 치발함에 더욱 슬퍼하였다. 스스로 강해쳐사라하고 호를 정하였는데 이는 중국 11나라 도연명이 전국시대 철의를 지킨 형가를 읊은 뜻에 따른 것이다.

가평군 하면 대보리에 시냇물이 시냇에서 나와 동쪽으로 흐르는 데, 이를 조종천이라 한다. 창해는 이 '朝宗'이라는 이름을 사랑하여 숙종10년에 가평군수 이재두와 선비 백해명과 의논하기를 "이곳은 천하에 깨끗한 곳이다. 명나라 사적이 폐허가 된 후 우리는 추모하는 마음을 붙일 곳이 없더니 이제 얻었다"하고 구정을 생각하고 보은을 잊지 않기 위하여 조종천변 큰 바위에 명나라 말의 의종황제의 친필 '思無邪' 세자를 각자하였다. 여기에는 昭毅王(宣祖)의 친필 '萬折必東 再臨壽邦'과 효종대왕의 비담 중 '行慕道遠 至痛存心' 8자를 우암 송시열의 명적을 받아 새기고, 날천군(愼)의 편서 '朝宗廟' 석자도 각자하여 놓았다. 그리고 그곳의 주민들에게 잡역을 면제하고 수호케 하였다. 창해는 조종암을 새긴 후에 시를 지었다.

말중에 앉아보던 각을 멀리 끊으나
 억만하 다 북두칠성이 높은 줄 알고있네
 천지개벽 후 세월은 얼마나 되었는지
 세왕은 예부터 지금까지 천지를 되렷네
 산과 실은 알아 설명하던 무릇을 향에게 물었는지
 어른가 아직도 입전간의 은혜를 품고 있는데
 古史는 병자 항복한 일을 논하지 마소
 하늘에 태양이 하나라고 孔子님은 말하였네.

이렇게 하면서 명나라를 높이 보고 청나라를 배척하였다. 또 사당을 세워 의종황제 제향을 받들고자 함에 송우암이 듣고 좋아하면서 의종황제도 보실 것을 언급하였다. 충북 화양동의 만동묘와 서울 비원의 태보단은 여기에 근본한 것이다.

창해는 또 바위 밑 맑은 물위에 작은 단(大統壇)을 설치하고 매년 의종황제의 세삿날이 되면 이백과 함께 모여서 북망통곡하였다. 또한 효종대왕 휘일에도 또한 풍읍하고 고기를 먹지 않으며 시현력(침나라 책력)을 보지 않았다. 당시 삼전도 비문을 썼던 이경석(1635-1671) 사신으로 북경에 가는 길에 창해는 아복으로 홍제원에 가서 전송하면서 시를 증정하였는데, 그 시에 '천하에 산이 있어 나는 이미 숨었으며 세상에 황제는 없는데, 당신은 누구에게 조회하러 가는가' 하며 비웃었다.

그 후에 창해는 해주 수양산에 백이 숙제 사당을 세우고 그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받들도록 권하니, 이것이 청성묘라는 것이다. 창해는 언문이 격하여 竹時撰(매에 거슬러 재앙을 만남)하여 문군에서 10년의 옥살이를 하였다고 한다. 81세에 별세하니 박세채(1631-1695)가 '大明處士'라고 명정을 썼고, 46년 후에 영남 유생 권형만 등이 포장할 것을 청원하여 1735년(영조 11) 승정처사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묘는 서종면 꽃대울(花時谷)에 있다. 而隱의 후손(而隱가 2006년 12월에 천묘했다. 저서에 『而隱』이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陽川許氏漁隱公派譜, 國朝人物誌, 古鮮冊譜, 韓國人名大事典, 京畿道史, 朝宗嚴文獻錄, 加平郡誌, 許仁茂氏 제공

허 균(許均, 1563- ?)

양천허씨 입향조. 자는 上卿, 본관은 양천, 許繼의 셋째 아들이다. 서종면 오리개(분호3리) 사는 연일정씨 현감 정석희가 장인이다. 병자호란 때 균은 호란을 피하여 차가닥 근처인 서종면 분호리로 이주하여 서종면 양천허씨의 입향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란(1636-1637)은 균이 73세였으므로 균의 출년을 알 수 없어서 이

주인유에 대하여 정확한지는 의문점이 있다. 묘소는 시종면 도장리 선22번지가 위치한다. (서종면)

〔參考資料〕 陽川許氏文靖公派譜, 許完魯氏 譜言

허씨머느리

효부, 옥원초등학교 정문 좌측 약 100m 직접 마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연대미상의 비석으로 비 옛날 허씨가문의 머느리에 대한 효행비로 구전되어 오고 있다. 비두는 부근형으로 그 수법은 사실적이며 칼망형의 비좌위에는 謹文이 장식되어있다. 비의 재료는 화강암이며, 높이는 150cm, 폭 50cm, 두께는 15cm의 규모이며, 비문은 마멸이 심하여 관독이 전혀 불가능하다. 현재의 위치가 원위치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마을의 전설에 의하면 선대 때 허씨가의 머느리가 풍도 위 서부를 모시고 곤궁한 살림을 하던 중 어느 날 양식이 떨어져 크게 고민했다. 그녀는 겨우 개가 먹고 도한 보리쌀을 구해 서부의 밥상을 겨우 차릴 수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뇌성과 함께 비가 쏟아지자 두려운 나머지 엎드려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그리자 비가 그친 뒤 눈앞을 보니 금은보화가 쌓여 있었다는 것이며, 이후 가세가 융성해지고 효성으로 서부를 모셔 마을 주민들이 효행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 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의 조성형태나 조성 수법으로 보아 선대시대의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내력 조선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양평군 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되었다. (옥현면)

〔參考資料〕 陽川許氏漁隱公派譜, 楊平文化遺蹟總覽

허 직(許稷, 1592-1644)

조선 문신. 자는 春容, 호는 白石. 본관은 양천. 호자 許淮의 첫째 아들이다. 1613년(광해 5) 사마시에 합격하고, 1616년 증광문과에 합격하였다. 통정대부 행 과주목사, 참의를 역임했다. 묘는 서종면 수입리 꽃대울(花時谷) 참해 묘하에 있다. (서종면)

【參考資料】 滄海詩集, 陽川許氏漁隱公派譜, 國朝人物誌, 古鮮冊譜, 韓國人名大事典, 城南의 무리, 砥平鄕校誌

허직부인 한산 이씨(1589-1636)

열녀. 한산이씨는 이조판서 李穡(1417-1456)의 손녀요 李穡의 딸로 호자 허희의 아들 통정대부 행 과주목사 허직(1592-1644)의 아내이다. 이씨는 소학 논어 맹자를 배워 능통했으며 평소에 의젓하게 열장부의 풍도가 있었다. 병자호란 때 남편 허직이 관리로 남한산성에 들어가자 부인이 혼자 자녀를 데리고 楸子島에서 산혈으로 피난하던 중 김단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 청군을 만나자 몸에 지니고 있던 밥을 뽑아 자결하였다. 1640년(인조 18)년 정려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자 열녀문이 세워졌으며 참의 허직이 다음과 같이 글을 지었다.

已生內子死 기축년에 나서 병자년에 죽었고
 風有德結就義 일찍이 덕이 있더니, 의를 좇았도다.
 三男女承厥祀 세 자식이 있어서 세사를 이를 짓고
 命旌閭家竊議 청려를 명하시기에 家竊은 기록하노라

(서종면)

【參考資料】 陽川許氏漁隱公派譜, 城南의 무리, 重訂南漢誌

허 회(許淮, 1573-1617)

조선조 요사. 자는 巨源, 호는 洵隱. 본관은 양천, 한길 김鍊의 셋째 아들이다. 광해군 때에 경기도 광주에서 서종면 수입리 마차울로 이주하여 살면서 부모에 효행이 적극하였다. 광해의 고령인 허준의 딸과 결혼하여 權位 權稱 格釋 6명제에 두었다. 부모에 효도가 적극하여 나라에서 집의를 수여했다. 묘소는 서종면 바치울에 있고, 묘표는 정을 김상헌이 지었다. (석종면)

〔參考資料〕 新增 東國輿地勝覽, 陽川許氏源遷公遺蹟, 咸興의주리

혜순옹주(惠順翁主)

김인경 부인. 혜순옹주는 조선 제11대 왕인 중종과 그의 후궁 경민마씨의 초생으로 김현윤의 아들 김인경에게 출가하였다. 김인경은 1522년(중종 17)에 장신위에 봉해졌다.

묘는 부군인 장신위와의 합장묘로서 옥천면 신북리의 나지막한 구렁에 동남향하여 있다. 묘 중앙의 묘비는 원두형으로 비파바산을 갖추고 있는데, 백색화강암의 비좌는 마모가 심하며 돌이끼가 있다. 비신은 천추면에 비문이 있는데, 천면에 “通憲夫人光川府金公之墓 惠順翁主”라 음각되어 있다. 묘는 양평군 향토유적 제38호로 지정되었다. (옥천면)

〔參考資料〕 楊平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經明大學校博物館), 畿內陵園誌

홍 건(洪建, 1550- ?)

부신, 본관은 남양. 洪希顔의 셋째 아들이다. 부과에 급제하여 16

使를 지냈다. 사후에 증 순충적덕보조공신 호조판서 익평군이다. 묘는 양평읍 공흥리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南陽洪氏世譜, 洪正杓氏 제공》

홍경창(洪慶昌, 1489-1523)

문신. 자는 祥卿, 본관은 남양, 洪係江의 둘째 아들이다. 1504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급제하여, 안동부사를 역임하였으며, 예조참관이 追贈되었다. 묘는 양평읍 공흥리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南陽洪氏世譜, 洪正杓氏 제공》

홍계강(洪係江)

남양홍씨 입향조. 본관은 남양, 洪新錦의 둘째 아들이다. 진사시에 합격하고 평양현감을 지냈으며 증 병조참의이다. 양근에卜居한 것은 조선조 세조대에 정착한 듯 하며 부인 연안이씨의 친정이 양근이므로 처가근처로 이거하여 자손들이 세거하게 된 것이다. 묘는 양평읍 공흥리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南陽洪氏世譜, 洪正杓氏 제공》

홍남표(洪南杓, 1888-1950)

사회주의 운동가. 본관은 남양인데, 1888년 양평읍(갈산면) 신애리 빈농에서 태어나 중앙학교(중앙고등학교의 전신)를 졸업하였다. 1910년 8월 국권피탈에 반대한 시위로 체포되었으며, 1919년 3·1운

동에 산이한 뒤 만주로 망명하였다.

1919년 10월 만주지역의 독립운동가를 후원하다가 관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일제의 부자비한 피살인 일명 관도침변을 피해 베이징(北京)으로 피신하였다. 1920년 6월 국내로 잠입하던중 山東廳에서 검거되었으며, 출감 후 1924년 홍명희·홍승식·구연홍·비일병 등이 결성한 사회주의 사상 단체인 화요회의 중앙위원이 되었다.

1925년 3월 최남선이 창간한 '시대일보'의 지방부장이 되었으며, 4월 조선공산당이 개최한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과정에서 일본 경찰의 강력한 세지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과 군중들이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만세', '무산자만세', '무리한 경찰의 압박에 반대하자'라고 적힌 적기(赤旗)를 앞세우고 행진한 사건인 일명 '적기사건'에 동참하였으며, 11월 조선공산당 조직부장에 선임되었다.

1926년 6·10만세사건에 참여한 뒤 검거를 피해 상해로 망명하여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다.

1928년 1월 말성 폭쟁단을 조직하고 체호한인 중 부유한 자에게 협박장을 보내고 금품을 강요하였다. 반민 관헌측의 탄압이 엄한데다 일만 한인이 그들에 대해 경계가 심하였다.

1932년 12월 홍남표가 체포되고 한인거주는 전세되었다. 1945년 11월 전국 각 지역에 조직된 인민위원회 대표자들이 모여 조선의 완전독립, 미군정과의 관계, 기타 달민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된 전국인민위원회대표자대회에서 집행위원에 선임되었으며, 1946년 2월 좌익세력의 통일전선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1946년 9월 9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어 부평형무소에 수감되었으며, 1948년 8월 광해도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되었다. (양명음)

【參考資料】 明治百年史叢書, 朝鮮露清軍, 日務官下韓國36年史, 네이버 백과사전】

홍득기(洪得箕, 1635-1673)

조선의 문신. 자는 子範, 호는 月湖. 시호는 孝簡. 본관은 남양이다. 우의정 洪重普의 아들로 숙안공주와 결혼 후, 익평부위로서 도위겸도총관이 되었고, 효종이 즉위하자 익평위에 진봉, 1660년(현종 1)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인품이 겸손하고 소탈하여 주위사람과 백성들의 숭앙을 받았다. 묘소는 용문면 화전리 부친 이천(重普) 묘하에 있고, 비문은 박세당이 지었다. (용문면)

〔參考資料: 楊平郡誌, 砥平總校誌〕

홍 륜(洪璵)

남양홍씨 입향조. 자는 汝粹, 본관은 남양, 익원군 洪慶濠의 현손이다. 선조 때에 진사에 합격하였는데, 양동면 계정리로 낙향하여 입향조가 되었다. (양동면)

〔參考資料: 砥平總校誌〕

홍봉선(洪奉先, 1565-1672)

문신. 자는 夢淑, 본관은 남양, 洪夢男의 첫째 아들이다. 생원으로 1626년(인조 4) 태학 추위에 의하여 벼슬을 시작하여 봉훈대부 안악군수를 역임하였다. 증직 승정원승지이다. 묘는 양평읍 공흥리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南陽洪氏世譜, 洪正杓氏 세공〕

홍석귀(洪錫龜, 1621-1679)

본신, 자는 鶴寶, 호는 東湖九曲山人(白雲山人) 支離齋 馳岩 등으로 본관은 남양, 진사 洪濂의 아들이요, 백당 이석 문인으로 망명승신이다. 1645년(인조 21) 생원이 되고 1650년(효종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절주목사에 이르렀다. 10여세 때부터 글씨에 뛰어나 많은 한역을 썼고 조각에 능하였으며, 효종 삼자 시경에 총애를 받아 제자의 신발을 하사받고, 관문학에도 성통하여 나무로 '혼천의'를 만들기도 하였다.

글씨를 특히 천사를 잘 썼자 현종의 격찬을 받았다. 작품으로 松薇人師守初碑, 正邱朴汝龍碑(해주), 洪烈魁碑(양근) 등이 있다. 묘는 망명읍 공룡리에 있다. 묘갈문은 외세 이단하가 지었다. 천묘시에 묘에서 예술조각품 8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었다. (망명읍)

《參考資料》 畏齋集, 三淵集, 朝鮮金石總攬, 南陽洪氏世譜, 韓國人名大事典, 洪正杓氏 제공

홍성귀(洪聖龜, 1626-1672)

본신, 자는 國明, 본관은 남양, 진사 洪濂의 둘째 아들, 洪錫龜의 동생이다. 1642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650년(효종 1)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봉훈대부 강릉부사를 역임하였다. 묘는 망명읍 공룡리에 있다. (망명읍)

《參考資料》 南陽洪氏世譜, 洪正杓氏 제공

홍순언(洪純彦, 1530-1598)

문신. 자는 士俊. 본관은 남양, 洪謙의 첫째 아들로 양평에서 출생하였다. 수충익모수기 광국공신. 판돈녕부사 당능군 행 병조참판. 친조사. 은자광록대부이다. 역관으로 임진왜란시 명나라에 구원병 청원하여 명군이 파병되었다.

홍순언은 명나라의 만력 연간에 이듬난 통역관이었다. 인천가 명나라의 서울 연경에 들어갔을 때, 船館에 놀러 간 일이 있었다. 그곳 여인들에겐 자기 용모에 따라 몸값이 매겨져 있었다. 그 중에 톨 값을 매긴 여인이 있었다. 홍순언은 그 여인을 불렀다. 16세의 예우 뛰어난 미인이었다. “어찌하여 나이 어린 것이 이런 곳에 왔느냐”고 하니, 여인은 홍순언을 마주 대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소녀의 아버가 공금 1천냥을 유용하시었는데, 이것을 채워놓지 않으면 곧 죽는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된 제가 몸을 팔아서 아버를 구출하고자 사창에 나왔습니다”하며 사연을 말하였다. 그러자 격관 홍순언은 딱한 사정과 딸과 같은 어린 소녀의 효성심에 감동하여 1천냥을 주고 16세의 소녀를 구제해주었다는 것이다.

홍순언은 조선의 역관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역관으로, 역관으로는 드물게 광국공신 당릉군으로까지 봉해진 특이한 인물이었다. 그가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까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宗系權謀’ 즉 명나라의 『大明會典』에 잘못 기록된 태조 이성계의 족보를 바로잡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 군사를 보내주도록 한 것이다. 조선이 명나라에 구원병을 얻어 낸 것은 홍순언이 구해준 소녀가 뒤에 명나라의 병부상서 石砮의 부인(소실)이 되었는데, 자기를 구해준 조선 사람이 홍순언임을 알게 된 부인이 자초지종을 남편 석성에게 이야기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명나라 석성은 크게 감동하여 홍순언의 일이라면 설심껏 도와주었다는 것이며, 이여송이 조선에 파송된 것은 홍역관의 역할

이었다는 것이다. 그 끝으로 약화되었던 풍순원은 병조참판까지 올랐던 것이다. 묘는 강남구 임구성당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南陽洪氏世譜, daum신지식 M, 洪正杓氏 제공》

홍 신(洪愼, 1489-1541)

문신. 자는 重叔, 본관은 남양. 안동부사 洪慶의 셋째 아들이다. 1519년(중종 14) 문과에 급제하여 경주부윤을 역임하였다. 묘는 양평읍 공흥리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南陽洪氏世譜, 洪正杓氏 제공》

홍 윤(洪潤, 1515-1560)

문신. 자는 德翁, 본관은 남양이다. 1546년 생원 진시 양시에 합격하고 금부도사를 역임했다. 부인 영천이씨는 1592년(선조 25) 7월 24일 임진왜란 때에 순절하여 『 剛門實錄』에 등재되었다. 명종 때에 정려하였다. 묘소는 양평읍 공산리(공흥리)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 南陽洪氏世譜, 洪正杓氏 제공》

홍재철(洪在喆, 1799-1870)

조선 후기 문신. 자는 政啟, 본관은 남양, 洪起燁의 아들이다. 1876년(?) 경기도 관찰사로 재임시에 시종반 주민들의 세금을 3년간 면제하여 주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그 은덕을 기리고자 분호리 덕고개에 '永世不忘碑'를 세웠다.

그의 저서로 『 剛門實錄』라는 日記가 있다. 이 책은 1825년(순조 25)

에서부터 1864년(고종 1)까지 기록하고 있다. 서문이나 발문, 또는 기록 취지를 밝힌 내용은 없고, 朱書로 내용을 수정한 곳이 여러 군데 보인다. 제1책은 25년부터 28년까지로 생원시와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분관되는 과정을 거의 매일 기록하고 있다. 제2책은 29년부터 38년(현종 4)까지로 봉훈낭으로부터 영광군수에 제수되기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제3책은 39년부터 42년까지로 승지에서 성균관 대사성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제4책은 43년부터 47년까지로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고, 형조판서에 제수되기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제5책은 48년부터 51년(철종 5)까지로 대호군에 제수된 것 이외에 관직상의 커다란 변동은 없다. 제6책은 55년·56년의 기록으로 가장 짧은 기간을 한 책으로 다루었으나 내용은 제5책과 대동소이하다. 제7책은 57년부터 64년까지로, 판의 금부사, 지돈녕부사, 경기도관찰사, 예조판서 등을 거치는 동안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 책은 각 사실을 '승上 몇 년 干支 월일'로 기록하여 일기의 체재를 갖추고 있으며, 한 개인의 일기이지만 벼슬살이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 조선 후기 인사행정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서종면)

【參考資料】 鄉土의 발자취, 純祖實錄, 憲宗實錄, 哲宗實錄, 南陽洪氏族譜, 이후 지식 인》

홍중보(洪重普, 1612-1671)

조선후기의 문신. 자는 遠伯, 호는 梨川, 시호는 忠靈, 본관은 南陽. 평안도관찰사 洪命壽의 아들이다. 1635년(인조 13) 진사시험에 장원하여 강릉영릉 참봉·시직 등을 지내고, 1654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이어 정언·성산 현감을 거쳐 1660년(효종 1) 수완으로 춘추관기사관이 되어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그 후에 수원부사·도승지·대사간·대사헌·호조참판·예조참판 등을

기초 1661년(현종 5) 처경헌사, 호조와 병조판서 등을 역임했는데, 특히 도사에 임명되어 병조판서를 네 번이나 지냈다. 그 후 우참찬·관의금부사 등을 거쳐 1669년 우의정에 이르렀다.

숙위가 허술 한 것을 우려하여 기내의 군병 중에서 남한 군사를 뽑아 친히 훈련하여 정조군으로 삼아 임금을 호위케 했는데, 이는 숙종 때에 와서 근위영으로 개칭되었다. 묘는 용문면 화길리의 내지막한 구릉에 北向하여 있는데, 왕경부인 한산 이씨와의 합장한 묘다. (용문면)

【參考資料】楊平郡誌, 楊平文化遺蹟總覽,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鮮明大學校(朝鮮期)), 韓國人名大事典

홍처대(洪處大, 1609-1676)

조선조 문신. 자는 仲, 호는 역현(檟峴), 본관은 남양, 경기도 관찰사 卍命元의 아들이다. 1633년(인조 11) 사마시에 합격하고, 1639년(인조 17) 안성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충청원 정자가 되고, 1640년 봉상시 봉사직을 겸하였다. 이듬해 7월에 직좌에 오르고, 9월에는 마사가 되었다.

1642년(인조 20) 12월에 예문관 집열, 1643년 정월에 대교로 승진되고, 이어 봉교 겸 설서가 되었다. 1644년 성균관 전학, 사헌부 감찰, 병조좌랑으로 전직했다. 안행어사로 호남지방의 여론을 들어 정립도를 물었다. 1645년 경기도 도사, 1646년에 예조좌랑에서 금산현감으로 나갔다. 1649년(인조 27) 정언 겸 차제교, 홍문관 부수관, 부교리, 교리에 올랐다.

1651년(효종 2) 병조좌랑, 1652년 사간원 헌납, 이후 시강원 사서, 현학교수, 이조좌랑·첨랑, 1653년 수관, 1654년(효종 5) 의정부집사, 모년, 군사감 장, 김의, 사복시랑, 대사랑, 충청원 통무승지에 올랐다.

1658년(효종 9)에 좌부승지, 이듬해에 안변부사, 호조참의에 올랐다.

1662년(현종 3) 동지부사, 형조참의, 좌승지, 1664년 10월 황해도 관찰사, 1665년(현종 7) 전주부윤, 경주부윤, 1671년 평안도 관찰사, 1672년 사문사부사, 1673년 2월에 도승지, 한성부윤, 1674년(현종 15) 호조참판, 병조참판 겸 국장도감 제조가 되고 가의대부에 올랐다.

다시 도승지 겸 실록청 당상을 역임하였다. 1676년(숙종 2) 동지의금부사에 임명되었고 지중추부사로 영남무과전시 시관으로 발령되어 임지로 가던 도중 군위에서 68세로 타계하였다. 묘는 용문면 마풀리에 있다. (용문면)

【參考資料】南陽洪氏世譜, 先祖史蹟(南陽洪氏海峯公宗中), 韓國人名大事典, 洪正杓氏 제공】

홍효손(洪孝孫)

문신. 본관은 남양, 洪建의 셋째 아들이다. 벼슬이 가선대부 숙원 부사이다. 증직 분충찬모정사공신 한성판윤 翼平公이다. 묘는 양평읍 공흥리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南陽洪氏世譜, 洪正杓氏 제공】

홍효창(洪孝昌, 1516- ?)

문신. 자는 百源, 본관은 남양, 洪係江의 둘째 아들이다. 생원시에 합격하고 1522년(중종 17)에 문과에 급제하여 부사를 지냈다. 묘는 양평읍 공흥리에 있다. (양평읍)

【參考資料】南陽洪氏世譜, 洪正杓氏 제공】

여 백



▲심열(1569-1646) 묘 (강상면 세벌리)



▲안광욱(1610-1663) 묘비 (양동면 삼산리)



▲유정(1551-1608) 묘 (강상면 송악리)



▲윤당무(1556-1597) 묘 (양서면 용달리)



▲이지성(1633-1712) 묘 (서종면 도창리)



▲안업(1743-1814)의 『五禮考證』 20책(양동면)



▲장자오(1583-1600) 계미계첩 (장우상씨 소장)



▲경명군 이침(1489-1526) 사당 (강상면 송학리)



▲ 송상인 묘비 (서종면 정매리)



▲ 이유택 신도비 (용문면 조연리)



▲심권(1643-1697) 산도비 (강상면 세밀리)



▲이근원(1840-1918) 친필, 암각문 (지평면 월산리)



▲윤응선(1854-1924) 묘 (강상면 회양리)



▲전낙귀(1859-1923) 묘 (지평면 수곡리)



▲이규제(1631-1690) 묘비 (양서면 신원리)



▲양창식(1909-1983) 용문팔경 시비 (용문산 경내)



▲여운형(1886-1947) 유허비 [양서면 신원리]



▲의병장 이준영(1869-1896) 묘 [양동면 삼산리]



▲의병장 안승우(1865-1896) 묘 (영동면 식곡리)



▲의병장 김백신(? -1896) 묘 (청운면 갈운리)



▲의병장 안종선(1854- ?) 묘 (원주시)



▲홍중보(1612-1671) 묘 (용문면 화전리)



▲이양우(1346-1417) 묘(용문면 조현리)



▲심중겸(1545-1574) 묘(옥천면 아신리)

부 록 [附錄]

1. 양평의 孝子 · 孝節婦 · 烈女 · 忠臣
2. 양평의 獨立有功者
3. 양평의 清白吏
4. 양평의 諡號 받은 人物
5. 양평의 文集을 남긴 人物
6. 文化遺蹟 指定人物

1. 양평의 孝子·孝節婦·烈女·忠臣

◇ 男子 ◇

(74名)

- 權克中 : 安東人, 孝子旌閭, 王子儲傅侍敎官, 서종면
權箕東 : 安東人, 孝子旌閭, 以孝童蒙敎官, 용문면
權順悅 : 安東人, 胡亂時江都殉節, 顯長弟, 서종면
權順長 : 安東人, 胡亂時江都殉節, 서종면
權 燦 : 安東人, 孝子, 箕東子, 용문면
權日華 : 安東人, 孝子旌閭, 以孝童蒙敎官, 용문면
文昌門 : 南平人, 孝子, 以孝禮曹에서 堅碑, 양근
方榮煥 : 溫陽人, 孝子旌閭, 양동면
卞洪九 : 肅陽人, 孝子, 以孝高宗이 표창, 양근
愼光欽 : 居昌人, 孝子, 서종면
愼英連 : 居昌人, 孝子, 서종면
辛貞一 : 靈山人, 孝子旌閭, 강상면
辛 沅 : 靈山人, 孝子, 以孝朝奉大夫, 강상면
梁健植 : 南原人, 以孝贈正憲大夫 공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梁世綱 : 南原人, 孝子旌閭, 용문면
梁 城 : 南原人, 以孝贈朝奉大夫 동봉교관, 용문면
梁 佑 : 南原人, 以孝贈持平, 용문면
梁應源 : 南原人, 孝子旌閭, 용문면
梁弼煥 : 南原人, 孝子, 교부임지순절, 용문면
俞 咸 : 昌寧人, 孝子, 以孝贈通德郎, 강상면
俞德一 : 昌寧人, 孝子, 以孝贈嘉善大夫 戶曹參判, 강상면
柳載厚 : 文化人, 孝子旌閭, 양근
柳重烈 : 文化人, 孝子旌閭, 양근

- 柳弘源 : 晉州人, 孝子旌閭, 以孝贈童蒙教官, 서종면
柳興元 : 文化人, 孝子旌閭, 양근
柳希津 : 文化人, 忠臣旌閭, 양평읍
尹 珙 : 海平人, 孝子旌閭, 강상면
李德秀 : 陽城人, 孝子旌閭, 청운면
李 涉 : 德水人, 孝子, 양동면
李碩基 : 全義人, 孝子旌閭, 서종면
李聖袖 : 陽城人, 孝子, 단월면
李聖迪 : 陽城人, 孝子旌閭, 단월면
李壽俊 : 全義人, 孝子旌閭, 서종면
李源命 : 原州人, 孝子旌閭, 단월면
李翊周 : 陽城人, 孝子, 단월면
李躋賢 : 陽城人, 孝子旌閭, 단월면
李趾賢 : 陽城人, 孝子旌閭, 단월면
李春明 : 全州人, 孝子旌閭, 청운면
任百元 : 豐川人, 孝子旌閭, 양근
張會鎭 : 結城人, 孝子紀行碑, 서종면
趙重和 : 平壤人, 孝子旌閭, 용문면
趙童豪 : 平壤人, 孝子旌閭, 용문면
崔公涉 : 慶州人, 孝子旌閭, 양근
崔匡岳 : 江陵人, 孝子旌閭, 지평면
崔秉培 : 江陵人, 孝子旌閭, 지평면
崔榮錫 : 孝子旌閭, 양근
任○○ : 豐川人, 孝子, 군수표창, 양근
韓復慶 : 清州人, 孝子旌閭, 양근
許 淮 : 陽川人, 孝子, 以孝贈執義, 서종면

◇女子◇

- 金鍾淑 : 孝節婦, 李漢鍾의 부인, 내무부장관 표창.
朴銀熙 : 高靈人, 孝婦, 張基德의 부인, 서종면
李貞子 : 孝婦 孝烈閣, 양동면
李伊蘭 : 李炯의 부인, 孝婦, 孝烈閣, 양동면
函山金氏 : 烈女, 양근
權順長의 부인 全州李氏 : 烈女旌閭, 호란시 從死, 서종면
權氏處女 : 安東人, 順長妹弟, 胡亂時殉節, 旌閭, 서종면
盧 今 : 内수사 奴婢女 = 嬖이 표창함, 양근
童鐵燒의 부인 其母 : 烈女旌閭, 양근
梁鍾運의 부인 昌寧曹氏 : 烈女旌閭, 용문면
呂爾微의 부인 淸州韓氏 : 烈女旌閭, 양서면
柳聖中의 부인 函山金氏 : 烈女旌閭, 양평읍
柳興元의 부인 龍仁李氏 : 烈女旌閭, 양근
李德馨의 부인 韓山李氏 : 王亂殉節旌閭, 양서면
李順命의 부인 王今 : 烈女旌閭, 양근
李龍錫의 부인 韓山李氏 : 烈女, 양서면
李載俊의 부인 安氏 : 孝婦, 양평읍
林之前의 부인 金氏 : 烈女旌閭, 양근
張會顯의 부인 碧珍李氏 : 孝節婦, 서종면
鄭龜河의 부인 延安金氏 : 烈女旌閭, 지평면
鄭百昌의 부인 淸州韓氏 : 烈女旌閭, 양평읍
鄭仁壽의 부인 函山李氏 : 烈女, 감삼면
崔中輔의 부인 東萊鄭氏 : 烈女, 양동면 쌍하리
許 楊의 부인 韓山李氏 : 烈女旌閭, 서종면
洪 潤의 부인 永川李氏 : 王亂殉節旌閭, 양평읍

2. 양평의 獨立有功者

(48명)

- 郭英俊 : 독립운동, 2006년 애국장 추서 <양평읍>
- 權五敦 : 사회주의 운동, 2006년 애족장 추서 <지평면>
- 金極善 : 3.1운동, 1990년 애족장 추서 <지평면>
- 金伯善 : 의병운동, 1991년 애국장 추서 <청운면>
- 金聖化 : 의병운동, 2001년 애국장 추서 <지평면>
- 金英圭 : 3.1운동, 1991년 애국장 추서 <지평면>
- 金永一 : 3.1운동, 1998년 대통령표창 추서 <서종면>
- 金在觀 : 의병운동, 1996년 애국장 추서 <지평면>
- 金鍾學 : 3.1운동, 1990년 애족장 추서 <단월면>
- 羅相弼 : 임시정부, 2002년, 애족장 수여 <양동면>
- 南相喆 : 광복군, 1990년 애족장 추서 <서종면>
- 文成鎬 : 3.1운동, 1995년 대통령표창 추서 <용문면>
- 朴光天 : 의병운동, 1991년 애국장 추서 <양평읍>
- 朴東完 : 독립운동, 1962년 대통령장 추서 <양평??>
- 朴福仁 : 의병운동, 1991년 애국장 추서 <양평읍>
- 卞俊鎬 : 독립운동, 1997년 애국장 추서 <양평읍>
- 孫德化 : 의병운동, 1995년 애국장 추서 <지평면>
- 申德泳 : 광복군, 1990년 애국장 추서 <양평읍>
- 辛錫永 : 3.1운동, 1990년 애족장 추서 <강삼면>
- 申在元 : 3.1운동, 1990년 애족장 추서 <단월면>
- 安基榮 : 의병운동, 1999년 건국장 추서 <양동면>
- 安承禹 : 의병운동, 1962년 독립장 추서 <양동면>
- 安鍾應 : 의병운동, 1999년 건국장 추서 <양동면>

- 梁承萬 : 독립군, 1990년 애족장 추서 <용문면>
梁在殷 : 국내 항일운동, 1990년 애족장 추서 <용문면>
呂光鎰 : 3.1운동, 1995년 대통령표창 추서 <양서면>
呂運亨 : 독립운동, 2005, 대통령장 추서 <양서면>
柳東旻 : 독립운동, 1969, 국민훈장 부궁화장, <양평읍>
尹鐵榮 : 3.1운동, 1995년 대통령표창 추서 <강상면>
尹星七 : 의병운동, 1995 애족장 추서 <양평??>
尹勳勳 : 의병운동, 2006년 애국장 추서 <개군면>
李晚應 : 의병장, 1999 애족장 추서 <개군면>
李輔元 : 3.1운동, 1993년 대통령표창 추서 <강상면>
李聖端 : 의병운동, 1991년 애국장 추서 <지평면>
李承耀 : 의병운동, 2003년, 애족장 추서 <양평읍>
李延季 : 의병운동, 1990년 애국장 추서 <양평읍>
李丙福 : 의병운동, 1995년 애국장 추서 <양동면>
李春明 : 의병운동, 1995년 애국장 추서 <양평읍>
李春永 : 의병운동, 1963년 독립장 추서 <양동면>
李 鏞 : 국내외항일운동, 1991년 애국장 추서 <용문면>
林乙善 : 의병운동, 1995년 애국장 추서 <지평면>
林奎熙 : 국내 항일운동, 1990년 애족장 추서 <양동면>
鄭慶時 : 국내외 항일운동, 1980년 애국장 추서 <양동면>
鄭永淵 : 의병운동, 1991년 애국장 추서 <양평읍>
曹仁煥 : 의병장, 1962년 국민장 추서 <양평??>
崔大鎰 : 의병운동, 1995년 애국장 추서 <양평읍>
崔福鎰 : 국내 항일운동, 1990년 애족장 추서 <용문면>
韓麻羅 : 의병운동, 1970년 애국장 추서 <속천면>

3. 양평군의 清白吏

▷ 高麗朝

咸有一(1106-1185) : 楊根人, 咸德候의 子, 옥천면

▷ 朝鮮朝

柳 寬(1345-1433) : 文化人, 柳安澤의 子, 강하면

鄭昌孫(1402-1487) : 東萊人, 鄭欽之의 子, 양서면

李崇元(1428-1491) : 延安人, 李 補의 子, 옥천면

李浚慶(1499-1572) : 廣州人, 李守貞의 子, 양서면

李濟臣(1536-1583) : 全義人, 李文誠의 子, 서종면

成 泳(1547-1623) : 昌寧人, 成世平의 子, 용문면

李命俊(1572-1630) : 全義人, 李濟臣의 子, 서종면

柳尙運(1636-1707) : 文化人, 柳誠吾의 子, 옥천면

4. 양평의 諡號를 받은 人物

(75명)

- 姜 濬 卿 : 營州人, 文景, 有德의 아들, 옥천면
權 順 昌 : 安東人, 忠烈, 肅己의 아들, 서종면
權 是 經 : 安東人, 靖簡, 順長의 아들, 서종면
金 邁 淳 : 安東人, 文清, 履謙의 아들, 서종면
金 柄 社 : 安東人, 學文, 通根의 아들, 개군면
金 士 衡 : 安東人, 翼元, 藏의 아들, 양서면
金 統 : 延安人, 奉憲, 翼均의 아들, 강하면
金 汝 類 : 延安人, 文翼, 諱의 아들, 강하면
金 迪 根 : 安東人, 文貞, 祖淳의 아들, 개군면
金 履 翼 : 安東人, 簡獻, 山行의 아들, 개군면
金 仁 贊 : 楊根人, 忠愍, 楊根金氏 始祖, 서종면
金 日 知 : 延安人, 文靖, 諱의 아들, 강하면
金 昌 蔚 : 安東人, 文康, 諱恒의 아들, 서종면
金 平 然 : 南原人, 文諒, 聖森의 아들, 서종면
金 何 : 延安人, 清宣, 日知의 아들, 강상면
盧 植 : 交河人, 憲績, 弘祐의 아들, 개군면
閔 台 鎬 : 驪州人, 忠文, 致三의 아들, 지평면
閔 樹 : 驪州人, 文忠, 應協의 아들, 양서면
徐 渚 : 達城人, 忠肅, 嶽의 아들, 양서면
成 誅 : 昌寧人, 襄惠, 世平의 아들, 용문면
朱 寅 : 礪山人, 文端, 之翰의 아들, 지평면
申 井 : 平山人, 直信, 永相의 아들, 지평면
辛 信 : 靈山人, 貞節, 龜夢의 아들, 강상면

- 申孝昌 : 平山人, 齊靖, 璣의 아들, 양서면
 沈 權 : 青松人, 文肅, 熙世의 아들, 강삼면
 沈 岱 : 青松人, 忠壯, 義儉의 아들, 지평면
 沈 悅 : 青松人, 忠靖, 忠謙의 아들, 강삼면
 沈忠謙 : 青松人, 忠翼, 綱의 아들, 옥천면
 安鼎玉 : 順興人, 靖敏, 修默의 아들, 양동면
 梁憲洙 : 南原人, 忠莊, 鍾任의 아들, 단월면
 呂聖齊 : 咸陽人, 靖惠, 爾亮의 아들, 양서면
 呂 嚴 : 咸陽人, 大鏡, ○○○, 용문면
 柳 寬 : 文化人, 文簡, 安澤의 아들, 강하면
 柳鳳揮 : 文化人, 忠靖, 尙運의 아들, 옥천면
 柳尙運 : 文化人, 忠簡, 誠吾의 아들, 옥천면
 柳重教 : 高興人, 文簡, 龜의 아들, 서종면
 俞致善 : 杞溪人, 孝簡, 仁煥의 아들, 서종면
 尹承吉 : 海平人, 肅簡, 弘彦의 아들, 용문면
 尹承勳 : 海平人, 文肅, 弘彦의 아들, 강삼면
 李係孫 : 延安人, 文昌, 淸의 아들, 옥천면
 李箕鎭 : 德水人, 文憲, 箴의 아들, 양동면
 李魯益 : 德水人, 孝靖, 秉模의 아들, 양동면
 李端夏 : 德水人, 文忠, 植의 아들, 양동면
 李 澗 : 德水人, 文穆, 翼鎭의 아들, 양동면
 李德壽 : 全義人, 文貞, 微明의 아들, 서종면
 李德馨 : 廣州人, 文翼, 民聖의 아들, 양서면
 李秉模 : 德水人, 文肅, 演의 아들, 지평면
 李未丁 : 延安人, 平靖, 伯謙의 아들, 옥천면
 李補丁 : 延安人, 純忠, 伯謙의 아들, 옥천면

- 李顯章 : 靈泉人, 威顯, 顯의 아들, 양서면
 李崇元 : 延安人, 忠簡, 龍의 아들, 옥천면
 李 植 : 德水人, 文靖, 安性의 아들, 양동면
 李義祐 : 전주인, 安昭, 元柱의 아들, 양서면
 李 希 : 德水人, 文敬, 神夏의 아들, 양동면
 李元柱 : 全州人, 義平, 承春의 아들, 양서면
 李潤慶 : 廣州人, 正獻, 守貞의 아들, 양서면
 李浚慶 : 廣州人, 忠正, 守貞의 아들, 양서면
 李 忱 : 全州人, 真敏, 성종대왕 아들, 강상면
 李恒老 : 碧珍人, 文敬, 晦章의 아들, 서종면
 李行遠 : 全義人, 重直, 重基의 아들, 서종면
 李好閔 : 延安人, 文儀, 國柱의 아들, 옥천면
 李好敏 : 全義人, 孝獻, 章會의 아들, 서종면
 鄭 暉 : 草溪人, 文肅, 惟誠의 아들, 개군면
 鄭昌孫 : 東萊人, 忠直, 欽之의 아들, 양서면
 鄭 豐 : 淸州人, 文愨, 旣의 아들, 양서면
 趙彦秀 : 楊州人, 貞簡, 방좌의 아들, 강하면
 趙 昱 : 平壤人, 文康, 守의 아들, 용문면
 成 規 : 楊根人, 襄厚, 양근함씨 시조, 옥천면
 成 淳 : 楊根人, 文贊, 有一의 아들, 옥천면
 成有一 : 楊根人, 良敬, 德侯의 아들, 옥천면
 成 赫 : 楊根人, 文簡, 장봉·양근함씨 시조, 옥천면
 洪得宜 : 南陽人, 孝節, 重善의 아들, 용문면
 洪普敬 : 洪州人, 圃證, 延의 아들, 옥천면
 洪重善 : 南陽人, 忠翼, 命善의 아들, 용문면

5. 양평의 文集을 남긴 人物

(65명)

- 姜景敍 : 晉州人, 『草堂集』, 서종면
 權克中 : 安東人, 『楓潭集』, 서종면
 金邁淳 : 安東人, 『臺山集』, 서종면
 金迪根 : 安東人, 『黃山集』, 개군면
 金昌翁 : 安東人, 『三淵集』, 서종면
 金平默 : 靑風人, 『重庵集』, 서종면
 孟英在 : 新昌人, 『九松集』, 양동면
 閔丙承 : 驢興人, 『丹雲集』, 양서면
 朴慶壽 : 潘南人, 『弘庵文集』, 지평면
 朴永韶 : 高靈人, 『耕隱集』, 서종면
 朴元謙 : 務安人, 『恒陽集』, 단월면
 朴峻彬 : 高靈人, 『楊西集』, 서종면
 宋 寅 : 礪山人, 『願庵集』, 지평면(비림)
 愼景尹 : 居昌人, 『明谷集』, 서종면
 愼無逸 : 지창인, 『白淵集』, 서종면
 沈 悅 : 靑松人, 『南坡相國集』, 강상면
 沈忠謙 : 靑松人, 『四養堂集』, 옥천면
 安在默 : 順興人, 『夫溪集』, 양동면
 安承禹 : 順興人, 『下沙集』, 양동면
 安重觀 : 順興人, 『悔窩集』, 양동면
 安 壘 : 順興人, 『竹涯集』, 양동면
 梁昌錫 : 南原人, 『謙齋集』, 용문면
 梁憲洙 : 南原人, 『荷居集』, 용문면

- 呂圭亨 : 咸陽人, 『荷亭集』, 양서면
呂聖濟 : 咸陽人, 『雲浦集』, 양서면
呂贊吉 : 咸陽人, 『春江集』, 양서면
呂爾微 : 咸陽人, 『東江集』, 양서면
柳 寬 : 文化人, 『夏亭集』, 강하면
柳 龜 : 高興人, 『洛廳遺稿』, 서종면
柳重教 : 高興人, 『省齋集』, 서종면
柳重龍 : 高興人, 『靈齋遺稿』, 응문면
尹膺善 : 坡平人, 『晦堂集』, 강상면
李 根元 : 全州人, 『錦溪集』, 지평면
李箕穎 : 德水人, 『牧谷集』, 양동면
李端夏 : 德水人, 『畏齋集』, 양동면
李德壽 : 全義人, 『西堂集』, 서종면
李德馨 : 廣州人, 『滿陰文稿』, 양서면
李命俊 : 全義人, 『潛窩遺稿』, 서종면
李 璉 : 碧珍人, 『黃澗集』, 서종면
李 植 : 德水人, 『澤堂集』, 양동면
李 誦 : 德水人, 『種谷集』, 양동면
李友信 : 德水人, 『圃山遺稿』, 양동면
李潤慶 : 廣州人, 『崇德齋遺稿』, 양서면
李載義 : 全州人, 『栗山遺稿』, 개군면
李濟原 : 全義人, 『清江集』, 서종면
李濟賢 : 陽城人, 『醉菊遺稿』, 단월면
李 應 : 碧珍人, 『槐園集』, 서종면
李汝慶 : 廣州人, 『東阜遺稿』, 양서면

- 李重夏：全州人，「圭堂文集」，양평읍
李之星：咸平人，「白月堂遺稿」，서종면
李趾賢：陽城人，「菊隱遺稿」，단월면
李恒老：碧珍人，「華西集」，서종면
李好閔：延安人，「五峰集」，옥천면
張述欽：結城人，「述軒遺稿」，서종면
張學洙：結城人，「敬窩遺稿」，서종면
張會鎭：結城人，「東零遺稿」，서종면
鄭百昌：晉州人，「玄谷集」，양평읍
鄭 晔：草溪人，「守夢集」，개군면
鄭 摠：清州人，「復齋遺稿」，양서면
趙 晟：平壤人，「養心堂集」，용문면
趙 昱：平壤人，「龍門集」，용문면
千洛龜：潁陽人，「松齋遺稿」，지평면
崔益鉉：慶州人，「勉庵集」，서종면
許 格：陽川人，「滄海集」，서종면
許 櫻：陽川人，「白石集」，서종면

6. 양평의 文化遺蹟 指定人物

- 경기도 문화재 제62호: 柳 寬의 墓, 강하면
경기도 문화재 제89호: 李德壽의 墓及 神道碑, 양서면
경기도 문화재 제92호: 李顯宗의 墓, 양서면
경기도 문화재 제96호: 李俊慶의 墓, 양서면
경기도 문화재 제105호: 李世宗의 生家, 서종면
경기도 문화재 제144호: 李好閔의 謫居의, 옥천면
경기도 문화재 제154호: 姜孟卿의 墓, 옥천면
경기 문화재자료 제18호: 趙 晟의 雲溪書院, 용문면
경기 문화재자료 제18호: 趙亨生의 雲溪書院, 용문면
경기 문화재자료 제18호: 申 林의 雲溪書院, 용문면
경기 문화재자료 제18호: 趙門衡의 雲溪書院, 용문면
경기 문화재자료 제85호: 鄭昌源의 墓及 石物, 양서면
경기 문화재자료 제107호: 金士衡의 墓, 양서면
향토유적 제1호: 李綏祿의 神道碑, 용문면
향토유적 제2호: 趙公權의 墓及 神道碑, 양평읍
향토유적 제3호: 柳希津의 忠臣節門, 양평읍
향토유적 제3호: 善山金氏 烈女節門, 양평읍
향토유적 제4호: 金汝知의 墓, 강하면
향토유적 제6호: 李好閔의 神道碑, 옥천면
향토유적 제7호: 沈忠謙의 墓及 神道碑, 옥천면
향토유적 제9호: 許氏며느라 碑, 옥천면
향토유적 제10호: 李濟臣의 神道碑, 서종면
향토유적 제12호: 朴光謙의 神道碑, 단월면

- 향토유적 제13호: 梁憲洙의 墓, 단월면
 향토유적 제14호: 李春明의 孝子旌門, 청운면
 향토유적 제15호: 鄭在和의 墓, 청운면
 향토유적 제16호: 李 柳의 墓, 맥풍당, 양동면
 향토유적 제17호: 方榮煥의 孝烈閣, 양동면
 향토유적 제17호: 李貞子の 孝烈閣, 양동면
 향토유적 제17호: 全伊蘭의 孝烈閣, 양동면
 향토유적 제18호: 李春永의 墓, 양동면
 향토유적 제19호: 安承禹의 墓, 양동면
 향토유적 제20호: 權景祐의 水谷書院, 지평면
 향토유적 제20호: 權景祐의 水谷書院, 지평면
 향토유적 제21호: 崔匡岳의 孝子旌門, 지평면
 향토유적 제21호: 崔秉培의 孝子旌門, 지평면
 향토유적 제22호: 李 稹의 墓, 지평면
 향토유적 제26호: 趙 炳의 墓, 용문면
 향토유적 제27호: 尹承吉의 墓, 용문면
 향토유적 제30호: 金百知의 墓, 강하면
 향토유적 제31호: 李良輔의 墓及 神道碑, 양서면
 향토유적 제34호: 姜潤興의 善政碑, 지평현감, 지평면
 향토유적 제34호: 金炳怡의 永世不忘碑, 지평현감, 지평면
 향토유적 제34호: 金夏錫의 德愛民善政不忘碑, 지평현감, 지평면
 향토유적 제34호: 金學禮의 永世不忘碑, 지평현감, 지평면
 향토유적 제34호: 閔台鎬의 永世不忘碑, 관찰사, 지평면
 향토유적 제34호: 朴慈仁의 善政碑, 지평현감, 지평면
 향토유적 제34호: 裴 宣의 請德愛民善政碑, 순찰사, 지평면

향토유적 제34호: 宋 押의 橘郡愛民善政碑, 지평현감, 지평면

향토유적 제34호: 李景淳의 德政碑, 지평현감, 지평면

향토유적 제34호: 李道植의 愛民善政碑, 지평현감, 지평면

향토유적 제34호: 李承宗의 永世不忘碑, 지평현감, 지평면

향토유적 제37호: 李端夏의 墓, 양동면

향토유적 제38호: 惠顯翁主, 金仁慶의 墓, 옥천면

출처: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89, pp. 284-285, 406-409.

성명찾아보기

ㄱ 姓氏

강경서	29
강행경	29
강명덕	30
강희립	31
고아장	31
곽영준	31
구시심	33
구수영	33
구송경	34
구연태	34
구원형	34
구인	34
구치홍	35
구호	35
권경기	36
권경우	36
권경유	38
권극중	38
권기동	39
권덕여	39
권상전	40
권선경	40
권성중	40
권순열	40
권순장	41
권시경	42
권오돈	42
권위기	43
권유	43
권일신	43

권일화	44
권엽	44
권중문	44
권진기	45
권질	45
권철신	45
권청기	46
기매	46
김검용	46
김경성	47
김경한	47
김군석	48
김귀용	48
김극개	49
김극빈	49
김극선	50
김기주	50
김기희	51
김노수	51
김당연	52
김도	53
김돌이	53
김만식	55
김매순	55
김민현	56
김백선	56
김병주	59
김시영	60
김상규	61
김상기	62
김상원	62
김선	63

김석규	63
김석봉	64
김선동	64
김성민	64
김성화	65
김여지	65
김영규	66
김영수	66
김영조	67
김용순	70
김용준	70
김원근	71
김유근	71
김윤구	72
김이갱	72
김이기	72
김이원	73
김이익	74
김이중	75
김인경	75
김인성	75
김인찬	76
김자치	76
김재관	77
김재귀부인 백진이씨	78
김재영	79
김재형	79
김정규	80
김정순	80
김정훈	80
김종숙	80
김종학	81
김종후	81
김창흠	82
김지삼	82
김평묵	83

김하	87
----	----

ㄹ 姓氏

나상필	88
나상현	88
남상철	88
남적희	88
노직 ^①	90
노직 ^②	90

ㄴ-ㅇ 姓氏

단의왕후	91
득금	92
맹근집	92
맹면원	93
맹영재	93
맹일호	94
맹주천	95
맹철호	95
문성호	95
문용	96
문창문	97
민병승	98
민심노	98
민암	99
민점	100
민주혁	101
민태오	101
민희	101

ㅁ 姓氏

박경수	103
박경민	103
박공현	104
박광천	104
박규장	104

박동완	105
박만빈	105
박사희	107
박선용	109
박세호	110
박수현	112
박시인	112
박시재	112
박연심	113
박영소	113
박우빈	114
박원겸	115
박운필	115
박인수	116
박재정	116
박정	117
박정화	117
박준빈	118
박준원	119
박중빈 ⁽¹⁾	119
박중빈 ⁽²⁾	120
박태한	120
박필석	122
방무신	122
방영환	122
방종경	123
백지인	123
변사훈	123
변수	124
변연수	124
변종식	125
변준호	125
변홍구	127
보우	127

서상석	129
서석화	129
서성	129
서진이	130
성기열	131
성세평	132
성영	132
손덕회	133
손용문	133
송상인	134
송인	134
숙안공주	135
순정효왕후	135
신경운	137
신광홍	138
신덕영	139
신만	140
신무일	141
신변	141
신사국	142
신석기	142
신석영	143
신석오	143
신석일	144
신성기	144
신성립	144
신성미	145
신세운	145
신순근	145
신신	146
신영건	146
신영상	147
신영세	148
신영준	148
신우균	149
신원영	149

신원화	149
신유	150
신윤종	150
신자근	150
신지수	151
신재원	151
신재익	152
신정일	153
신장면	154
신철구	154
신필무	155
신필응	155
신학인	155
신항	156
신효창	156
심권	157
심녕	158
심대	158
심령	159
심명덕	159
심명석	159
심명엽	159
심열	160
심열태	160
심정희	161
심주	161
심중겸	161
심해	162
심왕	162
심위태	163
심훈	163

○ 姓氏

안광옥	164
안규	164
안기영	165

안덕경	165
안돈	166
안상목	166
안승우	166
안업	169
안재목	170
안정옥	170
안종선	170
안종엽	173
안종응	174
안준옥	175
안중관	175
안우	176
안흥권	176
양건식	177
양건식	179
양경수	179
양규열	179
양문환	180
양빈	180
양선수	181
양성	181
양성환	181
양세강	182
양세순	182
양세현	183
양숙	183
양승만	183
양완	184
양우	185
양유환	185
양웅심	185
양응원	186
양응청	187
양응임	187
양익수	189

양익명	189
양익무	190
양익환	190
양인석	190
양재만	191
양재묵	191
양재수	191
양재은	192
양재익	192
양재철	193
양적수	193
양진	194
양종운부인 창녕조씨	194
양종필	195
양주갑	195
양주겸	195
양주석	195
양주성	197
양주열	198
양주태	198
양주현	199
양주연	199
양창석	199
양척	200
양필환	201
양현수	202
양협	204
양훈	204
양희수	204
여광현	205
여규덕	206
여규제	206
여규영	207
여성구	207
여성재	208
여엄	208

여운경	209
여운명	209
여운중	211
여유길	212
여이징	212
여이징부인 청주한씨	213
여필웅	213
오장문	214
유규	214
유감	214
유건기	214
유관	215
유근태	216
유담	217
유덕일	217
유래원	217
유봉휘	218
유상운	219
유성서	220
유성중부인 선산김씨	220
유재후	220
유정	221
유조	221
유종섭	223
유준석	223
유중교	224
유중룡	227
유지일	227
유치선	228
유홍원	228
유홍원부인 용인이씨	230
유희진	230
윤공	231
윤구	231
윤근	232
윤기영	233

윤담우	234	이노준	257
윤면동	234	이단하	257
윤상기	235	이달	258
윤상룡	235	이당	259
윤성득	235	이대용	260
윤승길	236	이덕수 ¹⁾	260
윤승준	237	이덕수 ²⁾	260
윤신	238	이덕형	261
윤웅신	239	이류	262
윤정	240	이만웅	263
윤종언	241	이만웅	263
윤지성	241	이말정	266
윤집	241	이면하	266
윤창립	242	이명준	267
윤창원	242	이문성	268
윤창영	243	이문호	268
윤치국	243	이민성	269
윤태훈	243	이민욱	269
윤택연	244	이백겸	269
윤팔원	244	이번 ¹⁾	270
이건용	245	이번 ²⁾	270
이경	245	이병륜	270
이경기	246	이병모	271
이경	246	이병원	271
이경엄	247	이보원	272
이계상	247	이보정	272
이계손	248	이복	273
이근명	248	이복경	274
이근원	249	이복영	275
이근홍	252	이사룡	275
이기준	253	이상	275
이기진	253	이상빈	276
이노병	254	이석기	277
이노술	255	이선세	279
이노익	256	이섭	279
이노집	256	이성모	280

이성서	280	이운석부인 김씨	308
이성수	281	이은모	308
이성적	281	이익모	309
이세준	281	이익주	309
이수백	282	이익진	310
이수정	283	이일선	311
이수정부인 평산신씨	283	이자	311
이수준	284	이재복	312
이순명부인 옥금	285	이재의	313
이순몽	286	이재준부인 안씨	314
이승원	286	이적	315
이승룡	287	이정자	316
이승조	291	이정철	317
이식	292	이정호	317
이신하	295	이재신	318
이심 ①	296	이재현	319
이심 ②	296	이재후	320
이안성	296	이종남	320
이양	297	이종순	320
이양신	297	이주영	320
이양우	298	이준	321
이양흠	298	이준경	325
이연복	298	이중열	326
이여	299	이중하	327
이연년	300	이중	327
이예운	300	이지성	328
이오 ①	301	이지연	329
이오 ②	301	이직	329
이홍준	301	이진규	329
이홍재	302	이징명	330
이우분	302	이징하	331
이우신	303	이청	332
이원계	304	이준명 ①	332
이유복	306	이준명 ②	333
이유재	307	이준영	334
이운경	307	이중영	336

이침	337
이택	338
이택신	340
이태영	340
이항로	341
이행건	347
이행원	349
이호민	350
이호민	351
이희장	352
이효할	354
이희여	354
임백원	354
임석지	355
임을선	355
임지연부인 김씨	356
임치훈	356
임호연	357

ㄷ 姓氏

지옥	358
장세철	358
장술우	359
장술흙	359
장시서	360
장자호	360
장집성	362
창취오	362
장학수	364
장희진	368
장희진부인 백진미씨	369
전연보	372
전이란	372
전창식	373
정경신	373
정경시	374

정귀하부인 연안김씨	374
정근웅주	375
정덕희	375
정동십	376
정문덕	376
정백창	376
정백창부인 정주한씨	377
정승조	377
정엽	378
정영운	379
정욱	379
정운득	380
정인교	380
정인수부인 영산신씨	380
정재화	381
정지연	381
정창손	382
정종	383
조공근	384
조덕원	385
조도환	385
조동준	386
조문영	386
조성	387
조승경	388
조승달	388
조안효	389
조역기	389
조연수	389
조영호	390
조욱	391
조운	391
조인환	392
조중희	392
조천주	393
조형생	393

지천	393
진현	394

大 姓氏

전낙귀	395
전후근	396
최경상	397
최광식	398
최광악	398
최기벽	399
최기석	400
최기철	400
최대평	400
최대현	401
최등준	402
최문할	402
최병배	402
최복현	403
최상은	404
최십	397
최세철	405
최수중	406
최영식	406
최용갑부인 동래정씨	406
최용근	406
최우석	407
최유강	396
최익현	408
최준상	412
홍천임씨	412

ㄷ 姓氏

안건	413
안덕이	413
안복경	414
안봉절	414

한상렬	415
한진교	415
한창호	416
함규	416
함순	417
함양응주	417
함유일	418
함역	418
허격	419
허균	421
허씨며느리	422
허직	423
허직부인 한산이씨	423
허외	424
혜순응주	424
홍건	424
홍경창	425
홍계강	425
홍남표	425
홍득기	427
홍필	427
홍봉선	427
홍석귀	428
홍성귀	426
홍순연	429
홍신	430
홍윤	430
홍재철	430
홍중보	431
홍저대	432
홍효손	433
홍효장	433

집필자 약력 · 저서

張 三 鉉

○ 약력

- 한국대학교 교육학석사
- 국립울산대학교 철학박사
- 울산과학기술대학교철학연구소연구원
- 인문문화원 활동사로조사위원
- 대한민국일보 논설위원
- 경원대학교 교수 / 執事

○ 저서

- 국민총력 / 연강과 줄리
- 경제인문학 / 봉산서적 연구
- 파서학과의 역사사상 연구
- 한국전쟁당량정권사학
- 파서학과와 총력포럼학
- 성남장주려살학 / 권력의 시대 외

文 福 嬌

○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문학석사
- 경원대학교대학원 문학박사
- 국립울산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 인문문화원 활동사로조사위원
- 한국어문학 편집위원
- 경원대학교 교수 / 執事

○ 저서

- 한국전쟁사리 이해
- 생활국어의 이해 / 권문과 이해
- 행복한 시인의 시학
- 한국어학과 문학
- 술으로 가리 <시집> 응급매 번역본
- 첫눈이오면 <시집> 외 다수

楊平人物誌

印刷 : 2006年 12月 23日

發行 : 2006年 12月 30日

發行處 : 楊平文化院

發行人 : 金 裕 澤

編著人 : 張三鉉 · 文福嬌

印刷所 : 중앙인쇄소

楊平文化院

京畿道 楊平郡 楊平邑 楊根里 510-1

TEL. (031) 771-3866, 774-3866

FAX. (031) 772-2511

이 책은 楊平 楊平書 京畿文化財團 支援金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비매품)

